차 례

고구려화가 담징

일본 법륭사의 금당에 그린 벽화는 우리 나라 경주 석굴암, 중국의 운강석굴과 함께 동양3대미술품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벽화는 동방미술사는 물론 세계미술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으로서 일본회화사의 첫 폐지를 장식한 력사적인 예술품이다.

이 걸출한 미술작품은 지금으로부터 1 400여년전 고구려의 화가 담징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동양3대미술품중에서 경주 석굴암과 법륭사 벽화 두가지가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되였다는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 아닐수 없다.

모두 12개의 벽면으로 된 금당의 벽화《사불정토도》는 고구려화가 담징이 그린 창작품인데 그중 특히 우수한것은 제6호벽의 《아미타여래상》과 제2호벽의 《일광보살상》이다.

이 그림들은 그린 때로부터 천수백여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여있어 세계적인 보물로, 최고의 미술품의 하나로 여겨왔었다. 그러다가 1949년 1월 26일 법륭사가 불탈 때 이 벽화도 소실되였다.

1968년에 일본의 수많은 일류급화가들이 원상대로 복구한 법륭사 금당벽에 벽화를 다시 그리기는 했지만 원화보다 못하다는것을 그들자신이 인정하고있다.

그러면 그토록 훌륭하고 걸출한 미술작품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

고구려 영양왕21년(610년) 3월, 고구려의 화가이며 승려인 담징은 배를 타고 왜땅으로 건너가고있었다.

순풍이였다.

돛은 바람을 안고 배를 동쪽으로, 동쪽으로 밀어갔다.

하염없이 늠실거리는 물결 저쪽으로 멀어지는 고국산천, 겨레의 땅을 바라보는 담징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그늘이 짙게 어려있었다.

담징과 함께 가는 승려인 법정은 바다바람에 펄럭이는 가사자락을 여미며 까딱도 않고 갑판우에 서있는 담징의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30대의 장정, 준수한 얼굴과 사나이다운 골격, 비록 머리를 깎

고 몸에는 가사를 걸치였으나 고구려사람의 그 장하고 도도한 기상이 그의 온몸에서 풍겨나오고있었다.

팔목에 감은 념주와 손에 든 목탁을 버리고 장검을 비껴들고 철갑의 준마에 높이 앉아 드넓은 광야를 줄달음친다면 틀림없이 세상을 놀래울 장수로 되였을 담징이였다.

그러한 헌헌장부였기에 고국을 떠나 한쪼각의 돛배에 몸을 의지하여 왜땅으로 가는 그의 마음은 밝지 못하였다.

더구나 오래전부터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던 외적이 수백만 군사를 모아 땅과 바다로 고구려를 다시 들이치리라는 흉흉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있는 때에 사랑하는 고구려의 아름다운 강토와 귀중한 그 겨레들을 위하여 성돌 하나 메나르지 못하고 떠나는 그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웠다.

그는 평생에 열망하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자기의 처지가 원통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수 없었다.

왜나라의 거듭되는 초청은 수락되였고 몸은 이미 배에 오른것이였다.

마음속엔 회오리바람이 일었으나 바다바람은 순풍이였다.

3월의 봄별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물결을 늠실늠실 가르며 배는 살같이 왜땅을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왜땅에 배가 닿자 법륭사 주지를 비롯한 관리들이 나와서 담징을 나라지방으로 인도하였다.

낯설은 산천이요 눈설은 사람들이였다.

안개속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산발, 키높이 자란 소나무, 그 울창한 숲속에 왜땅 최대의 사원건축물인 법륭사가 자리잡고있었다.

법륭사!

이 호화롭고 화려한 대불당이 담징으로 하여금 수천리길을 헤치고 이곳으로 오게 한것이다.

법륭사가 이곳에 일떠선것은 왜나라 추고(스이고)녀왕15년(607년)이였다.

당시는 왜나라의 왕인 추고녀왕의 사위 성덕태자가 섭정하던 시기였다.

성덕태자는 우리 나라(고구려, 신라, 백제)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백제와 신라, 고구려에서 여러 부문의 기술자들이 왜땅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보급하게 되였다.

바로 법륭사도 607년에 백제에서 건너간 사원건축미술가들의 집단에 의하여 8년동안에 건설된 왜땅 최대의 사원이였다.

그런만큼 법륭사의 건축양식은 백제의 7당가람의 건축형식을 그대로 닮고있었다.

법륭사는 중심불전인 금당을 비롯한 5중탑, 중문, 회랑 등으로 구성되여있고 강당, 서실, 동실, 북실, 고루, 종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건물들로 화려하고 웅장한 가람(절에 달린 집)을 이루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금당은 가장 화려하고 예술성의 극치를 이루는 중심건물의 하나였다.

그런만큼 이 금당안팎의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일만은 아무에게나 맡길수 없는 일이였다.

왜땅의 승려들과 백제건축가들은 한결같이 불교문화의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고 또 백제와 신라는 물론 왜땅에까지 불교를 전파시킨 고구려의 유능한 예술가만이 이 일을 감당해낼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법륭사가 완공되자 왜땅에서는 유능한 화가를 보내줄것을 고구려에 청탁하여왔던것이다.

담징이 망망한 바다를 건너 법륭사로 온것은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담징은 벌써 서른살전에 불교경전에 능통하고 미술은 물론 채색과 종이, 먹 제조에서 뛰여난 기술을 가진 유명한 학자, 예술가, 기술자로 인정되였었다.

담징이 왜땅으로 오게 된것은 그가 겸비한 이러한 학식과 기술과 예술적재능때문이였다.

…

가을이 깊어가고있었다.

담징이 법륭사에 온지도 어느덧 두해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법륭사의 나무잎은 두번 지고 다시 피였고 이제 세번째 지려고 하고있다.

주변의 뉘엿뉘엿한 야산의 키낮은 나무들이 누릇누릇도 해지고 불긋불긋도 해지는것을 바라보는 담징의 마음은 어느덧 먼 북쪽에 두고

온 고국 고구려에로 하염없이 달려가고있었다.
저 대동강기슭의 아름다운 도읍지 평양성, 모란봉과 대성산의 나무잎도 저렇듯 붉게 물들었으리라. …
소나무수림속으로 천천히 저녁노을빛이 스며들고있었다.
감빛노을을 등뒤에 받으며 승려 한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키낮은 잡관목을 헤치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담징의 깊은 생각을 깨뜨릴가보아 매우 저어하는 기색이였다.
《오— 법정!》
담징은 걸터앉았던 바위돌에서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법정은 나무가지에 걸린 가사자락을 잡아당기며 매우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여기 계신것을… 해종일 보이지 않기에…》
법정은 담징의 어두운 얼굴을 근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담징대사,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게 아니오이까?》
《이 한몸이야 불편한들 무슨 일이 있겠소.》
담징의 눈길은 어느새 숙연한 빛을 띠고 먼 북서쪽으로 향하였다.
법정은 담징의 괴로운 마음을 알고도 남았다.
그와 비슷한 심정을 그자신도 체험하고있기때문이였다.
오늘도 법정은 왜승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금당벽화를 그리겠노라고 약속한지도 한해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손에 붓을 들지 못하는 저 담징대사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승적에도 없는 건달승이 아닌가, 채색이나 종이, 먹 만드는 법은 알지만 그림재간은 없는것이 분명하다. …
이런 소리를 벌써 여러번째 들은 법정은 지금 담징에게 이젠 붓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권고하고싶어 찾아온것이였다.
근엄한 표정으로 이윽히 서있던 담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건달승이란 말은 열백번도 듣겠지만 제 나라를 모르는 승이란 말은 죽어도 듣지 못하겠소. 내 나라 대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을 담징임을 대사도 부디 알아주오.》
이 순간 법정은 두해전에 부두가를 떠나는 돛배우에서 가사자락을 날리며 못박힌듯이 서서 북녘을 우러르던 담징의 거룩한 모습이 다시 보이는듯 하였다.

그리고 그 언제인가 그와 함께 고달픈 먼길을 걸을 때 들꽃이 활짝 핀 산등을 넘으며 《우리는 고구려사람이다. 그러니 부처를 믿어도 고구려를 위해 믿어야 한다. 부처만 알고 제 나라를 모른다면 부처의 종일뿐 고구려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던 담징의 말이 문뜩 귀가에 울려오는듯싶었다.

저러한 담징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법정은 담징과 함께 고구려를 떠난 후 오늘까지 세해 가까운 기간을 지내오면서 그의 고매한 기품과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대고구려의 아들이라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백제와 신라의 여러 절을 순례하면서 고구려의 웅건한 불교예술의 묘미를 가르쳐주기를 1년, 다시 왜땅으로 건너와 왜의 승려들과 공인들에게 종이와 채색, 먹 제조법을 배워주고 고구려의 발전된 기술로 왜땅에 문화의 밝은빛을 던져주기를 거의 2년!

짧은 기간이 아니였고 적은 일들이 아니였다.

더우기 얼마전에 《전애》라는 기계매돌을 만들어 왜땅사람들을 경탄시키던 일은 영원히 잊을수 없었다.

물의 힘으로 제절로 돌아가며 망질을 하는 전애를 보던 왜땅의 백성들은 담징을 《새로 온 고구려스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과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짧지 않은 나날들을 함께 보내면서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법정은 담징의 천재적인 재능을 믿어의심치 않았었다.

그러나 2년이 되여오도록 붓을 들지 못하고 모대기는 담징을 보기가 안타까왔고 잠시나마 왜인들의 뒤소리를 듣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두사람은 어느새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는 수림속을 벗어나와 법륭사로 향하였다.

삐-삐- 새들이 깃을 찾아 분주히 날아가고 우수수- 저녁바람이 소나무가지를 흔들며 불어지나고있었다.

그날밤, 금당안 찬란한 불단앞에는 불이 밝았다. 금당의 화려한 금빛장식이 너울거리는 불길을 받아 더욱 활활 타오르듯 하는데 곳곳에서 왜승들의 목탁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들려왔다.

담징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결엔가 잠결인듯도 하고 현실인듯도 한 꿈의 세계에 파묻혀들어갔다.

…왜승들이 담징을 무섭게 쫓아오고있었다.

검은 장삼자락을 독수리날개처럼 펄럭거리며 달려드는 왜승들의 눈자위에는 살기가 어리고 입에서는 짐승의 소리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화공으로 가장한 건달패!》

《승적에도 없는 거지중!》

담징은 온몸이 격분으로 불화로처럼 달아올랐다. 그러나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발광하는 왜승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금당안팎의 벽면을 바를 때부터 보아왔지만 암둔하고 우매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였다. 《모래에 수사(풀이름)를 섞어 바르거라.》하면 그저 허리를 갑삭거리며 《하이, 하이.》했고 《아마와 풀을 섞어 바르거라.》, 《백토를 칠하거라.》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알려주어야 할바를 알던 그들이였다.

그러나 어느틈에 그 강한 시기심과 야비하고 경박한 본심을 감출수 없어 이렇게 야료를 부리는 무리를 눈아래 굽어보는 담징의 마음속에서는 울분과 수치의 세찬 물결이 홍수치고있었다.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솟고 가슴이 저리고 숨이 막혔다. …

악몽에서 깨여난 담징은 밖으로 나왔다. 아직도 곳곳에서 등불이 너울거리고 왜승들의 목탁소리와 불경읽는 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왔다.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빛나고있었다.

북녘하늘에서 유독 빛나는 밝은 별,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북극성! 그 별이였다.

저 별빛아래서 대고구려의 광대한 령토가 몸부림치며 침략자를 맞받아 일어섰으리라. 아, 부디 승전고를 울려주소서, 이역만리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오게 크게 울려주소서. 부디 울려주소서. 비나이다.

담징이 가슴높이로 쳐들어 합장한 손끝에서는 념주가 별빛을 받아 알알이 반짝이고있었다.

그것은 불전을 향한 념불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뜨거운 마음의 분출이였다.

…

이러한 밤들이 그 얼마를 지났는지 모른다.

가을은 사정없이 깊어가고 밤마다 별빛은 더욱 빛났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담징은 이미 정제해놓은 채색을 하나하나 검사하여본 다음

금당안으로 들어와 흰 비단을 펼쳐놓은듯 하얗게 빛나는, 아직 아무 그림도 없는 벽면에 마주섰다.
장대한 체구가 벽면앞에서 못박힌듯이 굳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어느덧 숭엄한 화폭이 펼쳐지고있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머리속에서 오래전부터 구상되여온 화폭이였다. 빛발치며 너울거리는 환상의 나래는 거침없이 벽면우를 날으고있었다.
이때 누군가 담징의 등뒤로 조용히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비단으로 지은 가사자락이 스치는 가벼운 사르륵소리가 들리였다.
《담징대사!》
옷자락 스치는 소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담징은 말없이 돌아섰다.
법륭사 주지였다.
생불(살아있는 부처라는 말로서 불교의 도를 깊이 닦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불리우는 말수 적고 침착한 백발의 중이였다. 고구려와 고구려문화를 남달리 숭상하는 사람으로서 담징일행에게 불편이 있을세라 처음부터 한결같이 극진한 정성을 보이는 로승이였다.
《담징대사, 기뻐하소서.》
주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있었다.
《기뻐하소서. 고구려에 쳐들어왔던 외적들이 가랑잎같이 흩어졌다고 하나이다.》
너무도 기다려오던 소식이였으나 잘못 들은듯만 싶었다.
《주지님, 확실한 소식이나이까?》
담징은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들고 저도 모르게 다시한번 묻고야말았다.
《확실하나이다. 백제로 갔던 우리 절의 중이 돌아왔소이다. 지난 칠월 스무나흗날에 고구려군사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튿날로 적의 무리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하나이다.
지금 저 반도 세 나라가 온통 기쁨으로 흥성거리고있다는 소식이나이다.》
《주지님, 감사하옵니다.》
담징은 두손을 합장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주지는 손목에 감긴 념주를 매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군사들이 전장에서 대고구려의 영예를 떨쳤으니 대사는 화필로 대고구려의 명성을 떨칠줄 믿소이다. 법륭사에 영광을 베풀어주소서.》

주지는 이런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층계를 내려가고있었다.
담징은 문뜩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눈으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아, 조국은 승리하였구나. 끝끝내 대고구려는 동방강대국의 영예를 떨치였구나. 이제 내 무엇을 아끼고 주저하랴. 대고구려의 빛발로 해외만방을 밝히는 이 성업에 한몸을 바치리라.
어느덧 동녘이 밝아오고있었다.
울창한 소나무숲은 새벽빛을 받아 더욱 푸르렀다.
눈부신 아침해살이 금당으로 쏟아져내렸다.
새들이 우짖고있었다.
《담징대사가 벽화를 그린다!》
소문은 법륭사 드넓은 뜰안으로 바람처럼 떠돌았다.
지나가던 백제건축가들도 왜승들도 주지도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기대와 호기심을 안은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금당안의 동정을 살피였다.
법정이 숭엄한 자세로 문밖에 서서 잡인들의 출입을 엄금하고있을뿐 금당안은 쥐죽은듯 고요하다.
하늘의 해도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건만 금당안은 텅 빈듯, 바람도 드나들기를 주저하는듯 고요하기만 하였다.
들리는것은 새의 지저귐과 간혹 나무잎을 스치고 지나며 소곤거리는 바람소리뿐!
우뢰를 안은듯싶은 침묵, 신비하리만큼 고요한 정적만이 계속되고있었다.
어느덧 밤, 어느덧 새벽, 어느덧 또 아침…
금빛해빛이 금당벽을 어루만져주고있었다.
법정은 이슬에 척척해진 가사자락을 여미며 금당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이때 금당문이 소리없이 열리였다!
벽면을 향해 돌아서있는 담징의 모습이 언뜻 보이였다.
《담징이 벽화를 그렸다.》
어느 사이에 소문을 들었는지 법륭사 주지가 왔다. 뒤미처 왜승들도 하나, 둘 숨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금당으로 모여들었다.
주지가 금당 돌계단에 천천히 올라섰다. 그때까지 등초롱을 들고 그린듯이 서있던 법정은 주지에게 두손을 마주잡아 례의를 표시하고 금

당안으로 안내했다.

담징은 사람들이 들어서는줄도 모르고 금당바닥에 뿌리내린듯이 장대한 체구를 까딱도 않고 서쪽벽면을 향해 서있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한데 옷자락과 손에는 몇점의 채색이 묻어있었다.

금당바닥에도 역시 점점이 채색이 떨어져 꽃떨기를 이루고있었다.

아직도 담징의 모든 정신력은 저 알지 못할 딴 세계에서 떠도는듯 눈빛은 황홀하게 불타는데 얼음같이 창백한 얼굴에선 청렴한 기운마저 풍기고있었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성…

《아, 과연 명화로구나!》

엄숙한 장소인것도 다 잊었는지 누군가 참지 못하고 입속으로 부르짖는 소리였다.

과연 눈앞에 펼쳐진 벽면의 그림은 숭엄한것이였다.

부처(아미타여래)가 련꽃방석우에 앉아있고 그 량옆에 대칭으로 서있는 관세음과 대세지 두 보살.

화려한 벽면의 공간에는 무수한 련꽃송이들이 바람에 날리는듯 가볍게 떠돌아 그윽한 향기마저 풍기는듯…

부처의 부드럽고 근엄한 얼굴표정, 아름답고 고결한 인상의 두 보살상! 입김으로 불어도 금시 하늘하늘 날릴듯싶은 얇은 옷자락, 그밑에서 살아 숨쉬는듯 한 생동한 육체의 모습…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리였다.

풀색, 하늘색, 붉은 감색, 재색을 기본으로 하는 선명한 채색이 진한가 하면 어느덧 연한듯도 하고 두꺼운가 하여 보면 어느덧 투명한듯도 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폭을 웅건한 세계에로 이끌어간것이다.

힘차게 오고간 붉고 검은색의 선에서는 고구려남자의 씩씩한 기상이 그대로 느껴지는가 하면 부드럽고 선명한 색조에는 수려한 고구려풍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실로 그 세계는 불교경전의 환상속에서가 아니라 지상에 구현된 이 벽면속에서 그대로 살아움직이고있었다.

담징의 뒤에 서있던 주지는 벽면에 구현된 이 숭엄한 세계에 도취되여 그만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합장한채 꿇어엎드렸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념불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왜승들도 일시에 주지의 옆과 뒤에 꿇어엎드리며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담징도 조용히 벽면을 향해 꿇어앉았다. 조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마음은 젖어들었다. 외적을 쳐부신 강대한 조국의 승전의 기쁜 소식만 아니였어도 담징은 붓을 들지 못했을것이다. 아니, 담징의 조국에 대한 식을줄 모르는 애정과 고구려사람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들 이 벽면은 흰대로 남아있었을것이였다.
화려하고 웅건한 벽면의 그림, 그것은 곧 담징의 아름답고 고결한 조국애의 넋이였다.
담징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림앞에 꿇어엎드렸다.
그것은 벌써 자기 손으로 그려진 한폭의 그림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고맙고 귀중하고 강대한 조국이였다.
보고싶고 그리운 고향사람들이였고 맡아보고싶은 조국의 꽃향기였다.
그것은 가슴저리도록 듣고싶은 조국의 말발굽소리였고 사품치며 굴러내리는 강물소리였고 광야에 울려퍼지는 랑랑한 뿔나팔소리였다.
누군가 피워놓은 향불이 타오르면서 향기로운 파란 연기가 금당안으로 천천히 퍼져갔다.
가사를 걸친 주지가 어느새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자 누군가 뒤에서 법고(절에서 쓰는 북)를 둥둥 울리였다. 그러자 왜승들이 일제히 일어섰다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절을 하면서 끝없이 념불을 읊조리였다.
그것은 저 반도와 대륙의 광대한 령토를 차지하고 왜땅에 찬란한 문화의 빛발을 던져준 대고구려에 대한 감사와 찬탄과 숭앙의 메아리였다.
향불연기속에서 그 념불과 목탁과 법고소리는 끝없이 울려오고 왜승들의 합장배례도 그칠줄 몰랐다.
그 소리는 금당을 지나 아슬한 탑꼭대기들에 은은히 메아리치고 다시 중문을 벗어나 저 아득한 소나무수림을 지나 온 왜땅으로 서서히 울려퍼지고있었다. 아니, 세기와 세기를 넘으면서 대고구려문화의 자랑을 안고 영원히 메아리칠것이다.

리 성 덕

성 제 대

고려가 송도에 도읍을 정하고 세상에 나라를 선포한지 3년이 되는 경진년(920년)이였다.

고려의 태조인 왕건은 고구려가 이루려다 못 이룬 국토통일의 뜻을 기어이 이루려는 생각밑에 처음부터 주변나라들을 포섭하는데 큰 힘을 기울이고있었다.

그리하여 남쪽의 후백제도 스스로 사신을 보내여 귀한 선물을 바치였고 북쪽의 흑수말갈사람들도 수백명씩 련이어 고려로 귀순해오고있었다.

후백제의 계속되는 칼부림때문에 나라를 부지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신라 경명왕도 반드시 고려와 손을 잡으려 할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그런데 신라에 대하여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있었다.

신라왕실에는 세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겨레의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동방의 강대국을 다시 일으켜세우려는 웅지를 품은 왕건은 이 소문을 흘려보낼수 없었다.

만일 신라가 그 보물을 믿고 완고히 신라 한나라만을 고집한다면 국토통일의 뜻을 펴는데 리롭지 못할것이였다.

어느날 왕건은 신하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신라에 세가지 보물이 있어 나라를 길이 보전하게 한다는데 그를 자세히 알고있으면 누구든 말을 하오.》

한 늙은 신하가 왕앞에 엎드려 아뢰였다.

《소신이 들은바에 의하면 신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보물이란 신문왕(신라 29대왕)시절에 〈만파식적〉(거센 물결을 자게 하는 저대)이라는것이 있었다고 하옵니다. 이 저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물에는 비가 오며 장마에 개이고 바람이 자며 파도가 멎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200여년이 지났으니 그 이상한 저대이야기도 이제 더는 없는줄로 아옵니다.》

왕건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만파식적이 있다는 말은 짐도 이미 들어 아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세가지 보물이란 또 다른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인고?》
《황송하옵니다.》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이때 한 늙은 신하가 룡상앞에 엎드려 아뢰였다.
《소신이 들은바에 의하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긴 하옵니다만 신라에 있는 세가지 보물이란 첫째로 장륙금불상(금으로 만든 부처)이요, 둘째로 9층탑이요, 셋째로 성제대(신성한 임금의 띠)라고 하옵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하옵니다.》
《알겠소.》
왕건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다른 말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해 1월에 신라에서 처음으로 사신이 왔다.
아찬 김률이 신라 경명왕의 축하의 친서를 가지고와서 고려와 서로 교빙하는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한편 장군 윤용의 아들 일강을 볼모로 보내여 굳은 친선과 평화를 약속하자고 하였다.
왕건은 신라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여 일강에게 아찬의 품계를 주고 고려대신의 누이동생에게 장가를 들게 하였다.
신라사신 김률이 너그러운 환대를 받고 돌아가려고 할 때 왕건은 그에게 슬그머니 물었다.
《신라에 세가지 보물인 장륙금불상과 9층탑 그리고 성제대가 있다고 하는데 금불상과 9층탑은 아직 있다는것을 알고있으나 성제대도 그대로 있는가?》
《소신은 아직 성제대에 대해 들은적이 없소이다.》
김률은 엎드려 대답하였다.
그러자 왕건은 껄껄 웃으며 신라사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대가 신라의 고관으로서 어찌 국가의 큰 보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고?》
《황송하옵니다.》
김률은 매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신라로 돌아오자 경명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왕도 성제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있었다.

경명왕은 룡상을 치며 일어섰다.
《성제대라니? 나라에 그런 보물이 있다는것을 과인도 모르고있으니 가히 부끄러운 일이로다.》
경명왕은 즉시 문무백관을 대궐 림해전으로 불렀다.
급히 불리워온 신하들은 호랑이같은 후백제 견훤이 또 쳐들어온줄로 알고 모두가 매우 당황한 기색들이였다.
《제신들은 듣거라!》
이윽고 경명왕은 룡상에 앉아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라에 성제대라는 보물이 있다고 하니 경들은 아는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였다.
《모른단 말이냐?》
다시 묻는 경명왕의 목소리는 울분에 젖어 떨고있었다.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 숱한 국록을 받아먹으면서도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놓인 때 나라를 지켜준다는 보물에 대해서는 그믐밤보다 더 캄캄한 신하들의 몰골이 끝없이 가련하고 한심스러웠다.
아! 군신들이 다 이러하니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어느 나락으로 굴러떨어질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것이고 천년 가까운 신라의 사직이 언제 끊어질지 알수 없게 된것이 아니겠느냐. …
경명왕은 너무도 한심하고 앞일이 막막하여 룡상에 앉은채 눈물을 흘리였다.
보물을 찾지 못한때문만도 아니요, 무능한 신하들과 망국의 임금으로 남을것 같은 자신의 운명이 걱정스러워서만도 아니였다. 이미 하늘이 신라를 저버리였으니 숨 끊어지는 나라를 살려낼 힘을 그 어디서도 바랄수 없게 된것이 더없이 원통하였다.
임금이 눈물을 흘리는것을 본 한 신하가 더는 입을 다물고있을수 없었던지 룡상앞에 엎드리였다.
《전하! 황송하오나 성제대란 신성한 임금이 쓰던 띠라는 뜻이오니 성군(신성한 임금)들의 옛 기록을 찾아보면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가 하옵니다.》
《흥! 성군이라고?》
왕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천년 가까운 신라왕실에 언제 성군이라 이를만 한 임금이 있었더냐.
저 유리니사금때부터 벌써 왕은 쉰네번이나 바뀌였다. 26대 임

금인 진덕녀왕까지는 성골이라 하여 그 혈통을 신성시하지만 신성한 것이란 눈꼽만큼도 없었다.

뼈다귀 귀한것만 보고 궁실에서 고이 자란 보잘것 없는 계집아이들을 룡상에 앉혀놓고 선덕녀왕이요, 진덕녀왕이요 하면서 만조백관이 그앞에 무릎을 꿇게 한것이 다 신라의 골품제도가 낳은 전고에 없던 희한한 일일뿐이였다.

27대 임금인 태종무렬왕부터 지금까지 임금은 모두 진골이라 부르는데 역시 성군이랄만 한 임금을 꼽을수가 없다.

무렬왕만 보더라도 이웃한 겨레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당나라에 빌붙어 겨레에게 화를 끼치였고 (라당련합군이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것) 49대 임금인 진성녀왕은 하늘아래 둘도 없이 음탕하고 추잡한 시정의 녀인에 불과하였다.

그래 누구를 성군이라 이른단 말이냐. …

왕은 룡포를 떨치며 룡상에서 일어섰다.

《옛 기록들을 빠짐없이 살펴보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에 널리 알려 보물의 행처를 급히 찾도록 하라!》

왕은 진노하여 내전으로 들어가버리였다.

이리하여 온 신라땅이 쑤셔놓은 벌의 둥지처럼 웅성거리며 성제대라는 보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궁궐안의 대신들과 력사 맡은 사관들은 눈이 빠지게 옛 문서들을 뒤지였고 각 주, 현의 도독, 태수들은 물론 산골절간의 중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제대를 찾아 분주히 발을 놀리고 입을 놀리며 생각을 굴리였다.

성제대를 찾는데 성의를 보이는 사람이라야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의지심이 높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수 있었다.

밭갈던 농부들도 이 소문을 듣고 이마의 땀을 훔치면서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그 보물을 찾으면 백성들이 잘사는 태평세월이 온다는 말은 없던가?》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런 말은 듣지 못했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궁궐대문앞에 늙은 중이 나타났다.

먹베장삼에 가사를 엇메고 한손에는 륙환장, 다른 손에는 반들거리

는 념주꿰미를 든 늙은 중…
차림새는 그저 소박하다기보다 껍질을 벗긴 말쑥한 삼대처럼 하얗고 맑았다.
《소승이 성제대의 행처를 알고있으니 임금께 품달하여주사이다.》
수문장이 이 말을 대궐에 전하자 임금은 급히 늙은 중을 맞아들이였다.
늙은 중은 왕앞에 정중히 읍을 하고 아뢰였다.
《소승은 황룡사에 적을 둔 이름없는 승이온데 듣건대 전하께서 찾으신다는 성제대는 바로 진평대왕께서 띠시던것으로서 지금까지 400여년간 남고(남쪽창고)에 보관되여있다고 하옵나이다.
진평대왕께서는 신체가 장대하신 성골출신의 임금이기에 그 띠를 성제대라 이름하였는데 그후 나라의 보배로 널리 소문이 났고 대를 이어 전해내려오던것이옵나이다.》
《그게 사실이냐?》
《어느 앞이라고 소승이 감히 헛된것을 아뢰겠나이까. 이제 남고를 열고 보시면 알것이옵나이다.》
늙은 중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계속하였다.
《소승이 감히 아뢰고싶은것은 그 성제대가 전대 임금께서 후세에 끼치신 유물이라 귀한 물건인것만은 사실이오나 그 역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놓은 사치한 물건에 지나지 않사오니 어찌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보물로 삼을수 있겠소이까.
소승은 불가(불교)의 몸이지만 유가(유교)의 말을 빌어보아도 이것은 알수 있소이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제후(일정한 령토를 가지고 그 령토를 다스리는 작은 나라의 임금)의 보배가 셋인바 토지, 백성, 정치라 하였고 옛글에도 씌여있기를 〈이 땅에 보물로 칠만 한것이 없으나 오직 선을 보배로 삼는다.〉고 하였소이다.
천하와 만민이 혜택을 입을만 한것이라야 곧 보배라 할수 있을뿐 그밖에 또 무슨 보배가 있사오리까! 굽어살피소서…》
경명왕은 속으로 흠칫 놀랐다.
임금이 찾는 보배가 결국 보배가 아니라는것이요, 옛사람의 말과 옛글을 빌어 은근히 오늘의 정사를 비난하는것이였다.
왕은 늙은 중을 아니꼽게 내려다보다가 느닷없이 호통을 뿜았다.

《그대는 감히 그런 말을 지껄이기가 두렵지 않은가?》
《황송하오이다. 충신은 죽어도 바른말을 하다 죽으며 임금을 충간(잘못을 고치도록 충고하는것.)하지 못하는 신하는 충신이라 할수 없다는 말이 있기에 소승이 전하께 감히 참람하기 그지없는 말을 아뢰였으니 천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
늙은 중은 엎드려 죄주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죄를 주기에는 너무도 늙었다고나 할가 아니, 살아있다고 해도 그림자조차 남길것 같지 않은 늙은이여서 죽음이 벌로 되지 못할것이고 사는것이 또한 빛으로 되지 못할 형편이였다.
경명왕은 그만 죄줄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이렇게 물었다.
《그대가 지금 몇해를 살아오느뇨?》
《황송하오나 분명치 않사옵니다. 》
《그게 무슨 소린고?》
《소승이 아흔을 넘긴줄을 안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일뿐이오이다. 이승살이가 끝나면 또 저승살이가 있으니 소승은 구태여 나이를 헤여두지 않소이다. 》
《허허허, 괴이한 승이로구나!》
경명왕은 껄껄 웃고나서 늙은 중이 비록 무엄한 말을 지껄이기는 하였으나 성제대가 있는 곳을 알려준 공이 있으므로 후히 상을 주어 보내라고 분부하였다.
그러나 황룡사의 늙은 중은 왕이 내린 상을 사양하고 소리없이 대궐밖으로 사라졌다.
이튿날 신하들은 보물이 보관되여있다는 남고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남고가 어느곳인지 알수가 없었다.
진평대왕이래 근 400여년간 여러 십리 둘레의 드넓은 궁성안에 새로 지은 집이 얼마이고 불탔거나 헐어버린 집이 또 얼마인지 누구도 헤아릴수가 없었다.
여러날 옛 문서를 뒤지고 왕궁에서 늙어온 내시들과 무수리들을 들볶은 다음에야 궁담 남쪽구석에 있는 거의다 쓰러져가는 낡은 창고가 곧 남고라는것을 알아냈다.
여러 백년간 사람이 다니지 않아 마당에 난 풀은 처마밑까지 자라오르고 깨여진 기와짬에 난 풀은 하늘을 가리워서 땅인지 지붕인지 가려볼수 없을 지경이였다.

좀먹은 창고문에는 다섯근짜리 청동거북자물쇠가 걸렸는데 시퍼런 녹물이 덕지덕지 말라붙어있었다.
궁노 몇사람이 길길이 자란 풀을 대강 베여눕히고 길을 내자 왕이 보물을 꺼내는것을 보기 위하여 친히 거둥을 하였다. 하늘은 당장 소나기를 퍼부을듯 침침히 흐렸다.
이윽고 건장한 궁노 한사람이 천천히 창고문으로 다가가더니 거북자물쇠를 도끼등으로 힘껏 내리쳤다.
《쾅! 저르르― 징징―》
문짝이 열리고 기둥이 떨리고 썩은 처마끝에서 흙덩이가 와르르 탕탕! 굴러떨어지고 놀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듯싶은 긴 울림소리가 창고안에서 웅웅거리였다. 그 무엇인지 신음소리를 지르는것만 같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시에 공포의 그림자가 스쳐지나갔다.
왕도 해쓱해진 얼굴을 들고 황급히 신하들을 찾았다.
《어찌하여 나라의 보물을 위하는데 도끼를 쓴단 말이냐?》
《황송하오이다.》
한 신하가 엎드려 아뢰였다.
《잠근지 여러 백년이 지난지라 열쇠를 찾을 길이 없사와 도끼를 쓰게 하였소이다.》
왕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렇다면 소란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분부를 하면서도 왕은 근심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겁에 질려 서있던 궁노는 오래동안 주저주저하다가 청동열쇠를 다시 조심스레 내리쳤다.
《절컥!》
다섯근짜리 청동거북자물쇠가 땅바닥에 뚝 떨어졌다.
이 순간 흐린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시퍼런 번개불이 벙긋하더니 뒤이어 하늘이 무너지는듯싶은 천둥소리가 터졌다.
《짜르릉!…》
처마끝에서 기와 몇장이 우두둑 떨어지는 찰나에 도끼를 든 사나이가 그 자리에 덜컥 기절해 넘어졌다.
《어이쿠!》
《귀신의 작간이로구나!》

여기저기서 신하들의 비명소리가 울리는데 교자에 앉은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대왕전하! 하늘의 뜻을 거슬린듯 하오니 후날을 기하는것이 마땅하올줄 아옵나이다.》

왕은 신하들의 말을 좇아 급히 가마에 올라 궁궐로 들어가버리였다.

이때 《쏴—》하고 들어붓는듯싶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성제대를 끝내 꺼내지 못하고말았다.

청동자물쇠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천둥소리가 터지고 번개가 일어나고 겁에 질렸던 사람이 그만 기절해 넘어진것은 참으로 공교롭기 짝이 없는 우연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우연으로 하여 왕은 물론 여러 신하들까지 모두 성제대라는것이 과연 하늘이 아는 신령스러운 보물이라는것을 굳게 믿게 되였다.

경명왕은 며칠후 날을 골라 다시 남고에 나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하늘과 신령앞에 제사를 지낸 후 창고문을 열게 하였다.

수백년간 열어보지 못한 문이 비로소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열리였다.

두꺼운 문짝에서는 허연 좀똥이 눈처럼 부슬부슬 떨어지고 싸늘하고 매캐한 묵은 먼지냄새가 확 풍겨나왔다. 당반우에 얹어놓은 어떤 물건이 어슴푸레 들여다보이였다.

두껍게 내려앉은 먼지와 저절로 죽어떨어진 부나비와 좀벌레들의 잔해를 털어버리자 번쩍거리는 금띠가 나타났다.

옥으로 장식을 하고 금을 새겨붙인 열발이나 되는 긴 띠였다.

예순두개의 순금으로 만든 띠돈(장식품)이 눈부시게 번쩍거리였다.

왕은 네번 절을 한 후 띠를 옥교에 받들어싣고 대궐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성제대는 다시 신라왕실의 제일가는 보배로 궁중에 소중히 보관되였다.

왕은 물론 문무백관이 다 이 금띠가 나날이 기울어져가는 신라를 구원해주리라는것을 믿으며 남모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였다.

그런데 3년후 경명왕은 이 금띠의 덕을 별로 보지도 못한채 한생을 마치고말았다.

《성제대를 길이 간수하면 왕실은 무궁하리라.》는 한마디 유언을 동생 위응에게 남기였다.

그리하여 위응은 왕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였는데 그가 신라 54대의 제왕들중에서 가장 불행하게 최후를 마친 경애왕이였다.

북쪽에서 고려라는 강대한 나라가 반도를 제압할 기세로 일어서고 서쪽에서 후백제가 사나운 호랑이처럼 날뛰는 가운데서 경애왕은 처음부터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신라의 룡상을 지키고있었다.

그러나 선왕이 물려준 성제대의 덕분이였던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

불안하던 마음이 점차 가라앉자 왕의 마음속에는 저도 모르게 성제대를 믿는 어리석은 생각이 가득해지기 시작하였다.

고려와 화친을 통하여 그 힘을 빌리고 당나라에 수치스러운 조공이나마 충실히 바쳐 신라왕실을 길이 인정받으며 성제대를 깊이 간수하여 잃지만 않는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것만 같았다.

하지만 경애왕이 룡상에 앉은지 4년만인 927년 11월, 이 모든 어리석은 환상은 깨여지고말았다.

왕이 비빈들과 숱한 궁녀들을 데리고 포석정에 나가 술과 노래로 질탕한 향락의 한때를 즐기고있을 때 뜻밖에도 후백제 견훤이 사나운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이닥쳤던것이다.

환락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죽음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비단을 찢는듯 한 궁녀들의 비명소리, 그릇이 깨여지고 잔치상이 엎어지는 소리!

당황한 왕은 왕비를 옆에 끼고 급히 달아나 남쪽별궁안에 숨고 왕을 시종하고있던 신하들과 궁녀들은 모조리 잡히고말았다. 잡힌자들은 대신이건 궁녀이건 너나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백제군사들의 먼지오른 발밑에서 벌벌 기면서 노복이 되겠노라고 빌었다.

별궁에 숨어 떨고있던 왕과 왕비도 끝내 끌려나오고야말았다.

견훤은 신라왕의 룡상에 높이 올라앉아 통쾌하게 웃었다.

《백제왕국의 원한을 풀어볼 때가 드디여 왔구나.》

그리고는 다시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다.

《이 간사한 신라놈들때문에… 부끄럽게도 라당군(신라와 당나라련합군)의 더러운 칼끝에 나라를 망치고 머나먼 당나라 이역땅에 끌려가 불행한 한뉘를 마치신 의자대왕마마!

2백 60여년만에 대왕의 천추에 잊지 못할 치욕을 오늘 견훤이 비로소 씻어드리나이다.》

견훤은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발밑에서 떨고있는 무리들을 쏘아보았다.

《당나라군사를 끌어들여 겨레의 나라인 고구려와 백제를 망치였을

뿐아니라 외세의 발길이 아직 닿아보지 못한 이 땅을 더럽히고 겨레의 머리우에 무서운 치욕의 불꾸레미를 들씌운 이 신라놈들!》

이를 갈며 부르짖던 견훤은 단검을 뽑아서 엎드려 떨고있는 경애왕의 머리맡에 절컥 내던졌다.

《망국지주(나라를 망친 임금)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스스로 죽기를 강박하는 호령이였다.

경애왕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견훤의 피에 젖은 절규를 듣고나자 오늘의 이 참담한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지 않을수 없었던 신라왕실의 수치스러운 진면모를 눈앞에 보는것만 같았다.

《아, 하늘의 뜻이로구나. 이 지경에 이르러 누구를 탓하랴.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른것이어니…》

경애왕은 누구에게 쫓기는듯 황급히 단검을 주어들고 그 시퍼런 날을 가슴에 대였다.

《대왕마마! 이 무슨 변이오니까? 부디 성체를 보존하소서!》

뜰아래 쓰러져있던 신하들과 왕비와 궁녀들의 비통한 통곡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통곡으로 구할수 없는 나라의 운명이요, 임금의 생명이였다.

경애왕은 칼을 가슴에 박고 쓰러지는 순간에 문득 성제대가 생각키웠다.

(아, 성제대란 참말 사람의 손으로 꾸며놓은 한갖 사치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가, 아니… 벌써 적의 손에 들어가 령험을 잃은것일가?)

누렇게 황이 든 마가을의 락엽 몇잎이 경애왕의 시체우에 후두둑 떨어져내렸다.

…

신라왕실을 마음껏 짓밟고난 견훤은 경애왕의 아우벌되는 김부를 왕으로 세워 나라일을 맡도록 한 후 온갖 보배와 보물들을 모조리 걷어싣고 후백제로 돌아가버렸다.

새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경순왕—김부는 경애왕의 시체를 수습하여 남산 해목령에 장사지낸 후 불타고 무너진 궁궐을 수리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허물어진 집자리를 파헤치다가 잃어진줄 알았던 성제대가 그대로 남아있는것을 찾아냈다.

너무도 깊이 간수했던탓에 견훤의 군사들이 손을 대지 못한채 금궤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던것이다.
경순왕은 신하들이 바치는 성제대를 두손으로 받아들었다.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였다.
이것이 과연 장차 신라를 구원해줄것인가. 경애왕이 자결을 하고 신라왕궁이 불타고 재물이 략탈당할 때 입을 다물고있은 이 성제대!
믿고싶고 또 그것밖에는 믿을것이 없었지만 믿을수 없고 또 믿어서는 안되리라는 깨우침이 무서운 우뢰처럼 마음속으로 굴러지나갔다.
하지만 경순왕은 성제대를 깊이 간수해두었다.
그 역시 성제대의 구원을 바라고 그렇게 했을가?!
딱히 알수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후인 931년 2월 고려왕 왕건을 수도 경주에 초청하여 극진히 맞이한것을 보면 그의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있었던가를 엿볼수 있는것이다.
경순왕은 왕건을 만나고난 후 많은것을 깨달았다.
고려왕은 우선 인품이 인후하고 너그러웠다. 아니, 그보다 고려라는 나라는 그 기상이 자못 씩씩하였고 그 품은 뜻이 장하고 아름다왔다.
성제대에 운명을 걸고 나라를 부지하려고 헛되이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겨레를 묶어세워 동방의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고려의 뜻을 받들어 힘을 합치는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일이였다.
경순왕은 드디여 그후 4년만인,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른지 9년만인 935년 10월 드디여 고려에 귀순할것을 결심하였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귀순의 뜻을 말했을 때 백관이 모두 별로 다른 뜻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왕위를 계승할 태자만은 천년의 사직을 어찌 남의 발밑에 그렇게 내던지겠느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왕궁을 떠나버렸다.
걸인처럼 삼베옷을 입고 개골산(금강산)으로 들어가 망국신라를 조상하면서 외로운 한생을 마친 이 왕자를 력사에서는 마의태자라 전해오고있다.
경순왕은 이해 11월에 드디여 귀순의 길에 올랐다.
태자가 가버린 오솔길이 아니라 력사의 순리를 따라 단풍이 붉게 타

는 큰길로 나서서 백관을 거느리고 고려로 향하였다. 향나무로 꾸민 짐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0여리 길에 뻗어있었다.

신라경내에서는 신라백성들이, 고려경내에서는 고려백성들이 길가에 하얗게 나서서 화려한 이 행차를 구경하고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속에 신라왕실에서 수백년간 간수해오던 성제대라는 보물을 실은 짐수레도 행렬가운데 끼여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신라가 력사에 자기 존재를 마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사람들의 생각속에서도 신라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가고있었다.

그사이 고려왕이 지어준 《신란궁》이라는 화려한 별궁에서 고려왕의 맏딸인 락랑공주를 안해로 삼고 정승의 높은 벼슬과 년 1천석의 록봉을 받으며 살고있던 경순왕의 마음속에서도 신라는 점차 사라져가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금궤속에는 아직도 성제대라는 신라의 금띠가 남아있었으니 이것은 신라 천년사직을 상징하는 마지막표적이였을는지도 모른다.

이해 937년 5월 어느날 김부는 고려왕에게 그 성제대마저 바쳐버리고말았다.

신라가 고려에 바칠수 있는 마지막것을 바친것이였다.

성제대를 받아든 고려태조 왕건은 감개무량한듯 금띠를 바라보았다.

《오, 그 보물이 바로 이것이였더냐? 신기한 금띠가 신라에 있다 하더니 참말 있었구나!》

왕건은 앞에 엎드린 김부를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았다.

《이 보물은 아직도 있는데 어찌하여 그대의 왕실은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졌소?》

《황송하오이다.》

김부는 비감에 잠겨 부르짖었다.

《우리 왕실이 천심을 잃고 민심을 사지 못하였으니 어찌 빈 허울만 남은 보물로 진한 목숨을 구제할수 있었겠소이까.》

《지당한 말씀이요. 세상에 제일가는 보배는 하늘의 뜻이고 백성들의 마음인줄로 아오. 오늘 비로소 하늘이 도와 국토를 통일하고 겨레를 한강토에 묶어세웠으니 이것이 또한 다시없이 귀중한 보물일것이요. 이제부터는 이 보물을 후세 영원히 지켜나가야 이 나라는 길이 빛

날것으로 아오.》

《명철한 말씀이옵니다.》

김부는 물론 문무백관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이였다.

이윽고 왕건은 원윤(벼슬이름) 익훤이라는 사람을 불러 신라의 성제대를 주면서 물장고(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에 보관하라고 분부하였다.

이리하여 성제대는 고려왕궁에 남아있게 되였다.

이후로는 이 성제대를 다시 찾는 사람도 없었고 본 사람도 없었다. 력사기록에도 더는 찾아볼수가 없다. …

그러면 성제대는 어떻게 되였을가?

누구도 모른다.

추측들은 많다.

1010년(고려 현종1년) 외적 거란이 개경을 일시 점령하고 불을 지를 때 궁궐과 함께 없어졌으리라는 추측이 그중 제일 그럼직한것이라고나 할가.

하여간 수백년간 여러 나라와 여러 임금과 수십의 왕대를 걸쳐 전해오면서 력사의 풍운을 낱낱이 겪던 성제대라는 보물아닌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끝이 나고말았다.

리 성 덕

징벌의 검

비인현 도둔곶사건

아직은 깊은 밤…

몰려드는 졸음을 참느라고 하나둘 발자욱을 세여가면서 바다가 모래불을 스적스적 걷던 늙은 군사는 엎어놓은 쪽배앞에 이르자 창대를 움켜쥔채 거기에 기대여 주저앉아버렸다.

비릿한 물냄새, 찰싹찰싹 기슭을 치는 물결소리, 닻을 내린 병선들의 삐걱이는 소리는 피곤에 몰린 군사를 꿈나라에로 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멀리서 말발굽소리가 들리더니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가 어둠속에서 불쑥 나타났다.

그는 거침없이 다가와 드렁드렁 코를 골고있는 군사의 어깨를 힘껏 흔들었다.

화닥닥 놀란 늙은 군사는 창대를 쥐여뿌리고 펄쩍 일어났다가 황급히 허리를 굽혀 다시 창대를 걷어쥐였다. 호랑이같은 조비장이 코앞에 떡 버티고 선것이였다.

《이게 무슨 꼴이냐?》

추상같은 호령에 늙은 군사는 기가 질려 화들화들 떨었다.

《악착하기 그지없는 왜적들이 우리 허실을 내탐해가지구 도적고양이모양 소리없이 기여드는데 간데마다 이 꼴들이니 창검을 든 군사가 이래야 하겠느냐? 다시한번 내 눈에 뜨이는 날이면 사정없이 목을 칠터이니 그리 알어라!》

늙은 군사는 조비장의 호령에 무릎을 꺾고 고개를 푹 숙였다.

《고맙소이다. …》

조비장은 가슴에서 괴여오르는것을 꿀꺽 삼키며 홱 돌아서서 철버덕철버덕 걸어갔다.

《웃물이 흐리니 아래물이 맑을수 있을가!》

그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한탄하였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조천구는 이곳 충청도 비인현(오늘의 충청남도 서천군) 도둔곶방비를 맡은 무관의 한사람인 비장이였다. 그래서 모두들 조비장이라고 불렀다. 조비장우엔 도둔곶의 방비를 책임진 만호가 있다.
대바르고 용감한 조비장은 이 만호를 제일 미워하였다.
눈두덩이가 늘 부어있고 볼편이 축 처진 만호는 심술이 사납고 욕심이 많은자였다.
코밑진상과 권모술수로 만호자리를 따낸 그는 이곳 방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배만 채우려들었다.
훈련을 받아야 할 군사들을 내몰아 농사를 짓고 꿀벌을 쳤으며 병선들을 내몰아 도미를 낚고 굴을 따들였다.
《우리 나라에 병선이 600여척이요 수군이 오만이라 왜구가 감히 우리 나라를 범할가.》
만호는 이렇게 뇌까리군 하였다.
사실 그때 우리 수군은 급격히 강화되여 왜구가 그전처럼 덤벼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만호따위의 자들은 방비를 소홀히 하고 흥청거리며 놀아댔다.
《실로 한심한 일이로다. 이런 때 왜구가 들이닥치면 어찌하랴.》
조비장은 한숨을 쉬였다.
그는 동이 터오는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1419년 5월 5일은 여느때나 다름없이 조용히 밝아왔다. 그런데 이날 일이 벌어질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도둔곶의 허실을 내탐한 왜구는 이 새벽에 50척의 배를 몰고 불의에 들이닥쳤다.
비인성안팎은 발칵 뒤집히였다.
수백명의 왜적들은 바다가에 매여놓은 병선들에 불을 지르고 곧장 비인성으로 달려들었다.
갑자기 달려든 왜적무리에게 한풀 꺾이워 우거지상이 된 만호는 허둥거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왜적들은 악착하게 덤벼들었다. 싸움에 이골이 난 놈들인데다가 그 수가 비인성군사들보다 몇곱절 많았다.
하지만 이곳 군사들은 조비장지휘하에 죽기내기로 싸웠다.
성가퀴에 기대여 전장을 살피던 조비장은 왜적우두머리놈을 찾아 활

줄을 당겼다.
  적장이 단살에 꺼꾸러지니 적들은 오합지졸이 되여 갈팡질팡하였다.
  이때 서천군과 람포진의 군사들이 비인성을 도우러 달려왔다.
  해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다리야 날 살려라고 앞을 다투어 도망쳤다.
그날부터 이레가 지난 5월 12일 또다시 황해도 연평곶사건이 일어났다. 짙은 안개속에 숨어 연평곶에 기여든 왜구는 연평곶 군사들을 에워싸고 식량을 내라고 행패질을 하였다.
  놈들은 쯔시마에 둥지를 튼 왜구였다. 원래 땅이 척박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치게 된 놈들은 우리 나라에는 감히 기여들지 못하고 명나라로 해적질을 가던 도중 길량식을 구하러 기여들었던것이다.
  이놈들 역시 비인성에 덤벼들었다가 쫓겨간 놈들이였다.
  수십년동안 성화를 먹이던 왜구의 소행으로 보면 이 두 곶의 란은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지만 나라안은 벅적 끓었다.
  조정에서도 5월 13일과 14일에 왜구를 칠 본격적인 공론이 벌어졌다. 왜구들을 어떻게 칠것인가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왜구의 소굴인 쯔시마를 치기로 결정이 되였다. 리종무를 3도도체찰사로, 그밑에 좌, 중, 우 3도수군절제사와 여러 장수들을 임명하고 6월초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병선 200척을 견내량에 집결시키기로 하였다.
  쯔시마공격은 시간문제였다.
  징벌의 검은 왜구의 머리우에서 번뜩였다.

악착하고 검질긴 왜구떼

  1419년 쯔시마원정의 직접적동기는 이처럼 비인현 도둔곶사건이라고 할수 있지만 맺히고 얽힌 력사는 퍽 오랬다.
  왜구가 우리 나라 바다에 대대적으로 침입해오기 시작한 경인년(1350년)으로부터만 꼽아도 70년의 력사를 거슬러올라가야 한다.
  14세기 중엽 일본의 대소봉건령주들은 오랜 내전에서 입은 손실을

회복하고 로동력과 식량을 얻기 위하여 해외에로의 침략을 꾀하게 되였다.

한편 일본 혼슈지방에서 급속히 장성한 상인들과 내란과정에 몰락하여 무장강도—산적과 해적이 된 하층무사들이 또한 해외로 마수를 뻗치려 하였다.

이리하여 막부의 통제밖에서 할거하던 봉건령주들의 비호와 조종밑에 치부에 혈안이 된 상인들과 살인, 략탈에 이골이 난 하층무사—사무라이들이 해외침략에 나섰는데 이것이 바로 왜구였다.

왜구란 말은 왜놈도적떼를 이르지만 보통 14～15세기의 일본해적이란 말로 통하고있다.

경인년(1350년) 2월 왜구떼가 돌연히 경상도 바다가에 대대적으로 나타나 야수적이고 파괴적인 략탈만행을 개시한 그때로부터 왜구의 검질긴 침략이 시작되였다.

처음엔 남해안을 소란케 하더니 마수를 더욱 뻗쳐 서해안 철산바다에까지 깊숙이 기여들었고 동해안으로는 북청, 리원앞바다에까지 나타났다.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됨에 따라 왜구는 늘어났고 바다가 고을들만 략탈하던 놈들이 수백척의 배를 몰고 수천수만명씩 들이닥쳐 내륙지방에까지 더러운 략탈의 손길을 뻗쳤다.

당시 고려의 북방정세가 긴장하여 병력의 거의 전부가 서북과 동북지방에 나가있는 틈을 노린 교활한 놈들은 남쪽으로 기여올라 백성들의 재물을 략탈하고 바다가의 조세운반선들을 털어갔다. 그리하여 해안지대의 기름진 농경지가 묵어나고 농민들이 제고장을 뜨는 비참한 상태가 빚어졌다.

고려인민들은 가증스러운 왜구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1364년 5월 진해현전투와 1376년 7월 홍산전투에서 고려군대와 인민들은 수천의 왜구를 섬멸하였다.

고려봉건정부는 침입한 왜구를 맞받아 싸우도록 하는 한편 왜나라와의 외교교섭을 통하여서도 이를 막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군건설이 벌어졌다.

수많은 병선이 무어졌고 바다가와 섬인민들로 수군이 편성되였다. 최무선의 제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고 화약무기가 대대적으로 만들어

졌다.

1380년 우수한 화포를 실은 100여척의 병선으로 편성된 고려함대는 금강하구인 진포에 침입한 500여척의 해적선에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 모조리 불살랐다.

그리고 살아남아 룩지에 오른 놈들은 전라도 운봉에서 완전히 섬멸하였다.

그후 제해권을 틀어쥔 고려수군과 인민들은 1383년 박두양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구를 무찔렀다.

1389년 2월 100여척으로 구성된 고려함대는 박위의 지휘밑에 왜구의 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하여 300척의 배와 해안시설을 모조리 불사르고 붙잡혀갔던 고려사람 100여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고려수군의 쯔시마공격이 왜구들을 얼마나 혼비백산케 하였는가 하는것은 그후 투항해오는 왜구들이 늘어나고 고개를 숙이고 무역하러 오는 일본봉건령주들의 사절들과 상인들의 수가 점차 늘어난데서도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봉건정부에서는 무역을 허락하는 회유정책을 쓰면서 수군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아갔다.

왜구는 감히 우리 나라의 연해에 기여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419년 5월 비인현 도둔곶사건이 벌어졌다.

실로 왜구는 악착하고 검질긴 도적의 무리였다.

도적의 소굴을 치다

조천구는 며칠전 비인성 도둔곶을 떠나 냉이포(창원)로 왔다.

그가 비인성에서 쉽게 자리를 뜬것은 그곳 만호와 의가 맞지 않는데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여러해 무관으로 살아온 그는 보다 큰 사변을 예감하였다.

왜적의 소굴을 쳐야 한다는 백성들의 원한과 봉건정부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느꼈던것이다.

(왜적들의 소굴을 치는데 내 한몸 아낌없이 바치리라!)

그는 이런 결심을 안고 부랴부랴 냉이포로 왔다. 그의 예감은 틀린것이 아니였다.

조천구는 아침에 수십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포구로 나갔다.

냉이포에는 아직도 숨어사는 쯔시마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1389년 고려함대의 쯔시마공격후 봉건정부에 애걸복걸하여 건너와 살기 시작한 왜인들이였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연해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풍기를 문란케 하는 등 폐단을 보이였다.

봉건정부에서는 왜인들이 영포(울산)와 가배량(통영)에 설치된 왜관에서만 살게 하였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있었다.

조천구는 포구에 살고있는 왜인을 깡그리 찾아내여 깊은 산속으로 보낼데 대한 봉건정부의 임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항하는자는 요정을 내도 일없다는 담보도 받았다.

포구가 가까와질수록 조천구는 긴장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쯔시마원정을 결심한 봉건정부는 그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하려고 애썼다. 조천구네가 하는 일처럼 포구에 살고있는 왜인들을 내륙지방으로 옮기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에 와있던 일본령주들의 사신들과 상인들을 억류하였고 귀순해온 왜인들의 출입도 단속하여 원정의 소문이 쯔시마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다. 섬을 불의에 기습하려는것이였다.

봉건정부는 또한 각 포구와 해안의 방비를 빈틈없이 하기 위하여 바다가 고을원들을 무관으로 바꾸고 병선들도 중요한 곳에 집중배치하였으며 하번갑사로부터 재인, 화척, 일수(지방관아의 심부름군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싸울만 한 사람들을 네 교대로 나누어 해안을 지키게 하였다. 드디여 1419년 6월 17일 227척의 병선, 1만 7천 285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조선함대는 리종무의 지휘하에 거제도를 떠났다. 그러나 바람이 사나와 일단 되돌아왔다가 19일에 그곳을 다시 떠나 20일 낮에 쯔시마의 쯔찌요리(두지포)앞바다에 이르렀다.

한편 함대가 떠날 때 규슈탐제의 사절들만은 돌려보내여 이번 원정의 목적이 쯔시마를 치는데 있는것이며 규슈는 다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였다.

규슈지방 봉건령주들이 조선함대의 쯔시마원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질겁하여 쯔시마를 도와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쯔찌요리앞바다를 덮으며 함대가 포구에 접어들자 왜구들은 벌거숭이꼴로 바다가에 밀려나와 배들을 기다렸다.

조선함대가 쳐들어올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왜인들은 명나라로 해적질을 갔던 제놈들의 동료들이 돌아오는줄 알았던것이다.

검을 틀어쥐고 놈들의 꼴을 바라보던 조천구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떠돌았다.

《이놈들! 한칼에 요정내리라!》

그의 가슴에선 피가 끓었다.

대를 두고 우리 나라 바다가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도적들이였다. 이제는 놈들의 소굴을 짓부시고 복수의 창검을 휘둘러대리라 생각하니 두팔의 힘이 솟구치고 용기가 났다.

기치장검이 대숲처럼 설레이는 병선들이 포구에 닿자 왜적들은 넋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달아났다.

그제야 모든것을 알아차렸던것이다. 반항해나서는 놈들도 적지 않았다. 조천구는 뭍에 발을 옮겨놓으며 덤벼드는 놈들에게 화살을 날렸다.

병선들이 닿고 기세충천한 군사들이 뭍에 오르며 놈들을 족쳐대기 시작하였다. 창검이 번뜩이였고 흙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왜적들이 꼬꾸라졌다.

쯔찌요리포구의 놈들은 죽고 사로잡히고 도망쳐버렸다.

사로잡힌 왜구들이 리종무의 진막으로 끌려왔다.

상투를 뒤통수에 붙인 왜적들은 무릎을 꿇고 두손을 싹싹 비비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이놈들, 듣거라!》

리종무의 호령은 추상같았다.

《살인과 로략질에 이골이 난 왜구를 징벌하기 위해 오늘 조선함대가 도적의 소굴을 치게 되였노라!

흉악무도한 쯔시마도주에게 한시바삐 졸개들을 거느리고 나와 이 검앞에 무릎을 꿇도록 일러라!》

왜적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깊이 숨어버린 도주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왜구의 소굴에 대한 소탕전이 벌어졌다. 왜구들의 배 150척을 나포하여 불사르고 왜구의 집 2천여호를 불살랐으며 수백의 왜구를 요정내였다.

조선함대의 불의의 공격에 혼비백산한데다가 식량도 못 가지고 뿔뿔이 도망쳐 숨어버린 놈들은 하나둘 투항해나왔다. 쯔시마도주놈도 하는수없이 손을 들고 나왔다.

리종무는 도주에게서 다시는 우리 바다에 얼씬하지 않겠다는 대답

을 받고 7월 3일 원정함대를 거느리고 거제도로 돌아왔다.

왜구의 주력이 명나라로 로략질을 갔기때문에 놈들을 깡그리 소탕하지는 못했지만 이 도적의 소굴에 대한 공격은 은을 내였다.

두차례나 호된 불벼락을 맞은 놈들은 함부로 우리 나라 바다에 덤벼들지 못하였으며 쯔시마에 살고있던 왜구는 그후 다른 섬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바다가는 한결 조용해졌으며 백성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였다.

쯔시마원정은 조선인민은 남을 건드리지 않지만 우리 나라를 침입하는 원쑤들은 철저히 징벌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림 왕 성

최무선이야기

때는 1350년 고려 충정왕2년이였다.

이무렵 한때 잠잠하던 왜구들이 우리 나라 남쪽항구들을 불의에 침습하여 수많은 재물들을 략탈하군 하였다.

장계(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서면으로 왕에게 보고하는것)를 지닌 급사는 개경으로 달렸고 원한에 찬 인민들의 목소리는 나라안을 뒤숭숭하게 하였다.

고려봉건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포왜사를 임명하여 군사와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사신을 왜의 아시가까막부(무인정치를 보던 기관)에 보내여 단속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매우 형식적이며 불철저한 방법이 아닐수 없었다. 사실에 있어서 포왜사가 거느리고 내려간 군대라는것은 우선 수효가 적었을뿐아니라 무기력한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정작 필요한 인원수와 무장은 현지의 인민들속에서 대부분 충당하기마련이였다.

정부의 이와 같은 무성의와 무능력은 까닭없는 일이 아니였다. 당시 즉 고려 말엽의 봉건통치배들은 모두 대지주였으며 그 많은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비들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 노비들이 군대로 징발되는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규군은 보잘것없이 되였고 더우기 수군은 거의 명색뿐인 형편이였다. 통치배들은 이처럼 한심한 국방상태에는 아랑곳없이 일신의 안일과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있었다.

최무선은 일찍부터 나라의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근심과 울분을 품고있었다. 부친 최동순은 겨우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낮은 위치에 있었고 무선도 역시 미미한 관직에 있는 처지인지라 뜻이 있으되 시원히 말도 못하고 항상 우울하게 지낼뿐이였다.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도 림시로 편성된 군대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은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지켜 왜구들을 맞받아싸워 크게 이기군 하였다.

이에 바빠난 왜구들은 전술을 바꾸어 고려군대가 있는 곳을 미리 정탐하고 교묘하게 피해가며 침습해왔다.

놈들은 오늘은 남쪽, 래일은 서쪽 하는 식으로 방비가 약하거나 없는 곳을 골라가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오만무례하고 잔인한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아시가까막부에 담판하러 갔던 사신들은 매양 뜨뜨미지근한 대답을 듣고는 흐지부지 돌아오군 하였다.

당시 아시가까막부는 사실에 있어서 자기 나라의 해적들을 단속할만 한 능력도 없었을뿐만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략탈행위를 비호해주는 형편이였다.

최무선과 같은 당년 25살의 뜻있는 청년이 이와 같이 어지러운 나라의 형편에 대하여 결코 무심할수 없었던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였다.

최무선은 포왜사가 거느린 군사의 행렬이 멀리 굽인돌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래주고있다가 행렬의 마지막사람도, 그 기발과 창끝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가 눈물을 흘린것은 다만 먼길을 떠나는 친구와의 석별의 정에서가 아니라 요즘 류달리 어지러워진 나라의 형편을 근심하는 마음에서였다.

어두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무선은 집사람들의 의아해하는 눈초리도 아랑곳 않고 자기 방에 들어앉아 생각에 잠겼다.

(우리 나라에 무엄하게 침노하여 온갖 살륙과 로략질을 다하는 왜놈들을 어떻게 물리칠것인가?)

이때 대문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부친이 돌아온것이였다.

무선은 황망히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부친은 미리 돌아와있는 아들을 쳐다보고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례사롭게 말하였다.

《원나라 교역선이 들어왔다. 너도 래일 새벽에 례성강포구로 나가야겠다.》

무선은 부친의 이 말을 듣자 지금까지 자기가 곰곰히 생각하던것이 바로맞아떨어지는데 놀랐으며 한편 그것이 무척 기뻤다.

그는 혹시 원나라사람을 만나면 화약을 만드는 비법을 알아낼수가

있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례성강포구에 나가 여러번 원나라 사람과 만나보기도 하였었다. 그들에게서 화약이라는 위력한 보물에 대하여 알아내고싶었던 까닭이다. 당시 원나라에서는 화약을 만들고 그것을 화통에 리용함으로써 자기 나라 령해에 침입한 왜구들을 물리치였다.

그때 고려조정에서는 사신을 원나라에 보내여 화약과 화통의 제조법을 가르쳐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것은 극비라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무선만은 계속 대륙에 다녀온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알아보기도 하였고 중국에서 교역선이 올 때마다 포구에 나가 물어보군 하였다. 그런데 누구 하나 화약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설혹 중국사람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손치더라도 알려줄리는 만무하였다. 만약 비밀을 루설한것이 발각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나라의 국법에 의하여 중한 형벌을 받게 될것이기때문이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화약을 얻고 화통을 장만하기 전에는 왜구를 막을수 없으며 나라와 백성을 편안히 할수 없다.)

무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는 뒤짐을 지고 깊은 생각에 잠겨 달밝은 뜨락을 거닐었다.

송악산에서는 산새들이 유난히도 구슬피 울어 그의 가슴을 더욱 타들게 하였다.

(나의 지성을 알아줄 사람을 만날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시 자기 나라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것이다. 왜구란 우리 나라의 적만이 아니라 원나라의 적이기도 하지 않는가! 가슴을 헤치고 나서면 반드시 귀인을 만날것이다!)

무선은 이런 생각을 하며 좁은 뜨락을 한동안 오락가락하였다. …

례성강포구는 당시 배길을 통하여 대륙과 무역하는 유일한 항구였다.

중국의 상선은 서해를 곧장 건너 우리 나라 서남단에 이르러서부터는 해안을 끼고 거슬러올라 개경의 문어구라고 할수 있는 이 례성강포구에 닻을 내리군 하였다. 상선들이 들어올 때에는 개경에서 관속들과 군대와 일군들이 모여들었고 구경군들도 근방에서 떨쳐나와 낯선 외국의 배와 사람들 그리고 진귀한 상품들을 구경하느라고 법석대였다.

최무선은 미미한 관리인지라 정부대표들의 뒤를 따라 흥성거리는 사

람들사이를 거닐면서 자기와 가슴을 헤치고 말할수 있을 사람을 찾느라고 애쓰고있었다.

여러척 되는 배의 갑판에 올라 외국상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물건구경을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을 보았으나 어쩐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배에서 상품구경을 끝내고 내리려 할 때에 무선은 선실에서 나와 선수쪽으로 사라지는 한사람에게 눈이 갔다.

무선은 배에서 내려 다시한번 돌아보았다. 그 사람은 배머리에 기대여 경치를 바라보고있는듯 하였는데 그의 훤한 얼굴이며 단정한 몸가짐과 침착한 눈매가 미덥게 보였다.

그러나 무선은 일행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날수밖에 없었다.

무선은 시간을 타서 다시 부두에 나가 그 배를 눈여겨보았으나 그 청년은 어디에 배겨있는지 통 볼수가 없었다.

최무선이 그 청년과 마주앉게 된것은 저녁해가 뉘엿뉘엿 먼 서해의 수평선에 떨어질무렵이였다.

무선은 해안을 거닐고있는 그를 따라가서 통성을 하고 물거품이 발밑에 밀려드는 바위돌에 앉아있었다.

《고려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리원이라고 하는 그는 온 누리가 빨갛게 노을에 물든 먼바다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오늘따라 류달리 아름다운 바다이다. 둥근해가 미끄러져들어가는 바다는 한층더 밝았는데 어선 한척이 가물거리며 돌아오고있는 광경은 그 어느 재간있는 화공도 그려내지 못할것 같았다.

그러나 무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럽히는 무리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아니, 그건 또 어떤 놈들입니까?》

《그 발칙한 왜구들이지요.》

《왜구!》

리원은 입속으로 외우고나서 《모조리 씨를 말려버려야지요.》하고 말했다.

무선은 자기가 예상한대로 상대가 이야기에 끌려들어오는것이 기뻐서 《듣건대 당신의 나라에선 화약과 화통으로 왜구를 물리쳤다던데?…》하고 리원의 눈치를 보았다.

아니나다를가 리원은 경계하는 빛이였다.
《그렇습니다.》리원은 간단히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두사람의 대화는 잠시 끊어졌다.
무선은 이 기회를 놓칠가봐 겁이 났다. 그래서 간절한 음성으로 다우쳐물었다.
《나는 당신이 당신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두 나라가 다같이 당하고있는 일을 두고 기탄없이 말해보고싶습니다.》
《다같이 당하고있는 일이요?》
리원은 다소 정색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왜구를 화약의 힘으로 물리쳤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두번다시 침노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리원은 다시 이야기에 끌려들었다.
《우리 나라에는 화약도 없고 하여 왜구를 막는 일이 그때그때의 미봉책으로밖에 되지 못하는터이나 그처럼 굉장한 힘을 가진 화약만 있으면 놈들을 뿌리채 뽑아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채 뽑는다구요? 물론 그랬으면야 좀 좋겠습니까. 그러나 놈들의 본거지는 우리 나라에서 멀뿐만아니라 나라에 내란도 있고 해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생각이 계신지요?》
한순간 리원의 생각깊던 눈이 밝게 빛났다.
무선은 기뻐서 다가앉으며 말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구는 우리 두 나라의 공동의 적이니만치 어디까지나 손을 합하여 쳐야 합니다. 놈들의 본거지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울뿐만아니라 잘 알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립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화약이 없단 말씀이지요?》
리원은 무선의 말허리를 끊으며 얼른 물었다.
《그렇습니다. 일찌기 원나라에서 그 비법을 전수(지식이나 기술기능 같은것을 가르쳐서 넘겨주고 익혀주는것)받고저 하였으나 극비로 취급하므로 어쩔수 없었습니다. 원나라의 도성과 귀인들은 대륙깊이 있는지라 왜구의 피해를 덜 받았으니 우리의 이 절실한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선은 숙연히 말을 끊었다.
또다시 두사람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한참 지나 리원이 무엇을 결심한듯 결연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뜻을 알만 합니다. 당신네 나라에는 화약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이 없고 우리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비로 되여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공동의 적을 물리치자면 반드시 화약도 함께 리용해야겠으나 사정이 이러하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나에게 화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목숨으로 비밀을 지키리다!》
무선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다.
리원은 놀라서 한참동안이나 상대의 눈을 뚫어지게 보다가 말했다.
《나도 화약을 만드는 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남들이 수상히 생각할테니 그만 이곳을 떠납시다.》
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최무선은 밤을 타서 몰래 리원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가족들에게 엄격히 비밀을 지키도록 한 후 주안상을 갖추어 각별히 대접을 하고나서 이슥한 방에 조용히 마주앉았다.
두 나라 청년은 한결같이 왜구를 무찌를 이야기에 마음이 통하였다.
그러나 리원은 화약을 만드는 전과정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본시 염초상인이기때문에 염초를 구워내는 방법밖에는 알지 못하였던것이다.
리원은 말을 마치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높으신 애국지성에 반하여 내가 도와드리는것이 너무 적다보니…》 하고 손을 잡고 진실로 미안한 뜻을 보이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크게 힘이 됐습니다. 나는 반드시 나머지 방법들도 연구하여 화약을 만드는데 성공하고야말겠습니다. 왜구의 씨를 없애고야말겠습니다.》
두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밤가는줄을 몰랐다. …
다음날부터 최무선의 고난에 찬 연구가 시작되였다.
염초는 수월히 얻을수 있었다.
그는 자기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집들의 마루밑을 뒤져서 하얗

게 깔려있는 먼지들을 긁어모았다.
이렇게 모은 먼지를 물에 탄 다음 한참 끓여서 남는것이 곧 염초로 되였다.
이 성공은 무선에게 커다란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화약을 만드는데 있어서 초보적인것이였다. 어려운 일은 앞에 있었다.
무선은 희망을 가지고 차츰 본격적으로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화약을 기어이 만들 작정으로 자기 집의 방 한칸을 내였으며 이러저러한 실험도구들을 고안하였다. 무선은 관청의 일이 끝나기 바쁘게 돌아와서는 이 방에 들어박혔고 그야말로 오직 한가지, 화약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정열을 기울였다.
부친 최동순과 집안사람들은 물론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다.
어린 아들과 젊은 하인은 하얀 먼지와 류황, 반묘 등을 구해오기에 분망하였다.
무선은 염초에다 류황, 반묘 등과 불이 잘 붙는 물질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합해보면서 실험을 거듭하였다.
그의 피타는 노력으로 화약연구가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일무렵 왜구들이 례성강을 거슬러올라오면서 옹진지방에 불을 지르고 략탈을 감행하였다. 개경의 바로 턱밑까지 기여든 왜구의 만행은 인민들을 불안케 하였으며 뜻있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놓았다.
무선이또래의 젊은이들은 앞을 다투어 방어군에 참가하여 평양성으로 향하였고 또 어떤 패들은 례성강으로 달려나아갔다.
무선도 물론 그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자기가 고심하던 연구를 잠시 중단하고 직접 손에 칼을 들고 왜구와의 싸움에 나설것을 결심하였다.
무선은 집을 떠나기 앞서 자기 청춘의 온 정열이 스며있는 그 방에 오래동안 앉아있었다.
(지금 당장은 나라가 위급하니 연구는 중단할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나라를 위한 일이니 떠나야 한다!)
이윽고 무선이 떠날 차비를 갖추고 나섰다.
무선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집안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무선의 어머니와 안해는 몇번이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무선을 포함한 고려측 2만명의 방어군은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

으며 왜구들중에서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목숨만 붙어서 도주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던 왜적들은 짧은 시일내에 격퇴되였다.
조정에서도 겨우 한숨 돌릴수 있었고 인민들도 죄였던 가슴을 풀어놓을수 있었다.
무선은 집에 돌아온 이튿날부터 화약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깊은 밤 실험에 지쳐 피곤할 때나 실험에서 실패하여 앞이 막막하게 생각될 때마다 자기가 직접 보고온 마을과 인민들의 참상을 회상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군 하였다.
불타고 허물어진 오막살이, 참혹하게 죽은 늙은이와 젊은 아낙네들, 철없는 어린애들의 시체가 눈에 삼삼하였고 그들모두가 하루바삐 화약을 만들어 왜적을 물리쳐줄것을 부탁하는것 같았다. 그때마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자세를 바로잡군 하였다.
이럴 때면 조수의 역할을 하고있던 심부름군 돌쇠도 젊은 주인의 내심을 알아차린듯 졸리는 눈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무선의 얼굴을 쳐다보군하였다.
《돌쇠야, 먼저 자거라.》하고 무선이 낮게 말하면《아직 괜찮사와요.》 하는 돌쇠의 역시 낮은 대답이 매일같이 반복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물거리는 불길과 물끓는 소리와 이상야릇한 냄새로 가득찬 속에서 번번이 동창에 아침해를 맞이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그들은 폭발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여러가지 실험을 하던중 난데없이 펑 하는 폭발소리와 함께 불이 벙끗 일어났던것이다.
돌쇠는 그 순간 깜짝 놀라 궁둥방아를 찧고 나가넘어져서 눈정신을 잃었다. 집안사람들도 모두 놀란 얼굴로 모여들었다.
모두들 겁을 먹은듯 들여다보는 방안에서 무선만은 희색이 만면하여 들뜬 소리로 웨치였다.
《성사요! 성사! 인젠 알았소!》
집안사람들은 혹시 정신이상이 되지나 않았나 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실험기구들이 뒤죽박죽이 된 방안은 불빛이 어슴푸레한데 한사람은 죽은듯 나가넘어져있고 또 한사람은 전에 없던 큰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무슨 짐승이 썩은것 같은 고약한 냄새가 풍기

는데는 그만 얼굴을 돌리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였다.
부친은 침착히 방안으로 들어와서 무선에게 물었다.
《그래, 성사됐다는 화약이 어느것이란 말이냐?》
《인젠 없습니다. 벌써 날아가버렸습니다.》
무선은 그때야 옷깃을 여미고 공손히 대답하였다.
《날아가버리다니?》
《터졌습니다. 그러나 근심마십시오. 인젠 화약의 근본을 알아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만드는 법을 알았단 말이냐?》
《네, 물론 아직 첫걸음입니다. 그게 정말 화약이라면 그만한 소리만 나겠습니까. 집채도 떠나갈판인데요.》
《뭐, 이 집채가 떠나간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린 돌쇠가 불쑥 말참견을 하는 바람에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와 안해는 또다시 돌아서서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였다.
다음날부터 무선의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다. 그는 어제 폭발한 정도의 화약을 손쉽게 만들어낼수 있었다.
(인젠 확실하다. 문제는 이 폭발의 힘을 더 강하게 하면 될것이다!)
무선은 피곤한줄 몰랐다.
이제 이 일이 크게 성사만 되는 날이면 간악한 왜적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것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날 눈쌓인 송악산에 난데없이 봉화가 올랐다.
(국난이다!)
최무선은 동창을 열고 이 봉화를 복잡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조정에서는 급기야 방어군을 편성하여 안우, 정세운 두 장군으로 하여금 적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흉악무도한 적은 닥치는대로 략탈, 살륙하며 쳐들어오고있었다.
당황한 고려조정은 남아있는 군대를 급작스레 죄다 동원하였다. 군대가 아닌 인민들도 수많이 자진하여 나아갔다.
무선의 친구들도 군대에 나갔으며 무선도 다시 칼을 잡기로 결심하게 되였다.

두번이나 연구를 중단하게 된 무선의 마음은 무거웠다. 완전한 화약을 제조하고 화통을 비롯한 각종 화약무기를 만들어낼 희망으로 분망하던 나날은 졸지에 먼 옛날처럼 멀어지고 눈앞에는 준엄한 현실이 벌어진것이다.

무선은 화약을 만들어내여 적을 막는데 쓰지 못하고 또 연구를 중단하게 되는 자기의 처지에 화가 났다.

(나라가 중한가? 화약이 중한가?)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을 오래 끌 필요가 없었다. 그는 먼저번 왜적의 침입시에도 그렇게 하였고 또한 그렇게 한것을 후회한적이 없었기때문이였다.

무선은 어린 아들과 함께 연구에 사용하던 기구들과 실험중이던 각종 원료들과 어느 정도 된 갖가지 색의 화약들과 문서며 일기장들을 차근차근 싸고 묶어서 외딴 곳에 깊이 간직하였다. 어떠한 재화가 미치더라도 이것만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였으며 설혹 자기가 비명에 죽는 한이 있어도 적에게 빼앗기지 않고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를 계속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무선은 어린 아들을 앞에 앉히고 엄숙하게 말했다.

《만약 내게 잘못이 생겨 살아생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이 아비의 뜻을 이어 반드시 화약군기(전쟁에 쓰는 병기)를 완성해야 한다.》

《네, 꼭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굳은 결심이 담겨있었다.

무선이 출전한지 얼마 안있어 해적들은 사나운 짐승의 무리처럼 개경으로 밀려들어왔다.

놈들은 거리의 집들에 불을 질렀으며 재물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죄없는 인민들을 함부로 살해하는 등 갖은 만행을 다하였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약 한세기만에 두번째의 참혹한 파괴를 당하였다. 불길과 검은 연기는 거리에 차고 놈들을 저주하는 인민들의 원성은 송악산에 메아리쳤다.

인민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20만의 방어군이 편성되였으며 모두 용감하게 싸웠다.

안우, 리방실, 최영 등은 서로 긴밀히 련합하여 물샐틈없이 개경을 포위하였다.

그들은 개경의 삼면만을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들은 삼면으로 쳐들어오는 우리 군사를 막을길 없어 열어놓은 한쪽의 출로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놈들을 추격하여 섬멸하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였다.

적들은 감쪽같은 방어군의 계략속에 들어서 보기 좋게 섬멸되였다.

이리하여 2개월간 적들에 의하여 강점되였던 개경은 해방되였다.

적을 추격하여 멀리 변경에 이른 무선은 2년동안 방위초소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였다.

적을 물리쳤으나 그동안에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고 개경인민들의 생활은 곤궁하기 그지없었다.

무선의 집도 다를바가 없었으며 더우기 인자하고 리해깊던 부친과 사랑하던 한 아들은 란리통에 세상을 떠났다.

거처할 집도 화약연구에 쓸 방도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감추어두었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만은 남아있었다. 모든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그는 다시 관청에 나가게 되였다. 그러나 나라에서 받는 록으로써는 집 한칸 마련하기 어려웠고 연구를 위한 비용을 짜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였다.

무선은 푼전을 아끼여 연구를 계속하였다. 끼니를 건늴 때도 빈번하였으나 그는 그런것에는 아랑곳없이 화약제조에만 몰두하였다.

이무렵 도탄에 빠진 민정을 수습함으로써 고려왕조의 중앙집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민왕은 신돈이란 중을 내세워 정사를 맡아보게 하였다.

공민왕이 신돈을 환속(낡은 사회에서 중이 된 사람이 다시 일반사회사람으로 되는것.)시켜 정사를 맡긴데는 리유가 있었다.

신돈은 출신이 미천하기때문에 능히 귀족량반을 반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리라는 타산과 그가 가진 얼마간의 명망이 인민들로 하여금 조정을 깊이 신뢰케 하리라는 기대에서였던것이다.

사실 신돈은 공민왕의 타산대로 행동하였다.

그는 우선 대토지소유자이며 대대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소위 세신대족(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세력있는 귀족)들을 단호하게 왕정내에서 내쫓았다.

동시에 전민변정도감이란 기관을 설치하고 대농장주들이 탈취하

였던 토지들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으며 토지를 빼앗기여 노비로 떨어졌던 사람들을 량민으로 도로 세워주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신돈은 한동안 인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이 봉건사회의 기본모순을 해결할수는 물론 없었으며 당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수도 없었다. 더우기 신돈의 극단적인 정치는 많은 세신대족에게 극도의 미움을 사지 않을수 없었다. 일단 민심을 기만하여 수습한 공민왕도 다시 세신대족의 편으로 기울어졌다. 신돈은 결국 그들에게 참살을 당하였다.

이러한 때에도 무선의 화약연구는 계속되였으며 곤난한 형편도 완화되지 않았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울 때 량반귀족들은 외적방비는 생각지 않고 자기의 개인리익에만 눈이 어두워있었다. 그 당시 무선의 화약연구사업은 조정의 방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소의 대상으로 되였다.

지어는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나라가 이런 형편에 화약은 만들어 무엇하나?》하고 말하군 하였다.

그들은 변변히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연구에만 골몰하고있는 그가 몹시 딱해보였던것이다.

그럴 때면 무선은 별로 분개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하였다.

《무얼 하다니, 왜적을 물리쳐야 하지.》

《여보게, 화약이 그렇게 많은 병마를 당해내는 힘이 있다면 화약을 가진 원나라가 왜 주원장의 봉기군한테 망했단 말인가. 공연히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한생을 허송하지 말고 세월가는대루 살게. 그게 뭔가. 자네가 지나가면 인젠 아낙네들까지도 대문틈으로 내다보며 웃는다네.》

그러나 무선은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않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것이였다.

(웃을테면 웃으라지. 남의것보다 더 좋은 화약만 만들면 될것이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만 나야 남의 나라를 침노하여 많은 령토를 얻기 위해 이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방위하자는것이니까. …)

이와 같이 노력한 보람이 있어 드디여 최무선은 질좋은 화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무선과 돌쇠는 만들어낸 모든 화약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 그들은 인적없는 골짜기에서 화약의 위력을 시험해보았다.

그 화약의 위력은 과연 컸다. 아름드리나무가 밑둥채 부러져 넘어갔는가 하면 공중을 날던 뭇새들도 떨어져버렸으며 땅은 심하게 파헤쳐졌다.

이 엄청난 성과를 눈앞에 보고 최무선도 어안이 벙벙하였다. 얼마 후에야 정신을 가다듬은 두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다.

조정에서나 주위에서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위력을 직접 보고나면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실험의 범위가 아니라 큰 시설을 마련하고 많이 만들게 될것이다. 우리의 군대는 새로운 병기를 가지게 될것이다.

무선의 눈에는 벌써부터 자기가 만든 화약과 화통에 의하여 통쾌하게 쓰러지는 해적들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며칠후 무선은 좋은 화약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화약의 대량제조를 조정에 건의하러 가는것이다.

맑은 날이였다. 초라한 대문까지 바래러 나온 집안사람들의 얼굴도 밝았다.

무선은 안해의 얼굴에서 잔주름이 훨씬 더 많아진것을 보았다.

온 가족이 침식을 잊고 지내온 몇년어간에 어느덧 늙어버린 안해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고생을 시켰구나.)

그는 가는 한숨을 지었다.

안해는 집안식구들과 함께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애오라지 남편의 성사를 위하여 쓰다달다 말없이 지내왔다.

그 보람이 있어 오늘은 이렇게 온 집안이 기쁨에 차게 되지 않았는가!

무선은 안해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있소.》

그는 다정한 음성으로 말하고 대궐로 향하였다.

화약을 싼 보자기를 짊어지고 껑충대며 따라가는 돌쇠의 발걸음이 우습강스러워 집안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구부리며 웃어댔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무선과 돌쇠는 떠날 때와는 반대로 아주 맥없이 돌아왔다.

집안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바라며 대문까지 달려나갔으나 어두운 얼

굴로 들어서는 두사람을 보자 그만 불길한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무선은 안해의 얼굴을 보자 억지로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주안상을 마련하오. 돌쇠와 한잔 하겠소.》

그리고는 화약을 만드는 방으로 향하였다.

돌쇠는 당황해하며 어쩔줄 모르다가 화약보자기를 받쳐들고 따라섰다.

안해는 사태를 짐작하고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고 울며 말하였다.

《그래, 당신의 그 화약을 조정에서는 몰라주었단 말씀입니까?》

《울지 마오. 그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아랑곳이겠소. 찾아간것부터 잘못이지. … 그렇지만 난 섭섭치 않소. 당신과 집안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무슨 걱정이요? 울지 말구 어서 술이나 한잔 나누게 해주우.》하고 무선은 오히려 웃는 얼굴로 방에 들어갔다.

돌쇠는 어린애마냥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있었다.

사실 찾아간것부터가 잘못이였다. 당시 지배층들은 신돈을 참살하고나서는 자기들의 토지를 회복하느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날뛰고 있었다.

특히 렴흥방, 림견미의 일파들이 물푸레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고 토지를 빼앗기때문에 본래의 국가토지문서는 실제상 아무런 효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농장은 여러 고을을 합친 큰 농장으로 되였다. 그자들은 심지어 가병을 두었으며 노비도 몇백, 몇천명에 이르렀다.

세신대족들은 인민들을 2중3중으로 억압착취하기에 온갖 정신이 다 팔려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눈이 어두운 그들은 당장 자기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외적격퇴를 위하여 개혁적인 사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투자할 성의도 있을리가 없었다.

사실 화약제조를 위해서는 큰 공장을 건립해야 하고 설비와 원료의 조달 등 막대한 비용이 들것이였다. 더우기 원료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례컨대 류황 같은것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와야 하며 기타의 원료들도 막대한 로력과 시일 또는 비용이 필요하였다.

바로 그것때문에 통치배들은 이 사업을 외면하고말았던것이다.

이 일로 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탄에 잠겨 사업을 포기할 무선이 아니였다. 물론 그것이 무선의 혼자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인것은 사실이였다.

무선은 좋은 기회를 보아 다시 조정에 건의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연구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에 일심전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 더 성능이 좋은 화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여 그 명칭을 《대장군》, 《2장군》, 《3장군》등으로 불렀다.

또한 연구는 화약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화약무기 즉 화통(총포)과 화전(불꽃달린 화살) 등을 만드는데도 성공하였다.

그동안에도 왜구들의 침노는 그칠 날이 없어 놈들은 남쪽바다뿐만 아니라 평안도 안주에도, 동해안 강릉에도 기여들군 하였으며 그 기세는 여전히 오만하기 이를데 없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오면 정부는 여전히 포왜사에게 빈약한 토벌군을 붙여 내려보내여 처리하는 식으로 대처하였다.

무선은 이와 같은 조치가 나라의 안정을 영구히 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력설하며 화약과 화약무기제조에 조정이 관심을 돌릴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무렵에도 인민들은 조국방위를 위하여 자기의 애국적열성을 다하였으며 목숨을 바쳐 용감히 싸웠다.

최무선이 하는 일은 차츰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정의 무심함을 함께 통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무선과 같은 미미한 관리들이 아니면 모두 미천한 사람들이였기때문에 연구사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큰 도움을 줄수 없었다.

해는 흘러갔다.

최무선은 여러가지로 깊이 생각한 끝에 세신대족들이 권세를 장악한 조정에 더 건의하기를 단념하였다. 그는 직접 진두에 서서 왜구를 물리치며 싸우는 장군에게 호소하면 능히 자기의 진의와 연구의 진가를 알아주리라고 생각하게 되였던것이다.

이 시기에 전라도에 기여든 왜구들을 물리칠 때 가장 용감한 사람들로 수군을 편성하여 크게 공을 세운 정지장군과 강화도에 기여든 수많은 왜구를 적은 병력을 가지고 섬멸한 장군 라세가 널리 명성을 떨치고있었다.

그러므로 이 장군들에 대한 조정의 신임이 컸고 인민들의 인망도 매우 높았다. 무선은 이 장군들과 만날 기회를 노리고있다가 틈을 얻어 강화도에 건너가 라세를 만났다.

뜻있는 학자와 지용을 겸비한 장군은 서로 첫눈에 뜻이 맞았다. 무선은 서해물이 넘나드는 해변에서 화약의 위력을 시험해보았다. 화약은 비상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흙먼지는 구름을 이루고 요란한 소리는 하늘과 바다에 진동하며 멀리 수평선으로 울려갔다.

라세는 그 위력에 못내 경탄을 금치 못하며 무선의 노력에 대하여 몇번이나 찬양하고 치하하였다.

시험은 계속되였다. 화통이며 화전, 각종의 무기들이 불을 뿜거나 혹은 불을 달고 정확하게 과녁을 꿰뚫었으며 또한 목표물에 불을 붙여놓았다.

라세는 황홀하여 손벽을 치며 좋아하였고 때로는 한참동안이나 말없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시험이 끝나자 두사람은 진영에 마련한 장군의 소박한 거실(살림방)에 마주앉았다.

《이처럼 훌륭한 사업을 몰라주다니… 참, 가슴이 아프시겠소.》 하고 라세는 진정으로 동정을 금하지 못하였다.

《괜치 않소이다. 벌써 10여년을 오로지 화약무기의 제조를 위해 바친 이 몸입니다. 오늘 이렇듯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장군을 만나서 기쁘기 한량없소이다.》하고 무선 역시 진정으로 고마운 뜻을 표하였다.

《내가 적은 병력으로 왜구를 물리친것은 오직 나라를 위한 백성들의 지성과 자기 한몸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런 마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훌륭한 화약무기를 가진다면 더욱 적은 병력으로써 더 많은 적을 당해낼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이 심혈을 기울인 큰일이 세상에 빛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라세는 꼭 조정에 건의하여 화약무기를 대대적으로 제작하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최무선은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가슴을 헤쳐놓고 이야기할수 있었다.

얼마후에 라세는 장계를 올려 왜구들이 침략을 노리고 날치는 형편과 그 피해를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는 또한 왜구들이 우리 나라에 범접을 못하게 하고 덤벼드는 놈들을 몰살해버리기 위하여서는 최무

선이 만들어낸 화약과 화통 등을 대대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본바 실험의 위력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시급히 대량생산에 착수할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눈앞의 리속에만 눈이 어두운 통치배들은 조금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왜구의 침범은 이곳저곳에서 잦았으며 라세도 시급한 전투에 매달려 더 강경히 건의할 경황을 가지지 못하였다.

왜구들은 우리 나라 중부 이남의 서해안해상권을 거의 장악하다싶이 하였다.

하여 우리의 선박들은 거의 항행도 고기잡이도 할수 없게 되였다. 어민들과 배군들은 바다에 나갈수 없어 생활이 령락되였고 놈들의 불의의 습격으로 밤잠도 편안히 잘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는 비단 그 지방 인민들뿐만아니라 개경에 있는 세신대족들과 왕에게 있어서도 직접적인 심대한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전라도의 대곡창지대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있었고 그 토지에서 나는 막대한 소출을 주로 배길로 운반하여오게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배길의 형편이 이 지경이 되고보니 운반해오던 곡물은 도중에서 모조리 략탈당하였으며 얼마후에는 배길의 완전차단으로 말미암아 한알의 쌀도 개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쯤 되였다.

지금까지 왜구들의 침범에 대하여 꿈만큼 생각하던 통치배들도 그 피해가 직접 자기들의 턱밑에 다달으니 갑작스레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떠들어대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쿵저러쿵 론의가 분분하던 끝에 다만 사신을 왜에 보내여 단속을 의뢰하자는것으로 또다시 의논이 락착되였다. 그리하여 정몽주를 정사로 한 사신일행이 왜의 아시가까막부로 담판하러 떠났다.

사신들이 떠나간지 오랜 시일이 지나갔건만 왜구들의 침략행위는 더욱 심하여만 갔다.

무선은 그것을 보고 참을수 없는 격분을 느꼈다. 벌써 수십년을 두고 왜구들은 더욱더 오만하게 날뛰며 우리 나라를 더럽히고있지 않는가.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애국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가 오랜 세월 왜

구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단호한 징벌을 가하지 않고있어야 옳단 말인가!

그럴수록 무선은 화약연구에 더욱 정열을 쏟아부었다.

(라세장군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지. 그의 힘으로도 안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후세에 성취되는 길밖에 없다. 후세의 사람은 반드시 나의 화약으로 왜적을 무찌르고 나라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에도 라세장군이 찾아왔다.

그는 지금까지 찾아오지 못한것을 사과하였다. 그리고 무선의 로고에 대하여 깊이 치하한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나하고 같이 궁중으로 갑시다. 당신의 화약과 화통을 전하께서 보시겠답니다.》

무선은 처음 그 말의 뜻을 얼른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웃고있는 라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볼뿐이였다.

라세는 무선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것으로 알았던지 웃음을 거두고 미안한듯이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겨우 지금에 와서야 당신을 부르는것이 나무랍기도 하겠습니다만 큰일을 생각하시고…》

무선은 무슨 영문인지 깨닫고 웃었다.

《그런게 아닙니다. 사실 나는 단념했더랬소이다. 그러나 내가 어찌 조그만 원한으로 옹졸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본시 조정을 위하여 이 사업을 한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한 일입니다. 장군의 진력이 컸으니만치 오늘부터라도 왜적을 치는데 보탬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소이다.》

라세는 무선의 높은 뜻에 못내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내 평생에 당신을 사귄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두사람은 왕궁으로 들어갔다. …

마침내 조정에서도 최무선의 훌륭한 일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어 화통도감(고려때 화약제조하는 일을 맡은 림시관아)이란 기구를 설치하게 되였다.

무선은 미미한 관직에서 벗어나 큰 공장에서 화기생산을 맡아보게 되였다.

갖은 신고와 외로움을 참아가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긴 세월은

지금 꿈결같이 먼 옛이야기로 되였다.

공장에는 연송 원료들이 들어왔고 한편으로 화통을 위시한 각종 무기와 탄약들이 무데기로 실려나갔다.

이때에 무선은 벌써 52살, 화약제조에 뜻을 두었던 때부터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무선의 연구는 중단되지 않았다. 그는 화통을 장치할수 있는 전함을 고안하여 해전에서 화약무기를 활용할수 있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수 있는 전혀 새로운 편제와 전술을 가진 수군이 조직되고 훈련되였다.

이 사업은 라세가 담당하였다. 그는 무선과 함께 새 무기의 사용에 알맞게 그들을 훈련하고 새로운 전술들을 연구해내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정몽주가 왜에 갔다가 담판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자 더욱 정당한것으로 되였으며 완고한 세신대족들도 겨우 열성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고려의 군대, 특히 수군은 새로운 무장을 갖추게 되였다.

우왕3년 초가을에 왜의 해적선 500척이 진포에 들어왔다. 놈들은 전라도 남쪽을 돌아 북으로 올라올 계획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정부에서는 화약무기로 장비된 80척의 함대를 파견하여 놈들을 치게 하였다.

이때에 함대의 지휘자 해도원수는 라세였으며 부원수로는 최무선이 임명되였다.

본래 무인출신이 아닌 무선은 부원수라는 중책을 맡고 그 임무가 무거움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러나 그에게는 승산이 있었다. 자기가 일생을 걸고 완성한 무기는 반드시 적들을 남김없이 쓰러눕힐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을 결심이였다.

장엄하게 대렬을 지은 80척의 함대는 남으로 향하고있었다. 배마다에 장비된 화통들은 무서운 위력을 품고 믿음직스럽게 입을 다물고있었다.

무선은 백발을 흩날리며 배머리에 서서 앞을 내다보았다.

내 나라의 바다는 참으로 아름답다. 이 바다, 이 땅에 어찌 원쑤들을 들여놓을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기가 처음 화약연구를 결심하던 그때의 청년으로 돌아간듯

이 뛰노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고려의 함대가 금강의 하류인 진포포구에 다달았을 때 적들은 벌써 뭍에 기여올라 집들을 불태우고 인민들을 살륙하면서 쌀과 재물들을 략탈하는중이였다.

놈들은 수백척의 함선을 즐비하게 련결하여놓고 농민들의 피땀으로 지은 햇곡식을 연송 배로 운반해내고있었다.

놈들은 우리의 함대가 새로운 무기로 장비하고 자기들을 치러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오로지 략탈에만 정신이 팔리여있었다.

이러한 때 고려함대는 은밀하고도 민속하게 적함들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적들의 포악무도한 행위를 눈앞에 본 많은 군사들은 이를 갈며 한시빨리 공격명령이 내릴것을 기다렸으나 무선은 우선 모든 화통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묘준하게 하고 일제히 포문을 열어 적함들을 일거에 불살라버릴 생각이였다.

고려함대가 적선가까이에 접근하였을 때 드디여 라세장군의 공격명령이 내렸다. 화통은 세찬 불길을 뿜었고 화포와 불꽃달린 화살은 련속 적함에 불을 일궈놓았다.

순식간에 진포는 불바다가 되였다.

상륙하여 쌀과 재물을 날라들이기에 미쳐날뛰던 해적들은 배를 잃고 이리저리 헤덤비다가 고려군사들의 맹공격을 받아 무리로 쓰러졌다.

이리하여 적함선 500척은 모조리 불타버리고 수많은 적병들은 몰살되고말았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최무선과 라세는 굳게 손을 잡았다. 배마다에서 오르는 군사들의 만세소리와 높이 울리는 승전고는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 추악한 왜적들을 삼켜버린 조국의 바다는 더없이 푸르며 평화롭게 너울거렸다. 온 천지가 갑자기 생기를 띠고 더욱 거연한 이 나라의 모습을 밝혀주는것 같았다.

무선은 돛배우를 넘나드는 흰 갈매기들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우리의 바다에서는 갈매기들도 화평하게 살수 있어야 한다.)

최무선의 평생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고상한 애국지성은 드디여 열매를 맺고야말았다.

사륙신 유응부

리조 제6대왕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였다. 그런데 즉위한지 2년만에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하여 왕위를 찬탈당하였다.

수양대군은 왕위찬탈을 앞두고 조정의 원로중신들을 우선 제거하였는데 좌의정 김종서도 그중의 한사람이였다.

김종서의 비명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생각한 사람은 무관 유응부였다.

유응부의 입에서는《휴…》하는 긴 한숨소리가 멎을줄 몰랐다.

(임금의 자리가 무엇이기에 이다지도 심하게 군단 말이냐. 무도한 일이로구나!)

유응부는 륙척장신의 큰 몸집을 무겁게 움직이며 뜰안을 하염없이 거닐고있었다.

또 한잎, 푸르디푸른 락엽이 그의 어깨를 툭 건드리고 땅바닥에 맥없이 떨어졌다.

《아, 락락장송같던 절재(김종서의 호)가 수양대군의 철퇴아래 이슬처럼 사라지다니…》

유응부는 다시한번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존경하는 선배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조상하는 유응부의 가슴은 그 비통함보다 더 암담한 검은구름으로 뒤덮여오고있었다.

유응부는 기계땅에서 자라나 무과에 급제한 후 지금까지 한생을 무관으로 지내왔다. 젊었을 때부터 결백하고 무인다운 기백으로 사람들을 감탄시키던 그는 평안도절제사를 거쳐 중추원 동지사로서 종2품의 지위에 오른 재상이였다.

재상이여서 그렇다기보다 유가의 이른바 대의명분과 봉건적의리를 신조로 삼아온 유응부이거니 어찌 불의가 판을 치는 지금의 이 현실을 보고 개탄하지 않으랴!

이 현실이란 어떤것이였던가?

세종왕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은 문종왕이 3년도 못되여 또

세상을 뜨게 되자 당시 열두살밖에 안되던 어린 단종이 왕의 자리에 나가게 되였다. 그러나 이때 단종에게는 삼촌이 되고 죽은 문종에게는 동생이 되는 세종왕의 범같은 여러 아들들이 왕위를 넘겨다보고있었다. 연약하고 가냘픈 열두살의 소년이 지키고앉아있기에는 너무도 위태롭고 험악한 룡상이였다.

이런것을 모르는바 아니였기에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은 세상을 떠나가기에 앞서 당시 원로급재상들인 령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을 불러 어린 임금을 잘 보살펴달라는 마지막부탁을 남기였고 세종왕때부터 왕실을 받들어온 집현전의 학사들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신숙주, 리개, 류성원 등에게도 같은 부탁을 남기고서야 눈을 감았던것이다.

그러나 선왕의 눈물머금은 그 부탁이야 있었거나말았거나 룡상을 노리는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의 눈초리는 나날이 음험하여갔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과 손을 잡고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단종을 보살피는 모든 세력들을 멸살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대상으로 된것이 김종서였다.

김종서는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북방 6진을 개척하는데 큰 공적을 세운 명망이 높은 대신이였다.

조정에서도 그의 말은 무게가 있어 누구도 감히 흥정할수가 없었다. 대가 있고 지조가 굳은 김종서와 같은 인물을 조정에 그대로 두고서는 왕의 자리를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것은 수양대군이였다.

김종서를 노리고있던 수양대군은 드디여 한명회, 권람, 홍윤성 등과 함께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불러내였다. 손님들을 맞으려고 문밖으로 나서던 김종서는 홍윤성이 내려치는 철퇴에 맞아 흰수염을 피로 적시며 마당가에 꺼꾸러졌다.

뒤이어 령의정 황보인과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도 단종의 측근자라 하여 소리없는 죽음을 당하고말았다.

피어린 왕자리다툼으로 나라는 어디로 굴러떨어질지 알수 없었고 어린 단종은 어느 순간에 룡상에서 쫓겨날지 알수 없는 지경이였다.

뜰에서 오래도록 거닐며 이 험악한 조정의 공기를 헤아려보던 유응부는 문득 락엽이 떨어지는 향오동나무를 쳐다보며 처량한 목소리로

시조 한수를 읊었다.

간밤에 부는 바람 눈서리 치단말가
락락장송이 다 기울어지단말가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서 무삼하리오

죄없이 쓰러진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동정과 어린 임금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긴 시조였다.

뜻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우려가 조정의 중신들과 량반유학자들의 사랑방에서 한갖 탄식과 한숨이 되여 떠돌고있는 사이에 어느덧 드세찬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을 강박하여 왕위를 스스로 넘겨준다는 《선양》의 형식으로 룡상을 가로채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던 량반유학자들과 선왕에 대한 충의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새로 왕이 된 수양대군(세조)을 규탄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어린 임금(단종)을 동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였다.

그러지 않아도 왕위를 부당하게 차지하려고 죄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인 수양대군을 불의의 인간으로 보고있던 유응부는 수양대군이 끝내 조카의 왕위를 빼앗자 그를 왕으로서뿐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용납할수 없는 인물로 여기고 견결히 반대하는 립장에 서고있었다.

이러한 때 집현전의 중견들인 성삼문, 박팽년, 리개, 하위지, 류성원 등이 단종을 다시 왕자리에 앉히기 위한 계교를 은밀히 꾸미고있었다. 이들은 유응부와 같이 기개높은 무관이 자기들의 일을 조력하여주기를 바랐고 또 유응부자신도 단종을 복위시켜 그릇된 세상일을 바로잡는데서 장부의 기개를 한번 떨쳐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유응부는 단종복위의 대사를 꾸미는데서 중심인물의 하나로 되였다.

어느날, 성삼문의 집에 집현전의 다섯 학사들과 유응부, 김질 등이 모이였다.

모두가 문관선비들이고 무관이라고는 유응부 하나뿐이였다. 당시로 말하면 문관을 존중하고 무관을 천시하던 때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유응부를 무관이라 하여 업신여길수 없었다.

비록 무관이라고 하지만 그는 문장에 능하여 집현전 학사들도 따를

수 없을 정도였을뿐아니라 고루한 선비들과는 달리 의리와 지조와 기백으로 사는 사람이였기때문에 그 누구도 허술히 보지 못하였다.

언제나 활달하고 락천적인 성삼문이 유응부를 보고 한마디 하였다.

《유공! 이 자리에는 다 동반(문관)뿐이고 서반(무관)은 유공뿐인데 절재(김종서)의 시조를 한번 읊어 썩은 선비를 나무래보시지 않으시겠소?》

그러자 좌중이 껄껄 웃었다.

유응부도 큰소리로 웃었다.

절재의 시조란 김종서가 북방을 개척할 때 지은 시조를 가리킨것이였다.

백두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랴
어떻다 릉연각상에 뉘 얼굴 그릴고

이런것이였다.

유응부는 늘 이 시조를 즐겨읊으면서 무관의 기백을 자랑했고 고루한 선비들을 조소하여왔던것이다.

유응부는 성삼문을 보고 한마디 하였다.

《여기 모인 제공이 모두 큰일을 맡아나선 대장부들인데 무슨 사나이를 따로 론할게 있겠소?》

《옳은 말씀이요. 옛날에 어느 나라 왕이 릉연각이라는 루각을 짓고 공신들의 화상을 그려서 걸어놓았다는데 이제 상왕(단종)께서 복위하시면 우리의 화상도 그리게 하실 날이 꼭 있을것이요.》

김질이 턱에 달린 쥐꼬리만 한 노란 수염을 까불거리며 이렇게 말을 받아 마치자 모여앉았던 사람들이 금시에 모두 잠잠해졌다.

그의 말속에는 공신자리를 바라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한다는 뜻이 짙게 담겨져있었기때문이였다.

철저한 봉건적왕실정통사상과 충군사상의 소유자였던 유응부는 벌써 공신의 자리를 넘겨다보는 김질을 아니꼽게 생각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껄껄 웃었다. 그러더니 문득 추연한 낯빛으로 읊지 않겠노라던 시조를 읊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랴
어떻다 릉연각상에 뉘 얼골 그릴고

읊기를 마치자 유응부는 또다시 비분강개한 목소리로 껄껄 웃었다.

그 서늘한 무관의 웃음소리는 수백수천마디의 꾸중보다 더 무섭게 김질의 검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불태우고있었다.

김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었다.

(과연 유응부다운 솜씨로구나!)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가 속으로 유응부의 송백같은 기개를 찬양하고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매우 어색하게 되고말았다.

집주인인 성삼문이 급히 이야기를 딴데로 돌리였다.

《지금 항간에서 우리 집현전 학사들에 대해 떠도는 말이 있으니 좀 들어보시겠소?》

《아니, 떠도는 말이라니? 무슨 흉이라도 보고있다는 말씀이요?》

박팽년이 풍채좋은 수염을 쳐들고 성삼문을 바라보았다.

《흉이라면 흉이고 칭찬이라면 칭찬인데 한번 들어보시오.

경학과 인격으로는 박팽년이 으뜸이요, 책론으로는 하위지가 으뜸이요, 시로는 리개가 으뜸이요, 사학으로는 류성원이 으뜸이요, 어학과 교제와 모략으로는 신숙주가 으뜸이라고 말들 한답니다.》

《허허허, 그럴듯하구려. 그런데 우승지 당신에 대한 말은 없으시오?》

누군가 이렇게 묻자 성삼문을 대신하여 리개가 대답하였다.

《우승지 성삼문이야 주옥같은 문장과 풍류해학으로 으뜸이지요.》

《다 그럴듯하구려. 헌데 여기 앉으신 유공(유응부)에 대한 소문은 없으시오?》

《유공이야 두말할것없이 청렴결백과 남아의 기백으로 으뜸이지요.》

둘러앉은 사람들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럴듯한 말이라고 하였다.

이날 이들은 적당한 기회가 오면 수양대군과 그 지지자들인 한명회, 권람 등 간신들을 몰아내고 상왕을 다시 맞아들일 의논을 마치고 헤

여졌다.
유응부가 집에 돌아오니 동생 응신이 와있었다.
오래간만에 형의 집을 찾은 시동생을 위하여 부인은 부엌에서 있는 성의를 다하여 식찬을 마련하고있었다.
이윽고 밥상이 들어오는데 어설프기가 그지없었다. 잡곡밥에 무우김치, 고추장이 전부였다.
더 후한 상을 마련하지 못한것을 민망해하는 형수의 얼굴을 훔쳐본 응신의 가슴은 저려왔다.
대신의 대접을 받는 몸으로서 이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되였다.
《어서 들거라. 변변치 않다만 그래도 내 집 밥이니 많이 들어라.》
유응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듯 동생에게 밥을 권하고 저도 술을 들어 맛있게 먹는것이였다.
응신은 숟가락을 들다말고 어이없는 눈길을 들어 형을 바라보았다.
《형님,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님으로 말하면 재상에 이른 무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식상에 고기 한점 없으니 웬일입니까? 그리고 방문도 다 떨어져 멍석으로 가리우고 지내시지, 뒤주안에는 쌀 한톨 남아있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인으로서 호사한 생활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 까닭이야 있겠습니까?》
유응부는 말없이 숟가락만 놀리다가 껄껄 웃으며 상에서 물러앉았다.
《네 말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나의 국록이 그 이상의 생활을 허락치 않고 또 그럴 마음도 없으니 밥상에 고기 한점 없게 되는것이고 방문을 멍석으로 가리우고도 크게 꺼리지 않는것이다. 나는 깨끗이 살다가 나라에 몸을 바칠 결심이다. 나의 생활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 없다.》
아래방에서 이 말을 듣고있던 유응부의 부인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었다. 일생을 저러한 남편과 함께 지내오면서 언제한번 허리를 펴고 살아보지 못한 녀인이였다.
응신은 형과 마주앉아있기가 거북하여 상을 물려가지고 형수가 있는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형수님, 형님이 저러하시여 형수님만 고생을 하시는걸 그저 보기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응신이 안타까와 한숨을 토하였다.
《이 살림이 고생스러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에 바친 몸으로 집

살림걱정을 하게 해서야 되겠나요? 나는 이걸 오히려 락으로 알고 살아요.》

형수의 말을 들은 응신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말았다.

…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나라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경회루에서 열리게 되였다. 이날 유응부는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함께 의장용큰칼인 운검을 들고 왕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게 되였다.

왕 세조가 명나라사신과 함께 연회장에 나타나고 뒤이어 권람, 한명회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연회장에 들어섰다.

풍악이 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연회는 무르익어가는데 칼을 짚고 서있는 유응부의 마음은 복잡하였다. 왕과 간신들을 쳐없애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수 없었다.

유응부는 눈길을 들어 성삼문, 박팽년이 있는쪽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은 아무 내색도 보이지 않고있었다. 유응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조이였다. 연회는 바야흐로 끝나가는데 그는 왕의 호위를 맡은 몸인지라 자리를 뜰수가 없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때마침 왕이 잠간자리를 떠서 내전으로 들어가자 유응부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박팽년, 성삼문 등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 거사할것을 말하였다.

유응부가 당장 무슨 일을 칠것 같은 기색을 보이자 성삼문과 박팽년이 그의 팔소매를 붙잡으며 만류하였다.

《유공! 외국사신이 있는 이 자리에서 거사한다는것은 좀 생각해볼일이 아니겠소. 좀 자중하고 다음날을 기다려봅시다.》

그러자 유응부는 무섭게 부르짖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불의를 치는 일인데 어찌 한시각인들 미루겠소. 때를 놓치고 주저하다가는 일을 그르칠수 있소.》

그러나 박팽년, 성삼문이 찬동하지 않고 끝끝내 만류하는 바람에 이날 일은 성사되지 못하고말았다.

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뿐더러 이들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화가 닥쳐왔다.

그들이 주저하고있는 사이에 공모자의 한사람인 김질이 뒤일이 두려워 먼저 이 사실을 세조에게 고발하고말았던것이다. 성삼문의 집에서 공신이 될 뜻을 내비치였다가 유응부가 김종서의 시조를 읊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하던 그때 벌써 딴마음을 가지고있던 김질은 다

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겨우 죽음을 모면하였으나 집현전 다섯 학사들과 유응부는 세조에게 붙잡히고말았다.
친국(왕이 직접 심문하는것)하는 날이였다. 그들은 친국을 당하는 마당에서도 누구 하나 세조앞에 꿇어엎드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보고 한명회, 권람을 비롯한 간신들은 펄펄 뛰며 삿대질을 하였다.
《천하에 무도한 놈들이로구나. 상감마마의 앞에 나선 신하로서 엎드려 우러르지 않으니 군신의 명분을 이토록 무시할수가 있단 말이냐!》
모두가 입이 쓰거워 말이 없는데 유응부가 큰소리로 껄껄 웃으며 부르짖었다.
《생쥐같은 놈들, 내 눈에는 상감이 보이지 않는다. 저기 룡상에 앉은 사람이야 수양대군이지 임금이냐? 어린 임금이 앉은 룡상을 허물어낸것이 그래 군신의 명분을 지킨다는 너희들의 소행이더냐?》
추상같은 호령소리에 룡상에 앉은 세조는 물론 그아래 늘어섰던 대신들도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이윽고 악에 받친 세조는 한사람, 한사람을 매로 치면서 국문하기 시작하였다. 국문이래야 더 물을 말도 없고 또 특별히 감추어야 할 비밀도 없는 이상야릇한 일종의 인격의 대결이였고 적수의 육체를 괴롭히기 위한 고문이였다.
고문이 심해지자 형장에는 피가 흐르고 살점이 튀였다.
유응부는 형틀에 매워 꿋꿋이 고문을 받으며 다문 입을 한번도 열지 않고있다가 성삼문, 박팽년을 향하여 불이 이글거리는 눈길을 보내며 웨치였다.
《이게 무슨 꼴이냐? 세상사람들의 말이 선비들과는 아무 일도 못한다더니 그게 정말이였구나. 내가 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운검을 높이 들었더라면 우리의 소원도 성취되였을것이고 오늘의 이 꼴도 당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된것은 기회를 놓친 때문이다. 죽는것은 한이 없으나 간신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한것이 한스럽다.》
유응부는 다시 입을 다물고 신음소리 한마디없이 고문을 받았다.
세조는 유응부의 기개를 꺾어보려고 쇠몽둥이를 벌겋게 달구어 몸

을 지지게 하였다. 살이 타고 기름이 끓어올랐으나 유응부는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견디여냈다. 형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연방 불에 달군 쇠몽둥이를 들고 다가들었다.

《이놈들아, 쇠가 덜 달았구나. 내 피보다 뜨겁지 못한것을 가지고 어찌 사나이의 기개를 꺾으려드느냐? 더 달구어오너라.》

유응부는 형리의 손에서 쇠몽둥이를 와락 빼앗아 땅바닥에 내던졌다.

유응부는 이렇게 마지막순간까지 불의를 규탄하다가 형장에 쓰러진채 몸이 굳어지고말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한강 새남터에서 피맺힌 최후를 마쳤다.

력사에서는 이 여섯사람을《사륙신》이라고 전해온다.

유응부가 죽자 동생 응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시체를 렴습하려고 모이였다. 응신은 이제 역적의 동생이라 하여 따라죽을 일도 기가 막혔지만 일생을 그토록 단 한번의 호강도 못해보고 오로지 나라에 한몸을 바쳐 살아오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형의 한생이 너무도 억울하여 통곡하였다.

《형님! 형님은 살아서도 가족들에게 지지리도 고생을 시키더니 죽어서도 큰 화만 남기였으니 어쩌면 운명이 그렇게도 기구합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시동생을 보고있던 유응부의 부인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다.

《불의를 바로잡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것이 한이 될뿐 떳떳이 마친 대장부의 한생이야 누가 탓하겠소. 눈물을 거두시오.》

푸르른 향오동나무에서 때아닌 락엽이 소리없이 떨어지며 장부의 기개를 떨치지도 못하고 스러져가는 유응부를 말없이 조상하고있었다.

리 성 덕

의병장 정문부

《왜란이 일어났다!》

《지난 4월 열사흗날 부산으로 쳐들어온 왜적이 벌써 동래부를 함락시켰댄다.》

마천령을 넘어온 이 놀라운 소식이 쌍포, 길주, 명천을 거쳐서 경성에 이른것이 5월 초하루였다.

이 놀라운 소식은 북쪽 회령으로 올라가서 두만강줄기를 따라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등지로 퍼져 관북일대의 민심은 소란해졌다.

《동래까지는 몰라도 그다음부터야 설마…》

불안한중에도 한끝 믿는 점도 없지 않았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비록 자기 성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을망정 마지막까지 굴하지는 않았다는것이다.

십여만 적군에게 포위된 성을 지켜싸우던 송상현은 동래 도호부 병마절도사인 자기의 관인(관가의 도장)이 들어있는 인궤(도장을 넣은 함)를 들고있던 바른팔이 떨어지자 왼팔로 그것을 잡았고 왼팔마저 끊기우자 입으로 물었고 적군이 그의 목을 찍었을 때에도 그의 입은 역시 인궤를 물고있었다는것이다. 부산첨사 정발도 적과 최후까지 싸워 적의 칼을 받으면서도 투항권고를 일축했다는것이다.

이렇듯 굴하지 않는 렬사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조선사람이 어찌 한두사람뿐이랴. 왜적이 하도 불의에 쳐들어왔길래 초입구의 몇 고을은 함락되였더라도 그다음에야 설마…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만인 5월 초아흐레날이였다. 함주(지금의 함흥) 감영에서 지난 4월 그믐날에는 왕이 도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난하게 되였다는 감사의 글발이 왔다. 또 며칠후에는 림해군, 순화군 두 왕자가 이 함경도땅인 안변으로 피난해왔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왕자 순화군이 이리로 오게 된 경위였다.

왕은 도성을 떠날 때 각 도에서 근왕병(임금을 위하여 힘쓰는 군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왕자와 대신들을 나누어 보내였다.

강원도로 들어갔던 순화군은 왜군이 경주에서 동해의 배길을 따라 북쪽으로 치달아온다는 바람에 이 함경도로 피난해오던 길에 먼저 와

있던 림해군의 일행과 만나게 된것이였다. 정세는 그만치 위급하다는 것을 말했다.

그후에는 또 어떻게 되였는가? 불안과 초조중에 한달이 지났다. 그러자 6월 열이튿날에는 흉악한 적괴수의 하나인 가등청정이 2만 2천 8백여명의 대군을 몰아 철령을 넘어섰다는것이 알려졌다. 철령을 지키던 남병사 리혼의 군사가 무너지고 왜군은 드디여 이 함경도로 기여들기 시작한것이였다.

그후부터 도성소식은 더 말할것도 없고 덕원, 양덕을 거쳐 간간이 들려오던 평양소식까지도 완전히 끊어지고말았다. 왕의 일행이 지난달 초이레날 평양까지 왔다는것을 알았을뿐 그다음에는 어찌 되였는지? 오직 함경도땅에 들어선 왜적 가등청정무리들이 풍우같이 몰려온다는 소문뿐이였다.

6월 24일에 영흥(오늘의 금야)에 들어선 가등청정은 조선의 두 왕자가 북청에 머물러있다는것을 알고 더욱 강행군을 해서 7월 7일에는 벌써 홍원에 다달았다.

두 왕자일행은 철령에서 패한 리혼 대신에 회령부사 리영을 남병사로 임명하여 추격해오는 적을 막게 하고 자기네는 총총히 마천령을 넘어 관북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남병사 리영 역시 몰려오는 가등청정의 무리를 막지 못했다. 그는 북청에서 싸웠으나 적을 막지 못했고 또 마천령의 천험을 지켰으나 역시 패해서 물러설수밖에 없었다. 적은 승승장구의 기세로 마천령을 넘어 관북으로 들어섰다.

하늘과 맞닿은듯 높고 험준한 마천령을 넘어서 40리쯤 내려가면 이때까지의 첩첩한 산악지대를 벗어나서 넓고 평탄한 해정창 벌판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왜병들은 철령을 넘어 함경도땅에 들어선이래 처음으로 저항에 부딪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관북 6진의 군사를 거느린 북병사 한극함이 마천령에서 물러선 회령부사 리영의 군사와 합세하여 주변 산중에 매복하고 왜군이 해정창 벌판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고있었던것이였다.

때는 말복이 갓 지난 때라 뙤약볕이 쟁글쟁글 끓는듯 따가운 날씨였다.

철령을 넘어서만도 천여리길을 줄달음치듯 강행군을 해온데다 또 험한 마천령을 방금 넘은 왜군은 지치기도 했으려니와 이때까지 이렇다 할만 한 저항도 받지 않았던만치 여기도 역시 무인지경으로 알고 안

심했다. 놈들은 무거운 갑옷을 벗어서 창대와 조총에 걸어메고 대오를 흐트려 벌판에 한벌 깔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적의 앞뒤끝이 주변 산안에 다 들어서기를 기다렸던 우리 군사들은 한번 울리는 큰 북소리를 신호로 매복해있던 숲속으로부터 적을 포위하고 달려나왔다. 우리 군사는 적에 비하여 수는 적었다. 그러나 말우에서도 활질을 잘하는 관북군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번개같이 말을 달리며 쏘는 살로써 개개 명중으로 적을 쓰러뜨렸다. 한편 여기저기서 날랜 기마대들이 욱실거리는 적의 보병가운데로 달려들어 창과 검을 휘두르며 좌충우돌하였다.

이와 같이 밖으로 에둘러치고 속으로 돌입해들어가 치는 바람에 왜군은 크게 믿어온 조총조차도 제대로 쓸 사이가 없었다.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게 된 놈들은 화살과 창검에 죽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저희끼리 밟고 밟혀 죽는자도 많았다. 더 지탱할수없이 된 적들은 벌판 한기슭에 있는 해정창이라는 큰 창고안으로 몰려들어갔다. 날은 이미 저물었다.

군사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래일 다시 싸우자고 했다. 그러나 이긴데 으쓱해진 한극함은 적을 얕잡아보고 군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곧 해정창을 포위하라고 했다.

가등청정의 군사들은 곡식섬들을 끌어내다가 창고주위로 돌아가며 성을 쌓기 시작했다. 놈들은 곡식섬에 의지하여 화살을 피해가며 조총질을 시작했다. 조총알은 3백보를 넘어가는데 화살은 백보밖에는 더 미치지 못한다. 활질을 하려고 가까이 달려가던 관북군사들은 놈들의 총탄에 쓰러져 희생이 많았다. 군사를 거둘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새벽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한극함은 태반의 군사를 잃고 물러서고말았다. 그를 추격하는 왜군은 7월 열사흗날 경성을 거쳐 회령으로 향했다.

이때 회령과 경성에서는 극악무도한 반역자인 국경인과 국세필 일당이 나타났다.

왜적이 경성에서 부령을 거쳐 회령땅으로 들어섰다는 소문을 들은 국경인은 제 처남인 박림이라는자를 비롯하여 많은 무뢰한들을 부추겨가지고 밤을 타서 림해군, 순화군 두 왕자와 그들을 따라온 재상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모두 잡아가두고 고풍산에 와있는 가등청정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같이 내응해주겠다는 반역자가 나타난데 반색한 가

등청정은 7월 23일에 회령성으로 달려갔다.
  과연 회령의 성문은 반역자에 의하여 환히 열려있었다. 국경인은 잡아두었던 사람들을 가등청정에게 바치고 그 대가로 벼슬을 요구했다. 적장은 그에게 회령부일대에서 독판을 칠수 있는 판형사라는 벼슬을 주었다. 국경인은 가등청정에게 경성에 있는 제 삼촌 국세필에게도 벼슬을 주도록 요청했다.
  국경인에 의하여 두 왕자를 손에 넣은 가등청정은 그자를 믿는만치 그의 말대로 국세필에게도 경성일대에서 독판을 칠수 있는 체백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아닌게아니라 국세필이 역시 제 조카 못지 않은 악당이였다.
  그는 이때까지 상관으로 섬겨온 경성판관 리홍엽의 일족을 잡아가두었다. 반역자의 손에 걸려든 리홍엽의 처와 며느리는 장차 왜적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것을 알고 욕되게 사느니보다 깨끗이 죽으리라 하여 옥중에서 자결하고말았다.
  이러한 가지가지의 사태는 관북일대의 민심을 암담하게 했다.
  도성과 평양소식은 전혀 들을수없이 두절되였다. 왜적들은 6진을 휩쓸었다. 패악무도한 반역자의 세력은 더욱 커졌다. 명천고을의 정말수라는 관노가 국경인과 국세필처럼 무뢰한들을 모아가지고 적에게 아부해나섰다. 두만강기슭의 여러 진을 돌아 동해안을 거쳐 돌아오던 가등청정은 정말수에게 명천고을을 맡겼다.
  관북일대를 돌아본 가등청정은 산이 많고 물산이 풍부치 못한 명천이북의 땅은 자기앞에 투항해온 정말수, 국세필, 국경인 등 반역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길주 이남의 땅만을 차지하기로 했던것이다. 그래서 제 령지의 북쪽끝인 길주는 가등좌마개니 가등청병위니 가등전장이니 하는 심복들 여덟사람에게 천오백명의 군사를 주어 지키게 하고 이곳 관북으로 들어올 때 조선군사에게 혼난 일이 있는 해정창에는 《령동책》이라는 요새를 새로 만들고 군사를 머물러 지키게 했다. 다음에는 마천령을 넘어 단천, 리성(지금의 리원), 북청, 홍원 등지에는 3백 혹은 5백명씩의 군사를 나누어 주둔시키였다. 가등청정은 남으로 나가 안변에 본영을 두고 들어앉을 작정이였다.
  북평사 정문부는 가등청정군이 관북 6진을 돌아 명천, 길주를 거쳐 안변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경상근처의 어느 산간마을에 잠복해있었다.

이때는 이곳에 처음 들어온 왜놈 사무라이보다도 그놈들앞에 투항아부해나선 반역자들의 눈에 띄우는것이 더욱 위험하였다. 이 반역자들은 누가 누군지 또 누구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있다는것까지도 살살이 알고있기때문이였다. 《까마귀 흰빛을 시샘한다》는 격으로 반역자들은 침략자앞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희를 멸시증오할것이므로 기어이 그들을 잡아없애려고 눈이 벌개 뒤져냈다.

정문부는 바로 경성에서 북평사벼슬을 해온 사람이라 국세필의 반역무리들치고 그를 모르는자가 없었지만 비교적 안전한 처지에 있었다. 그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왔다. 우선 글 잘하는 사람으로 선비들간의 존경을 받았다. 또 벼슬아치행세를 하지 않는 소탈청렴한 사람으로서 인망이 높았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숨어다니는 동안에 어디서나 인민들의 비호를 받았다. 그는 구구히 자기 한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피신해다닌것은 아니였다. 숨어다니면서 동지를 구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정문부의 생각에는 다소의 착오가 없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 자기가 인민의 비호를 받아 인민속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같이 일을 의논할 생각을 미처 못한것이다. 그는 전 합경감사 리성임과 전 경원부사 오응태 같은 사람들의 거처를 탐문한 후 조용히 찾아갔다. 그들도 정문부의 의향에 찬동했다. 의논이 맞은 그들은 몇몇 관료와 선비들을 더 모아가지고 경성으로 들어갔다. 정문부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같이 갔다. 그러나 그들은 무력했다. 이편에서 회유해보려던 국세필일당에게 도리여 위협을 받게 되자 전 감사와 부사 같은 관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고말았다. 정문부도 할수없이 성밖으로 나섰다. 이때 불의에 날아온 한대의 화살이 어깨에 박혔다.

상한 몸으로 먼길을 갈수 없는지라 그는 배를 얻어타려고 라적동(지금의 라남)으로 향하다가 소로에 들어섰다. 계절은 8월 한가위였으나 벌써 선기가 나고 어느새 랭기가 스며드는 관북지방의 가을저녁은 추웠다. 하지만 피를 많이 흘린탓인지 목이 타는것 같고 몸에는 기름이 내린듯 진땀이 흘렀다. 마침 산기슭에 서너집되는 동네가 있었다. 그는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서 물을 얻어마시고 잠시 쉬여가기를 청했다.

《평사나으리가 아니십니까?》

물그릇을 들고나와서 길손을 이윽히 바라보던 주인늙은이가 물었

다. 모를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데 좀 당황하기도 한 정문부는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저는 이곳의 한 농군입니다. 나으리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야 모를리 있습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정문부를 부축해서 방에 들어앉힌 주인은 저녁상을 차려내왔다. 그는 정문부가 왜적앞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것을 알았다. 어깨의 상처는 필시 왜적이 아니면 그놈들앞에서 범의 위풍을 빈 여우모양으로 세도를 부리는 역적놈들에게 상한것이라고 짐작했다.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산너머에 있는 동네에두 평사나으리같이 역적놈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다니는 선비가 몇이 있는 모양이올시다.》

이런 말을 하던 주인늙은이는 상을 물리게 되자 《저, 잠간 다녀올테니 기다려주십시오.》하고 밖으로 나갔다.

지친 몸에 식곤증까지 나서 목침을 베고 얼핏 잠이 들었던 정문부는 밖에서 두런두런 나는 말소리에 피뜩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앉았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참말 평사나으리시군요!》

주인늙은이를 따라 들어온것은 최배천, 지달원이라는 두 젊은이였다. 최배천은 스물여덟이요, 지달원은 스물두살인데 다같이 경성향교(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장차 과거를 보려고 글을 읽는 젊은 선비였다. 그들은 작년부터 북평사로 경성에 와있게 된 정문부와는 가까이 지내온 사이였다. 그것은 소탈하고 청렴한 정문부의 인품을 존경하는것은 물론 글에서도 그에게 배울것이 많았기때문이였다. 정문부도 그들을 허물없는 친구로서 대했다. 그것은 아직 백면서생으로 글읽는 선비들이지만 그 사람됨이 호협한 젊은이들이기때문이였다. 그들은 퍽 오래간만에 만난것 같이 반가와했다. 불과 한달 되나마나한 사이지만 불의의 난을 당하여 피차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흩어졌던 사람들, 더우기 기탄없이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니 감개무량하기도 했던것이다.

이같이 만날수 있게 하여준 주인에게 치하한 세사람은 우선 지내온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형편을 비분강개하여 말하며 밤을 새우다싶이했다. 이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이 일치한 의견이였다.

《이런 생각은 우리만이 아니다.》 하는것도 일치한 말이였다. 그러니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서 의논하기 위해서는 국세필

의 일당이 눈을 밝히고있는 이 경성근처에서 좀 떨어져 사람들의 이목이 번다하지 않은데로 가는것이 좋으리라고 했다.

세사람은 이튿날 새벽에 무계를 향하여 떠났다.

주인늙은이는 세사람의 점심밥을 싸고 길량식까지도 내왔다.

《이 늙은것이 나으리들을 따라가지는 못하오마는 이 나라 백성된 맘이야 다르겠습니까. 이 길량식만이라두 제 정성으루 알구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과 함께 주는것을 굳이 사양할수 없어 받아든 정문부는 남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무계는 남쪽으로 백이십여리길이였다. 큰길에는 왜적과 반역자들의 래왕이 빈번하므로 산골짜기 오솔길을 골라 걸어야 했다. 많이 돌게 되는데다 상한 정문부때문에 길은 더욱 더디였다. 험한 령을 넘을 때는 그를 부축해야 했고 시내를 만나면 업어건네야 했다. 가다가 인기척이 나는 때는 숲속에 몸을 숨기면서 이렇게 이튿날 낮이 기울어서야 어랑천을 건넜다. 여기는 관북일대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어랑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장자호라는 큰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8경대가 있는데 거기서 또 남쪽으로 일리쯤 가면 무계호라는 맑은 호수가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힌 십리어간에 맑은 물이 들어차서 거울같은 호수를 이루었는데 이때가 마침 중추 팔월이라 단풍에 덮인 산들이 거꾸로 비쳐 수중산천을 이룬 호수가는 더욱 아름다왔다.

이 호수가에 리붕수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리붕수는 낮에는 농사하고 밤에는 글 읽고 비오는 날이면 낚시질하고 겨울 농한기에는 활을 가지고 산속으로 말을 달리며 산짐승사냥을 하는 사람이였다. 지금은 마흔다섯살 중년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게 기골이 정정한데다 호탕호협하여 사람을 사귀는데 로소를 가리지 않고 제 맘에 드는 사람, 제 뜻에 맞는 일이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성품을 지니고있었다.

지금 이리로 찾아온 정문부는 전부터 그에 대한 말을 익히 들어온 바였지만 서로 알지는 못했다. 다만 그의 형 리기수를 알뿐이였다. 경성의 좌수인 리기수로인 역시 뜻맞는 사람이면 로소동락하는 사람이라 한성내에서 공사로 상종이 잦은 정문부는 물론이고 향교의 한낱 선비들인 최배천, 지달원 같은 젊은이들과도 친분있게 지내왔다. 좌수 리기수로인은 정문부일행을 반가이 맞았다. 리붕수 역시 정문부를 구

면처럼 맞아들였다.

《이렇게 오신것은 한끝 믿을데가 있으리라고 여기신것이니 내 비록 당신네같이 젊지는 못하지만 이 몸을 채질해서 따라가도록은 하리다. 그런데 우선은 사람이요. 지금은 왜적과 역적놈들의 눈을 피해서 종적을 숨기고있는 사람들을 찾아야겠소.》

이렇게 말한 리붕수는 만호 리희당이 이 근처 어느 산간에 들어와있는것을 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이게 반가왔다.

리희당은 서른살이 좀 지난 장년 무장으로 경성에서 30리 떨어진 주을보를 지켜온 만호(지방에 소속된 군직의 하나)였다. 그는 활이 능했다. 몇해전에 경성부 동면에 있는 장령산에 큰 호랑이가 돌아쳐 길이 막히다싶이된 때 리희당은 홀몸으로 그 호랑이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화살로써 잡아죽이였었다. 사람들은 곧 그를 데려오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달원이 리붕수의 말을 빌어 타고 산속으로 달려갔다.

리붕수는 이제 모일 사람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술을 걸렀다.

이날 해질무렵 밖에서 문득 최배천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간 최배천은 곧 경원지방 안원보의 권관(리조때 각진에 속한 무관)이던 강문우를 데리고 들어왔다.

군사 수십명을 데리고 이 근처 산속에 들어와있던 강문우는 식량을 구하러 부락으로 내려갔던 군사들에게서 무계로 가는 북평사 정문부와 최배천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온것이다.

최배천은 강문우의 매부였다.

얼마후에는 지달원이와 함께 리희당이 왔다. 리희당의 말을 듣고 종성부사 정현룡도 이 근처에 피난해있다는것을 알게 되여 그에게도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

여기는 북의 경성, 회령과 남의 명천, 길주의 중간이요 또 큰길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이라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피난해가다가 이 산중으로 들어와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회령좌수 김옥과 경성서쪽 20리 떨어진 곳의 오촌보를 지키던 권관 구황이도 이 근처에 은신하고있었다.

리붕수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동지들을 널리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고을로 떠나기로 하였다.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된 때 조선사람치고 누가 수수방관하고있으며 누가 왜적의 압제를 달게 받을 사람이 있으랴. 서로 알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했을뿐이지 나가서 찾는다면 나라를 위해서 한목숨을 바쳐싸우기를 주저치 않을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서로 련락할 길이 없어 흩어져있을뿐이지 각처에서 수십명 혹은 백여명씩 모여 왜적과 싸울 기회를 엿보고있는 의병들의 집단이 없는데가 없었다.

정문부이하 많은 사람들이 결의하고 각처의 의병을 통합하게 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혔던 물이 제 곬을 따라 흐르듯이 많은 의병대표들이 무계를 향하여 달려왔다.

경성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는 부령, 회령, 온성, 경원, 경흥까지도 련락하고 남으로는 명천, 길주 등지로 연통하고보니 의병의 총수가 3천여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이 의병들이 다 한곳에 집결하지는 않았다. 지금 무계에 모인것은 그 대표들뿐이였다.

《좌중에 통할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들의 공론이 시작된 때 경성좌수 리기수로인이 나앉으며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론하는 의병은 우로부터 내려온 감사나 부사의 절제하에 군총을 초모하는것과는 일이 다른만치 먼저 우리 관북일대 백성들의 인망을 얻어서 민심을 수습할수 있는분으로 맹주 한분을 천거하는것이 일의 순서일것 같소.》

사람들은 저마다 새삼스럽게 좌중을 살폈다.

그들은 먼저 입을 여는이가 없는지라 피차 둘러보던 시선을 거두어 다시 로좌수를 바라보았다.

이왕 먼저 그런 발론을 했으니만치 그럴만한 사람이 누구라는것까지도 말해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리기수로인은 마치 《그다음은 여러분의 의사에 맡기오.》 하듯이 더는 말을 안할 모양이였다.

《내 의견 같아서는 여기 계신 종성부사나으리께서 나서주셨으면 하는데 좌중 의사는 어떨는지…》

마침내 경원부사 오응태가 이런 말을 했다. 즉 각처 의병의 맹주로서 정현룡을 천거한것이다. 그러자 《아스시오.》하고 정현룡이 손을 내흔들었다.

《내 그럴 생각이 없소.》

정현룡은 웬 까닭인지 얼굴을 붉히기까지 하면서 말했다.

《이 자리가 한 도호부의 일을 의논하는것도 아니니 기왕의 직책으

로 따지잘것도 못되고 또 가뜩이나 나는 한 패군지장이라고도 할 처지이고보니 썩 그럴 용기도 안 나오.》

그는 머리를 흔들고 한무릎 물러앉아 담에 기대고말았다. 그 말을 듣고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우리가 추대하는 맹주는 백성들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할것이웨다.》

리붕수가 불쑥 이런 말을 내놓았다. 일시 좌중은 긴장해졌다.

(저이가 저렇게 입이 빠르던가?) 하는 눈치가 사람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이 당시의 관료들치고 백성앞에 허물이 없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막론하고라도 리붕수의 그 말은 곧바로 정현룡이를 면박하는 말로 들리지 않을수 없었다.

종성부사 정현룡은 왜군이 자기 지방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겁해서 적앞에 투항할양으로 항서까지 초했던 일이 있었고 그것을 적장 가등청정에게 바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소문이 민간에 퍼져있었던것이다.

《내 생각 같애서는 북평사 정공이 백성앞에 나서시는것이 가장 떳떳한 일인줄로 압니다.》

리붕수가 또 이런 말을 하자 《좋습니다!》 하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많은 대표자들의 추대를 받아 관북의사들의 맹주가 되고 또 의병의 대장이 된 정문부는 장차 왜적과 싸우기 위해 먼저 반역자들을 숙청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성으로 들어갈 계책을 세워야 할것이였다.

경성은 관북의 중심지로서 남북으로 각각 이틀길이 되는 회령과 명천의 중간이라 그곳의 국세필일당을 먼저 제압한다면 회령과 명천과의 련락을 끊고 국경인과 정말수도당을 각개격파하기가 쉬울것이였다.

이때 어랑천에 모인 의병은 불과 백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만으로는 국세필도당의 세력을 당할수 없으므로 각처에 있는 의병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일시에 경성으로 쳐들어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정문부는 그들과는 생각을 달리했다. 아무리 전체 의병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경성의 견고한 성벽에 의지하고있는 국세필도당을 하루아침에 요정내기는 힘들것이였다.

설혹 경성을 속히 탈환할수 있다 하더라도 이편의 희생이 많을것이

요 또 만일 싸움을 며칠이라도 끌게 된다면 회령의 국경인과 명천의 정말수도당에게 남북으로 협공을 받을 념려가 십분 있었다. 그뿐아니라 마침내는 길주에 있는 왜군까지도 달려들게 될것은 뻔한 일이였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도 약한 우리 의병의 세력이 꺾이우고말 념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은 크게 싸움판을 벌릴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세력을 키워가면서 기회를 보아나가는것이 상책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뿐이 아니였다. 정문부는 숙청해야 할 반역자의 도당을 그리 큰 세력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 괴수인 세놈과 그밑의 몇몇 악질분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일시 놈들의 유혹에 빠져 그리되였거나 위협공갈에 못이겨 굴종하는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작 숙청할 반역자는 얼마가 안된다. 그밖의 사람들은 이편에서 하기에 따라 다 넘어올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만일 지금 서뿔리 경성으로 쳐들어간다면 그들마저 완전히 적이 되여 이편으로 활을 쏘게 될것이다. 그것은 우둔한 일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정문부는 당장 접전을 하기보다 세력을 더 기르기 위해 민간으로 사람을 보내여 널리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국세필도당의 정형을 탐지할 목적으로 경성의 정형을 잘 아는 군사들을 뽑아 그곳으로 보냈다.

이무렵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무산근처의 도적들이 경성 성밖의 바로 서쪽인 보화보 골짜기에까지 들어온것이였다. 불의의 국난을 당하여 관북6진이 거의다 비다싶이된것을 안 도적들은 부령의 고현을 거쳐 동해안 가까운 경성까지 깊이 들어왔다. 이야말로 엎친데 덮친다는 격의 반란이 아닐수 없었다. 민간의 피해는 심했다. 그 세력이 심상치 않으므로 성내에 있는 국세필의 일당들까지도 언제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해있었다.

경성 토병 별시위 유억수와 갑사 리태욱과 정병 강득황 등 세사람은 왜적의 머리를 한둘씩 베이고 그놈들의 환도를 빼앗아 숨겨두었던것을 가지고 정문부가 보냈던 사람들을 따라왔다.

그들이 말하는 경성의 정세는 정문부의 추측과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필의 수하에 머물러있기는 하나 그놈들의 억압에 못이겨 있는것이지 결코 심복해 있는것이 아니라고 했다. 리봉수는 그들을 후히 대접했다.

이때 최배천이가 단신으로 경성에 들어가기를 자원했다. 그는 경성 성안의 동쪽모퉁이에 있는 국세필의 집과 이웃에 살아왔으므로 그자와는 상종이 많았던것이다.

경성에 들어간 최배천은 이때까지 왜적을 피해다녔지만 지금은 경성이 이미 우리 사람의 손에 들어왔으므로 다시 집에 돌아와 살겠노라고 했다. 국세필이 처음에는 별로 그를 의심하는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동헌에 위의를 갖추고 앉은 다음 최배천이를 불러들이더니 《이 성안으로 돌아와서 살 작정이라면 어째 권속들은 데려오지 않고 혼자만 왔느냐?》고 그 까닭을 캐는것이였다. 어제와는 딴판으로 아주 서슬이 푸른 태도였다.

구미호같이 잔꾀가 든 그의 늙은 어미가 《최배천이는 본시 개결(성질이 단단하고 깨끗한것)한 선비로 자처하는 사람이라 너한테 심복할 위인이 아니므로 그냥 두었다가는 필경 큰 화근이 될것이다.》고 했던것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본 최배천은 그럴수록 태도를 더욱 태연히 했다.

이제 곧 권속들을 데려올 작정이였으나 막상 와서 본즉 바로 성밖에서까지도 횡행하는 북로(북쪽에 있는 오랑캐)때문에 이 성안에서도 맘놓고 살 형편이 못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반문한 그는 국세필이 대답을 못하자 담담한 어조로 말하기를 《북로가 더욱 강성해서 만일 이 성까지도 빼앗긴다면 너나할것없이 어디로 갈것인가. 그전에 우리 사람들이 협력해서 성을 지키도록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하였다.

최배천은 국세필이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눈치를 보고 정문부의 말을 꺼냈다. 북평사는 한낱 문관이기는 하나 병법을 잘 알고 또 평소에 인망을 얻어온 사람이라 그가 이 성에 들어온다면 근경 백성들이 믿고 모여와서 능히 이 성을 지킬것이요 혹은 또 북로를 회유하여 스스로 물러가게 할수도 있으리라고 했다. 국세필이 처음에는 정문부를 꺼렸으나 그의 지혜와 책략을 빌어 제가 독판을 쳐온 경성 일읍을 길이 제 천지로 만들어볼 욕심이 동하는지라 드디여 그와 손잡는것을 허락했다.

돌아온 최배천의 말을 들은 정문부는 곧 경성으로 떠날 작정을 하였다. 무장들이 다같이 가려고 했으나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백명의 의병과 강문우, 리희당 등 두세 군관만을 데리고 가기로 하

였다.

일행이 어랑천을 떠나 경성 성밑에 이른것은 9월 열흘날이였다. 그런데 국세필은 최배천에게 한 말과는 달리 성문을 굳게 닫고 들이지 않았다.

정문부는 경성 남쪽 2리가량 되는 류정에 군사를 머물고 최배천을 성안으로 보냈다. 국세필은 최배천을 만나자 정문부가 어째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는가 따졌다. 이때 최배천은 지금 북평사가 군사를 데리고온것은 단 백명일지라도 이 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그런데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후에 이 성이 위태롭게 되는 날 성안에 남아있는 군민들까지도 그대를 원망하고 흩어지게 될것이라 누구와 더불어 이 성을 지킬터인가 하며 일변 국세필을 달래기도 하고 또 위협도 했다.

그 말도 그럴듯하거니와 또 아무리 지략이 있단들 단 백명 군사로 써야 내 큰 세력을 제 어찌하랴 하는 배짱도 있어서 국세필은 결국 성문을 열었다.

정문부일행이 들어가는 수성문(즉 남문)에서 전날의 병마절도사 행영까지의 큰길에는 기치창검을 든 국세필일당의 군사들이 좌우로 삼엄히 늘어서있었다. 말은 정문부일행을 영접하는 의장병이라 하지만 실은 그들을 위압하기 위한 시위였다. 아닌게아니라 그 수부터도 비교가 안되게 적은 정문부의 의병들은 기가 눌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대장 정문부가 하도 태연자약한데 저으기 마음을 놓았다.

국세필은 정문부를 맞아들이며 겉으로는 흔연히 대하였으나 은밀히 제 수하 몇놈을 시켜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동정을 살피게 할뿐아니라 그뒤에는 또 칼을 품은 자객을 따르게 하였다. 그 기미를 알게 된 강문우와 리희당은 곧 국세필을 베이자고 했다. 정문부는 그같이 조급히 서둘러서는 성안의 백성들과 친숙하기도 전에 그들을 겁내게 하여 가까이할 기회조차 잃게 될것이라고 설득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먼저 국세필을 달래여 성중 군사들을 다 한데 모으게 하고 그들이 강문우와 리희당의 지휘하에 조련을 받도록 했다. 그렇게 하는것은 국세필의 부하군사들과 의병들이 서로 가까이할 기회를 지어줌으로써 그들을 설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종당은 정문부수하 무장들의 지휘를 달게 받도록 하려는것이였다.

수성문앞 넓은 들에서 군사조련이 있을 때마다 정문부와 국세필은

같이 남문루에 올랐다. 여기서 그들은 이 두사람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되였다. 안올림벙거지에 남천릭을 떨쳐입고 남문루안에 높이 마련한 자리에 앉아서 합죽선(부채)을 펴락접으락하며 거드름을 부리고 있는 국세필과 그와는 반대로 보통갓에 직령을 입고 푸른 술띠를 눌러맸을뿐인 한날 조촐한 선비의 차림으로 문루처마밖의 성첩우에 단정히 서있는 정문부는 실로 대조적이였다. 낮에는 별이 따가왔으나 정문부는 부채질을 하지 않고 처마그늘로 들어서지 않았다. 쉴참이 되여 군사들이 그늘을 찾아 앉은 후에야 그는 문루로 들어갔다. 조련은 저물 때까지 계속했다.

국세필은 구경하다가 지루하면 언제든 자리를 일어 집으로 돌아갔다. 저만이 먼저 돌아갈뿐아니라 술자리를 차렸으니 오라고 사람을 보내여 정문부를 청하는 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정문부는 차차 간다고 하면서 조련이 끝나기까지 서있다가 군사들이 군영에서 저녁먹는것을 보고야 돌아갔다. 점심때도 역시 그랬다.

이러한것은 한날 사소한 일인듯 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하루는 소나기가 퍼부었다. 조련은 그냥 계속되였고 정문부 역시 제자리에 서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있는 그는 군사들의 주의를 끌었다. 비로소 군사들은 저희들이 앉아 쉬기 전에는 정문부가 앉지 않고 저희가 먹기 전에는 정문부는 먹지 않고 저희가 비를 맞으면 정문부도 비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것을 알았다.

군사들은 자기네를 사람대접하는것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그후부터는 진종일 조련을 하되 피곤한줄을 몰랐다. 덥거나 춥거나 먹거나 굶거나를 같이 하려는 사람이 누구인가. 군사들은 정문부야말로 생사존망을 같이할수 있는 자기들의 대장이라는것을 알았다.

사졸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정문부만이 아니였다. 직접 군사들을 조련하는 강문우, 리희당도 정문부의 본을 따랐다.

이로부터 경성의 군민들은 국세필과 그 졸개인 우두머리 몇놈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안 보이나 그자들이 없는데서는 자기네가 정문부를 심복한다는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정문부가 데려온 사람들과 더욱 가깝게 지냈다.

이때부터 경성은 사실상 정문부의 손안에 들었다. 국세필은 여전히 왜장이 준 인궤를 들고있었지만 한갖 치레뿐이요, 경성의 민심은 정

문부에게로 돌아갔다.

9월 27일 아침이였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로부터 홀연히 서문밖에 왜적이 나타났다는 기별이 왔다. 40명쯤 된다는것이였다. 그것은 길주의 적이 이곳의 정형을 살피기 위해서 보낸 순라대였다.

이때도 군사조련을 하던중이라 정문부와 국세필은 남문루에 있었다. 군사들의 시선은 두사람에게로 모였다. 불의에 나타난 왜군에 대하여 두사람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때가 바로 두사람의 형세가 역전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였다.

《성문을 열고 왜군을 맞아들여라.》

자리에서 비둔한 몸을 일으키며 국세필이 령을 내렸다. 군사들은 서로 돌아볼뿐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정문부는 성밑에 매두었던 말을 끌러 타고 군사들의 앞으로 나서며 《왜적과 싸울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라.》 하고 웨쳤다.

그 말이 떨어지자 리희당, 강문우, 구황은 검을 높이 쳐들며 군사들에게 서문으로 진군하라고 호령했다.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대장 정문부의 뒤를 따랐다. 반역자 국세필의 앞에는 불과 십여명이 남아있을뿐이였다.

서문으로 간 정문부는 활가진 군사들을 문루좌우의 성첩에 매복시키고 전날 가등청정이 들어왔을 때 국세필과 더불어 적들과 접촉이 있었던 군관 한사람을 시켜 문루에 올라가서 왜군에게 성문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게 하였다.

4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밑에 와있던 적장은 전만치 여기고 득의양양하게 앞장서서 환히 열린 문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강문우가 맞받아나가서 단칼에 베였다. 그것을 신호로 매복했던 군사들이 일제히 활을 쏘고 돌을 굴렸다. 불의의 공격을 받게 된 왜군 십여명이 단번에 꺼꾸러졌다. 놈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리희당과 강문우, 구황은 날랜 기병 20여기를 데리고 추격해나갔다. 일변 따르고 일변 접전하기를 십여차례나 하면서 남쪽으로 40여리 되는 영강역까지 추격하는중에 적들을 거의다 죽였다.

이날 밤 삼경에 그들은 적의 머리를 20여급이나 베여가지고 돌아왔다.

그러자 성내의 두 세력은 완전히 처지가 바뀌였다. 성안의 군민은 더 서슴지도 숨기지도 않고 정문부의 편으로 넘어왔다. 완전히 고립

된 국세필일당은 인민들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였다.
경성의 이러한 사태가 회령에 알려졌다. 국경인은 궁지에 빠진 국세필일당을 돕고 그의 세력을 다시 추세우기 위하여 경성으로 쳐들어갈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벌써 자기에게는 그럴 힘이 없는것을 알았다.
성안의 군민들이 벌써부터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회령 의사의 한사람인 오윤적이가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경성의 정형을 들어서 인민들을 설유한것이였다.
그러한 기미를 안 국경인은 오윤적을 죽이려고 잡아가두었다. 그러나 오윤적의 동지들은 이미 세력이 약해진 국경인의 일당을 교묘한 술책으로 한곳에 모이게 한 후 일망타진할수 있었다. 그것이 10월 초하루였다.
이제는 명천의 정말수일당이 남았을뿐이다. 그동안 명천의 인민들도 자기 지방의 수치스러운 반역자일당을 숙청하려고 여러번 일어난적이 있었다.
그러나 놈들은 성에 의지하고있을뿐아니라 왜적이 준 화포를 가지고 대항하기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문부는 강문우와 구황에게 군사를 주어 명천으로 보냈다.
경성이 벌써부터 의병의 손에 들어가고 회령의 국경인일당까지도 없어진 이때에 정문부의 의병이 쳐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정말수는 자기의 운명도 이미 진한줄 알고 명천성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숨으려 했다. 그러나 반역자를 저주하고 노려온 인민들의 눈은 도처에서 빛났다. 10월 초순에 그 일당은 그곳 인민들에게 잡혀서 처단되였다.
그후 국세필과 그의 도당 열세명도 정문부에 의하여 처단되였다.
10월 21일, 정문부는 경성 이북의 의병 천여명을 거느리고 드디여 명천으로 진군했다.
군사를 거느린 정문부는 적이 들어있는 길주성을 정면으로 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우선 길주성주변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느라고 며칠동안 산과 골짜기로 말을 달렸다.
정문부는 적과의 싸움에서 지형을 리용하는것은 수천수만의 후원군 못지 않게 도움이 된다는것을 잘 아는 장군이였다.
그래서 그는 사처에 복병을 깔아놓았다.
왜군이 길주성 북쪽의 산협 밖으로 나가 략탈을 하는중이라는 정보

를 받은 정문부는 우선 고령첨사 류경천으로 하여금 그가 길주지방에서 모은 의병 천여명을 거느리고 산간소로로 빠져서 길주 남쪽의 90리가량 되는 해정창 근처에 둔치게 했다. 해정창에는 왜군이 그 벌판 한가운데다 목책을 둘러치고 군사를 주둔시키고있었다. 그것은 성진을 거점으로 쌍포와 림명일대를 강점하고있는 소위 《령동책》이라는 요새였다. 그러므로 류경천의 군사가 해정창 북쪽에 둔친것은 길주의 적과 해정창의 적이 서로 호응하지 못하도록 큰길을 차단하여 두곳의 적을 각각 고립시키기 위한것이였다.

다음에는 길주성 북쪽 35리에 있는 고참역에다 정병 사백여기를 복병하여 명천방면의 큰길을 견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적을 맞받아칠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경원부사 오응태를 우위장으로 삼아 길주성의 서쪽인 량리와 서북보를 지키게 하고 종사관 원충서에게는 정병 이백여기를 주어 길주성 북쪽에서 널리 사방을 살필수 있는 아간창 뒤산마루에 복병하게 하고 또 그밖의 방원첨사 한인제와 척후장 구황, 우척후장 강문우와 군관 박은주, 좌우복병장 고경민 등으로 하여금 각각 수백명 혹은 수십명씩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소마다 복병해있다가 신속히 적을 공격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같이 길주성주변에 포위망을 늘이는 의병들은 이곳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을 앞세우고 교묘하게 산길을 따라나갔으므로 적들은 그들의 행적조차 알길이 없었다.

10월 그믐날 이른아침이였다. 원충서의 군사가 복병하고있는 산마루에서 내려다보이는 골짜기의 저편 산모퉁이로부터 적병들이 나타났다.

이산저산이 이마를 맞대듯이 가까이 마주선 두 산 짬의 병목같이 좁은 골짜기를 거쳐 그보다는 다소 넓게 트인 이쪽 산협안으로 들어오는 적은 천여명이나 되였다. 산협밖의 농촌으로 나가서 략탈하다가 사람들까지 붙들어가는 놈들은 많은 소와 돼지들을 몰고 끌며 길주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좁고 험한 협곡을 지나 좀 평탄하게 트인데로 태평스럽게 들어선 놈들은 여기가 어떤데라는것을 몰랐다.

끝없이 높고 맑은 하늘, 흰구름, 그밑에 짙은 비취색으로 창창히 푸른 소나무, 잣나무로 꽉 들어찬 좌우쪽의 아아히 높은 산들! 이따금

불어오는 초겨울바람에 우수수 설레는 수림들을 보면 마치도 대지가 거대한 호흡을 하는것 같았다. 조국의 산! 지금 그 품속에 안겨있는 의병들은 정의의 창검과 활을 틀어쥐고 적들을 굽어보고있었다. 그들은 근육이 울근불근한 팔뚝을 어루만지며 가슴깊이 대기를 들여마시였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모르는 왜군은 저마다 한가히 지껄이며 대오를 흐트리고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적의 맨끝 꼬리까지 다 골안에 들어서게 된 때였다.

이편 산중턱에서 한번 퉁— 하고 북소리가 울리자 태고적부터의 침묵을 지키고있는듯 하던 산속에서 와— 함성이 일며 비발치듯 화살이 날고 큰 바위들이 굴러내리였다.

뜻밖의 함성에 놀란 왜군은 어찌된 일인지 두서를 가릴 겨를도 없이 살과 돌에 쓰러지게 되였다. 골짜기 밑바닥에서 욱실거리는 놈들을 향하여 일제히 날리는 궁수들의 화살은 개개 명중이였다. 또 여기저기 강파로운 비탈로 굴리는 바위들은 혹은 걸리는대로 놈들을 휘감아 내려가기도 하고 혹은 큰 벼랑에 부딪쳐 허궁 나뗬다가 놈들 한가운데로 떨어져서 한꺼번에 몇놈씩 육장을 만들기도 했다. 순식간에 백여명이 꺼꾸러졌다. 골바닥은 금시 수라장으로 변했다. 적들은 전투서렬을 펴기 위해서 산개하려고 하였다. 먼저 궁수들을 노려 불질을 할양으로 적군 조총수들이 맞은편 산으로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역시 왜적이 맘대로 발을 붙일수 있는 산은 아니였다.

한인제가 거느린 삼백명의 군사들이 이미 그 산에서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적들은 산개하기는 고사하고 이제는 좌우협공을 받게 되였다. 좌우쪽 산에서 쏟아지듯이 내려오는 화살에 말을 탔던 장수 몇놈이 떨어졌다. 궁수들이 저들을 먼저 노리는것을 알게 된 적장들은 별수없이 말을 버려야 했다. 그러고보니 가뜩이나 혼란된 저희 군졸들속에 무디게 된 놈들의 호령이 널리 미칠리가 없었다. 무장지졸이 되다싶이한 적장들은 화살과 돌을 피하려고 뿔뿔이 달아뺐다.

의병들은 달아나는 적의 앞을 막아 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적으로 하여금 트인 골짜기로 빠져나가도록 재촉하듯이 좌우쪽산으로 붙어가면서 추격하는 태세를 취했다.

길주성으로 빠지는 이 산협길은 내내 앞이 트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였다. 이리 굽고 저리 휘도는 골짜기길은 가다가 또 병목같이 좁은

산짬을 거쳐야 했다. 그러한 골짜기에서는 복병들이 기다리고있었다. 좌우산속에서 달려나온 의병들은 좁은 목에 들어서 더욱 가늘어진 적의 대렬의 한토막을 끊어가지고 육박전을 했다. 첫 고개에서는 척후장 구황의 복병이 나섰다. 다음 골짜기에서는 우척후장 강문우의 복병이 짓쳐나왔고 그다음에는 군관 박은주의 일지대가 달려나왔다. 늘어진 적대오의 한토막씩을 끊을 때마다 복병장들은 혹은 북을 울리고 혹은 화전을 공중에 날렸다. 그런 신호가 있으면 원충서와 한인제의 군사들은 더욱 맹렬히 적의 배후를 엄습함으로써 끊기운 적의 한부대를 앞뒤로 협공할수 있었다.

이같이 험준한 지형에 의거하여 곳곳에서 일어나는 복병의 포위망속에 걸려든 적군은 여러번 접전을 하기는 했으나 한번도 병력을 한데 모아가지고 싸울수 없었다. 대가리가 뒤의 꼬리를 돌아볼수 없고 꼬리가 제 대가리를 감싸줄수 없을만치 좁고 험준한 협곡을 따라나가다가는 여기저기서 달려나오는 복병들에게 한토막씩 끊기웠으며 번번이 많은 시체를 남기고 달아났다.

이미 반이상의 병력을 잃은 왜군은 간신히 협곡을 빠져나갈수 있는 마지막고개에 다달았다. 장평고개였다. 그러나 왜적은 이 장평고개 역시 무사히 넘을수 없었다.

벌써부터 복병하고 기다리던 좌우복병장 고경민의 군사가 놈들이 올라오는 령길의 좌우와 앞을 막아나섰다. 북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일어나고 화살이 비발치듯 날고 바위가 굴렀다. 왜군은 여기서 완전히 넋을 잃었다.

구시월 해가 짧기는 하나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수십여리를 가는 동안에 도처에서 복병을 만나 패전에 패전을 거듭해온 왜군은 멀지 않은 길주성으로 도망해들어갈 구멍만을 찾았다. 놈들은 돌아서서 뒤쪽으로 흩어지려 했다. 그러나 뒤에는 벌써 추격병이 달려오고있었다.

리희당, 강문우, 구황, 박은주 등 곳곳에서 적의 대렬을 끊고 섬멸해온 복병장들의 군사가 원충서, 한인제의 추격부대와 합세하여 풍우같이 몰아왔다.

좌우에 깎아지른듯 싶은 산이 마주선 협곡안에서 앞에 나타난 군사와 뒤에 달린 많은 추격병에게 앞뒤로 협공을 받게 된 왜군은 여기가 저희들의 사지판이라는것을 알았다. 놈들은 최후의 혈로를 열어볼 양으로 발악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이제는 수적으로도 우세를 차지하

지 못한지라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산등에서 내려오며 좌충우돌 몰아치는 의병을 당할수가 없었다. 결정적타격을 받은 왜군은 살아서 길주성으로 도망해들어간자가 겨우 이백명이 되나마나했다.

이날 싸움에서 의병들은 적장 다섯놈을 비롯하여 팔백여명을 죽였다. 그리고 적의 군마 백열여덟필과 많은 무기들을 로획하고 또 놈들이 잡아가던 사람들과 놈들이 략탈해가던 많은 가축과 량식들을 도로 빼앗았다.

이것이 정문부의 의병이 왜군과 싸운 첫번 싸움이요, 동시에 첫 승리였다. 이를 관북의병의 장평대첩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길주성안에 남아있는 왜군은 더 머리를 들지 못했다. 정문부의병부대와의 한번 싸움에서 수많은 병력을 잃은 놈들은 의병앞에 전률할뿐아니라 이 땅의 산까지도 무서워하게 되였다. 깊은 골짜기와 험준한 산악들! 그 어느 갈피에서 의병들이 달려나올지 모르기때문이였다.

이때 의병들은 살아남아 도망하는 잔적을 추격하여 길주성앞에까지 나갔다. 그러나 정문부는 길주성을 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기세가 비록 꺾이기는 했으나 아직도 놈들은 튼튼한 길주성에 의지하고있었던 것이다.

성안에 들어있는 적을 친다는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해야 할 일이였다. 더우기 왜군에게는 조총이 있다. 들이쳐서 길주성을 빼앗을수 있다 하더라도 희생이 많을것이다. 혹여 길주성을 빼앗는것으로써 최후결전이 된다면 모르거니와 아직은 그렇지 않다.

정문부는 즉시 군사를 돌려 해정창으로 진군했다. 길주성의 적이 감히 머리를 쳐들 생각도 못 내게 된 이때를 타서 령동책의 적을 치려는것이였다.

정문부는 우선 여러 갈래로 척후들을 앞세우고 행군했다.

령동책을 삼십리쯤 앞에 둔데까지 이르렀을 때였다. 얼마 멀지 않은 더버라는 부락에 왜군이 들어와있다는 정보가 왔다. 그것은 거도문이라는 적장이 데리고나온 사백여명의 불한당떼거리였다. 근처의 촌락들로 돌아다니며 략탈을 하던중에 더버에 있는 리배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빚어두었던 많은 술을 뒤져낸 놈들은 소와 돼지를 잡아놓고 술추렴을 하기 시작했다는것이다. 마침 잘되였다. 그러지 않아도 정문부는 령동책을 직접 치기보다 적이 요새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미처 안 나오면 나오도록 유인해서 유리한 지점으

로 끌어내다가 칠 작정이였다.

의병장들중에는 이제 곧 그 부락을 에워싸고 들이치자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을사람들이 많이 상하게 될것이다. 그뿐아니라 마을주변에는 넓은 밭들이 있어 적들이 흩어져 달아날 념려도 없지 않았다.

정문부는 이번에도 요해처에 복병했다가 적들이 저희 근거지로 돌아가는것을 치기로 하였다. 그는 이곳 지리에 밝은 길주사람 허진과 김국신을 불러 의논한 후 적이 돌아갈 해정창 삼십리길중에서 가장 골이 깊고 좌우의 산이 험준한 돌고개에 복병하기로 작정했다.

동지달 초순, 이 높은 산악지대는 벌써 눈이 덮인지 오랬다. 날이 저물어갈무렵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복병할 곳으로 가는 의병들은 놈들이 들어올 통로에 발자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좌우쪽 산중턱의 길없는 수림속을 헤치고나갔다. 고개앞에 이른 그들은 그밑의 긴 협곡을 사이에 두고 량쪽산기슭으로 내려붙었다. 그 골바닥에서 활을 쏘아맞힐만 한 거리에 내려오자 각각 큰 나무와 바위돌을 의지하고 잠복했다. 깊은 골짜기라 바람은 없었지만 가라앉은 랭기가 옷속으로 스미였다. 그러나 의병들은 맵짠 이 관북추위에 단련되여온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이제 왜적들로 하여금 무리주검을 쌓게 할 골안을 내려다보며 벌써부터 활에 살을 먹여들고 싸움을 돋우는 목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맞은산 상봉에만 해빛이 남고 협곡일대에 커다란 산그림자가 덮이게 된 때에야 왜군이 나타났다. 술에 취한 적의 대오는 몇놈씩 떼지어 흐트러져있었다. 보매 우두머리인듯싶은 놈들일수록 더욱 취했다. 떠들고 지껄이는 놈, 비틀거리는 놈, 남에게 꺼둘려오는 놈, 그중에는 병장기를 가지지 않은 놈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편 그렇게 취할만 한 술이 돌아오지 않았던 모양인지 추위에 떠는 군졸들이 많았다. 본시 이곳 추위를 막을만 한 옷을 제대로 못 입은 놈들인지라 조총과 창을 꽁무니에 되는대로 매달거나 팔짱을 찌른 겨드랑이밑에 끼고 걸었다.

적의 선두가 돌고개밑에 다달으자 북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좌우쪽에서 만궁으로 당겨쥐고있던 궁수들의 화살이 일시에 날았다. 골안에는 왜군의 아우성소리가 가득찼다. 시체우에 시체가 덧쌓이게 쓰러졌다. 적들도 조총질을 하는 한편 창칼을 가지고 언덕으로 기여올라 궁

수들을 엄습하려 했다. 그 순간 적의 배후로부터 함성이 일어나며 수십기의 기마대를 앞세운 추격병이 달려들었다.

의병의 화살에 병력이 이미 반이나 줄어든 왜군은 이제 또 저희들의 배나 되는 추격병이 달려드는것을 보고는 더 싸울 용기가 없었다. 더우기 날쌔게 몰아치는 기마대앞에서는 매번 화약을 다지고 탄알을 재워야 하는 조총을 어느 하가에 쓸수도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혈로를 얻어 이 골짜기를 벗어나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적들은 앞이 틔여있는 돌고개로 몰려가며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였다. 기여오르던 벼랑에서 앞의 놈이 떨어지면 다음놈이 그놈을 디디고 기여올랐다.

돌고개 저편의 열은 골짜기를 지나가면 동해와 련한 쌍포벌판이였다.

왜군은 여기서 령동책까지 시오리어간을 내내 의병의 추격을 받으며 달아났다. 적의 시체는 길에 널리였다. 사백여명중에 살아서 령동책으로 들어간 적은 불과 이십여명밖에 안되였다.

이것이 관북의병의 둘째번 승전인 쌍포싸움이였다. 이로부터 령동책의 왜군은 다시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후 정문부는 의병을 두 대로 나누어 그 하나를 정현룡에게 맡기여 해정창주변에 머물러있으면서 령동책의 적을 견제하게 하고 남은 한 지대는 자기가 거느리고 길주를 향하여 떠났다.

그것은 정문부의 실책이였다.

정현룡은 무계호에서 의병을 일으킬 당시 누가 저더러 맹주가 되라고 했을 때는 굳이 사양했던 사람이였다. 실은 사양이 아니라 겁냈던것이다. 론의하는데 참가는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될가 하여 의병의 힘을 믿지 않았었다. 《체면이 사람 죽인다》고 단지 남이 다 의로운 일을 한다는데 저만이 못하겠다고 할수가 없어 참가하기는 하면서도 일이 될것 같지 않은 의병의 대장이 되기는 싫었던것이다. 그런데 그후 일은 어떻게 되였는가! 의병의 세력은 날로 자랐다.

그는 정문부가 명천으로 진군하려 할 때 그것을 반대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자는 핑게로써 경성에 주저앉아있기를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믿을수 없는 의병 즉 성명없는 백성의 무리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왜군을 당할수 있으랴싶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그후 일은 어떻게 되였는가! 장평싸움에서도 또 이번 쌍포

싸움에서도 왜군에게 섬멸적타격을 주는 승리를 얻었다.

정현룡은 《이럴줄 알았으면…》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현룡은 비겁한자였다. 비겁하기때문에 저는 감히 못하면서도 남이 해서 성공하는것을 보면 시기하였다. 그는 정문부를 시기했다. 의병이 일어난 초기에 저더러 되라는 대장이 안되였던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그는 지금 요행 제 지휘하에 들어온 의병을 가지고 대장이 못한 일을 함으로써 정문부보다 더 큰 공을 세워보겠다고 욕심을 내였다. 이런 욕심도 비겁한자의 한 특성인것이다. 바로 그 욕심은 비겁한자의 《용기》라고도 할수 있었다.

정문부가 길주로 떠날 때 해정창주변에 머물러 왜군이 더 발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라고 맡기고 간 의병으로써 정현룡은 대장이 못한 일 즉 령동책을 정면으로 칠 작정을 하였다. 령동책은 앞서도 말했거니와 해정창 벌판 한가운데다 굵은 통나무들을 박아 목책을 둘러친 왜군의 요새였다.

지난 7월에 왜장 가등청정의 군사가 마천령을 넘어왔을적에 바로 이 벌판에서 관북6진의 군사를 거느린 한극함이 처음에는 잘 싸웠으나 나중에 적이 해정창 곡식섬으로 성을 두르고 조총질을 하게 되자 크게 패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지금의 령동책은 곡식섬으로 성을 두른 류가 아니라 튼튼한 요새였다. 비겁자의 《용기》가 뻗친 정현룡은 그런것은 생각지 않았다. 그는 의병을 몰아 적의 요새를 치게 하였다. 그러나 화살이 미치는데까지 접근하기도 전에 적의 조총알이 비발치듯 날아왔다. 활 한바탕안에 들어설수만 있으면 장약하는 품이 드는 적의 조총보다 연거퍼 손쉽게 갈길수 있는 활이 더 힘을 쓸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수 없었다. 적군은 목책의 통나무기둥들을 의지하고 불질하는데 의병들은 허허벌판에 들어섰다. 목책앞에 접근하기도 전에 많은 희생자를 낸 의병은 물러설밖에 없었다. 한 비겁자의 《용기》로 하여 의병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던것이다. 이것이 12월 19일의 일이였다.

정문부는 이 일에 대하여 정현룡을 크게 책하려고는 안했다. 이미 저질러놓은 일을 가지고 시비를 따지느니보다 한쪽이 이지러지다싶이 된 의병을 속히 수습하는것이 더 시급한 일이기때문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널리 애국적인민들을 불러일으켜야 하였다. 관북일대의 방방곡곡에 격문을 보내고 방을 붙였다. 또 한편으로는 리붕수, 리기수,

서수 갈이 자기 고을에서 인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 나가 직접 장정들을 모아오도록 하였다. 자원해나서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다. 그들을 맞아들인 정문부는 여러 의병장과 함께 그들에게 전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때 또 한가지 관북의병에게 적지 않은 루를 끼치게 된 일이 생겼다. 윤탁연이라는 또 하나의 비겁자가 등장한것이였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뒤로 돌아가게 되는데 윤탁연은 오래전부터 국록을 먹어온 높은 벼슬아치로서 이 란시에 림해군을 따라 함경도로 들어왔던자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안변서 순화군일행과 만나 함께 북으로 들어오던 그는 왜군이 철령을 넘어서 뒤달려온다는것을 알게 되자 왕자를 호송하는 임무도 다 줴버렸다. 그는 오직 제 한몸의 안전만을 도모하려고 잔꾀를 썼다. 그리하여 병이 생겨 더는 못 가겠다 앙탈하며 북청에 떨어져있다가 몰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한동안 숨어있었다.

그무렵 의주에 있던 조정에서는 윤탁연의 그러한 소행을 몰랐던만치 마침 비여있는 함경도감사의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비겁한자가 다 그렇듯이 뻔뻔스럽기도 한 윤탁연은 천연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별해에 감영을 차린 그는 감사노릇을 시작했다. 감사노릇의 첫 시작으로는 관북의병장 정문부를 잡을 잡도리를 하였다. 자기가 감사인 함경도일대에서 저보다 더 명망이 높은 사람을 그대로 둘수 없었던것이다.

그뿐아니라 정문부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의병의 전공을 자기것으로 만들고싶기도 했다. 그는 곧 정현룡과 결탁하였다. 그들은 먼저 정문부를 모함하는 말을 조작하여 퍼뜨렸다. 즉 정문부는 일개 병사의 막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병장이 되여 감사의 지휘까지도 받지 않을뿐더러 조정에 제 공로만을 내세우려고 남의 공로도 제것으로, 없는 공도 있는것으로 빚어올렸다는것이였다. 즉 정문부는 왕과 조정을 속였다는것이다.

다음에는 정문부의 죄상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좌기(관청의 우두머리가 제시간에 출근하여 일을 보는것.)를 벌리고 정문부를 네번씩이나 문초했다. 정문부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책 잡힐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그의 답변은 당당했다. 그럴수록 윤탁연은 더욱 정문부가 밉고 괘씸했다. 그의 죄책을 찾다 못한 윤탁연은 정문부의 죄를 날조

하여 왕에게 장계를 올렸다. 그는 장계에 쓰기를 이곳 관북에서 처음 의병을 일으킨것이나 또 의병이 왜군과 싸워서 몇번 승리하게 된것은 정문부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누구라는 다른 사람들의 공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정에서 그것이 다 정문부의 공훈으로 알고있는것은 실지 사실과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정문부에게 심복하는 의병장들이 가지고있는 왜군의 수급을 다 빼앗아 자기 편에 붙어서 정문부를 모함하는데 도움을 주는자들에게 뢰물로 나누어주었다.

정문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가 할일만 하고있었다. 그는 널리 인민들에게 호소하여 의병을 모으고 그들에게 전법을 가르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문부를 시기하는 무리들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윤탁연은 함경감사라는 자기 직권을 리용하여 12월 19일에 정문부를 의병대장의 자리로부터 몰아내고 그대신 정현룡을 그 자리에 올려세웠다.

윤탁연은 정문부에게 포망장(도망한자를 잡는 우두머리)이라는 직책을 주어 마천령으로 가라고 했다. 마천령을 지키다가 남쪽으로 도망하는 왜적을 잡으라는것이였다.

정문부는 그것만은 반대했다. 이 관북에 남은 왜군이 여전히 길주성과 령동책을 차지하고있어 달아나지 않거늘 어찌 그들을 마천령에서 잡을수 있겠는가?

윤탁연은 다시 정문부에게 북병사의 직책과 군사 오십명을 주며 두만강변의 6진을 순찰하라고 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이였다. 이때 북쪽에는 북로들이 처처에서 장난하는데다가 또 어떤데서는 숨어있던 반역자의 잔당들까지도 다시 대가리를 쳐들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새로 대장이 된 정현룡에게 삼위군을 다 넘겨준 후 오십명 군사를 거느리고 관북6진을 돌았다. 그동안에 정문부는 북로들을 회유하기에 힘썼다. 이편의 회유를 듣고 돌아간 북로는 대개가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회유해도 듣지 않는 북로는 빈틈을 노리다가 들이쳤다. 반역자의 잔당들은 경중을 가려 죄를 다스리고 혹은 처단하였다. 6진은 다시 안정되였다.

이듬해인 1593년 정월 열사흗날이였다. 6진순찰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진주에 이른 그는 뜻밖에도 속히 돌아와 다시 대장이 되라는 윤탁연의 편지를 받았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의병장졸들이 정현룡을 따르기를 달가와 하지 않았다. 대장에게 충심으로 복종하지 않는 군사의 규률은 자연히 해이해지는 법이다. 의병은 더욱 그렇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병영밥을 먹어온 사람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군률에 매여있었던것도 아니다. 그러니만치 그들은 엄한 군률보다도 자기네가 심복할수 있는 대장의 말을 더 잘 따른다.

윤탁연은 한달미만에 정현룡을 갈아치우고 오응태를 대신 세워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관료 정현룡과 관료 오응태는 종성부사, 경원부사적의 버릇대로 호령호령하는것만을 능사로 알았다. 의병들의 인심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군률은 해이되고 사기는 떨어졌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사도 있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기미가 보였다.

관북의병이 와해될 념려가 있다고 본 사람들은 윤탁연을 비난했다. 그중에도 강직한 리붕수같은 사람은 자기의 의분을 감추지 않고 윤탁연의 처사를 탄핵했다. 윤탁연은 더 길을 찾지 못하여 병권을 다시 정문부에게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걱정하면서 언제는 몰아내고 이제는 부르니 그렇듯 변덕스럽고 주책이 없는 감사앞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의병에 투신한것은 한몸을 바쳐 나라를 위함이라, 이제 한낱 사소한 사혐으로써 나라의 위급함을 모른다 하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하고 말한 정문부는 주저없이 의병을 맡았다. 그는 역시 부하 장병들이 쉬기 전에는 먼저 앉지 않았고 그들이 먹기 전에는 먼저 먹지 않았다.

정문부를 다시 대장으로 맞이한 의병의 기세는 올랐다. 흩어져갔던 사람들도 다시 모여왔다.

이때 마침 단천군수 강찬이 관북의병에게 원군을 청했다. 단천성을 강점하고있는 왜군을 치려고 하나 아직 미약한 단천군사만으로는 할수 없으니 관북의병이 협력해달라는것이였다.

정문부는 제장들을 불러 단천으로 출병할 의향을 내놓았다. 공론은 구구했다. 우리 관북의 적도 채 소멸치 못했는데 어찌 가벼이 군사를 딴데로 옮기랴. 뒤에 남아있는 적을 두고 지금 마천령을 넘는것은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길주와 령동책의 적이 아직도 옹크리고있는 이때를 타서 단

천의 적을 제압한다면 이 관북에 깊이 들어와있는 왜군을 더욱 고립무원한 궁지로 몰아넣게 될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놓아둔다면 령동책에서는 불과 사십여리요, 명천에서는 륙십리길인 마천령을 사이에 둔 남북의 적이 호응하여 이 관북의 적이 다시금 기세를 올리게 될 념려가 없지 않다. 그러니 지금 원군을 청하는 그곳 군사와 합세하여 단천의 왜군을 치는것은 이곳의 적을 치는데 길을 열어놓는것으로 되기도 할것이다.

드디여 공론이 일치했다. 정문부는 원충서로 하여금 삼위군을 통솔하여 관북의 적을 견제하게 하고 자기는 구황과 함께 정병 수백명을 거느리고 마천령을 넘었다.

계사년 정월 스무여드레날이였다. 립춘이 지난지도 십여일이 되건만 이곳 추위는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듯 했다. 단천성안에 들어앉은 왜군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문을 굳게 닫고 별로 나다니지도 않았다.

정문부는 적을 성밖으로 끌어내다가 치기로 했다. 그는 먼저 요해처를 택하여 복병시키고 말 잘 달리는 단천군사 삼십명을 뽑아 왜군에게 도전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단천성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욕하며 화전을 쏘아 성안으로 날려보냈다. 성첩에서 내려다보던 적들은 이때까지 략탈질을 일삼아 단천일대를 횡행해온판이라 불과 삼십여명으로 도전하는 단천군사를 우습게 여기고 대번에 무찔러버릴양으로 성문을 열고 달려나왔다.

단천군사들은 성밖으로 나오는 적을 활로 쏘고 또 달려드는 놈들과 창칼을 어울려 몇합씩 싸우다가 말머리를 돌려 내닫군 하였다. 왜군은 단천군사들이 저희와 더 싸울 용기가 없어 할수없이 달아나는줄로만 알았다. 놈들은 서슴지 않고 따라왔다. 단천군사들은 이따금 돌아서서 쫓아오는 놈들과 한두합씩 싸우며 말을 달리였다. 놈들의 기세는 더욱 높았다. 어느새 넓은 단천벌을 지나 산중으로 들어서게 된것도 몰랐다. 좌우쪽으로 높은 산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섰다. 앞장섰던 적들은 방금까지 저희앞을 달려가던 기병들이 홀연히 사라지는것을 보았다. 협곡의 한쪽산이 맞은 산을 내지를듯이 불쑥 내민 좁은 산모퉁이를 돌아 저쪽으로 사라진것이였다. 적장은 깊은 눈길을 삼십리나 쫓아온 단천군사들을 여기서 놓칠세라 더욱 다급히 졸병들을 몰아댔다. 달려가던 왜군의 선봉은 산모퉁이 저편으로부터 앞을 막아나선 복병과 부딪쳤다. 삽시간에 앞장서가던 대장들이 꺼꾸러지고 그뒤를 따르

던 보졸들이 자빠졌다. 그러자 또 좌우산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돌이 굴러내렸다. 앞으로 더 나갈수없이 된 적들은 서로 밟으며 돌아섰다. 비발치듯 하는 살과 돌에 많은 군사를 잃고 골짜기를 빠져나간 적들은 벌판으로 들어서는 산협어구에서 또 좌우로부터 달려드는 기마대의 협공을 받게 되였다. 벌써 많은 병력을 잃은 적들은 더 싸울 용기가 없어 단천성을 바라고 달아났다.

정문부는 자기 의병과 단천군사를 지휘하여 달아나는 적을 뒤쫓았다. 적의 시체가 단천벌 십여리길에 널리였다.

단천군사 삼십명을 잡으려고 이백여명이나 쓸어나왔던 왜군중에 다시 단천성으로 기여들어간것은 삼십명이 되나마나했다. 그나마도 화살을 맞거나 창과 칼에 상한 놈뿐이요 한놈도 성한 놈이 없었다.

이것이 관북의병의 세번째 승리인 단천싸움이다.

정문부는 구황으로 하여금 단천에 머물러 성내의 남은 적을 견제하게 하고 자기는 다시 마천령을 넘어와 령동책과 길주사이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두곳의 적을 차단해가지고 각개격파할 계획이였다. 정문부가 없는 동안에 길주에서는 작은 접전이 한번 있었다.

길주성을 먼발로 포위하고있던 원충서의 군사가 성밖으로 땔나무를 구하러 나온 왜군 십여명을 요격하여 적장 한놈을 잡아 목베였다. 그후부터 길주와 령동의 적들은 더욱 나올념을 못하고 들어배겨있었다.

그러나 이때 정문부는 의병을 일으킨이래 처음으로 대적과 맞부딪치게 되였다. 단천에 머물러있던 구황으로부터 왜장 가등청정이 이만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천령을 넘는다는 급보가 왔다.

지금까지 소위 본영이라는 명색으로 안변에 둥지를 틀고 들어앉아있던 가등청정이 왜 갑자기 관북으로 들어가게 되였는가? 여기에는 그러지 않을수 없는 까닭이 있었다.

이곳 관북에는 아직도 그 소식이 전해오지 않았지만 평양성을 강점하고있던 왜군 선봉장 소서행장이 지난 여드레날 평양에서 패전하고 도성으로 달아난것이였다.

작년 6월 15일에 평양성을 강점한 적장 소서행장은 결코 이때까지 평양성에 머물러있을 심산은 아니였다. 종당은 명나라까지도 정복할 야망을 가지고 조선으로 쳐들어왔던지라 평양을 거쳐 의주에 가며 직발 압록강을 건늘수 있는 서도길로 진군하기를 원했다. 가등청정 역시 그 길을 취하려고 소서행장과 다툰적도 있었다. 도성을 떠나 황해

도 안성까지 와서는 저쪽길을 네가 가느냐, 내가 가느냐 하며 칼을 빼들고 목숨내기를 하려다가 마침내는 제비를 뽑았다. 헛잡은 가등청정은 풀풀거리며 곡산을 거쳐 철령을 넘고 바로잡은 소서행장은 명나라에 쳐들어가 큰 공을 세워 크게 출세영달하리라는 꿈을 꾸면서 평양으로 향했었다. 아닌게아니라 그것은 한낱 꿈이였다.

왜군의 처음계획은 황해도에 저희 수군이 들어온 후 수륙병진하여 쳐들어갈 예정이였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고말았던것이다.

리순신장군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에 의하여 황해로 들어가려던 왜수군은 번번이 부서지고말았다.

리순신장군휘하의 수군은 작년 5월 초이레날 옥포에서 삼십여척의 적선을 깨뜨린것을 비롯하여 6월에는 당포와 당황포해전에서 적선 백이십여척을 부시고 7월에는 한산도, 안골포싸움에서 백여척을 깨뜨리고 9월에는 적의 수군근거지였던 부산앞바다로 쳐들어가 단번에 적선 백여척을 섬멸했던것이다. 이같이 해전에서 번번이 패하여 불과 사오개월동안에 사백여척의 군함과 수만명의 군사를 남해에 처넣게 된 왜수군은 서해로 들어설수도 없었고 들어갈 병력도 없이 되였다. 발을 동동 구를만치 초조한것은 소서행장이였다. 수군의 후원이 없이는 더 나갈수 없는 처지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동강어구에 저희 병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평양에 주저앉아 반년동안이나 묵새겼으나 허사였다.

그동안에 조선군의 세력은 장성했다. 또 애국적인민들이 조직한 의병들이 일어났다. 평양성에 들어있는 소서행장은 서북쪽 보통벌주변의 산들과 동남쪽 동대원벌주변의 산속에 진치고있는 관군과 의병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였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디서나 관군과 의병에게 요격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적들은 평양성안에 처박혀있으며 오직 패망의 날을 기다릴뿐이였다.

드디여 그날이 왔다.

평양에서 소서행장의 패전은 이십만대군을 몰아 우리 조국땅으로 기여들었던 침략군전체의 패망의 전조였다. 소서행장의 선봉군이 평양성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가등청정은 자기도 이상 더 함경도에 머물러있을 용기가 없었다. 그는 평양서 소서행장의 군사를 격파한 조선관군과 의병이 이제 양덕을 거쳐 안변으로 넘어오리라는 풍문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가등청정은 서울길이 끊어지기 전에 북쪽에 널어놓았던 군사들을 거두어가지고 도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단천성을 점령하고있던 군사는 거의 전멸상태요, 길주성과 령동책의 군사는 관북의병에게 타격을 받았을뿐아니라 포위속에 들었으므로 그들만으로는 마천령을 넘을수 없는 형편이였다. 가등청정은 부득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의병의 포위속에 들어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하였다.

이로부터 관북의병은 삼천여명으로 이만여명의 가등청정군과 싸우는 작전계획을 세우게 되였다.

마천령을 넘어선 왜군이 령동책의 적과 합세하기 전에 맞받아나가 한번 쾌히 결사전을 하자는것이 많은 사람의 의향이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의 이만여명 대군과 정면으로 부딪치는것은 무모한 일이니 왜군이 어느 성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려서 포위하고 군량과 마초의 길을 끊어 적을 기한에 허덕이게 한 후에 치는것이 좋으리라고 하였다.

정문부는 그 두가지가 다 량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자는 패기있는 말이기는 하나 무모한 일이였다. 혹은 또 중과부적으로 어차피 이편에 승산이 없는바에는 한번 장렬히 싸워나보고말자는 말이기도 했다. 후자는 전자보다 지혜로운듯 하나 막연한 일이였다. 지금 다시 대군을 끌고 관북으로 들어오는 적장 가등청정이 반드시 어느 성에 오래 머물러있으리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었다. 적이 한곳에 오래 주둔해있지 않는 한 그 군량수송의 길을 끊어서 적을 궁지에 떨어뜨린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처럼 막연한 계책을 위하여 현재 몰아오는 적을 보고만 있을것이 아니였다. 그리고 당장 부서질것을 알면서 적의 대군과 정면으로 부딪치는것은 더욱 피할 일이였다.

정문부는 몰아오는 적을 거슬러 치려고는 안했다. 행군하는 군사는 언제나 그 선봉이 강한 법이다. 그러므로 그는 적의 선봉을 앞세워놓고 뒤로부터 추격하는 한편 중간중간에서 측면공격을 할 작정이였다.

그는 우선 날랜 기병과 썰매 잘 타고 창질 잘하는 군사 6백여명을 뽑아 림명벌주변의 산상에 매복시켰다. 다음은 천여명군사를 여러대로 갈라 길주로 가는 큰길 연변의 요해처들을 지키게 했다.

이날이 정월 28일, 눈이 강산같이 쌓이고 삭풍이 뼈를 깎는듯싶은 이른아침이였다. 적장 가등청정은 령동책에 구겨박혀있는 패잔병들을 거두어가지고 무릎을 지나게 빠지는 숫눈길을 쓸어가며 림명벌에 들

어섰다.
싸움은 오전 8시경부터 시작되였다. 만군중에 옹위된 적괴수 가등청정이 직접 거느린 선봉부대가 벌판을 지나 북쪽산모퉁이를 돌아가고 맨 뒤끄리를 따라오던 적의 치중부대가 벌판 한가운데 들어선 때였다. 맞은 산령에서 한번 퉁― 울리는 북소리가 나자 주변산들의 나무숲사이에서 뽀얗게 눈보라가 일기 시작했다. 날랜 기마대가 말우에서 활을 쏘며 달려나오고 뒤미처 창을 비껴든 수백명 썰매군이 비호같은 기세로 적의 대렬의 중동을 무찌르며 달려들었다. 기병과 썰매군은 빠르기가 실로 번개불같았다. 미처 손발을 놀릴 사이도 없이 삽시간에 수백명이 쓰러졌다. 그중에는 눈속에 주저앉아 조총질을 하는 놈도 있었다. 그러나 동에 번뜻, 서에 벌낏 하는 번개불같이 달리는 의병들을 제대로 겨눌 사이가 없었다. 그뿐아니라 벌써 단병전에 들어선 판이라 한번 불질한 총에 다시 장약을 할 사이도 없었다. 적의 치중병은 군량과 무기를 실은 수레와 말들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먼저 산모퉁이를 돌아 십여리나 앞섰던 적괴수 가등청정은 이 급보를 받고 기마대를 뒤로 돌려서 치중대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군량과 무기를 만재한 수백척 수레들이 벌판 한가운데서 불타고있었다. 수백필 짐말들은 종적이 없었다.
적괴수 가등청정은 여기서 수백명의 군사와 치중전부를 잃어버린채 길주성을 바라고 군사를 재촉했다. 북으로 꾸역꾸역 밀려가던 적의 대렬은 의병에게 뒤끄리가 끊기였다. 그때마다 따라가던 추격병이 몰아쳐서 끊기운 적의 부대를 앞뒤로 협공하여 녹여냈다. 이렇게 하기를 오후 7시경에 이르기까지 60여리에 걸쳐 추격하는 동안에 의병들은 적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다.
이렇듯 교묘한 전술은 적괴수 가등청정의 이만명대군으로 하여금 당당히 행군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의병들의 추격을 받아 도처에서 병력을 잃고 피를 흘리며 쫓겨가는 신세로 만들었다. 적은 백탑근처에서 또 큰 타격을 받은 후 날이 다 저문 때에야 길주성 앞고개밑에 다달았다. 평지에도 땅거미가 기여들기 시작한 때라 고개밑의 산협은 더욱 어두웠다. 진종일 추격을 받으며 달려온 왜군은 저문 날씨에 가뜩이나 서투른 산길을 더듬거리면서도 이제는 멀지 않다는 길주성으로 들어갈 욕심에 강행군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적들은 그 고

개를 무사히 넘지 못했다.

벌써부터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고있던 복병장 원충서의 군사 천여명이 좌우의 산으로부터 달려나왔다. 불과 천여명, 그러나 잘 아는 유리한 지형을 따라 민활히 진퇴하며 좌충우돌하는 기세는 놀라왔다. 이때 또 한가지 의병의 편이 되는것이 있었다. 때마침 맹렬한 북풍을 따라 눈이 쏟아지고 충천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설한풍을 거슬러오는 적들은 눈도 뜰수 없었다. 적의 기발은 찢어져 날아가버리거나 진눈에 젖어 기대에 휘감기기도 하였다. 놈들의 전고 역시 젖어서 제대로 울지 못했다.

대오를 흐트려 허겁지겁 골안으로 들어선 적의 선봉을 겨눈 의병의 화살이 비발치듯 날았다. 강한 바람새를 타고나는 화살의 힘은 배나 더했다. 눈도 제대로 뜰수 없는 적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알수 없는 살에 무리지어 쓰러졌다. 그것은 마치 눈이 쏟아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듯도 하고 또는 이 땅의 산과 바위와 나무들이 활질을 하는듯도 했다.

그런데 또 뒤에서 추격병의 함성이 일어났다. 적들은 이 죽음의 산협을 벗어나 길주성으로 들어갈 혈로를 열려고 비발치듯 하는 화살에 주검을 덧쌓으며 고개길로 기여올랐다. 이제는 단병전을 하게 되였다.

이때까지 추격병을 지휘하여 적의 배후와 측면을 엄습해오다가 십여명의 기병을 데리고 이 복병처로 달려왔던 정문부가 먼저 말을 몰아 적군가운데로 달려들었다. 대장이 앞서나가 싸우는것을 본 의병들은 앞을 다투어 창검을 쥐고 적들속으로 내달렸다. 백병전이 벌어진 중에 많은 적이 대장 정문부앞으로 육박해오는것을 본 리희당이 말을 달려 그의 앞을 막아서 싸웠다. 그는 여러놈을 베이고 남은 놈들을 추격하다가 저편에 수백명 군사중에 옹위되여있는 적괴수 가등청정을 보자 말을 놓아 곧장 달려들었다. 장검을 휘두르며 나가는 그의 말앞에 많은 적의 머리가 떨어졌다. 그러나 단기로서 적군속에 깊이 쳐들어갔던 그는 여러놈을 베였으나 결국 자기도 장렬히 전사하고말았다. 정문부앞에서 리붕수가 또 전사했다. 그는 이때 몇놈이 말을 몰아 대장앞으로 달려오는것을 보고 적장중의 한놈을 맞혀 거꾸러뜨리고 또 다음놈을 쏘려고 앞으로 달려나오다가 저편에서 정문부를 노리고 쏜 적탄에 쓰러진것이였다.

싸움은 어두울 때까지 계속되였다. 적들은 저희 군사의 시체를 밟

고 넘으며 간신히 길주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가등청정은 군사를 머물러 길주성에 오래 있을념을 못했다. 도망할 길이 바쁜 적들은 성안에 불을 지르고 상해서 잘 걷지 못할자면 산 놈까지도 다 불속에 처넣어 태워죽이고 밤을 타서 성을 빠져나와 마천령을 바라고 달아났다. 성을 포위하고있던 정문부의 의병은 적의 배후를 엄습해 치면서 마천령까지 몰아나갔다.

관북의 추위는 엄혹했다. 그 추위를 형용하여《진천진지 빙한세계》라고 했다. 하늘도 땅도 모두가 얼음속에 잠긴듯 추웠다는것이다.

그 추위에 군량마저 잃고 하도 다급히 몰아치는 정문부의 의병들에게 쫓기게 된 가등청정의 군사가 《밤낮으로 분주하여 밥도 지어먹지 못하고 도망했다.》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

령동책과 길주성에 남아있는 저희 군사를 구하려고 마천령을 넘어왔던 가등청정은 그 두곳에서 거둔 군사의 몇배나 더 되는 병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마천령을 넘어 도망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작년 7월에 대군을 이끌고 방약무인(좌우에 사람이 없는것같이 언어나 행동이 기탄없음.)의 기세로 관북6진을 휩쓸어 들어왔던 적괴수 가등청정은 불과 반년도 못되는 지금 의병의 추격을 받아 한날 패군지장으로 마천령을 넘어 달아나게 되였다.

이로써 관북에 들어왔던 왜적은 완전히 소탕되였다.

정문부는 임진조국전쟁 7년간에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애국적인민들과 함께 조국을 위하여 싸운 수많은 의병장중의 한사람이였다. 그 역시 전에는 한 문관인 젊은 선비였다. 그러나 그는 의병으로 나서는 백성들을 통솔함에 있어 그들의 애국지성을 존중하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할줄 안 의리가 있는 대장이였다. 그는 또 적과의 싸움에서 조국의 지리를 잘 리용할줄 알았고 약한 병력을 가지고도 능히 적의 대군을 번번이 격파한 지혜가 있는 의병장이였다.

리순신과 로인

임진조국전쟁이 시작되여 다섯해가 지난 1597년 7월 초순의 어느 날이였다.

3도수군통제사영이 자리잡고있는 려수로 가는 길 량옆에는 이른아침부터 이 고장 인민들이 나와있었다.

이들은 《백의종군》(벼슬이 없이 보통병사로 싸움터에 나가는것.)을 하다가 다시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여 돌아오는 리순신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온것이다.

《우리 통제사어른께서 돌아오시면 왜놈들을 몰살시키고말것이요.》

《어서 어른이 오셔야 우리도 이 피난보따리를 벗어던지고 살아갈텐데요.》

아직도 큼직한 보짐을 지고있는 한 늙은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마다요. 리순신어른이 계실 때야 왜놈들이 어디 얼씬하기나 했나요.》

옆에 섰던 한 늙은이가 말을 받았다.

한낮이 가까와오자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다.

이때 한 늙은이가 아들인듯싶은 젊은이를 데리고 땀을 흘리며 나타났다.

《얘야, 어서 이리로 나오너라. 그래야 통제사어른께 말씀을 드려보지 않겠느냐.》

그들은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어디 먼데서 오시는가요?》

한 늙은이가 물었다.

《아니지요. 이 고장에서 어부로 늙어왔지요.》

《그런데 젊은이는 아들인가요?》

《그렇다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임진년부터 수군에서 싸우다가 저 꼴이 되였다우.》

《저 꼴이 되다니요. 어디 병신이 되였나요?》

그 늙은이는 펀펀한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병신이 아니라 끈 떨어진 두엉치신세가 되였다우.》

《왜요?》

점점 모를 일이라는듯 호기심을 갖고 물었다.
《글쎄 리순신어른이 통제사로 있을 때는 싸움도 잘했지요. 그런데 원균통제사가 온 다음부터 여기저기 밀리더니 글쎄 거제도앞바다싸움에서 죽을번 하고 간신히 살아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소.》
로인은 한숨을 푹 내쉬였다.
《하― 그렇게 되였구만.》
그제야 알았다는듯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다.
생각하면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이기도 하였다.
불행은 리순신이 이곳을 떠난 후부터 생겨났다.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원균이라는 사람은 본래부터 공명과 출세욕이 강한데다가 무능하고 비겁하였다. 그는 통제사로 임명되여오자 자기 식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정연한 지휘체계와 군사기률을 문란시켜놓았다.
이에 수하의 막료들이 그러지 말것을 충고했다. 이렇게 되자 원균은 다시 유능한 그들을 파면시키기 시작하였다.
《우리 수군이 녹아나기 시작하는구나.》
사방에서 이런 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러자 원균은 다시 한번 공명을 떨쳐볼 생각을 했다. 자기의 위력을 시위해볼 궁냥을 했던것이다.
원균은 적아간의 력량관계도 타산하지 않고 수군에게 출동명령을 내렸다. 타산도 없이, 자신도 없이 출동하였던 우리 수군은 그만 안골포싸움과 웅포싸움에서 많은 손실을 내였다.
원균은 도원수 권률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
그러자 원균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고 다시한번 자기의 명예를 떨쳐볼 생각을 하였다.
원균은 7월 중순 또다시 타산도 없이 모험적인 출전을 하였다.
수군은 절영도앞바다까지 이르렀다. 먼 항행으로 군사들이 지친데다가 날이 어두워 적선을 공격할수 없었으므로 거제도북쪽의 칠천도로 되돌아왔다. 이때 적들은 우리 수군의 이동에 앞질러 칠천도에 50여척의 전선을 대기시켰다가 먼저 포위공격해왔던것이다.
조선수군은 적의 포위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영용하게 싸웠으나 원균의 모험적인 행동으로 대부분의 배들이 침몰되고 전라수사 리억기, 충청수사 최호를 비롯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였다. 원균도 비겁하게

거제도에 기여올랐다가 적들의 손에 살해당하였다. 리순신이 애써 꾸려놓은 조선수군은 이렇게 녹아나고말았다.

칠룡이라고 부르는 어부의 아들도 이 싸움에 참가하였다가 배가 침몰하는통에 간신히 물속에 뛰여들어 헤엄을 쳐서 목숨을 건졌던것이다.

《통제사어른을 뵈옵게 되면 다시 수군에 받아달라고 청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아들녀석과 함께 왔소이다.》

《거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낯으로 뵈옵는단 말이요.》

젊은이는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

리순신의 행차는 한낮이 지나서야 이곳에 당도하였다.

《어른께 문안드리옵니다.》

길가에 늘어섰던 사람들은 일제히 두손을 땅에 짚고 허리를 굽혔다.

이곳까지 오는 사이에 벌써 여러번 이런 마중을 받았으나 매번 리순신은 가마에서 내려 정겹게 마중나온 사람들을 둘러보군 하였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마중하여주어 실로 고맙네.》

《황공하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히였다.

이때 갑자기 칠룡이라는 젊은이가 리순신앞에 한걸음 나와 부복하였다.

《통제사어른께 아뢰옵니다. 전라수군 칠룡이 벌을 받고저 대령하였나이다.》

《벌이라니 무슨 말인고?》

《소인이 원균통제사밑에서 싸우다가 배를 깨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그러니 마땅히 군법으로 벌을 받아야 할줄로 아뢰나이다.》

칠룡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신은 그제야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것은 너의 죄가 아니다.》

《황공하옵니다.》

이때 늙은 어부가 무릎걸음으로 나오며 말했다.

《이 애가 소인의 아들이로소이다. 소인부자를 다 수군에 받아주시기 바라옵니다.》

《젊은이는 받을수 있으나 늙은이야 무슨 힘으로 고달픈 군역을 감당해내겠는고.》

《이 늙은 몸이 한생을 바다에서 살았으니 바다길에는 아직 젊은이

보다 나은줄로 아뢰옵니다.》
늙은이의 말은 절절하게 울렸다.
《그대 부자의 애국충정이 기특하다. 내뒤로 그대들같은 사람들이 따라오니 함께 참군하라.》
장군의 행차뒤에는 수백명의 청장년들이 서있었다.
그들부자는 순신에게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너무도 기뻐서 그들속으로 달려갔다.
(만일 우리 수군이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저런 젊은이들에 의하여 얼마나 잘 싸우고있겠는가?)
리순신은 한숨을 내쉬였다. 지금은 싸움배 한척 변변한것이 없다.
이 모든것은 원균의 공명심과 당파싸움때문에 생겨난것이였다.
리순신이 백의종군을 하게 된것은 1597년 1월이였다.
바다와 륙지에서 무리로 녹아난 왜놈들은 1593년 6월부터 일시적인 휴전상태가 조성되자 강화담판을 한다고 하면서 1차침공에서 실패한것을 만회해보기 위한 술책을 다하였다.
왜놈들은 강화담판에서 오만하게도 충청, 전라, 경상도를 떼여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1597년 1월 다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소서행장(고니시 유끼나가)과 가등청정(가또 기요마사) 둘사이가 나쁜것을 리용하여 그들을 더욱 분리시키여 가등청정에게 붙잡혀간 왕자(광해군과 림해군)들을 데려올가 하고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김응서를 시켜 소서행장과 교섭을 진행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있던 풍신수길은 반간정책을 쓸것을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요시라를 보내여 비밀리에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강화가 성립되지 않는것은 가등청정이 계속 싸울것을 주장하기때문입니다. 그가 왜땅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인차 돌아올것이니 귀국의 수군으로 그를 해상에서 목을 지키고있다가 쳐죽여버리면 전쟁은 중지될것이며 두 왕자도 다시 돌아오게 될것입니다.》
간사한 요시라는 감언리설을 쏟아놓으면서 가등청정이 타고오는 배는 어떻게 생겼다느니, 기발은 어떻고 표식은 어떠며 빛갈은 어떻다느니 주어치기까지 하였다.
김응서는 그 말을 곧이 듣고 조정에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면서 급히 수군을 내보내여 가등을 칠것을 덧붙였다.

조정에서는 김응서의 보고를 받고 즉시로 리순신에게 가등을 공격하여 죽일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리순신은 수군을 움직이지 않고 2～3일간을 지냈다.
요시라는 다시 김응서를 찾아왔다.
《가등청정이 벌써 해안에 접근했는데 어째서 기회를 놓치려 합니까?》
요시라의 말을 듣고 김응서는 다시 조정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군을 내보낼것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자 대간(사헌부, 사간원의 벼슬의 총칭)은 서로 다투어가면서 왕에게 글을 올려 리순신이 진격을 지연시키고있는것은 나라에 죄를 범한것이라고 떠들어대며 엄형을 내리자고 하였다.
국왕은 자기의 측근자를 수군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으나 그자도 역시 원균의 당파이라 사실을 외곡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원균도 리순신이 왕명을 거역하여 출전하지 않는다고 참소를 올렸다.
이 사실인즉 적의 괴수 풍신수길이 조선의 수군을 없애지 않고는 조선침략의 뜻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알고 리순신휘하의 수군을 제놈들의 수군매복권내에 유인하여 일격에 요정을 내기 위한 간계였던것이다.
리순신은 가등청정을 치러 나가라는 왕명을 받고 운주당에서 열백번 사색하던 끝에 비록 자기 한몸이 역적의 루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질망정 조선수군을 보존하겠다는 결심밑에 막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았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1597년 1월말 리순신은 왕의 칙지를 가지고 내려온 선전관에 의하여 나포되여 서울로 올라가게 되였었다. 통제영안팎에서는 통곡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군사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부모잃은 상제들처럼 슬퍼하였다.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로 리순신은 서울로 올라가 3도수군통제사직에서 철직되고 옥에 갇히웠다.
리순신은 이때 옥에 갇히워 사형까지 받을번 하였으나 리원익, 류성룡, 정탁 등 원로급대신들이 왕에게 간청하여 겨우 목숨을 건지고 권률부대에서 백의종군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봉건정부는 원균이가 수군을 완전히 파멸상태에 몰아넣은 다음에야 리순신을 다시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고 수군을 재건할 과업을 주었다.
리순신은 과연 자기가 다시 수군을 재건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댔으나 본영으로 오는 도중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리순신이 통제영에 도착할 때까지 칠룡이와 같은 200여명의 수군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왔고 경상우수사로부터 싸움배 12척을 넘겨받았다.

200여명의 수군과 12척의 배, 이것이 수군의 전부였다.

이 적은 력량으로 어떻게 왜놈들과 싸운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수군을 아예 없애버리고 륙지에서만 싸우자고 하였다.

그러나 리순신의 마음은 철석같았다.

만약 우리 수군이 없어지면 왜놈들은 마음대로 서해로 기여들것이다. 그렇게 되면 륙지에서의 싸움이 더욱 어려워질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군의 힘을 키우는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력량을 꾸릴 때까지 리순신은 적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해 벽파진으로 진지를 옮기였다.

이때로부터 한달가량이 지나서였다. 리순신은 9월 14일 적선 200여척이 남해로부터 서해쪽으로 침공해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놈들이 서해로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임진년때처럼 길목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10여척의 배로 어떻게 왜놈들의 배를 막아낸단 말인가.)

그의 얼굴은 흐려졌다. 한달가량 수군들의 훈련도 했고 무기와 식량도 어느 정도 마련했으나 10여척의 배로 200여척의 배를 막아낸다는것은 너무도 아름찬 일이였기때문이였다.

순신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왜놈들의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바다를 막아버리면 될수 있지 않을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갑자기 무엇인가 머리에 떠올랐다.

(울돌목 물속에 쇠사슬을 늘이고 왜놈들의 배들을 모조리 끌어들이자. 그랬다가 썰물에 배들이 떠내려갈 때 쇠사슬에 걸려 뒤집히게 하자.)

순신은 자기의 기발한 생각에 무릎을 탁 쳤다. 진도의 백파섬밑에 있는 울돌목(명량해협)은 적들이 서해로 나오려면 지나야 하는 길목이였다. 이곳의 길이는 5리남짓하고 너비가 제일 넓은 곳이 400～500m가량 되는데 좁은데는 300m가량 되였다. 이 해협에서 바다물은 밀물때에는 동쪽으로부터 빠져올라오고 반대로 썰물때에는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밀리면서 급류를 이루어 빠져내려가는데 그 물결소리가 날짐승들이 울어대는듯 요란하다 하여 울돌목이란 이름까지 붙은 여울목이다.

이곳의 물흐름을 리용하고 쇠사슬까지 늘이면 능히 적을 소멸할수

있을것 같았다. 그런데 그 구상이 아직은 확신이 가지 않아 리순신은 자리에서 모대기고있었다.

이때 방문밖에서 조심스러운 인적이 났다. 리순신은 문을 벌컥 열었다. 방문밖에는 두사람이 서있었는데 하나는 파수를 서던 젊은 군사 칠룡이였고 또 한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

《웬일인고?》

순신은 나지막하나 엄하게 물었다.

《아버지가 통제사어른께 아뢸 말씀이 있다고 하길래 왔나이다.》

《무슨 말을?》

리순신은 그동안 로인이 충실하게 수군을 돕던 일을 생각하며 물었다.

《이 늙은것이 주책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왜놈들의 배를 막아낼 생각이 떠올라서 아뢰려고 왔나이다.》

늙은이가 조용히 말했다.

리순신은 이 말에 귀가 번쩍했다.

《어서 대청으로 오르라.》 하며 그는 먼저 초불을 들고 대청으로 나앉았다.

로인은 두세번 독촉을 받고서야 황공하게 대청의 한구석에 조심히 앉았다.

《어서 이야기를 하여보라.》

《소인이 뼈가 휘도록 배군으로 늙었사온데… 소인의 생각으로는 울돌목을 막으면 능히 적은 수로 많은 배들과 싸울수 있다고보나이다.》

《뭣이라고?》

리순신의 눈은 빛났다. 그는 모르는척 하고 다시 물었다. 자기의 구상을 확증하고싶었다.

《어떻게 한단 말인고?》

《밀물때를 맞추어서 왜놈들의 배를 끌어들이면 썰물때는 밀려서 갈팡질팡하게 되지요.》

《배들이 그냥 도망치지 않겠는고?》

《울돌목의 물살이 너무 빠르기에 그곳에서는 배를 멈추어세우지 못할줄로 아뢰옵니다.》

《그래서?》

《소인의 생각에는 울돌목물속에 쇠사슬을 늘여놓으면 어떨가 하오이다.》

《쇠사슬을?》

《왜놈배들이 흘러내리다가 쇠사슬에 걸리면 웬간한 배는 뒤집히고

말줄로 아뢰나이다.》
《고맙네, 고맙네. 그대들은 이제부터 나의 옆에서 이 통제사를 도우라.》
리순신은 희색이 만면하여 로인의 손목을 꽉 쥐였다.
이튿날 리순신은 늙은이에게 명하여 근처에 있는 고기배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그리고는 그 고기배들을 마치 싸움배처럼 위장시켜 수군의 배뒤에 배치하여놓았고 칠룡이에게는 인민들과 함께 해협의 연안을 지키다가 륙지로 올라오는 왜놈들을 몰살시킬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 막료들에게 울돌목에 쇠사슬을 늘이도록 하였다.
전투는 리순신자신이 직접 울돌목에 나가서 지휘하기로 했다.
리순신은 십여척의 배들을 고기배앞으로 나가있게 했다. 그러니 멀리서 보면 조선수군의 위력이 굉장해보였다.
16일 아침 드디여 도도, 구루시마 등이 지휘하는 330여척의 전선이 최대만조기의 순류를 따라 우리 수군이 배치되여있는 울돌목으로 침공해왔다.
《푸른 기를 올려라!》
리순신은 해협이 미여지게 몰려오는 왜놈들의 배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수군의 모든 전투지휘는 호포와 기발로 하게 되여있었다. 그의 출동명령에 따라 우리의 함선 12척이 일자형으로 진을 쳤다. 적들은 우리의 전선수가 적은것을 보고 포위진을 치면서 공격하였다.
우리 수군의 일부 편장들은 적선의 수효가 너무도 많은데 놀래여 얼마간 뒤로 물러서려는 기색이 보이였다. 만약 12척의 배들중에서 한척이라도 물러서면 적들에게 완전포위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통제사어른, 썰물때가 가까와오는데 물러서면 안될줄로 아뢰나이다.》
로인이 안타까운듯 옆에서 말했다.
《우리의 배부터 앞장서라. 왜놈을 맞받아나가자.》
리순신은 고물로 나서면서 엄하게 명령을 내렸다. 진두에 선 지휘선의 움직임은 큰 영향을 주었다. 일시 뒤로 물러섰던 거제현령 안위의 배와 참모 김응함의 배들도 돌격전에 가담하였다.
각종 총통과 포들이 적선을 향해 입을 열었다. 불덩어리들이 왜놈의 머리우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조선수군이 의례히 도망치리라 생각하면서 무방비상태에 있던 적의 지휘선은 잠간사이에 불덩어리로 되였다. 뒤이어 2척의 배가 격침되였다.
지휘선을 잃어버린 왜놈들의 사기는 갑자기 떨어졌다.

《통제사어른, 썰물이 시작되오이다. 우리의 배들이 밀려내려가지 않게 하시오이다.》

로인이 바다물을 보며 말했다.

과연 썰물이 시작되고있었다. 조수의 흐름이 점점 눈에 띄우게 알려졌다.

왜놈의 배들이 조수에 밀리여 서로 부딪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통제사어른, 때를 놓치지 마시오이다.》

로인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왜놈들을 쳐라. 총, 포를 쏴라.》

지휘선에서 다시 사격이 시작되자 우리의 배들에서는 일제히 갈팡질팡하는 왜놈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퍼붓기 시작했다.

왜놈들의 배는 점점 밀려내려 가장 좁은 여울목에 이르렀다. 살구멍을 찾아보려는 왜놈의 배들이 기슭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앞서 기슭에 늘여놓은 철사로 해서 배를 대지 못하고 돌아치다가는 통채로 뒤집혀지군 하였다. 살아남은 놈들이 헤염을 쳐 간신히 기슭에 오르자 칠룡이를 선두로 한 군사들과 인민들에 의하여 모조리 녹아났다.

울돌목싸움에서 왜놈들의 배 80여척이 녹아나고 4 000여명의 적들이 격멸되였다.

우리의 수군은 인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본거지로 돌아오고있었다. 바다기슭이 가까와오자 수군들은 소리높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그러나 리순신은 숙연히 무릎을 꿇고앉아 로인을 붙안고있었다. 울돌바다 마지막싸움이 한창일 때 왜놈들의 눈먼 총알에 로인이 전사하였던것이다.

평범한 이 늙은 어부가 자기의 작전구상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수 없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늙은이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어주어야겠소.》

리순신은 옆에 있는 편장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박 춘 명

김상궁과 광해군

왕 선조가 죽고 그의 아들인 광해군(선조왕의 후궁인 궁녀 김씨가 낳은 선조왕의 서자)이 왕의 자리에 있은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여오던 해 봄이였다.

호화찬란한 왕궁 내전의 어느 한 아늑한 방이였다. 백지를 바른 말쑥한 창문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소리없이 스며들어 사향내 그윽한 방안을 비치고있었다. 반짝반짝하는 진주자개를 박은 장농을 등지고 앉아 바른손에는 분솔을, 다른 손에는 거울을 들고 하염없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녀인이 바로 선조, 광해 두 왕대에 걸쳐 궁중에 앉아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악명으로 이름을 날리던 상궁 김개똥이였다.

한개의 보잘것없는 녀자로서 그것도 왕궁의 드높은 담안에서 왕의 시중이나 들어주던 궁녀의 몸으로서 왕이나 재상이나 어느 장군 못지 않게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남긴 이 녀인은 지금 거울속에 비친 제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있다.

아직도 밉지 않은 얼굴이고 늙지 않은 몸이였다. 하얀 분솔로 한번 더 문지르자 아직도 분덩이처럼 희고 부드러운 살결이 맑게 드러났다. 그것을 본 김상궁의 빨간 입술에서는 안도의 한숨이랄가, 흘러가는 세월을 야속해하는 안타까운 한숨이랄가 영문도 모를 가는 한숨이 《호—》하고 새여나온다.

어느덧 그의 나이도 서른이 훨씬 넘었다. 아무리 밤낮없이 제모습을 가꾸지만 야속한 세월의 그림자는 그 얼굴이나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수 없는것이였으니 그것이 근심이였다.

아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였다.

김상궁에게는 참으로 말 못할 근심이 있었다.

자기를 총애하는 임금인 광해군이 왕위에 앉은 지난 십여년간은 이 왕궁이 아니, 이 나라가 다 그의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의 말이면 임금은 다 들어주었다. 그래서 김상궁은 재상들의 벼슬자리까지 떼고 붙이기를 마음대로 하였고 재산을 모으는것이나 먹고 입는것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없었다.

뢰물은 강물처럼 흘러들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벼슬을 줄수 있었다.

세도량반의 자손이였던 리충이란 벼슬도 없는 알건달이 돌아다니다가 김상궁의 입맛에 맞는 희귀한 산채반찬을 잘 만들어바치고 좌찬성의 자리를 얻은것도 이때의 일이였고 한효순이란자가 김상궁을 통하여 임금에게 좋은 산삼을 바치고 우의정의 자리를 차지한것도 이때의 일이였다.

그래서 이때 항간에서는 이 썩어가는 매관매직의 세상을 비웃는 노래가 떠돌았다.

산삼정승 누가 주었나
산채찬성도 벼슬이란 말가

백성들과 량반유생들이 이쯤 떠들게 되자 아무리 임금이라 해도 무사할수 없었다.

한 궁녀의 치마폭에 싸여 나라의 정사를 망치는 무능한이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포악하기 이를데 없는 광해군을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기운은 극도에 달하였다.

왕궁에서 20년가까이 살아오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궁중의 분위기를 언제나 제때에 간파하는 김상궁은 이 험악한 기운을 누구보다도 먼저 눈치채였다.

자기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듣는 저 광해군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면 김상궁 자기의 한세상도 끝이 나는것이였다.

그러니 이 일이 근심중에서도 제일 큰 근심이면서도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할수 없는 근심이였던것이다.

김상궁의 입에서는 다시금 《호-》 한숨이 새여나오며 손에 들고있던 분솔이 서리맞은 꽃송이처럼 방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떨어진 분솔에서는 하얀 분가루가 피여올라 창문으로 흘러드는 봄볕속으로 안개처럼 가볍게 떠돌았다. 그 봄안개같이 떠도는 분가루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김상궁의 머리속에는 젊은 광해군을 낚아내던 15년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광해군은 왕세자로서 동궁에 거처하고있었고 김상궁은 선조왕의 총애받는 아릿다운 궁녀로서 왕의 침전에서 한시도 떠난적없는 호

화로운 시절을 보내고있었다. 부귀영화는 그 한몸에 그친것이 아니였다. 그의 일가친척들은 빠짐없이 높은 벼슬자리에 들어앉고 헤아릴수 없는 재산을 긁어모았다.

그래서 선조왕 말기에는 한때 김상궁의 세상이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오십고개를 훨씬 넘은 선조왕도 차츰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왕의 앞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김상궁은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알수 없는 애수에 잠겨있었다. 죽어가는 임금이 불쌍해서도 아니였고 나라의 정사가 뒤흔들리울가싶은 걱정때문도 아니였다. 오직 스무살안팎의 한창나이로서 자기의 꽃같은 한몸의 영화가 너무도 봄날의 꿈마냥 아쉽게 끝나버리는것이 애탔기때문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른아침이였다. 그날도 곱게 단장을 하고앉아 선조왕의 침전에서 무슨 기척이 없는가 귀를 기울이고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왕세자인 젊은 광해군이 부왕에게 아침인사를 올리려고 내전으로 들어오고있었다.

《상감마마께서 기침하셨느냐?》

젊은 광해군의 씩씩한 말소리였다.

《동궁마마,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사이다.》

김상궁은 황급히 옷깃을 여미고 절을 하였다.

《그러면 내 여기서 잠시 기다릴터이니 상감마마께서 일어나시면 기별을 해다오.》

광해군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잠시 문앞에서 머뭇거리더니 김상궁의 얼굴을 다시금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는것이였다.

부끄러운듯 눈을 치떠 광해군을 훔쳐보는 김상궁의 얼굴에는 꽃같은 웃음이 방긋 피여났다. 무턱대고 남에게 곱게 보이고싶어하는 그 나이 녀성의 본능이 지어준 웃음이였을가?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른다. 그러나 젊은 광해군이 자기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였음을 첫눈에 알아차린 그다음부터 김상궁의 가슴속에서는 그 어떤 야심이 꿈틀거리고있었다.

광해군은 김상궁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그저 있기가 거북하였던지 퇴마루에 걸터앉으며 《여기서 잠간 기다려도 일없겠느냐?》 하고 수작을 걸었다.

《방이 루추하오나 들어와 기다리사이다.》

김상궁의 얼굴은 무르익어가고있었다.

《괜찮다. 잠간 앉았다 가겠으니…》
광해군은 또다시 눈길을 들어 김상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날 밤 김상궁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의 침전에서는 임금의 앓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탕약 끓이는 냄새가 풍겨오고있었다. 하지만 초불을 끄고 자리에 누운 김상궁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약이 끓고있었다. 머지않아 왕의 자리에 앉을 광해군을 등에 업고 자기 일생의 부귀영화를 계속하려는 독하고도 달콤한 약이였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저 광해군을 치마폭에 감싸기만 한다면 선조왕이 죽어도 자기 앞날은 물론 일가친척의 부귀영화도 념려가 없을것이였다.
하지만 두 임금을 섬기다니? 죄가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이 아득한 마음의 밑바닥에서 머리를 쳐들자 김상궁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어느덧 창밖은 푸름푸름 밝아오고 왕의 앓음소리도, 탕약끓는 냄새도 다 사라진 내전에는 천길물속같은 정적이 깃들었다.
다만 김상궁의 가슴속에서 검은 피가 뛰는 소리가 쿵쿵 어지럽게 들려올뿐이였다.
다음날부터 김상궁은 광해군을 전에없던 교태를 가지고 대하였다.
광해군도 부왕의 병문안을 구실로 김상궁의 처소로 자주 드나들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일찌기 와서 김상궁의 방에서 기다리기도 하였는데 그 방에서는 때아닌 봄바람도 불고 봄꽃도 피여나군 하였다.
광해군이 김상궁을 더욱 믿고 귀중히 여기게 된것은 대북파(당쟁을 일삼던 한 당파)의 우두머리들이 선조왕의 후비인 인목왕후(첫 왕비가 세자를 낳지 못하고 죽은 후에 열아홉살 처녀의 몸으로 들어온 선조의 후비)의 소생인 영창대군(서자인 광해군에게 세자를 책봉한 후에 출생)을 적자라 하여 광해군 자기 대신 세자로 세우려 하는것을 눈치빠른 김상궁이 미리 알아내여 알려주는 등 여러모로 광해군을 도와준때문이였다.
광해군은 김상궁의 자색에만 반한것이 아니라 그의 영특한 머리와 능란한 수완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말았던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왕 선조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광해군은 임금

이 되고 김상궁은 또다시 새 왕의 총애를 받는 상궁으로 활개치게 되였다.

광해군을 손안에 쥐고 나라의 정사를 떡반죽 주무르듯 하면서 살아온지도 어느덧 15년.

김상궁의 치마폭에 싸여 곪아가고 썩어가는 광해군의 정사도 이젠 밑창이 드러나게 된것이였다. 까마귀가 썩은 내를 남먼저 맡듯이 이 망조를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고있은것은 김상궁이였다. …

김상궁은 방바닥에 떨어진 하얀 분솔을 집어들어 분갑속에 밀어넣으면서 다시한번 《호—》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이때 문밖에서 무수리(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녀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봉물짐이 드는가보오이다.》

《웬것이냐?》

김상궁은 방에 앉은채 대답겸 물음겸 심드렁하게 한마디 던졌다.

무슨 벼슬 한자리 달라고 매일 들어오는 이러루한 뢰물이려니 생각한것이였다.

《받아들일갑쇼?》

김상궁은 미닫이를 드르륵 열었다.

대문가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웬 사나이 하나가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러나 상궁은 그 사나이를 못 본척 하고 퇴마루에 허리굽히고 서있는 무수리에게 물었다.

《뉘집것이라드냐?》

《글쎄올소이다.》

김상궁은 대문께서 어름거리는 사나이를 다시한번 힐끔 바라본 후 미닫이를 드르륵 닫아버렸다.

《정히 두고가겠다면 받아두려무나.》

밖에서 낯선 사나이와 무수리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두런두런하더니 이윽하여 무수리가 비단보자기로 싼 크지 않은 함을 들고 들어왔다.

《뉘집이라드냐?》

《김자점대감이 보내신것이라 하오이다.》

《김자점대감이?》

김상궁은 바싹 긴장해졌다.

김자점이라면 벼슬로 보나 지체로 보나 한갖 궁녀에 지나지 않는 자

기에게 뢰물을 보낼 그런 인물이 아니였다. 김자점은 임금인 광해군의 정사에 늘 불만을 품어오면서 가끔 바른말을 들고일어나 조정을 소란하게 한적도 있는 서슬이 푸른 인물이였다.
김상궁은 저으기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다.
묵직하였다.
《됐다, 너는 그만 나가보아라.》
김상궁은 무수리를 내보내고 조심히 보자기를 풀었다. 붉은 옻칠을 한 윤기흐르는 함이 나타났다. 뚜껑을 열자 큼직한 금덩어리 한개가 번쩍거리고있었다.
《아니?!》
금덩어리가 큰것도 놀라웁지만 김자점이 이런것을 보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일이였다.
무슨 일일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것이다. 벼슬을 구하는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것을 바라는것이 분명하였다.
더 큰것, 그것이 무엇일가?
김상궁은 다시한번 저도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휩싸는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날 초저녁때 김자점이 김상궁의 집을 찾아왔다.
김상궁은 (옳지,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문밖으로 나가 김자점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아이구, 웬일이시오이까? 대감께서 비천한 소녀의 거처를 찾아주시다니… 정말 황감하오이다.》
간드러진 웃음과 능갈치는 말소리로 손님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가운데 김자점은 묵묵히 방으로 들어와앉는다.
김상궁은 김자점을 웃자리에 앉히고 그앞에 납신 엎드려 절을 한 후 긴 담배대에 불을 붙여 두손으로 받쳐올렸다.
김자점은 천연스럽게 담배를 받아서 뻑뻑 빨고있을뿐 입을 열 생각은 하는것 같지도 않았다.
이윽토록 김자점의 눈치를 살피던 김상궁은 은근한 목소리로 한마디 건드려보았다.
《그런데 무슨 그런 큰 선물을 보내였사오니까?》
《허허허, 큰 선물될것이야 있겠소만 김상궁이 금은보석을 좋아한

다기에 약소하나마 보낸것이요.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어서 고맙소.》
《대감께서 주신것이니 깊이 거두어 길이 보존하겠나이다. 정말 황감하기 그지없나이다.》
《허허, 그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김자점은 어디까지나 대범한 사나이의 체모를 지키려 할뿐이였다.
이렇게 되자 김상궁은 정면으로 들이대였다.
《그런데 대감께서 일개 상궁인 소녀를 찾아주시였으니 무슨 까닭이온지…》
김상궁은 간드러지게 웃었다.
《김상궁의 얼굴이 보고싶어서…》
김자점은 빙그레 의미있게 웃었다.
《그런 말씀은 거두시고 진담을 말하시오이다.》
그러자 김자점은 허허허 웃고나서 정색을 하며 물었다.
《나라형편이 말이 아닌데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보오. 김상궁은 오늘의 상감을 선한 임금으로 보오, 악한 임금으로 보오?》
《글쎄올시다. 밤낮으로 상감님을 모시고있는 몸으로서 어찌 상감님을 악한 임금이라 하겠사오리까.》
《그럴테지. 그럼 오늘의 상감을 모시는것이 나라와 백성에게 리롭겠소, 해롭겠소?》
《…》
《그리고 오늘의 세도재상들인 리이첨과 정인홍을 옳은 재상으로 보오, 그른 재상으로 보오?》
《그들은 옳은 재상이라 할수 없나이다.》
《그러면 오늘의 상감과 리이첨, 정인홍을 물리쳐보는것이 어떻겠소?》
역시 그것이였다.
김상궁이 오래전부터 예감해온 그것이였다. 광해군이 탄 배는 벌써 밑창에서 구멍이 뚫리고있는것이였다.
김자점은 말없이 김상궁을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앉았다.
《오늘의 상감을 그대로 모시고있다가는 나라와 백성이 망하고말것이요. 벌써 세상민심은 그렇게 돌아섰소. 그래서 리귀, 신경진, 리괄, 심기원, 김류와 나까지 여섯사람이 반정을 꾀하고 정원군의 아드님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오.》

김자점은 잠시 말을 끊고 김상궁의 동정을 살핀다.
김상궁은 말없이 앉아서 하얀 버선코만 만지작거리고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밖으로 새여나간듯 하니 우리의 거사는 경각에 놓였소. 만약 고변하는자가 있어서 상감이 김상궁에게 사실여부를 물으신다면 상궁이 부디 그것이 헛소문이라고 아뢰여주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무사히 성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김상궁도 공신으로 천거하여 새 왕의 은총을 오늘보다 더 크게 입게 할터이니 우리와 손을 잡읍시다. 내가 찾아온것은 이때문이요.》
김자점의 말이 끝났으나 김상궁은 잠잠하였다.
쉽게 대답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였다.
선조왕이 스러져갈 때부터 광해군을 등에 지고 부귀영화를 연장해온 김상궁으로서 이제 또 무너지는 광해군을 딛고올라서서 제3의 재생을 꿈꾼다는것이 녀자의 몸으로서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미 밑창이 뚫려 가라앉기 시작한 난파선과 같은 광해군을 그냥 붙잡고 앉아있을수도 없었다.
김상궁은 몸을 부르르 떨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공신, 공신! 그것이면 일생의 부귀영화는 념려없지. 고구려의 우씨왕후는 두 왕대를 꽃처럼 살았다지만 이 김상궁은 세 임금의 은총을 독차지해보리라. …)
김상궁은 드디여 고개를 들고 용기를 내여 김자점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께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비뚤어진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시는데 소녀인들 어찌 도와드릴 생각을 아니하겠나이까? 고변하는자가 있으면 그것을 절대 헛소문으로 상감께 아뢰여 무사하도록 조처하겠사오니 념려마사이다.》
김자점은 그제야 후― 한숨을 내쉬였다.
《고맙소. 우리의 반정의거는 김상궁의 말 한마디에 달렸으니 부디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주오. 김상궁의 앞날도 우리 일의 승패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오.》
김자점은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
그 다음날 아침에 김상궁은 임금에게 불리워갔다.
광해군의 기분은 아침부터 침울하였다.

김상궁이 앞에 와 절을 하자 광해군은 《상궁은 요즈음 세상소식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으니 웬일이냐?》 하고 책망하듯 한마디 하였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나 다 김상궁이 전해주었고 또 그것을 믿어온 광해군으로서는 그럴만도 하였다.
《요즈음은 아뢸직한 소식이 없어 그리되였나이다.》
《없다니? 나는 오늘 아침에 중한 변보를 들었는데 상궁은 모른단 말이냐?》
《황송하오나 소녀는 아직 들은 일이 없나이다. 중한 변보라니 무슨 일이나이까?》
광해군은 잠시 대답없이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어— 괘씸한 놈들이로다. …》 하고 이를 부드득 갈았다.
《저 리귀, 신경진, 심기원, 리괄, 김자점, 김류 등 여섯놈이 정원군의 아들을 임금으로 내세운다 하면서 역모를 하고있다는 변보가 들어왔다.》
김상궁은 짐짓 크게 놀라는듯싶은 표정을 지었다.
《누가 그런 흉보를 상감마마께 아뢰였사오니까?》
《처음에는 리이첨에게서 들었는데 오늘 두번째로 또 고변하는자가 있었다. 그러니 상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역모고변이 적실한것 같으냐?》
광해군이 역모사건을 고해바친자들의 변보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데는 또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당시 당파싸움을 일삼던 량반사대부들은 저들의 적수를 꺾기 위하여 없는 역모를 꾸며내여 고변하는 수가 많았고 또 당파에는 관계없더라도 개인의 원쑤를 갚기 위해서도 아무개, 아무개가 누구와 역적모의를 합니다 하고 거짓상소를 하여 공연한 사람을 잡아죽이는 수가 때때로 있었던것이다.
물론 광해군 같은 폭군으로서 죄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것이 마음에 꺼려서 재삼 김상궁에게 묻는것은 아니였다. 다만 간신들과 파쟁군들의 거짓고변에 롱락을 당하는것이 임금의 체신에 부끄러웠던 때문이였다.
광해군의 이런 마음속을 손금보듯 하고있는 김상궁은 살며시 고개를 들고 대답을 하였다.
《상감마마, 고변하는자가 다 옳은자는 아닌줄 아뢰옵나이다. 그것

을 가볍게 믿으시다가 공연히 생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상감마마의 어진 성덕만 더럽히실가 저어하나이다.》

《그러면 듣고도 모르는체 하란 말이냐?》

《어찌 그러실수 있겠사오니까? 그 고변의 진실을 알아보신 후에 처단하시여도 늦지 않을가 하나이다.》

《상궁이 좀 알아볼터이냐?》

《분부만 하시면 알아보겠나이다.》

《그럼 오늘래일안으로 알아보아라.》

《예, 래일중으로 알아보겠사오니 안심하사이다.》

김상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아나서는 바람에 광해군은 얼마간 침울하던 기분이 가시여져서 언제나처럼 또 김상궁이 하자는대로 하고 말았다.

김상궁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자점은 이날 리귀, 리괄, 신경진, 심기원, 김류 등과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김자점이 금덩어리로 김상궁을 삶아낸 덕분에 다섯사람은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앉아있는셈이였다.

광해군을 꺼꾸러뜨리기만 하면 1등공신에다 벼슬이 정승, 판서자리로 올라갈터인데 장사로 친대도 큰 리를 보는 장사요 투전으로 친대도 해볼만 한 투전이였다.

이윽고 김자점이 은근히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광해군이 리이첨의 고변을 듣고 당장 잡아들이려 하는것을 김상궁 그년이 겨우 막아놓은 모양이요. 래일까지는 광해군이 이번 반정고변을 일단 모르는척 하고있을것이니 우리는 오늘 밤안으로 거사를 해야 할것이요. 이 밤안으로 거사를 못하면 우리는 새남터(중죄인들을 사형하던 곳)의 원귀(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가 될것이니 지체말고 차비를 해야 하오.》

이리하여 김류를 선두로 리귀, 리괄, 리서, 신경진, 심기원, 김자점 등이 이날 밤 약속대로 홍제원에 모이였다.

그날이 바로 1623년 3월 12일이였다.

김류와 리괄이 지휘하는 반정군이 쥐도 새도 모르게 움직여 북문인 창의문을 부시고 성안으로 들어섰다.

훈련대장 리홍립이 이미 내응하였기때문에 반정군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들어갔다.

서울장안은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어디선가 뉘집 개짖는 소리가 몇번 들려올뿐이였다.
창검을 비껴든 수백명의 반정군이 돈의문을 도끼로 찍어제끼고 한달음에 대궐로 들어가 광해군의 침전을 에워쌌다. 숙직하는 액정소속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고 궁궐은 벌써 반정군의 세상이 되고말았다.
광해군은 초저녁부터 독한 술에 곯아떨어져 꿈을 꾸다가 침전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깨였다.
초불을 밝히고보니 옆에 있을줄 알았던 김상궁은 어느새 없어지고 다른 궁녀가 겁먹은 눈을 디룩거리며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달아나려고 한다.
《이년, 김상궁은 어디 갔느냐?》
광해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초저녁에 상감마마가 잠드시자 저더러 상감마마를 모시라 이르고는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나이다.》
궁녀는 급히 뒤문을 열고 사라졌다.
침전밖이 갑자기 왈칵절칵하며 소란해졌다.
《상감이 어디 있느냐?》
거치른 사나이의 목소리뒤끝에 《애고고ㅡ》하는 궁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뒤문을 지켜라!》하는 다급하고 우악스런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광해군은 (아차, 끝내 일이 터지고야말았구나. 리이첨의 고변이 틀림없었구나. 그런데 김개똥이, 이년! 네년이 나를 속였구나!)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급히 일어나더니 일반서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옆문으로 빠지려고 허둥거리였다.
광해군이 빠지려는것을 눈치채고 리귀가 침전으로 뛰여들었다.
《전하!》
문을 가로막고 부르짖는 리귀의 눈에는 살기가 어리였다. 광해군은 벌써 일이 다된것을 깨닫고 《웬일이냐?》하고 맥빠진 호령을 한번 질렀다.
《전하, 인목태후의 분부를 받들고 전하를 모시러 왔소이다. 빨리 옥새를 가지고 태후께로 가십시다.》
광해군은 열린 문으로 휩쓸어들어오는 찬바람앞에서 꺼질듯이 껌벅거리는 초불만 물끄러미 들여다보고있다가 《내가 너희들의 반정모의

를 모르고있은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곁에 사람이 없어 일이 이렇게 된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다만 김개똥이 그년의 간계에 빠져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하고만것이 분하구나. 옥새는 바치겠으니 경들이 김개똥이년을 잡아주지 못하겠느냐?》 하고 한숨을 푹 내쉬였다. 지금 당장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것보다 손발처럼 믿어오던 천한 계집에게 속히워 넘어지는 일이 더 분하고 괘씸하였던것이다.

《나중에 꼭 잡아올리겠소이다.》

《정말이냐? 그 독사같은 년을 가만두고서야 내가 어디 가선들 눈을 감겠느냐?》

《념려마시오이다.》

《너희들이 지금껏 나를 속여왔는데 한번 더 속아보자.》

광해군은 옥새를 두손으로 들고 반정군들에게 둘러싸여서 인목태후가 있는 경운궁으로 향하였다.

인목태후는 옥새를 받아든 후 가을서리처럼 차디찬 눈길로 광해군을 내려다보았다.

저의 소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래도 어머니명색인 자기를 경운궁에 가두고있는 원쑤 광해군이였던것이다.

《재위 15년간에 네가 범한 죄가 몇가지나 되는지 아느냐?》

광해군은 아무 말이 없었다.

《너의 죄를 들어 말하자면 서른여섯가지가 된다. 이런 죄를 범한 너를 살려둘수 없지만 선왕을 생각하여 살려두는줄 알아라.》

인목태후는 그 자리에서 정원군의 아들인 릉양군을 새 임금으로 선포하였다. 그 임금이 바로 인조왕이였다.

포악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왕을 올려앉힌 이 사변을 력사에서는 《인조반정》이라고 부른다.

인조반정후 광해군은 강화도에 추방되여 류배살이를 하는 몸이 되였다. 광해군을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던 리이첨, 정인홍 등은 모두 마땅히 죽어없어지고말았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권세를 부리며 궁중을 휘여잡고 뒤흔들던 김상궁은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알길이 없었다.

이미 두 임금을 바꾸었고 세 임금째 갈아대면서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려보려던 간악한 궁녀 김개똥의 꿈은 어찌 되였을가?

물론 김자점이 약속한대로 그에게 정사공신을 천거할리가 만무하였

다. 정권을 잡은 지금에 와서 김자점무리는 그에게 준 금덩이를 오히려 아깝게 생각하는 지경이였다.

…세월은 또 십여년이 흘렀다.

광해군은 강화도로부터 다시 제주도로 추방되여 외롭고 고달픈 생애를 보내고있었다.

어느날 광해군은 꿈에 김상궁을 보았다. 아직도 늙지 않은 어제날의 그 요염한 김상궁, 그러나 입에 피를 문 여우인듯이 역겨웁고 무서운 녀인이였다.

《이년, 이 천하에 괘씸한 개똥이년!》

광해군은 꿈결에 김상궁의 목을 힘껏 조르며 미친듯이 울부짖었다.

그러다가 그만 몸이 굳어져서 예순일곱살의 시든 육체만을 바다우에 외롭게 떠있는 섬우에 남겨놓고 영원히 저세상으로 가버리고말았다.

그것이 신사년, 광해군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난지 열아홉해가 되던 해였다.

류형지의 초막밖으로는 제주도의 드세찬 바다바람이 불어지나가고있었다.

그 바람과 함께 광해군의 죄많은 넋도, 김상궁의 요망한 꿈도 영영 력사의 시궁창속으로 날아가버리고말았다.

리 성 덕

연안성의 맹세

임진년(1592년) 5월 초사흘 새벽, 광나루일대의 방비태세를 보러 나갔던 부원수 신각의 일행이 탄 배가 강심에서 나루도 아닌 강기슭으로 물결을 헤치며 쏜살같이 들이닿았다.

신각은 배에서 내리자 말고삐를 나꿔채며 나는듯이 말에 올라앉아 채찍을 갈기였다. 말은 큰길쪽으로 갈기를 날리며 무섭게 달리였다. 그뒤로 관속들의 말이 따랐다. 붉은 갑옷을 입은 신각의 말을 선두로 다섯필의 준마가 먼지를 뽀얗게 일쿠며 멀리 바라보이는 제천정(한강가에 있는 정각)을 향해 한줄로 달리였다. 왜놈의 척후가 벌써 한강이남 10리지경에 나타났다는 한성변방기찰의 통보가 들어왔던것이다. 말들은 잔등에 채찍이 내릴 때마다 《으흐흐흥.》소리를 치며 한껏 네굽을 놓았다. 그들은 물쏟아지듯 흐르는 얼굴의 땀을 채찍 든 손등으로 쓱쓱 문지르며 연방 채찍을 내리쳤다. 땀에 젖은 말들이 바람을 일쿠며 들이달리였다.

헐떡이는 사람과 말의 숨소리도 말발굽소리 못지 않게 거세였다. 그들의 붉게 익은 얼굴에 들씌운 땀은 해빛에 번쩍이고 말은 금시 물에서 건져낸듯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데다가 먼지가 뽀얗게 고물묻듯 올랐다. 놀라서 길섶으로 물러서던 길손들도 심상치 않은 변고가 생긴것을 짐작하고 눈살을 찌프리며 걸음을 다그쳤다.

제천정앞에 이르러 부원수 신각이 말을 세웠다. 뒤따르던 말들도 그의 뒤에 우뚝우뚝 섰다.

신각은 군관들을 돌아보다가 가쁜 숨을 누르며 한 비장에게 침착하게 말하였다.

《사태가 급하이. 자네는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빨리 모이게 하고…》 하며 그는 또 다른 비장에게 시선을 옮기였다.

《자네는 보군, 수군모두 출전준비를 갖추고 군령을 대기하라고 전하게. 빨리!》

신각은 종사관(리조 초기부터 임진전쟁까지의 기간에 포도청과 각 도 병영에 두었던 한 벼슬) 심우정에게 전후 빈틈없는 처사를 당부하고 제천정으로 들어갔다.

이때 동쪽에서 스산한 강바람이 몰려왔다. 순간 한강일대는 뽀얗게 풍진에 잠기고 제천정다락은 회오리바람에 휘감기였다. 동남쪽에서 시꺼먼 구름장이 몰려들자 한강일대는 다시 검은 장막에 잠기였다. 다음순간 구름장에 금이 쭉쭉 가며 번개불이 일고 뢰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부원수 신각, 류도장 리양원, 도원수 김명원 그리고 몇명의 대장, 편장, 종사관들이 적을 막아칠 계책을 상론하기 위하여 제천정에 모여앉았다. 부원수 신각의 제의에 의하여 열린 막료들의 모임이였으나 회의분위기는 처음부터 몹시 어색하였다. 그것은 도원수 김명원이 응당 책략을 세우고 막료들의 의견을 들어 일을 처사할 대신에 처음부터 아닌보살하고있기때문이였다.

동상이몽하는 김명원의 속을 손금보듯 들여다보고있는 신각은 도성을 지키느냐, 원쑤들에게 내주느냐 하는 국가존망의 일대 위기에 처한 지금 더이상 군사등급에 구애되여 지체할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신각은 부득이 자기가 이 막료들의 모임을 마련한것이였다.

모임에 참가한 막료들도 이 어색한 분위기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두 사람의 얼굴을 지켜보며 좀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이때 밖에서 종사관 심우정이 들어와 신각에게 전투준비를 마치고 각 군모두가 대령중이라고 아뢰였다. 그리고는 신각의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후에 척후로 나갔던 군졸 하나가 말을 타고 제천정다락아래로 달려오더니 부복하며 아뢰였다.

《대감마님께 아뢰오. 장사진을 이룬 왜적의 무리들이 계속 들이닿아 한강 저쪽기슭에 새까맣게 모여 그 수가 수만에 이르렀다 하오이다.》

부원수 신각은 무겁게 고개를 돌리며 피멍울진 눈으로 척후를 내려다보았다.

상좌에 앉았던 도원수 김명원이 척후의 보고를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어찌할바를 몰라 엉뎅이를 들썩들썩하였다.

《대감은 안절부절을 못하시는데 왜 그러시오?!》

부원수 신각의 말에 좌중의 시선은 김명원에게 쏠리였다.

《안절부절못하다니, 무슨 소리! 쩌쩌…》

놀란 토끼새끼모양 김명원은 발딱 일어나며 다시 씹어뱉듯 뇌까리

였다.

《내 중군을 거느리고 지체없이 측면에 진을 치고 기각지세(앞뒤에서 적을 몰아치는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를 이루리니 부원수는 종사관들과 함께 강변에서 왜적의 도하를 방비하오.》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내뱉은 도원수는 그달음으로 총총히 다락을 내려 어데론가 가버렸다.

종사관 심우정은 어안이 벙벙하여 벌떡 일어나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신각을 향하여 심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대감님, 도원수를 붙잡지 못하구 왜 그대루 보내시오니까?》

신각은 대답대신 쓴입만 다시였다.

투구에 갑옷을 갖추어입은 부원수 신각은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보였다.

깊은 시름에 잠겨 감고있던 눈을 조용히 뜬 그는 종사관들과 더불어 적의 도하작전을 파탄시키고 한성을 방어할 계책을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한동안 흘러갔다.

이때 군관 하나가 또 다급히 제천정앞으로 들어와 말에서 뛰여내려 다락앞에 부복하며 아뢰였다.

《아뢰오. 왜군이 강건너편의 배들을 몽땅 들추어내여 강에 띄우고 한편 사방에서 나무를 모아다 떼를 무어 당장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고있사옵나이다.》

그는 숨이 턱에 닿아 말끝을 맺는둥마는둥하고 고개를 들며 뻘겋게 익은 얼굴의 땀을 옷소매로 훔치였다.

뒤이어 키가 륙척이나 되는 석주가 융복(군복)을 입고 나타나 두손을 쳐들어 마주잡고 허리를 굽히였다.

《대감마님께 아뢰오. 도원수대감께서 전선(배)들을 몽땅 불지르고 군기와 식량들을 모조리 강속에 처박아넣었사오며 그통에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사오이다.》

석주의 말에 신각의 무거운 표정은 삽시에 이그러져 이마살이 물결치더니 눈에서 불이 번쩍 튀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옷자락을 날리며 문을 차고 다락을 단숨에 펄쩍 뛰여내려 강변으로 다급히 걸어나갔다.

나루가의 전선 백여척에서는 벌써 무섭게 불기둥이 오르고 먹구름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강물도 부글부글 끓는양 타들어가는 전

선바닥에서는 시뻘건 잔물결이 출렁이였다.
부원수 신각은 육탄이 되여 불속으로 뛰여들어 불을 끄기 시작하였다. 이때 강가에 서있던 도원수 김명원이 살기등등하여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바다가에서는 뜻있는 군사들이 화염을 뿜는 전선, 군기, 기자재들을 처량하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부원수의 뒤를 따라 강물을 퍼뿌리며 불을 끄느라고 아우성을 쳤다.
이때 석주는 말을 달려 도원수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적들을 맞받아 빨리 군사를 출동시킬 대신에 어찌하여 전선을 불사르고 군사들을 흩어지게 하신단 말이오니까?》
도원수는 땅에 엎드려 애타게 부르짖는 석주의 말을 중둥무이하며 뇌까렸다.
《허―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그것은 내가 할바이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는 한마디 내뱉고는 타번지는 군기고와 군량창고쪽으로 홱 돌아 몇걸음 내처 갔다.
이때 종사관 심우정이 황급히 도원수앞으로 또 달려왔다.
《대감님은 어찌 저 배들과 군량, 군기에 불을 지르시오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사오니까?》
심우정은 울상이 되여 가슴을 부둥켜안고 애절하게 도원수를 질책하였다.
《무슨 소린고, 저것을 그대로 두면 적의 수중에 들어갈것이 뻔하거늘 그래 자네는 저것을 다 적에게 넘겨주어야 좋겠단 말인가?》
도원수는 오히려 심우정을 역습하며 눈을 치뜨고 위압하려들었다. 종사관 심우정이 다시 피를 토하듯이 도원수에게 호소하였다.
《아니, 이 나라 도성의 운명이 촌각에 놓여있거늘 대감은 어찌자고 이러시오니까? 성안 십칠만생명이 일조에 원쑤의 칼에 어육이 되여도 무관하단 말이오니까?》
도원수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혀를 차며 제천정쪽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심우정은 울분이 치솟아 칼을 빼려다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화염과 연기는 한강일대를 뒤덮었는데 불기둥이 더욱 기승을 부려 사람들은 감히 범접을 못하였다. 그래도 부원수 신각은 필사적으로 군

사들과 함께 불을 끄려 대들었으나 형세는 기울어 오히려 화상자들만 늘어날뿐이였다.

제천정앞에서는 불을 끄던 군졸들이 웅성웅성하며 도원수의 거동을 살피였다.

잠시후에 도원수는 말에 앉아 심복비장 두명과 군졸 서너명을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가는 큰길로 나섰다. 이 꼴을 본 군졸들 수십명이 우르르 그앞으로 달려들어 길을 막았다.

《대감님, 어디로 가시려고 이러시오니까! 못 가오이다.》

이어서 불을 끄다말고 허둥지둥 달려온 석주가 도원수의 말머리앞에 덥석 엎드리며 떨리는 소리로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이 강산이 피로 물들어 스무날이 되였소이다. 지금 이르는 곳마다에 겨레의 시체가 산을 이루어 산천도 치를 떨고 조상들의 령혼도 땅속에서 통곡하오니 대감님은 분별있게 행동하소이다. 이 수많은 군사들을 두고 가긴 어데로 가시오니까? 안될 일이외다, 안돼!》

도원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놈, 어디라고 함부로 길을 막아서느냐. 요망한 놈이로고!》

석주는 벌떡 일어나 말고삐를 잡아채였다.

《이 강토에 칼을 물고 기여든 저 불구대천의 섬오랑캐들에게 어찌 도성을 함부로 내준단 말이오니까. 이 나라에 태여나 이 강산에 조상의 유골을 묻고 생을 누리는 맹호같은 아들딸들이 있으면서 어찌 불에 끄슬리는 선조의 분묘를 방관하며 피흘리는 겨레의 목숨을 외면하오리까.

안시성주 양만춘의 슬기와 단합된 위력앞에 거만한 외적도 투구를 벗었으며 강감찬의 지략앞에 이 나라에 침입했던 외적의 대군도 패망을 면치 못하였거늘 어찌 저 섬오랑캐를 물리치지 못하오리까!》

연기와 불김에 숨이 막히여 오만상을 잔뜩 찡그리고 석주를 아니꼽게 쏘아보던 도원수는 더는 듣지 못하겠다는듯이 《이놈!…》 하고 후들후들 떨며 호통을 쳤다. 순간 그의 손에서 시퍼런 칼날이 번쩍하더니 말고삐를 잡은 석주의 팔목을 슬쩍 내려쳤다.

석주의 팔에서는 시뻘건 피가 랑자하게 흘렀다. 그래도 그의 손은 여전히 말고삐를 쥐고있었다.

두리의 군졸들은 끔찍한 이 광경에 놀라 아연실색하며 석주의 신변을 념려하였다. 늙은 관노 하나가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 그의 팔을 싸

매였다.
석주는 이에 아랑곳없이 말우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도원수를 정면으로 쏘아보며 질책하듯이 말하였다.
《못 갑니다, 못 가요. 하늘이 굽어보시거늘 이 군사들과 장비를 가지고 어찌 한번 부딪쳐보지도 않고…》
《이놈, 그래도 말고삐를 놓고 썩 물러서지 못할가?》
석주의 말허리를 자르며 물어뜯는 도원수의 불호령이였다.
도원수의 호통에 맞서는 석주의 애처로우면서도 도도한 호소는 더욱 절절하였다.
《대감님, 이 몸이 미천한 몸일망정 왜놈과 싸우다 죽으면 여한이 없겠소이다. 이 숱한 군정들이 지금이라도 떨쳐나서 싸운다면 어찌 승산이 없으리까?》
애통하게 부르짖는 석주의 시뻘건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뭉클뭉클 쏟아져내리였다.
도원수는 그의 면상을 향하여 다시 칼을 추켜들었다. 순간 곁의 젊은 군졸 하나가 석주의 몸을 덥석 잡아끌어채였다. 그 찰나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내리쳤다.
다음순간 다른 군졸이 도원수의 앞을 막아나섰다.
악에 받친 도원수는 다시 칼등으로 가차없이 그의 어깨를 쳐 꺼꾸러뜨리였다. 두리의 군사들은 쓰러진 두사람을 끌어안고 엉겁결에 뒤로 물러섰다. 그 틈을 타서 도원수는 말갈기를 거머잡으며 황황히 성안쪽으로 달아빼였다. 그뒤를 동행하는 수원들이 따랐다.
격분한 군사들이 그들의 뒤를 장달음으로 쫓아가며 돌팔매질을 하였으나 허사였다.
이 석주라는 군사는 원래 황해도태생으로서 본성명은 석천개였다. 그는 이해에 스물두살잡힌 로총각이였다.
석주의 아버지는 무인년(선조11년)에 군역으로 끌려나갔다가 벼슬아치들의 가혹한 학대를 반대하여 군문에서 다른 군졸들과 결진하여 란을 일으킨 죄로 경상병마절도사 곽찬에 의하여(당시 이 사실을 곽찬이 선조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그 주모자를 잡아 목을 베여 군문에 높이 매달아 다른 군사들을 징계하도록 하라는 칙지를 내림) 참형을 당하였던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천개는 화가 미치기 전에 한석주라고 변성명하고 룡

봉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였던것이다.

석주는 열여섯살때부터 중의 몸으로 팔도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경인년(1590년) 춘삼월에 연안땅에 들어섰다.

이해 여름에 충청도 옥천땅에서 연안부사 신각을 찾아가는 젊은 나그네와 우연히 동행하게 된것이 계기로 되여 석주는 신각을 알게 되였다. 이때 충청도 옥천의 우국남아 조헌이 왜놈의 침입에 대비하여 연안성을 고쳐쌓을것을 아들을 시켜 부사에게 권해왔다. 신각은 연안성을 수축할것을 결심하고 공사에 달라붙었으나 원래 방대한 일이라 공사는 처음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을뿐더러 곡절도 많았다. 이때 신각은 이 공사에 나온 석주의 깊은 궁냥과 지식에 놀랬다. 신각은 비록 그가 천민일망정 그의 사람됨을 귀히 여겨 이 공사의 앞장에 내세웠으며 마침내 신당수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여 전시에도 먹는물걱정을 않고 요새화된 성에 의거하여 싸울수 있도록 하는 공사를 불과 한해만에 마칠수 있었다.

이 성 수축공사가 끝나는 날 연안부사 신각은 석주와 이 고을 힘장수로 알려진 리수돌을 불러놓고 장차 왜놈의 침입이 있을 경우 함께 몸바쳐 싸우자는것을 결의하며 술잔을 나누었다. 신각의 믿음과 귀천을 따지지 않고 따뜻이 대해주는 사랑에 두 젊은이는 감복하였다. 그들은 곧 병서와 무예를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수돌은 부사의 천거에 의하여 한양 병조산하의 군문으로 뽑혀들어가고 석주는 이번에 왜놈이 침입하자 연안성의 그 맹세를 가슴에 새기고 황해도 연안에서 신각을 찾아 한양으로 달려왔던것이다.

하늘을 뒤덮었던 연기와 화염은 전선과 군량, 병기와 화포들을 모조리 들여마시고서야 요마와 같이 사그라졌다.

강가에는 병기의 잔해가 앙상하게 남아있고 강변으로는 숯이 되다만 전선의 나무쪼각들이 시꺼멓게 줄지어 떠내려가고있었다.

이제는 군사도 군비도 다 없어지고 덩그러니 한쪽에 서있는 제천정과 그 두리에 머리를 서로 수그리고 부원수의 령을 기다리는 군사 수십명만 있을뿐이였다.

제천정안에서는 타고 끄슬리여 주제가 사납게 된 부원수가 홀로 서서 두눈에 쌍심지를 달고 강건너 왜적의 대군을 무섭게 노려보고있었다.

그는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그것을 아는것 같지 않았다. 량볼이 시뻘겋게 부르트고 진물이 줄줄 턱으로 흘러내려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

았다.
이때에 큰길쪽에서 요란한 말발굽소리가 나더니 류도장 리양원이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그는 제천정에 이르자 말에서 뛰여내려 단숨에 다락으로 올라왔다.
사태가 험하게 된것을 이미 알고 온 리양원이지만 부원수의 험한 주제와 돌부처마냥 우뚝 서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연하여 얼른 말을 못하였다. 잠시후 류도장이 조용히 다가가 신각의 두손을 잡고 조심스러이 말을 건네였다.
《대감, 이게 어이된 일이요!》
신각은 그제야 류도장에게 얼굴을 돌렸다.
《대감 신상이 말이 아니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셨소?》
신각은 류도장이 찾아온것이 반가와 그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이때 비장 하나가 다락으로 올라와 공손히 부원수앞에 부복하며 말하였다.
《대감마님, 우선 이 옷을 먼저 갈아입으시고 의관이 올 때까지 누우시여 귀하신 몸 안정하시옵소서.》
《게 놓아두어라.》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한 신각은 류도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았다.
《대감, 잘 오셨소. 그러지 않아도 사람을 보내여 오시게 하려던 참인데…》
신각의 다정한 말에 류도장은 그의 손을 다시 꽉 감아쥐였다.
이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부상병이 나타났다. 란간너머로 이를 바라본 류도장이 상을 찡그리였다.
《아니 대감, 저 사람이 웬일이요?!》
류도장의 말에 부원수는 무거운 시선을 섬돌아래로 돌리였다. 순간 그는 젊은 군정의 등에 업힌 피에 젖은 석주를 보았다. 크게 놀란 신각은 급히 섬돌아래로 내려가 군정의 등에서 석주의 몸을 덥석 끌어안아내리며 그의 몸을 살피였다. 그의 팔의 살점은 너덜너덜하고 시꺼멓게 말라붙은 피덩이사이로는 아직도 선지피가 줄줄 흘러내리였다. 부원수는 다시 석주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서는 싸늘한 푸른빛이 돌았다. 이때 큰길목쪽에서 두사람이 달려왔다. 그들은 부원수의 화상을 념려하여 성안에서부터 달려나온 비장과 의관이였다. 그러

나 신각은 자기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석주를 구원하라고 분부하였다.
강건너편에서는 왜적의 무리들이 수십척의 배를 띄우고 당장 건너올 차비를 하고있었다. 사태는 아주 긴박한 정황이였다. 류도장은 이 험한 사태를 수습하려고 비장들을 시켜 부원수와 석주를 급히 성안으로 옮길것을 명령하였다.
5월 초사흘 저녁녘 류도장의 지휘하에 수십명군사들은 부상자들을 태운 두개의 가마를 옹위하며 성안으로 철수하여 양주고을로 향하였다.

한강기슭에 있는 양주의 험한 지세를 리용하여 진을 친 부원수 신각과 류도장 리양원은 일부 군사들을 보충하며 불구대천의 원쑤를 족칠 새로운 준비를 갖추어나가고있었다. 이때 함경도 병마절도사 리혼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들을 찾아와 합세하였다.
신각은 리혼과 함께 이 고장에 나타나 백성들의 재산을 로략질하는 왜적들을 보고 참을수 없어 5월 18일에 해유령마루 량쪽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적을 유인하여 무자비한 보복전으로 적의 대부대를 일격에 요정내였다.
이것이 임진조국전쟁에서의 륙군의 첫 승리였다.
승전고를 울리며 기세충천하여 진중으로 돌아온 부대는 장차 도성을 회복시킬 마련까지 하며 맹렬한 조련을 시작하였다.
승리의 소식에 고무된 피난민들은 산속에서 내려와 소도 잡고 술을 빚어서 군사들을 대접하며 신각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젊은이들은 사방에서 구름떼 모이듯 달려와 부원수의 군사가 되기를 탄원하였다.
대렬이 확대됨에 따라 야장간도 차려놓고 무장준비를 하느라고 들썩하였다.
5월 스무날 아침, 기병 하나가 멀리서부터 여기 군중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이때 다음작전을 모색하며 깊은 사색에 잠겨 군막밖을 서성거리던 신각은 말발굽소리나는쪽을 무심결에 바라보았다. 말이 차츰 가까이 달려오자 그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우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신각은 한양성에서 양주로 물러서면서 도원수 김명원의 모진 칼에 맞은 석주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오다가 출혈이 너무 심하여 하는수없이 사경에 처한 그를 의관과 함께 민가에 맡기고 왔었다. 그후 신각은 석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고 자기의 바른팔이 떨어져나간

것 같아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가 찾아온것이였다.
부원수앞에 이른 석주는 말에서 뛰여내려 부복하였다. 그리고는 공손히 문안을 하였다.
《대감마님, 그간 안녕하셨사오니까?》
신각은 마주 달려가 엎드린 석주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석주, 네가 살았구나. 살았어. 과시 장부로다!》
고함치듯 이렇게 말한 신각은 석주가 부상당했던 부위를 어루만지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석주는 얼굴을 숙인채 말하였다.
《저는 무탈하오나 대감마님이 몹시 수척하셨사오이다.》
《그래? 그래두 네가 살아온것을 보니 날을것만 같구나!》
가까이에 있던 군사들이 그들사이의 정겨운 상봉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였다. 한강 제천정에서 참변이 있은 이후 주름살이 늘어나는것만 같던 부원수의 얼굴에 비낀 웃음꽃이 반가왔고 휘하군졸인 석주를 그렇게도 따뜻이 대해주는것이 고마왔던것이다.
석주는 병석에 누워서도 어느 하루도 양주땅으로 간 화상입은 부원수를 생각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던 그는 신각의 부대가 해유령에서 왜놈들을 족쳤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쁘고 반가와 채 완치되지 못한 몸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던것이다.
석주는 마치도 오래동안 외지에 나갔다가 제집에 온 사람처럼 물었다.
《대감마님, 저는 오늘 아침에 해유령싸움소식을 듣고 반가움에 못견디여 달려왔사오이다. 어찌 하늘이 무심하오리까.》
신각은 웃으며 며칠전에 있은 해유령전투과정과 앞으로 한양의 왜놈을 칠 계획을 대략 일러주었다.
이때였다. 강변쪽에서 이쪽으로 네댓마리의 말이 달려오고있었다.
군중의 이목은 삽시에 그리로 쏠리였다. 신각과 석주도 의외의 불청객에 가슴이 설렁하여 그쪽으로 시선을 던지였다. 선두의 주립쓰고 남천릭을 입은 사람은 그 거동으로 보아 조정의 벼슬아치가 틀림없었고 그뒤를 따르는자들은 더그레에 평정건을 쓰고 륙모방망이를 찬 군사나부래기들이였다. 그들이 다가옴에 따라 사람들의 얼굴에는 차츰 긴장한 빛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주립에 남천릭을 쓴 저 벼슬아치가 선전관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번개쳤던것이다.

그들일행은 거침없이 진중으로 들어왔다.

선전관과 포교 그리고 두명의 망나니들이 말에서 내리였다. 부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린 안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진중군사들은 모두가 숨결을 누르며 말에서 내린 네사람을 지켜보고있었다. 선전관이 포교와 망나니까지 데리고온 이 불길한 현실앞에 그들은 하나같이 의아해하였다.

선전관과 포교는 신각을 따라 막속으로 들어갔다.

막안의 리양원과 리혼도 놀랐다. 기세양양하여 들끓던 진중은 삽시에 엄엄한 분위기에 휩싸여들었다.

이윽하여 포교가 막쪽에서 망나니들을 불렀다.

이날 한낮이 기울어서 여기 진중에는 부원수 신각에게 참형을 선언한 칙지(왕의 명령)가 전해졌다. 청천벽력으로 방금 피여나는 꽃송이가 때아닌 된서리를 맞은 격이 되였으니 진중장병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으랴! 부원수는 전군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그들의 존경을 받으며 대렬을 이끄는 진실하고 영특한 장수였다.

군사들은 그에게 참형이 내렸다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토록 우국정열이 뜨겁고 그토록 용맹하고 강직한 부원수가 죄를 지을 사람같지를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왕명이 내린것이 엄연하니 어찌하랴!

군사들은 서글픔에 잠겨 무심한 하늘을 원망하였다.

그중에도 이 선고에 극도로 당황한것은 석주였다.

석주는 기가 차고 숨이 막혔다. 그는 절벽강산을 마주한듯 가슴이 콱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막혔던 숨을 후— 몰아쉬며 진정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터질듯이 아픈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부원수가 형리들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 해보려고 그는 벌떡 일어나 군막안으로 들어가 선전관앞에 부복하였다. 막안에는 선전관과 형리들을 가운데 두고 리양원, 리혼 등 장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칙지를 받고도 태연자약하게 앉아 형을 기다리는 신각을 말없이 측은하게 바라보고있었다.

촉기빠른 석주는 부원수가 참형을 당하게 된 리면의 숨은 곡절을 포

착하고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하교가 그러하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부원수대감께서는 군령불복이 아닌줄 아뢰오.》
선전관은 말없이 무거운 시선을 그에게 돌리였다.
《도원수대감이 군기를 강물에 처박고 군량을 불태우시면서 군사들까지 헤쳐놓았으니 부원수대감님이 누구와 무엇으로 싸우오리까.
흉악한 왜놈이 나타나자 기겁하여 진을 버리고 가는 도원수대감을 부원수대감님께서 따라갈수야 없지 않사오니까. 그런데 이게 어이된 일이오니까.》
애절한 석주의 말은 끊어졌다. 그는 처량한 눈길로 선전관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다.
《부원수대감께서는 그날의 수치를 씻으시려 20여일동안에 군사를 모으시고 군기를 갖추어 이번에 저 왜놈들을 족치시고 승전을 이루지 않았사오니까. 그런데 어찌 부원수대감을 처형하게 되오니까? 하늘도 무심하여이다.》
석주는 이미 왕명이 내린 이 마당에 선전관에게 애원해봤댔자 성복후의 약방문격이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부원수의 억울한 루명을 벗기고 조정처사의 부당성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앉아있던 선전관은 눈을 치뜨고 석주를 바라보며 호령하였다.
《칙령이 내린 지금 네 어느 존전이라고 그리 무엄하고 불칙하냐. 썩 물러가지 못할가, 이놈!》
막안에 들어앉은 장수들은 말이 없이 고여오르는 눈물만 삼키였다. 누군지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였다.
…한강을 버리고 도망한 도원수 김명원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리고 달리였다. 그러나 말에 앉아서도 마음이 초조하고 떨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림진강가에서 저도 모르게 말을 멈춘 그는 신각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자기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찌르는것 같아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말을 가로 막아서며 애절하게 호소하던 젊은 군사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리고 자기 칼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군사의 얼굴이 자꾸 밟혀서 가슴이 서늘하였다.
그는 차츰 뒤일이 두려워지면서 천벌이 내릴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

다. 이제 곧 자기 명이 뭉텅 끊어져나갈것 같기도 하였다.

전신의 맥이 탁 풀린 그는 강가에 앉아 어지러운 머리를 안정시켜 보려고 하였으나 불길한 예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신각이 한강에서 있었던 사실을 조정에 고하는 날에는 자기에게는 엄형이 내릴것이였다. 그러면 그때는…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울기가 번쩍 나타나더니 살기띤 눈이 뱀의 혀바닥처럼 가늘게 바르르 떨렸다.

그는 왕에게 장계를 썼다. 거기에는 부원수 신각이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른데로 가버렸으니 이렇게 군률을 배반하는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서 대장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에게 조정에서 특별한 칙지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장계가 조정에 들어오자 우의정 유홍은 내막도 모르는 주제에 급히 서둘러대며 전시에 군률을 문란시키는자를 어찌 용납하랴고 뇌까리였다. 그는 왕에게 신각의 목을 당장 벨것을 강하게 주청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마침내 선전관청에 명하여 신각의 목을 지체없이 베여 앞으로 군사명령불복자들을 징계하게 하였던것이다.

조정에서 선전관일행이 떠난지 나흘만에 명령에 불복하고 도망쳤다던 바로 그 신각에게서 해유령전투승리의 첩보가 들어왔다. 전쟁이 일어나서 벌써 한달이 지나도록 륙전에서 승전보고 한번 받아보지 못한 왕은 신각의 이 보고에 놀랐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형을 내린 자신을 아프게 뉘우쳤다.

왕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뒤쫓아보내서 선전관을 도로 불러올릴것을 명령하였다. 신하들은 분분한 론의끝에 《비마수》의 별명을 가진 군사 수돌이를 특별히 삼현령파발(급한 공문이나 명령을 가지고 달리는 파발)로 삼아 급히 떠나보내였다.

삼현령파발로 떠난 수돌이는 평양성 동문을 빠져 말갈기를 거머잡고 최대의 속력으로 달리였다. 그는 선전관일행을 따라잡아야 하는것이다.

삼현령파발 수돌이는 원래 연안 김진사집 종의 자식으로서 대를 두고 그 집의 종살이를 해온 천민의 자식이였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모자가 김진사집 행랑방에서 갖은 구박을 다 받으며 살아왔다. 그는 얼굴이 우묵우묵하고 몸이 실하며 기골이 름름하고 힘깨나 쓰는 장부였다. 어느날 그는 물을 길으러 물지게를 지고 대문을 나서다가 이

고을 사또에게 불리워간 일이 있었다. 그때 사또는 그의 체격과 용모를 보고 얼굴에 복이 들어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장수감이 될만 한 남아대장부로서 어찌 주방의 물이나 긷는것으로 한생을 보내겠느냐고 이르며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권유한바가 있었다.

그후 사또는 연안성 수축공사장에 나온 수돌이 집채같은 바위돌을 덥석덥석 들어 솜씨있게 성을 쌓는것을 보게 되였다. 수돌은 남들이 쉴 때에도 허기진 배를 끌어안으면서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꾸준히 성을 쌓아나갔다. 억척장수 수돌의 성의와 힘에 감복된 사또는 그를 불러 석주와 함께 관가에서 침식을 하게 하는 한편 그의 외롭고 가련한 종살이처지와 더우기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주인의 학대를 불쌍히 여겨 김진사를 불렀다. 김진사는 수돌을 중히 쓰겠다고 하면서 그를 종살이에서 속량해줄것을 부탁하는 부사의 청을 거절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모자는 세습적인 종살이에서 벗어져나오게 되였다.

그후 연안성의 수축공사가 준공되던 날 한잔 술을 나누며 세사람(신각, 한석주, 리수돌)이 순국의 맹세를 다지고 이어서 수돌은 사또의 천거를 받아 한양으로 왔던것이다.

바로 그 사또가 연안부사로 있던 신각이였다. 수돌은 그후 말타기를 잘하여 궁중으로 들어가 금군청의 군사로 되였다. 전쟁이 일어나 왕이 북쪽으로 피난가게 되자 조정에서는 그에게 주요통신련락을 시키려고 왕의 호종대렬을 뒤따르게 하였던것이다.

수돌이는 재송원을 지나 중화땅으로, 다시 대제원역마을을 통과하여 쏜살같이 황주에 이르렀다. 무더운 여름에 적후를 대낮에 가자니 마음이 조이고 땀은 온몸에 배여들었다. 평시같으면 역에서 역마를 갈아탈수 있지만 적의 강점지역이라 역, 원들에는 역마도 역졸도 없었다.

그는 하는수없이 지금 타고있는 말 한필로 양주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다. 수돌이자신도 황주를 지나서부터는 기갈이 나고 배가 고프고 목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며 혀가 가랑잎처럼 말라붙어 침도 제대로 못 삼키는판에 말인들 어찌 지치지 않았으랴.

때로는 왜적을 피하여 산길, 들길로 달려야 했다. 그러나 수돌은 신각을 구원할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분초를 다투며 말을 때려몰았다.

봉산에 이르러 그는 한 로인에게 선전관일행이 어느날 어느 시각에 이 고장을 지났느냐고 물었다. 로인은 사흘전 아침녘에 주립쓰고 남

천릭 입은 관원이 세사람을 데리고가는 행차를 보았는데 관차인듯싶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사흘전 아침녘이면 옹근 사흘길을 따라잡아야 하였다. 수돌이는 로인의 말에 앞이 캄캄해졌다. 따라잡지 못하면 그 사또는 참을 당하고 마는것이였다. 수돌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는 다시 채찍으로 말잔등을 갈기며 말머리에 자기 머리를 겹대다싶이 착 엎드려 날듯이 달리였다. 어머니배속에 들어서부터 종의 운명을 지니고 이십청춘기까지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학대와 모욕을 받으며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오면서도 그것을 타고난 팔자로 여겨온 수돌이였다.

수돌이는 말우에서 원한에 찬 지난날을 회상하며 사또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칠수 없다는것을 가슴저리게 느꼈다.

또한 왜란을 당하고보니 그때 사또가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 되라.》고 하며 하찮은 자기를 도성을 지키는 군대인 경군으로 보내준 그의 우국지성이 뜨겁게 안겨왔다.

수돌이는 침식을 잃고 말을 달리였다.

한밤중에 송도가까이의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말이 넘어져 좀체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쓰러진 말을 어루만지며 일으켜세우다못해 너무도 안타까와 눈물을 흘리였다.

이때 어디서인지 말울음소리가 그의 귀전을 치며 지나갔다. 수돌이는 말우는 소리에 귀가 번쩍 띄여 그쪽으로 몇걸음 옮겨가다 주춤 멎었다. 거기서는 왜놈의 기마병들이 여러마리의 말고삐를 몰아 한데 잡아매놓고 풀밭우에 나가자빠져 자고있었다. 수돌은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번개같이 뛰여들어 말고삐매듭을 풀어 준마 한마리를 끌고 집모서리를 돌아나와 잡아탔다.

동산머리에는 그의 길앞을 비쳐주려는듯이 둥근달이 불쑥 머리를 내밀고있었다. 말은 고개받이도 거침없이 씽씽 달리였다. 재를 넘고 물을 건느며 한밤을 달려온 수돌이는 동틀무렵에 초현참에 이르렀다.

수돌이는 초조한 나머지 길가는 사람에게 선전관일행의 행차가 지나간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머리를 저었다. 이때 그뒤를 따라오던 녀인이 어제 붉은 관모를 쓴 사람이 일행 세명을 데리고 이 마을에서 점심을 해먹고 갔다고 하며 자세히 그 정황을 알려주었다.

(어제 점심후 초현참을 떠나? 그러면 지금쯤은 이미 양주에 닿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

수돌이는 마치 무엇에 콱 눌린 사람같이 가슴이 압축되는것을 느끼며 얼굴이 핼쑥하게 질렸다.

(아아, 그러면 사또님은 속절없이 죽는구나!)

기진맥진한 그는 삽시에 애오라지 은인을 살리자던 그 불덩어리같던 희망이 싸늘하게 사그라진것만 같아 탄식을 토하였다. 다음순간 그의 얼굴에 경련이 피뜩이더니 눈에서 섬광이 번쩍 일었다. 그는 말갈기를 나꾸어채며 다시 바람같이 달리였다.

동파역을 단숨에 지난 수돌이는 해유령을 쏜살같이 넘어 신각의 진중으로 달려들었다. 수돌이가 말에서 나는듯이 뛰여내리니 망나니놈이 피묻은 칼을 거두어넣고있었다.

아!… 애석토다. 시각이여! 이 수돌이가 한발자국만 앞섰던들 부원수를 구했으련만…

진중은 흐느낌과 소리없는 울음으로 잠겼는데 여기에 삼현령파발 수돌이 나타나 왕의 칙지를 선전관에게 내놓았다.

선전관은 그를 받아 읽고 아연실색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북받쳐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소리없이 눈물만 흘리던 군사들이 일시에 통곡을 터치였다. 그 천둥같은 울음소리에 산천도 애달픈양 설레이는데 석주는 신각의 참형이 철회된것을 알고 그의 시체쪽으로 다가가 숙연히 시신을 받들어안고 막쪽으로 한걸음한걸음 걸어갔다. 군중의 이목이 하나같이 석주에게 집중되였다.

이때 수돌이 석주가 안은 시신쪽으로 달려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한발 앞서 닿지 못한 아쉬움을, 그 죄를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부사님, 한걸음 늦은 이 수돌을 용서하옵소서. 아니, 죄를 주옵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이 몸에 죄를 내리시옵소서! 아아, 원통해라!》

신각의 시신을 덮쳐안고 목놓아울던 수돌은 땅을 치며 몸부림쳤다.

수돌의 애처로운 통곡에 석주는 놀라 그를 여겨보았다.

(수돌이? 연안성의 리수돌이?!)

삼현령파발의 얼굴에서 수돌이를 알아본 석주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수돌이!》

수돌이도 상대가 석주라는것을 알았으나 기가 막혀 제대로 말을 못

하였다.

《서… 석… 석주!》

아! 반가움과 오열, 슬픔과 격분, 원한과 저주의 격랑이 그들의 가슴속에 세차게 사품치건만 아프고 억울한 심정을 어데다 대고 호소하랴!

두 젊은이는 손을 마주잡고 신각의 시체에 얼굴을 묻었다.

《아, 왜놈을 이 땅에서 물리칠 때까지 싸우자던 연안성의 맹세 어데 두고 부원수님은 먼저 가셨나이까!》

석주는 부원수의 시체를 안은채 애통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멀리 서북의 연안쪽하늘을 우러러 경인년의 뜨거운 추억을 더듬었다.

이해 8월말 연안성전투에서 왜놈의 대군을 물리친 개선대렬이 봉세산기슭으로 모일 때 그 선두에는 석주와 수돌이 서있었다. 개선대렬에 선 그들이였건만 두 얼굴에는 여전히 원한의 그림자가 진하게 어려있었다.

박 병 식

갑신정변과 김옥균

때는 1884년 10월 12일, 갑신정변을 닷새 앞둔 날 밤이였다.

정변준비가 바야흐로 무르익어가고있는 이밤에 김옥균은 마지막으로 국왕 고종을 찾아갔다.

민영익일파의 삼엄한 감시속에서 김옥균이 이렇게 고종왕을 만난다는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김옥균은 지금 그런것을 가릴 경황이 못되였다.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받들어세우려면 민영익일파의 사대주의사상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했다.

그러나 사대주의의 곰팡내나는 묵은 사상에 사로잡혀있는 민영익일파는 나라의 운명을 아득한 심연속으로 끌고들어가고있는것이다.

한시바삐 수구파인 민영익일파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계사조에 호응하여 개화를 지향하는 청년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천길나락으로 떨어져들어가는 나라를 건져 당당한 독립국가를 세계에 선포하여야 한다.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선진국들의 문명을 받아들여 세계선진국대렬에 우리 나라도 당당히 내세워보자.

이것이 시대의 선각자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의 움직일수 없는 건국대계의 포부였다.

이 포부를 실현하자면 할일이 많았다.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인사들은 우선 국왕을 자기네 편에 끌어당겨 개혁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신식군대를 양성하여 개혁의 군사적지반을 확대해나갔다.

이렇게 안으로는 제반 개혁운동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밖으로는 일본을 개혁운동에 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점차 신식장비를 갖춘 군대가 자라났고 근대적국가건설에 필요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외국에 류학도 보냈다.

그리하여 1883년 3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첫 근대적출판기관인 《박문국》이 창설되고 그해 10월 1일부터는 첫 근대적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되였다.

이 《한성순보》는 국내에서 벌어지고있는 소식들을 널리 소개하여 인민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특히 근대적문명제도에 대하여 소개선전하고 그들을 계몽시키는 사업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2월에는 또한 《치도국》이 설치되여 한성에서부터 도로들이 정리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의복제도가 간소화되고 흰옷대신 색갈옷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에는 《우정국》이 설치되여 옛날부터 내려오던 역마법이 폐지되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체신기관이 창설되였다.

점차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사회정치적변혁을 수행하기 위한 부르죠아개혁의 서막이 열리게 되였다.

그러나 개화파의 국정개혁사업은 일본침략자들의 배신적행위와 수구정권의 발광적인 방해책동으로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개화파의 주요인물들이 하나, 둘 도성에서 지방으로 또는 외국으로 따돌리우고 추방되기 시작했다.

개화파의 지도밑에 양성되던 군대 천여명도 윤태준, 한규직이 령솔하고있는 수구파의 부대들에 강제로 편입되고 그 지휘관들도 파직되였다.

《조선의 화근은 김옥균이니 우선 그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구파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중심인물들에 대한 살해음모까지 꾸미고있었다.

개화파의 개혁운동은 결정적인 저해를 받게 되였고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의 신변에는 엄중한 위험이 닥쳐왔다.

국정개혁운동의 평화적발전의 길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자 김옥균은 1884년 9월 17일 개화파요인들을 모아놓고 자기 결심을 말하였다.

《우리들은 수년래 평화적방법만 믿고 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것밖에 없다. 이제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먼저 적수를 눌러버리지 않을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의 결심에는 오직 한길이 있을뿐이다.》

이렇게 결심한 김옥균은 모든 힘을 수구파정권을 뒤집어엎는 무장정변을 준비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때로부터 정변날까지 불과 한달사이에 개화파성원들의 모임만 해

도 27차, 국왕 및 외국사신들과 만나기를 53차… 김옥균은 실로 분망한 나날을 보내였다.

김옥균은 국왕을 돌려세우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국왕 고종을 찾아왔다.

《상감마마! 뜻있는 사람은 나라근심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고 눈있는자로서 시세를 살펴볼진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청일전쟁이 일어날것이온데…》

김옥균은 왕앞에서 세계대세의 변천과 중국과 프랑스전쟁에 뒤이어 장차 청일간에 전쟁이 일어날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의 궁박한 처지가 더 악화될것이라고 현 국제정세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리였다.

《그래 청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면 승부는 장차 어떻게 될가?》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있던 고종은 김옥균에게 이렇게 물었다.

《청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면 그 승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일본과 불란서가 서로 힘을 합해 청국과 싸우게 되면 청국이 불리할가 하옵니다.》

《그러면 우린 그 틈을 타보자는거겠지?》

고종은 이런 말을 슬쩍 던지고 슬그머니 시선을 돌려 김옥균의 얼굴기색을 더듬었다.

이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던 김옥균은 두손으로 땅을 짚고 이마를 조아리였다.

《상감마마의 말씀은 지당하오나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대국에 아부아첨하는 무리들뿐이오니 현존정권으로서는 우리 나라에 요행 자립할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아니될줄 아뢰나이다.

사태는 부득불 현정치를 개혁한 연후에야 백성을 구원할수 있고 나라를 보존할수 있사옵니다. 신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것은 진실로 신의 생사에 관계되는바이오나 나라의 운명이 조석에 달린 이때 어찌 신의 한목숨을 아끼오리까!》

간절히 아뢰는 김옥균의 목소리에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위하는 우국충정의 피가 세차게 높뛰고있었다.

그의 얼굴빛은 흥분으로 하여 창백해졌고 눈에서는 마치 불을 토하듯 섬광이 번뜩이였다.

김옥균을 바라보는 고종의 얼굴에도 어느덧 흥분의 빛이 어리였다.

일찌기 여섯살에 달을 보고 달은 비록 작지만 온 천하를 다 비치

네라는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 젊은이가 오늘은 나라의 운명을 안고 이토록 몸부림치고있는것이 아닌가.

《경의 말은 뜻이 깊으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조석에 달려있는 지금 그 포부를 듣고보니… 으흠, 그런즉 현직대신들을 몰아내고 개화파 젊은 신하들이 정치를 해보겠다는 말이겠지?! 하지만…》

고종은 머리를 천천히 가로 흔들었다.

사실 어려운 난국이였다. 정부의 요직에 앉아있는자도 수구파요, 재정을 맡은자도, 병권을 잡은자도 수구파의 중심인물이였고 게다가 밖에는 수구파의 후원자 원세개가 있고 안에는 수구파를 조종하고있는 민비가 있어 국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당시의 정국을 바로잡기에는 개화파의 힘이 너무나 약하였다.

하지만 부르죠아혁명의 기본력량인 농민대중의 힘을 미처 볼수 없었던 김옥균은 국왕만 뒤받침을 해준다면 넉넉히 될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래서 오늘 김옥균은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넌지시 고종의 마음을 흔들어봤던것이다.

김옥균은 물론 아직 국왕의 마음을 밑바닥까지 알수 없었다. (만일에?) 하는 의아와 공포심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모조리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국왕을 직접 만난 천번중의 한번의 이 기회를 리용하지 않을수 없어 그는 자기의 정변계획을 터놓았다.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지는 말이였지만 오늘 막상 김옥균의 정변계획까지 듣고보니 고종의 머리는 점차 아래우로 끄덕여졌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려는 경의 마음을 인젠 알만 하다. 무릇 나라의 큰일과 위급한 때를 당하여서는 모든것을 경의 주책에 일임할터이니 경은 조금도 의심치 말라.》하며 고종은 즉석에서 왕의 실인을 찍은 밀칙(남모르게 내리는 왕의 명령)을 김옥균에게 주었다.

국왕으로부터 밀칙을 받아 품속깊이 간직하고 나오는 김옥균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는 김옥균의 머리속에는 일본군을 정변목적실현에 역리용하기 위하여 분망하게 보낸 날과 날들이 선히 떠올랐다.

1884년 9월 12일 일본공사 다께소에가 본국에 갔다가 도성에

다시 돌아오자 종전의 반개화파정책을 버리고 청나라를 반대하는 행동을 로골화했다. 여기에서 김옥균은 일본을 정변목적수행에 역리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개화파는 박두한 정변에서 일본군대를 왕궁호위에 리용하려 하였다.

그것은 만약 청나라군대가 공격해와도 막아내는데 유리할뿐아니라 개화파정권이 신속히 반격태세를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적여유를 얻어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런 타산밑에서 김옥균은 9월 17일 정변에 일본군대를 동원시킬데 대한 약속을 일본측으로부터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침략의 기회만 노리는 일본과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하고있는 개화파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정변에서 손을 잡고 공동행동을 취하게 되는 관계가 성립되게 되였다.

그러나 김옥균은 안팎이 다른 일본이 취한 그전날의 배신행위로 보아 이번 정변은 어디까지나 자체로 단행하여야 한다는 원래의 방침을 고수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일본공사놈은 김옥균에게 일본군대를 왕궁호위에 출동시킬데 대한 약속을 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9월 25일에 자기 나라 정부에 일본군대를 약속대로 정변에 가담시킬것인가 말것인가를 빨리 알려달라고 했다.

그 회답이 10월 20일 정기우편선으로 도착될것이였지만 김옥균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결심대로 정변날자를 10월 17일로 결정하였던것이다.

김옥균은 정변에 일본군대를 인입하는 조건에서도 정변을 독자적으로 보장할 목적밑에 9월 29일 다께소에게 이렇게 다짐을 두었다.

《민가일족을 제거하는것은 나에게 맡기고 일이 벌어진 뒤에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호위하며 청나라군대를 막을것을 공사가 맹세한다면 나는 다른 의견이 없겠소.》

다께소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되여 일본군은 왕궁호위에 협력할 임무만을 담당하고 정변수행과 내정에는 조금도 개입하지 않을데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날 김옥균은 모임을 열고 정변을 일으킬 방도를 놓고 동료들과 토론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정국락성식연회를 차리고 수구파인물들을 처

단하는 방법으로 정변을 단행할 방침을 확정하였다.

1884년 10월 17일.

창덕궁 지밀에서 김옥균이 밀칙을 받아가지고 나온지 5일이 지난 그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체신제도가 실시되여 도성 전동골목에 우정국(우편행정에 관한 사무를 보는 기관)을 새로 세우고 총판으로 홍영식이 임명되였다. 그는 이날에 내외고관들을 초청하여 우정국 락성식연회를 열기로 계획하였었다.

홍영식은 아침부터 연회준비를 바삐 서두르고있었다.

한편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지도자들은 이날 밤에 수구파일당을 숙청하기 위한 거사를 빈틈없이 하나하나 짜고있었다.

우정국주위에 행동대원들을 매복시켜놓고 누구는 안동별궁(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치른 건물로서 당시 봉건정부에서 중히 여겨 보존관리하는 건물이였다.)에 불을 지르고 누구는 폭발물을 곳곳에 두어 화재가 만연할 때 자연폭발되여 폭음이 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연회에 참가했던 각 령사는 물론 수구파의 거물급들도 달려나갈것이다.

이때 민영익은 누구누구가 맡고 리조연, 민병석은 각각 누구누구가 맡아서 안동별궁으로 가는 중간도로의 구석진 골목에서 처단하기로 하였다.

계획은 물샐틈없이 짜지고 정변시각은 초조한 가운데 한초한초 다가오고있었다.

기다리던 그 시각은 왔다.

우정국락성식연회가 성대히 진행되고있었다. 연회에는 우정국총판 홍영식의 초청에 의하여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인물들과 민영익, 한규직, 리조연, 민병석 등 수구파의 거물들 그리고 미국공사, 영국총령사 등을 비롯하여 수십명의 내외고관들이 참석하였다.

일본공사 다께소에는 병을 칭탁하고 우정 참가하지 않았다.

밤 9시,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가고있을 때 정변의 시각을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고있던 김옥균은 행동대원들로부터 안동별궁방화를 분담맡은 사람들의 실수로 방화계획이 실패하였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자 김옥균은 지체없이 우정국 옆집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였다.

얼마후 풍성하던 연회도 이제 끝나게 될무렵 우정국부근에서 《불

이야! 불이야!》 하며 고아대는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자리에 앉았던 대신들은 깜짝 놀랐다.
불끄는 책임을 맡은 각 영의 대장들이 곧 밖으로 뛰여나가 출동준비를 하는 순간에 누가 어느새 손을 썼는지 민영익이 옆구리에 칼이 꽂힌채 비틀거리며 연회장 문턱을 넘어서다가 쓰러졌다.
수구파거물들은 이 사변의 내막을 즉시 알아채고 몸을 피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연회장밖으로 나온 수구파거물들을 습격하여 처단하려던 개화파의 첫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였다.
그러나 김옥균은 나라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큰일을 이미 시작한 이상 중도에서 포기할수 없었다.
그는 다음행동방향을 개화파성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자신은 곧 국왕이 있는 창덕궁으로 달려갔다.
김옥균은 금호문을 지나서 급히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은 김옥균을 보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한성장안에서 청국군대가 큰 반란을 일으켜 일대 소동이 일어났으니 잠시 경우궁으로 처소를 옮기심이 어떨가 하나이다.》
김옥균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요란한 폭음이 터졌다.
사전에 포치하였던 사관학교 학생들과 궁녀들이 통명전부근에서 화약을 폭발시킨것이였다.
아닌밤중에 홍두깨내밀듯 불시에 나타난 김옥균을 보자 잠간 주저하고있던 고종왕과 민비는 폭발소리까지 울리자 크게 놀래여 김옥균이 이끄는대로 따르게 되였다.
왕은 경우궁으로 옮겨앉고 개화파는 정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김옥균은 우선 경우궁의 호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왕에게 일본군대의 호위를 요구한다는 동의서를 얻어 그것을 일본공사에게 전달하였다.
얼마후 일본공사는 군사 백여명을 이끌고 경우궁으로 달려왔다.
개화파는 예정계획대로 일본군대를 왕궁밖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고 왕궁으로 통하는 네 문에는 개화파자체의 무장성원들을 선발배치하였다.
이럴 때 우정국에서 간신히 몸을 피하였던 수구파요인들이 국왕을 찾아 경우궁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왕궁에 들어서는 족족 개화파의 칼밑에 쓰러졌다.
선참으로 무력을 통제하고있던 윤태준, 한규직, 리조연 등이 처단되였다.
뒤이어 개화파는 왕의 어명을 빌어 민태호, 민영복, 조영하 등 수구파 우두머리들을 급히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띄운 후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처단해버리였다.
이리하여 개화파의 칼아래 수구파의 거물들은 순식간에 제거되고 정변계획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여나갔다.
그날밤으로 국왕 고종은 경우궁 정전에 좌정하고 김옥균과 일본공사, 개화파성원들이 좌우에 시립했다.
일본군사들은 대문안팎을 삼엄하게 경계하여 일체 출입을 금지했다.
전군 소대장은 당직병정을 거느리고 궁전의 뜰안팎에 벌려섰고 장교 한명은 사관학교 학생 십여명을 거느리고 전상에 시립했다. 또 한 장교는 장사 십여명을 거느리고 앞문밖에서 대기하고있었다.
그야말로 철통같은 경위태세였다.
개화파는 곧 왕앞에서 새 정부를 조직하였다.
령의정에는 국왕의 사촌형 리재원을, 좌의정에는 홍영식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의 아들인 리재면, 외손자인 조한국 등을 비롯한 인사들을 새 정부구성에 인입하였다.
정부구성에서 핵심적부문인 군사, 외교, 경제, 사법, 경찰, 인사 등은 모두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10월 18일에 새 정부의 구성이 전국에 공포되였고 조선주재 각국 공사관과 령사관들에도 새 정부의 성립을 알리였다.
미국공사와 영국총령사, 도이췰란드총령사들은 엄연한 현실앞에 더는 어찌지 못하고 국가간의 외교적관례에 따라 경우궁에 들어와 새 정부를 공식방문하였다.
정변은 일단 승리하였다.
이튿날에는 새 정부가 착착 진행할 14개 조의 정강도 발표했다.
정강에서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주장했다.
문벌을 타파하고 인민평등을 규정했으며 탐관오리들을 청산하고 경제생활의 근대화를 요구했다.

근대적인 경찰, 재판제도와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군사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책은 구체적이였고 진보적이였다.

참으로 이 정강에는 케케묵은 봉건조선대신에 개명하고 부강하고 독립적인 조국의 장래가 약속되고있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구성을 보자 그 누구보다 놀란것은 민비였다.

그는 이 정변이 누가 누구를 반대하는 정변인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런데다가 18일 아침 민비는 개화파로 가장하고 경우궁에 잠입하고있던 수구파의 밀정 심상훈으로부터 청국군대의 반격이 곧 있게 된다는 련락을 받았다.

민비는 즉시 국왕을 충동질하여 경우궁이 좁고 불편하다는것을 구실로 삼아 창덕궁으로 옮기자고 책동하였다.

그것은 경우궁이 크지 않아 개화파가 방어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곳이였기때문이였다.

김옥균은 국왕에게 창덕궁은 지나치게 넓고 커서 적은 무력을 가지고 지켜내기 곤난하다고 벌써 몇번이나 해설하였으나 민비의 충동에 국왕의 마음은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일본공사놈이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청국군대의 무력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한개 중대 병력으로써 능히 물리칠수 있다고 하면서 창덕궁으로 옮기는데 찬동해나섰다.

이것은 순전한 모략행위였다. 아직 요람기에 있는 새 정부를 청나라무력간섭자들앞에 직접 대치시켜놓음으로써 정변의 성과를 그 싹으로부터 송두리채 없애치우자는것이였다.

민비의 앙탈과 다께소에놈의 술책으로 왕의 거처는 결국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이때 일본공사놈은 왕궁에 그이상 머물러있다가는 청국정부와의 관계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구실을 붙여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제기해왔다.

실로 준엄한 시각에 나타난 로골적인 배신행위였다.

김옥균은 격분에 차서 일본공사놈의 배신행위를 규탄하면서 녹쓴 무기를 수리정비하고 군대를 재편성하여 반개화세력의 공격을 막을수 있

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최소한 3일간만이라도 더 머물러있을것을 요구하였다.

일본공사놈은 이 정당한 요구를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반개화세력은 최소한의 준비기일인 2～3일간도 채 되기전에 앞질러 공세를 취했다.

대포소리가 몇방 울리자 일본공사놈은 지붕에 올려보내고 사다리를 치우는 격으로 정변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정변이 성숙돼가자 자기 군대를 전부 데리고 도망치고말았다.

개화파는 단독으로 적과 맞서야 했다.

그런데 널다란 창덕궁에서 우세한 적들과 맞섰으니 운명은 이미 지어진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창덕궁은 다시 청국간섭군에게 점령되고 국왕은 다시 수구파의 수중에 들어갔다. 갑신정변은 이렇게 《3일천하》로 끝났다.

정변에 대한 수구파들의 무자비한 복수가 시작되였다.

왕궁을 지키던 홍영식, 박영교를 비롯한 적지 않은 개화파인사들이 대역부도죄인이라는 죄명아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옥균은 간신히 사선을 벗어나 몇명의 동지들을 데리고 해외망명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

1884년 10월 24일 새벽 6시 김옥균일행을 태운 일본선박 《천세환》호가 배고동소리를 처량하게 울리며 인천항을 떠났다.

철썩, 처절썩! 배전을 치는 물결우에 쓰라린 피눈물을 뿌리며 사랑하는 조국산천을 등지고 망명의 길을 떠나가는 김옥균의 가슴은 미여질듯 쓰리고 아팠다.

캄캄한 이 나라에 신기루인양 솟아났던 개명한 조선의 그 모습과 실현되지 못한 새 정강의 조항조항이 철썩이는 저 파도와 함께 세차게 가슴을 쳤다.

현대적문명국을 다시 일떠세우고 새 정강을 실시할 그날을 기약하며 김옥균일행은 망명의 길을 떠났다.

《천세환》은 일본의 나가사끼항에 도착했다. 얼마후 김옥균은 도꾜에 와서 거처를 정하였다.

어느날 밖에 나갔던 김옥균은 날이 저물어서야 숙소에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니 책상우에 편지 한장이 놓여있었다. 뜯어보니 지운영이란자가 한번 만나기를 바란다는 편지였다.

김옥균은 이미 동지들을 통해 지운영이란자가 자기를 살해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객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김옥균은 즉석에서 그의 면회를 거절하는 회답편지를 썼다.
그리고나서 류혁로, 신응희, 정란교 등 세명을 불러 《지금 지운영이란자가 나를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왔네. 그자의 검은 속심을 드러내놓게 하여야 하겠네.》라고 하며 그들에게 이리저리 하라고 조용히 일러주었다.
이튿날 류혁로 등 세사람은 지운영을 찾아가 술잔을 나누었다.
술잔이 오고가기를 몇차례, 취한 기운이 자리에 그윽하여졌을 때 류혁로는 웃는 얼굴로 지운영에게 다시 한잔을 보내면서 문득 김옥균에 대한 말을 하였다.
《〈3일천하〉의 서글픈 처지에 빠진 불쌍한 인생》이라느니, 《친일파》라느니 하면서 늘어놓자 다른 두 친구들속에서도 간혹 거친 말들이 섞여나왔다.
그러자 지운영은 이 세명의 친구들을 자기 망에 가담시킬 생각이 불쑥 치밀었다.
그는 히죽이 웃으면서 조심조심 이런 말을 꺼냈다.
《그래서 지금 국왕께서는 역적 김옥균을 산채로 잡아오지 못하겠거든 목이라도 베오라는 명령을 내리시였네.》 하더니 그자는 품속에서 무엇을 꺼내는것이였다. 국왕의 특명위임장이였다.
지운영은 그들에게 국왕의 특명위임장을 직접 보이며 자기와 함께 거사에 참가할것을 권하였다.
《이역땅에 와서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김옥균의 주위를 보게, 호위하는 무리들이 도처에 욱실거리고있으니…》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하던 신응희가 머리를 가로흔들었다.
그러자 지운영의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 살기가 번뜩이였다.
《념려말게. 자, 이런것들도 다 준비되여있네.》
그는 허리춤에서 단도와 독약봉지를 꺼내놓았다.
《됐네, 그러면야 일은 다 된거나 다를바 없지. 그런데 요새 와서 일본경찰이 자네를 주목하고있는것 같은데 그런것을 가지고있다가 혹시 신변이 위태롭지 않을가? 그러니 차라리 그것들은 당분간 나에게 맡기게.》
지운영은 선뜻 응낙하고 그 자리에서 왕의 위임장과 함께 무기와 독

약봉지를 류혁로앞에 내밀었다.

그것들은 그날밤중으로 김옥균에게 전달되였다.

김옥균은 그것을 가지고 일본사법기관에 들이대는 한편 일본외무상한테도 지운영의 비렬한 암살행위를 일본정부가 왜 비호하고있는가고 항의를 들이댔다.

지운영은 결국 일본관청에 체포되여 조선으로 압송되였다.

한편 김옥균은 국왕에게도 상소문을 보냈다.

《상감마마, 5백년사직이 바야흐로 위태로운 이때 상감마마께서 망국의 군주로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 개화파인사들을 처단할것이 아니라 민가일당을 정계에서 축출해야 하오며 청국과 일본, 로씨야 그 어느 나라도 믿어서는 안되옵니다. …

충신의 충언을 쓰다 마옵소서.》

그러면서 김옥균은 지운영과 같은 자객을 이국에까지 파견하는 비렬한 행위를 당장 걷어치울데 대하여 력설하였다.

그후 민가일당은 일본정부에 김옥균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통첩을 보내였다.

일본정부는 김옥균문제로 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나머지 그를 상하이로 유인하여 청국경찰을 시켜 체포처단하게 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세워 청국측과 합의까지 보았으나 내외여론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이 비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김옥균을 궁벽한 류배지인 오가사하라섬에 억류하는 부당한 조치를 강제로 집행하였다.

오가사하라는 불같은 더위와 가마속같은 습기에다가 땅과 물이 나쁘기로 유명한 섬이여서 습증과 위병을 앓고있던 김옥균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여갔다.

사람 못살 그곳에서 1년 9개월의 세월이 천년맞잡이로 흘렀다.

김옥균은 류배지에서 벗어나 도꾜로 돌아왔다. 조선침략에 자기를 리용해보려는 놈들의 속심을 이미 간파하고있는 김옥균의 앞에는 중중첩첩 시련만 가로놓였다.

일본정부의 회유와 기만,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초기 김옥균과 뜻을 같이하는척 하던 일본사람들도 하나둘 물러서고 심지어 표면적인 호의마저 완전히 저버리고 조선침략을 위한 정보활동에 복무하는자들도 있었다. 여기에 경제적난관이 그를 무섭게 엄습했다. 당장 자금이

문제였다.
김옥균은 자신이 이제는 일본에 더 머물러있을 필요가 없다는것을 느끼였다.
리홍장에게서도 청국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장이 왔으니 청국을 리용하여 수구파정권을 타도하고 20세기와 보조를 맞출 조선을 세울 방도를 모색했다.
머리에서는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나돌았다.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범의 새끼를 잡을수 없다.)
마침내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상하이로 가기로 결심했으나 당장 쓸 려비가 문제였다.
김옥균이 려비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있을 때 리일식과 홍종우가 그를 찾아왔다.
리일식은 오래전에 민영익과 련계를 가지고있던자로서 김옥균을 살해하기 위하여 파견된 놈이였고 홍종우는 일본을 거쳐 프랑스에까지 류학하고 온자로서 홍영식의 친척으로 가장하고 역시 김옥균의 목을 노리고 기여들어 리일식과 손을 잡고있는 자객이였다.
이 내막을 알바 없는 김옥균은 이미전부터 그들을 믿고 사귀면서 자기 생각을 죄다 말하군 하였었다.
김옥균이 자금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자 리일식이 선심이나 쓰듯이 말하였다.
《사정이 딱하군그래. 하지만 걱정말게. 우선 많지 않지만 이 돈을 려비로 쓰게. 그리구 상하이에 가거든 내 상하이은행에 예금하여둔 영업자금이 얼마간 있으니 어찌겠나. 그거라도 먼저 쓰구보자구.》
김옥균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띄여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리일식은 그 은행구좌가 자기 이름으로 되여있지 않고 홍종우의 친구인 청국인 어느 기업가의 이름으로 되여있으니 홍종우를 상하이까지 데리고 가서 돈을 찾도록 하라고 했다.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김옥균은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는 우선 그토록 걱정하던 자금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것이 기뻐 상하이로 곧 떠나려고 하였다.
김옥균일행은 와다라는 일본청년과 홍종우 그리고 통역 겸 안내자로 청국사람 오보인 등 네명으로 구성되였다.
1894년 춘삼월, 벚꽃이 만발한 도꾜의 좋은 봄날이였지만 김옥균

의 마음에는 아직 봄이 이르지 않았다.
조국의 새봄을 그리며 김옥균은 도꾜를 출발했다.
3월 25일, 일행은 상하이로 가는 대형선박 《서경환》에 올랐다.
망망한 바다우에 나서니 2500톤급의 대형선박인 《서경환》도 한날 쪽배같았다. 배우에는 선인과 악인이 함께 타고있었다. 애국지사 김옥균과 자객 홍종우가 마주앉아있음을 아무도 몰랐다. 하늘의 별들만이 알고있는듯, 무어라 안타까이 속삭이는듯 깜박이고있었다.
김옥균은 떠남에 앞서 벗들로부터 홍종우를 각별히 경계하라는 신호를 받았었다.
그러나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치자 김옥균은 이미 결정한대로 홍종우를 데리고 떠났던것이다.
하지만 가면서도 김옥균은 홍종우의 일이 못내 의심되여 배우에서 와다를 가만히 불렀다.
《저 홍씨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의 일거일동을 유심히 살피게.》
와다는 그 말을 듣고 침실에서 홍종우와 함께 자고 깨며 그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몰래 감시했다.
배는 쉬임없이 달리고달려 3월 27일 오후 5시에 상하이에 도착했다.
일행은 배에서 내리자 곧 일본사람이 경영하는 동화양행이라는 려관에 숙소를 정하였다.
호실을 정할 때도 김옥균은 홍종우가 마음에 꺼려 자신은 2층 1호실로 정하고 2호실에 오보인을 그리고 3호실에 홍종우와 와다가 들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 식사시간이였다.
일행은 한식탁에 모여앉았다. 홍종우가 늦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직껏 입고있던 양복대신 호화로운 조선옷을 입고있었다.
《홍군, 벌써 오자마자 고국생각이 나는가보군.》
《참, 이국에 와서 보니 고국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홍종우는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의자에 앉았다. 이 호화로운 조선옷이 홍종우가 떠날 때 그가 단도와 권총을 몸에 감출수 있도록 리일식이 새로 만들어준것임을 김옥균이 어찌 알았으랴!

식사가 끝난 후 김옥균은 그 자리에서 그날 하루사업분담을 하였다.
홍종우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오보인은 상점에 가서 중국옷을 한벌 사라고 했다. (김옥균은 오후에 마차로 상하이구경을 하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와다는 자기와 함께 공원에나 나갔다 들어오자고 했다.
홍종우와 오보인을 떠나보내고 김옥균은 와다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가 인차 들어와 침대우에 누워 《자치통감》이란 책을 읽고 있었다.
홍종우는 곧장 중국 관헌에게 찾아가 김옥균의 도착을 알리였다.
높은 직위와 돈, 그의 얄미운 허영심이 그를 후세에 두고두고 저주받을 악인으로 만들었던것이다.
장시간에 걸친 밀담후 홍종우는 정오쯤되여 려관에 나타났다.
그는 김옥균에게 친구가 외출중이여서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 래일 가보지. 방에 가서 좀 쉬게.》
홍종우는 김옥균의 방을 나와 조선옷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그냥 복도에서 서성거리며 1호실부근을 배회하고있었다.
이때 김옥균은 와다에게 말하였다.
《여보게 와다, 려관주인한테 가서 〈서경환〉 사무장에게 사람을 띄워 오후에 함께 거리구경이나 하자고 부탁하고 오게.》
방문을 닫고 뚜걱뚜걱 계단을 내려가는 와다의 발자국소리가 아래층으로 막 사라지려는 그 순간 복도에서 기회를 노리고있던 홍종우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든채 김옥균의 방문을 열었다.
《역적 김옥균아, 너의 생명은 오늘로 끝장이다.》
《내가 네놈에게 속았구나!》
김옥균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땅!》
자지러지듯 때아닌 총성이 울렸다.
탄알은 김옥균의 귀밑을 따갑게 스치며 벽을 뚫고 지나갔다.
김옥균은 침대에서 몸을 날려 의자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두번째 총성이 또 울리였다.
의자는 맥없이 떨어지고 김옥균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때아닌 총성, 아래층으로 도망치는 홍종우…
와다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것을 직감하고 그가

되돌아서서 2층으로 달려올라와 김옥균의 방앞에 이르니 문은 반쯤 열려져있고 김옥균은 벌써 선혈이 랑자한 가운데 쓰러져있었다.

…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워보려고 이역만리에서 헤매인 김옥균의 10여년동안의 망명생활은 이렇게 끝났다.

김옥균의 령구는 즉시 군함에 실려 한성을 향해 상하이를 떠났다.

며칠전 크나큰 포부를 안고 달리던 그 배길로 김옥균은 지금 한많은 시체가 되여 돌아오고있었다.

배는 질풍같이 달려 어느덧 한성의 양화진에 도착했다.

수구파반동들은 여기서 김옥균의 령구를 헤쳐 사지를 찢고 목을 베여 길가에 매달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역부도죄로 극형》이라는 나무패쪽을 붙였다.

차마 볼수 없는 이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울분의 눈물이 남몰래 떨어졌고 저저마다 마음속으로 그의 의로운 애국심을 추모하면서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김옥균은 비록 죽었으나 개화사상의 절절한 부르짖음은 갑오농민전쟁과 그후 반침략, 반봉건투쟁에로 힘있게 메아리쳐갔다.

때는 4월의 화창한 봄날, 산은 산마다 울긋불긋 온갖 꽃이 만발하고 강을 따라 뻗어간 긴 동뚝에 풀빛이 푸르러가는데 기울어져가는 리씨왕조만은 어두운 그늘이 점점 짙어가고있었다.

저녁해는 서산에 기울고 구슬픈 한강의 여울물소리도 목메여 흐느끼듯 처량하게 들려오는데 바람은 노호하며 검은 비구름을 몰아오고있었다.

왜적을 치자

정미년, 1907년 7월 그믐께의 어느날 밤이였다.

왜놈들의 강요에 의한 《정미7조약》의 날조로 한양장안이 한동안 소란스럽더니 이 며칠째는 저으기 평온한 나날이 흘러가는상싶었다. 그러나 어데라없이 긴장한 저기압이 무겁게 흐르고있었다.

삼복철의 지겨운 밤, 달빛을 등진 검정군복차림의 한 사나이가 종로거리를 걷고있었다. 그는 시위대(리조말에 왕의 호위를 위하여 조직된 군대) 1대대에 군적을 둔 군관 권기홍이였다.

고개를 지수굿하고 걸어가는 그의 입에서는 가끔 탄식같은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군복앞섶은 풀어헤쳐졌고 처져내린 혁띠에 매달린 칼집은 땅에 끌렸다.

특별히 어디를 정하고 걷는 걸음이 아니였다. 괴롭고 울적한 기분을 가실길 없어 방향없이 내친 걸음이였다.

방금전에 그는 고향에서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국운이 쇠진해지니 가운마저 기울어진다고 쓰기 시작한 편지는 자자구구가 가슴저미는 애달픔으로 가득찬것이였다. 왜놈상품이 들이밀리는 바람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다 세금은 과중하고 빚독촉은 성화같아 온 식솔이 운명을 걸고있던 가게방을 끝내 닫아버렸다는것, 호구지책을 잃어버린 가족이 눈물로 날을 보내는데 집안의 가긍한 정상을 보다못해 녀동생이 몇푼돈에 팔려 이민으로 서양나라에 끌려갔다는것, 이제는 온 식솔이 기홍이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였다는것, 그래 회답편지를 받으면 도성으로 떠나겠다는 사연이였다.

이 소식은 그에게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었다. 몇푼 안되는 군록으론 내 혼자의 씀씀이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온 가솔을 어떻게 먹여살리랴… 자기 어깨에 실리는 너무도 큰 부담에 권기홍은 가슴이 답답해났다.

《나리ㅡ》

누군가 찾는 소리에 그는 번뇌에서 깨여났다.

《인력거를 탑쇼.》

늙수그레한 인력거군이 그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권기홍은 말

없이 걸음을 내짚었다.

《나리, 적선하는셈치구 타줍쇼. 눈이 까만 새끼들이 벌써 며칠째 굶었소이다.》

인력거군은 가뜩이나 울적하던 권기홍의 심사를 더 궂혀주었다. 약한자의 우는 소리… 어쩌면 이렇게 지지리 못난 인생들뿐인가.

《령감, 어데 가서 농사나 짓지 왜 한양바닥에서 빈둥거리오?》

역증어린 그의 말에 인력거군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랬으면 여북 좋겠사와유. 룡산에 몇마지기나마 땅이 있던걸 을사년에 왜군에게 뺏기구 이 노릇을 하지유.》

《룡산에요?》하고 되물은 권기홍은 걸음을 주춤거렸다.

룡산, 너무도 기억이 생생한 곳이였다. 이태전 《을사5조약》이 날조되던 해인 1905년 8월초였다. 왜군은 한양의 룡산일대로부터 한강류역까지를 군용지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토지 3천여결을 략탈하였을뿐만아니라 천여호의 살림집을 헐고 백수십개의 무덤을 마구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졸지에 생계를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된 룡산과 한강류역의 수천명 농민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엿새동안이나 왜놈헌병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렸다. 왜놈들의 강박에 시위대도 그들의 진압에 내몰리였다. 권기홍이 앉아버티는 농민들을 흩어지라고 총대를 내휘두를 때였다.

갓을 쓴 수염 허연 체소한 늙은이가 앙상한 손으로 그의 목깃을 꽉 움켜잡았다.

《이놈, 개도 제집을 지켜 도적을 무는데 너희놈들은 저 강도같은 왜놈들과 한짝이 되여 동족을 죽여! 이,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수염을 우들우들 떨던 로인의 서리발 찬 기상이 지금도 눈에 밟혔다.

아마 그때부터였던것 같았다. 그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였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였다.

자기는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니는것인가.

조정과 군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것이 군인의 본분이며 애국충정의 길이라고 믿고있던 그로서는 자못 심각한 느낌이 아닐수 없었다.

이 느낌은 《을사5조약》을 반대하여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투쟁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폭도라고 해서 잡아온 의병들을 눈앞에서 볼 때마다 더욱 깊어갔다. 대역부도죄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목을 잘리우는 최후순간까지 왜적을 치고 매국노를 쳐

야 한다던 그들의 절규가 귀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서도 저주로운 검정군복을 벗어던질 용단은 내리지 못하였다. 어쨌든 나라를 지킬 군대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번민과 울분으로 모대길 때마다 그는 쓰린 가슴을 달래듯 군모의 무궁화모표를 쓸어만졌다.

어디선가 애끓는 창가소리가 울려왔다.

우국지사들의 영탄의 흐느낌소리가 시국풍조로 되여버린 때였다.

아름답고 귀한 나의 한반도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바니
나의 피를 뿌려 너를 빛내고저
한반도야

구슬픈 창가소리에 자못 심란해진 그는 영춘각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에익, 독한 술로 이 울화증을 꺼버리자. 나파룬(나뽈레옹)은 술이란 약자의 객기를 위해서만 소용닿는 물건이라 했다지만 술 아니면 못 견디겠구나.》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영춘각으로 발길을 돌리던 권기홍은 그때까지 자기곁에서 걷고있는 인력거군에게 지폐 몇장을 꺼내주었다.

《아니?…》

《내가 타고온셈치구 받아두오.》

《고마와유, 나리. 밖에서 기다리겠어유.》

권기홍은 료리집에 들어가서 한고향태생으로 자별한 사이인 최향화를 찾았다. 향화는 어느때건 그의 기분을 리해하고 위로해줄줄 아는 녀자였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시무룩한 기색이였다. 수심어린 두눈을 차붓이 내리뜬채 애들장난감만 만지작거리였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삼촌네가 해삼위로 떠났어요. 종매(손아래 친4촌누이)들을 줄려고 산 이 장난감은 소용없이 됐어요.》

향화의 두눈은 흐려졌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될가요? 왜 우린 참아야만 할가요? 우린 이 장난감보담두 못해요?》

향화는 만지작거리던 오뚜기를 자빠뜨리였다. 그러나 눈이 동그란 오뚜기는 혼돌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이것 이름이 뭔지 아셔요?》
《오뚜기지 무어야.》
《아니, 점포아바이가 그러는데 오독립이라지요. 나 오자, 홀로 독자, 설 립자… 내가 독립하겠다고 오뚝오뚝 일어서는게 얼마나 장해요.》
이럴즈음 마당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미닫이밖에서 송구스러워하는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 나리…》
분명 늙은 인력거군의 목소리 같아 권기홍은 문을 열고 마루에 나섰다.
《나리, 저 왜병정이 자꾸 타구가자고 못살게 굽니다요. 나리를 모실거라구 그만큼…》
인력거군을 밀어제끼며 앙바틈한 키에 어깨가 되바라진 왜놈 오장놈이 기홍의 앞에 다가섰다. 역한 술내가 풍겼다.
《구루마 당신이나 타고 왔는가?》
놈은 처음부터 반말이였다.
한갖 오장따위의 반말질에 기홍은 대뜸 분기가 치밀었다.
《나 먼저나 타겠소.》 하고 뇌까린 왜병정은 기홍의 승낙은 기다리지도 않고 인력거군의 어깨를 왁살스럽게 떠밀었다.
《나리!》
늙은 인력거군은 간절한 눈길로 기홍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무엇을 하소한다는것을 기홍은 모르지 않았다.
《바가야로!》 하는 소리와 함께 왜병정은 인력거군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어쿠!—》
늙은 인력거군은 얼굴을 싸쥐였다. 조금뒤 손을 뗀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피흐르는 그의 얼굴에는 무엇이라 형언할수 없는 고뇌의 표정이 어리였다.
기홍은 저도 모르게 칼자루에 손이 갔다.
《아서요, 장부의 검을 이런데서 뽑진 마세요.》
향화가 그의 손을 잡았다.

왜병정은 인력거군을 개몰듯 끌고 가버렸다.
권기홍의 심장은 모욕과 수치와 환멸로 아프게 옥죄였다.

한양거리의 분위기는 여느때없이 살벌했다. 아침일찍 종로에는 난데없는 보루가 쌓여지고 대포를 끌어다놓았다. 상점문들은 닫아걸렸고 곳곳에 누런 군복에 뻘건 장화를 신은 왜놈헌병들이 버티고섰다. 사람들의 성문출입을 금지시켜 인적기 끊어진 거리로 총대를 멘 왜놈군대가 먼지를 일쿠며 지나갔다.
(이놈들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이러는가?!…)
왜놈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하루도 편한 날 없지만 이 아침의 류다른 생각에 권기홍은 불안과 긴장으로 신경이 날카로와졌다.
병영은 더욱 뒤숭숭했다.
장교들은 물론 일반병사들의 얼굴에까지 장마철하늘같이 침울한 표정이 어리였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왜놈들이 조선군대를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던것이다.
이 뜻밖의 말을 들은 권기홍은 가슴속에 무거운 납덩이가 떨어지고 발밑이 흔들리는듯싶은 착각을 느꼈다.
(군대를 해산하다니?!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는가?)
권기홍은 도대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우리 민족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수록될 사변이 꾸며지고있는줄 그가 어찌 알았으랴.
어제 밤 (1907년 7월 31일) 조선정부의 총리대신직을 차지하고있는 친일매국역적 리완용은 조선침략의 흉악한 원흉인 조선통감 이등박문놈의 부름을 받고 그의 처소로 찾아갔다.
《오, 잘 오셨소.》
잠옷바람으로 보료우에 기대여앉아 왜년이 타는 샤미셍(왜의 민족악기. 현악기의 하나)소리를 듣고있던 이등박문은 졸음이 실린듯한 눈길을 쳐들었다.
《당신네 정부가 일을 또 한가지 해주어야겠소.》하며 이등박문은 책상우에 놓여있던 서류를 리완용에게 집어주었다.
그것은 조선군대정리안이였다.
그것을 한장한장 번져보는 리완용의 손은 차츰 수전증이 일어난듯

가볍게 떨리고 코등에는 땀발이 내돋았다.
군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조선군대를 정리하는 명색으로 꾸며진 서류에는 9 000명에 불과한 조선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릴 절차와 방법이 밝혀져있었다.
군대정리안에는 제1차로 한양에서 시위보병 5개 대대, 기병대. 포병대, 교성대대를 해산시키며 제2차로 지방에 있는 진위대 8개 대대를, 제3차로 헌병대, 려단사령부, 연성학교 치중대, 홍릉수비대, 군악대를 해산시키기로 하였다.
리완용은 선뜻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 그는 군대해산보다도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가 두려웠던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불현듯 헤그밀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워 고종왕을 강제퇴위시킨 열흘전에 있었던 일이 금시처럼 떠올랐다. 그때 왜놈들의 너무도 참혹한 내정유린에 격분하여 봉기한 한양시민들과 시위대의 일부 병사들은 리완용의 집을 습격하여 불살라버렸었다. 요행히 몸을 피해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 일을 상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군대를 해산시키는 날이면 무슨 봉변을 또 당할지 어찌 알랴.
가까스로 고개를 쳐들던 리완용은 이등박문의 쪼프린 가시눈길에 부딪치자 기가 질려 흠칠 몸을 떨었다.
《왜, 마뜩지 않소?》
이등박문의 랭랭한 말에 리완용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올시다. 그런데 황제폐하께서…》
《총리는 역시 역은 사람이외다. 책임을 혼자 지지 않겠다는 말이지. 그깟 허수아비국왕의 명령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소.》
라고 말한 이등박문은 이미 날조해놓은 국왕의 《명령서》를 던져주었다.
《황송합니다. 그런데…》
《아직두 뭐가 미흡하오?》
《통감도 모든 일은 빈틈없이 튼튼히 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만약시…》 하며 리완용은 무릎걸음으로 나앉아 가살을 피웠다.
《만약시 병정놈들이 해산을 거역하고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한양장안의 무지한 백성들이 불순할 때 에ㅡ 그를 진압할것을 통감께 의뢰한다는 우리 황제의 명령도 또한 받아두는것이…》

《그건 념려마오. 래일 새벽이면 하세가와군이 한양을 군대와 대포로 둘러쌀테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알고 물러가겠소이다.》

《그렇게 하시오. 동양평화를 위해 성의를 다하는 총리의 갸륵한 심정에 대해서는 내 천황페하께 따로 보고하리다.》

이처럼 상전과 주구의 공모밑에 조선군대해산날자는 8월 1일로 정해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왜놈군대우두머리 하세가와가 그것을 진압하기로 약정되였던것이다.

아직 이런 막후흥정까지 알지 못하는 권기홍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어 대대장방으로 갔다.

《자네도 출근했나?》

여느때없이(모든것이 여느날과 달랐다.) 무거운 표정으로 책상앞에 앉아있던 대대장 참령 박성환이 시름겹게 물었다.

《대대장님, 우리 군대를 해산한다는게 무슨 소립니까?》

권기홍은 책상앞으로 다가서며 따지듯 되물었다.

《하세가와의 집에서 부대장회의를 한다니까 회의에 참가한 중대장이 돌아오면 알게 되겠지. 병을 구실로 중대장을 대리로 보냈네.》

《그러면 참말입니다그려.》

참령 박성환은 대꾸없이 권기홍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회색구름이 낮게 드리운 북악산마루를 바라보며 침통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5천년력사국이, 5백년도읍이 오늘을 당하여 명줄을 끊고마는구나.… 나라의 명줄을 지키자고 내 오늘 이때까지 살아오며 모래주머니를 차고 저 삼각산에도 수없이 올랐건만 아, 그 모든게 정녕 부질없는노릇이였단 말인가.… 어찌 이런 치욕을 당할수 있을소냐, 아!…》

그는 괴탄의 한숨소리를 토하더니 고개를 푹 떨구고 어깨를 들먹였다.

권기홍은 마음이 언짢아져 자리를 피했다. 그의 눈굽에도 까닭모를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시각 남산에 있는 조선주둔 왜놈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집에서는 조선군대해산을 통고하는 시위대 부대장들의 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실상 조선황실의 빈약한 재정으로 현재의 군대수를 유지할수 없

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요. 그러나 장교제군은 안심해도 좋소. 사병들은 정리되더라도 장교제군들의 생활은 담보될것이요. 에— 이또 통감께선 앞으로 장교양성에 주로 힘쓸 방침이라는데 대해서 강조하였소.》

번대머리 하세가와는 원탁앞을 천천히 거닐면서 말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나 장교층을 회유하여 조선군대의 반항을 미리 막으려고 윈심을 쓰고있었다.

마루바닥을 뚜걱거리는 하세가와의 장화소리에 뒤에서 누군가 땅이 꺼질듯싶은 한숨을 내쉬였다.

걸음을 멈춘 하세가와는 잠시 장내를 일별하고나서 신경질적으로 말을 이었다.

《에또,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몽매한 사병들의 오해로부터 소소한 불찰도 있어서는 안되겠소. 이에 장교제군들이 각별히 협력하길 바라는바요. 제군들은 이제 부대로 돌아가는 즉시 무기와 탄약을 소속 황군교관에게 인계하고 전원 인솔하여 10시까지 훈련원에 집합해야 하오. 에또, 사병들에게는 도수훈련을 한다고 하시오.》

누군가 뒤에서 의자를 삐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명백히 말해주시오. 조선군대의 정리요, 해산이요?》

하세가와는 그를 매서운 눈초리로 한참 쏘아보더니 칼자루로 마루를 쾅 짚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는 칼자루를 꾹 짚고 장내를 훑어보며 위협하듯 뇌까렸다.

《본관은 제군들에게 현재 이 나라의 유명무실한 9천명의 군대를 대상으로 최신무기로 장비된 2개 사단의 대일본황군이 주둔해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바요.》

회의에 참가했던 중대장은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다.

부위(무관직의 하나. 정위의 아래) 남상덕과 함께 군관 권기홍이 그에게로 급히 다가갔다. 어느새 중대장의 주위에는 조선군사들로 병풍을 쳤다.

중대장의 말을 전해듣는 군사들의 얼굴은 컴컴해지고 숨소리들이 거칠어졌다.

《그러니 어찌겠소. 중과부적이라구 힘이 약한 우리가 굴복하는수밖에…》

중대장이 말끝을 흐리더니 대대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왜놈들이 총 한방 쏘지 않고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겠단 말이지, 에익!》
부위 남상덕이 비분에 떨며 칼을 뽑아 곁의 바위를 내리쳤다. 칼날 부러지는 아츠러운 쇠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왜놈들이 병영을 둘러싼다.》
누군가 낮으나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병영담장너머로 번뜩이는 총창들이 보였다. 목이 길죽한 안경쟁이 왜놈교관이 무기창고앞에 버티고서서 독살스럽게 조소를 띠우고 조선 군사들을 주시했다.
이 순간 권기홍은 숨이 막히고 가슴이 죄여들었다.
(나라를 지키자고 군복을 입은 내가 이렇게 손에서 총을 놓아야 하는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피가 한동이씩 고인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조상의 나라를 밟고다닌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노릇이였다. 그는 왜놈들이 미웠다. 씹어삼키고싶도록 미웠다. 왜놈뿐이 아니였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조정의 매국역적들도 미웠다. 찢어발기고싶도록 미웠다.
이때 대대장의 방에서 심상찮은 한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뒤미처 대대장실에서 군사 하나가 허둥거리며 달려나오더니 비통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대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자결하셨소!》
사람들의 가슴속에 팽팽하게 조여졌던 금선은 드디여 끊어지고말았다.
권기홍의 정수리로 피가 쏠리고 주먹이 으스러지게 쥐여졌다.
《이 흉포한 쪽발이 왜놈들아, 조선사람이 다 죽은줄 아느냐?》
그는 무기고앞에 버티고 선 왜놈교관에게로 육박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증오와 분노로 험상궂게 이그러졌다.
《모야?》
겁에 질린 왜놈교관은 뒤걸음질치면서 칼집에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놈은 미처 칼을 뽑지 못한채 처음에는 머리가, 다음에는 몸뚱아리가 땅에 떨어져 쿵 소리를 내였다.
권기홍은 왜놈의 피가 흐르는 칼을 쳐들며 부르짖었다.
《형제들, 이래도 참을텐가? 망국노로 더럽게 살겠는가, 의로운 군

사답게 싸우다 죽겠는가?》
《싸우자!》
《왜놈을 치자!》
격노한 병사들이 호응해나섰다.
부위 남상덕이 권기홍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기홍군!》
《부위님!》
말없는 가운데 두 사나이의 숯불같은 눈길이 뜨겁게 오갔다.
남상덕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병사들, 나의 지휘를 받으라.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원쑤를 맞받아나가자!》
무장한 병사들은 《와!》 함성을 지르며 정문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왜병들이 황급히 총을 쏘았다. 드디여 치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봉기한 군인들의 눈에서는 불길이 날렸다. 그들은 생사를 가리지 않았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무엇을 겁내랴.
왜놈들의 누런 시체가 병영주변에 너저분하게 깔렸다.
거리에 떨쳐나선 그들을 보고 또 한무리의 왜놈들이 총자루를 내던지고 골목으로 뿔뿔이 내뛰기 시작했다. 일부 병사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흩어지지 말라!》
부위 남상덕이 호령했다.
잠시 총소리가 뜨음해졌다. 격전뒤의 정적…
《어디 상한데 없나?》
남상덕이 권기홍을 바라보며 물었다.
권기홍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남상덕이도 호걸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웃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총소리를 듣고 린접부대인 2대대의 군인들이 달려왔다. 이리하여 폭동대오는 삽시간에 천수백명으로 불어났다.
왜놈들이 또다시 공격해왔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자지러진 총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렸다. 전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렬해졌다. 중천에 뜬 해도 포연속에서 검누렇게 타번졌다.

웃도리를 벗어던진 권기홍은 흰 샤쯔바람으로 전투를 지휘하고있었다.
한낮이 지나서였다. 적들과 밀고밀리우는 산병전을 벌리고있는 거리로 웬 녀인이 머리에 커다란 함지를 이고 달려오고있었다. 그의 앞뒤에서 총알이 땅에 박히며 먼지를 일궜다.
《아니, 저 녀인이…》
권기홍은 긴장하게 그 녀자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은 둥그래졌다.
《향화가?!…》
그 녀자는 영춘각의 최향화였다. 우리 군사들속으로 들어온 향화는 숨을 할딱이며 머리에서 무거운 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던 그는 기홍이를 발견하자 안도의 웃음을 피웠다.
《여기 계셨군요. 총소리 큰 곳에 계실줄 알았어요.》
허나 권기홍은 욕부터 나갔다.
《죽자구그래? 이 사지판에…》
향화는 그 말을 탓하지 않았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죽음도 이길 굳센 의지가 어려있었다.
《요기를 하세요. 종일 굶고야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향화는 함지의 보자기를 들추고 주먹밥을 들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병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병사들은 치사를 하면서 걸탐스럽게 먹었다.
권기홍은 그것을 먹을수가 없었다. 갑자기 뜨거운것이 목을 꽉 채우며 솟구쳐올랐던것이다.
《저녁밥을 지어가지고 또 오겠어요.》
향화는 빈 함지를 머리에 이였다.
《조심해가라구.》
당부하는 권기홍의 음성은 물기에 젖어있었다.
이무렵 훈련원에서는 군대해산식이 감행되고있었다.
왜놈과 친일매국역적들의 꾀임에 속아 훈련원에 빈손으로 모여든 천팔백여명의 조선군대는 이 시각 어쩔바를 모르고있었다. 치렬한 총소리는 여기까지 울려왔다.
시간이 갈수록 정세가 더욱 험악해지자 왜놈들은 오후 3시에 부랴부랴 조선군대의 해산을 선언하였다.
사방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삼엄한 경계망을 편 놈들은 조선군대의 견

장을 모조리 잡아뗀 다음 《은사금》을 주면서 해산할것을 강요하였다.
도수훈련을 하는줄 알고 맨손으로 왔다가 불시에 이런 치떨리는 굴욕을 당하는 조선군사들은 비분으로 몸부림쳤다. 훈련원마당에서는 원통한 그들의 통곡소리와 함께 쥐여뿌린 《은사금》이 가랑잎처럼 굴러다니였다.
그러나 항쟁에 떨쳐나선 폭동군인들은 낮에 이어 밤에도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튿날 새벽부터 전투는 더욱 처절해졌다. 폭동군인들속에서도 부상자가 늘어나고 탄약이 떨어져갔다.
《포위된 상태에서 시가전을 계속하는게 불리할것 같소.》
전투를 지휘하던 부위 남상덕이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권기홍이 그의 말을 긍정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남대문이나 서소문을 열어제끼고 빠져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우린 남대문을 치기로 하고 평양징상대(평양에서 징모된 군대) 친구들에게 서소문을 맡으라고 합시다. 누구 한사람 띄우지.》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권기홍은 허리를 수그리고 서소문쪽으로 달렸다.
화약내와 끄스름냄새가 매캐한 거리로 왜놈의 눈먼 총알이 날아와 기와장이며 유리창을 들부셨다.
《나리, 나리－》
마주 달려오던 사람이 그를 불렀다.
그는 엊그제 밤에 만났던 인력거군이였다.
《령감, 정신있소? 싸움판에 인력거를 끌고다니다니…》
《부상자를 날라유.》
《뭐요?!》
아닌게아니라 인력거에는 머리와 가슴에 붕대를 처맨 병사가 한팔을 채밖에 드리운채 정신잃고 실려있었다.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라구 우리 군사들한테 왜놈들이 녹아나유.》
하고 말하는 인력거군의 얼굴에는 전날의 주눅잡힌 기색이란 끄물만큼도 없었다. 수건을 동인 얼굴이며 등거리를 걸친 검붉은 웃동은 온통 땀기로 번들거렸다. 기홍은 감사의 정에 북받쳐 인력거채를 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수다, 령감님.》
《나리, 몸조심해유.》
그가 인력거군과 헤여져 평양징상대가 싸우는 곳에 다달았을 때였다.
흰 모시두루마기에 통영갓을 쓴 로인이 왜놈들쪽에 활을 쏘며 중얼거렸다.
《임진때부터 우리 가문에서 가보로 여기는 활이다. 옛다, 받아라!》
《또 받아라. 이 가등청정의 후예놈들아!》
기홍의 얼굴에는 때아닌 웃음이 떠올랐다. 임진전쟁때처럼 남녀로소 백의동포가 일떠나 싸운다면 왜놈들을 당하지 못할게 무엇이랴싶은 배심든든한 생각이 울끈 치밀었다.
권기홍이 남대문쪽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성문돌파전투가 한창 격렬한 때였다.
폭동군의 성문돌파기미를 알아차린 하세가와는 남대문과 서대문성벽에 대포와 기관총을 걸어놓고 발악적으로 대항하였다. 놈들의 총포탄에 성안팎의 수백호 가옥이 벌써 재더미로 되였다.
그러나 폭동군인들은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우의 시체를 넘으며 한치한치 성문에로 접근했다. 싸우는것은 폭동군인만이 아니였다. 로동자와 청년학생들, 지어 부녀자들까지 손에 무기를 들고 그들을 도와나섰다. 간호원들이 불비속을 뚫고들어가 부상병들을 치료했고 인력거군들이 중상자들을 안전지대에로 실어날랐다.
그러던중 전투를 지휘하던 부위 남상덕이 적탄에 맞았다.
《부위님, 부위님!》
권기홍은 그를 끌어안고 애타게 불렀다.
잠시후 정신을 차린 남상덕은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부탁했다.
《기홍군, 왜놈들을, 저 원쑤놈들을 끝까지 치게. 그리구 의병으루 가게.》 하고는 끝내 숨을 거두고말았다.
눈물이 솟구쳐 눈앞이 흐려졌지만 기홍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웨쳤다.
《부위 남상덕의 원쑤를 갚을자 앞으로 나서라!》
피와 땀과 검댕이로 얼룩진 맨머리바람의 병사들이 성큼성큼 나섰다.
《포병대에 가서 폭약을 가져오라!》
복수조가 달려갔다.
얼마후 폭약을 안은 군사들이 파괴된 집들에 의지하여 성문으로 육

박해들어갔다. 련달아 어느 군사가 또 성문으로 뛰여들며 폭약을 던졌다. 뢰성같은 폭음소리… 또 한 용사가 달려나갔다. 또다시 폭음소리… 그들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

(저들이 누구드라?… 아, 내가 저들의 이름을 미처 알아두지 못했구나. 저런 렬사들은 잊지 말아야 할텐데…)

기홍은 입술을 피나게 깨물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만세의 우렁찬 합성을 지르며 파괴된 성문으로 돌진하는 병사들속에 그도 뛰여들었다.

치고 찌르고 쏘고… 성난 사자같은 폭동군앞에 성문주변에는 왜놈들의 시체가 한벌 쭉 깔렸다.

드디여 권기홍은 100여명의 왜놈을 쓸어눕히고 성문을 돌파하였다.

《형제들, 의병대로 가자!》

권기홍은 얼싸안고 돌아가는 폭동군인들에게 웨쳤다. 서슬푸른 그의 장검은 해빛에 번쩍거렸다.

군대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한양시위대의 군인폭동은 그후 지방진위대에로 확대되였고 전국의 폭동군인 수천명은 의병대에 합류되여 그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권기홍을 비롯한 군대출신 의병대지휘관들은 의병가를 높이 부르며 왜적격멸에로 나아갔다.

너 너도 병정 나 나도 병정
어화 튼튼히 총가목을 잡고서
섬나라 왜놈들 쳐부시러 나가자
엥허리구 군바바
쩽허리구 군바바
군바군바 군바바
…

김 정 민

평산의병대의 첫 승리

1907년 9월 어느날 평산의 한 약국으로 다 떨어진 옷을 걸친 젊은 사람이 찾아들었다. 그는 약국주인에게 약방문을 적었다는 종이쪽지를 내놓았다. 주인은 종이쪽지를 펴보더니 그를 친절히 딴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깨끗한 옷을 내주고 가장하는데 쓸 상옷까지 한벌 마련하여주었다. 그리고 의병집결처로 정해진 평산군 도평으로 가는 산길도 자세히 대주었다. 상옷으로 가장하고 약국을 나선 젊은이는 그 근처에 미리 약속해두었던 곳에 들려 같은 또래의 젊은이 몇사람을 만나 감추어두었던 총을 되찾아 함께 산발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강화도에 있던 병정들이였다. 이해 8월에 왜놈들이 우리 나라 군대의 강제해산을 강요하자 이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황해도로 들어와 약국주인의 주선으로 의병집결처로 찾아가게 된것이다.

이무렵 평산군 도평으로는 이 강화도 병정들처럼 의병이 되기 위해 이러저러한 길을 통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었다.

그들중에는 평산부근의 산간지대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포수를 하던 사람들, 날래고 힘깔이나 쓰는 용감한 농민들, 각처에서 왜놈들의 우리 나라 군대 강제해산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찾아오는 병정들도 있었다.

이들은 행색도, 밟아온 길도 각각 달랐으나 《책읽는자는 책을 칼로 바꾸고 농사짓는자는 소를 팔아 칼을 장만해가지고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들이 일제강도배를 반대하여 궐기》하라고 호소한 평산의병을 일으키는 격문에 한결같이 호응하여 모여온것이다.

의병집결장소로 정해진 평산군 도평은 산이 깊고 골짜기에 농가들이 드문드문 널려있었으며 산으로 삥 둘러싸여있어 침입하는 적을 막기도 좋았고 가운데에는 넓은 벌판이 있어 의병들이 훈련하기에도 알맞춤하였다.

의병들은 여기로 끊임없이 모여들었으며 10여일이 못되여 그 수가 무려 2천명에 달하였다.

이곳 농민들은 의병들을 친혈육처럼 맞이하였다. 1905년 매국적인

《을사5조약》 날조에 뒤이어 왜놈들은 1907년 매국적인 《정미7조약》을 강압날조하고 나라의 실권을 송두리채 강탈하였으며 명색만 남아있던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시켜버렸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형편을 놓고 인민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으며 침략자 왜놈을 맞받아싸울 투지를 한사람같이 가다듬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평산의병을 일으킨다는 소식과 함께 의병들을 자기네 마을에 맞이하게 된 이 산간마을 농민들의 기쁨은 비할데가 없었다. 그들은 자진하여 자기 집을 내여 의병들이 묵게 하였고 방이 모자라게 되자 수십간이나 되는 의병의 숙소를 짓는 등 의병들의 뒤를 성심껏 돌봐주었다.

의병들의 전투서렬이 편성되여갔으며 의병모집, 군량, 무기의 공급임무를 진 사람들을 통해 각처 인민들이 보내는 군수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왜놈들의 감시와 통제가 심하였으므로 무기를 관에다 넣고 상여로 가장하여 날라오기도 했으며 미역짐짝에 넣어 가져오기도 하였다. 고장난 무기를 고쳐쓰기 위해 야장간도 차려놓았다.

한적하였던 산골은 왜놈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기세로 들끓는 의병들의 근거지로 변해갔다.

9월 25일, 도평 의병본진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의병들에게 무기를 공급할 대책, 훈련방법이며 근거지방어대책 등을 토의하느라 밤깊어가는줄 모르고있었다. 별안간 어둠의 고요를 깨뜨리고 평산쪽에 파견했던 대원이 평산근방인민들이 보낸 적정을 가지고 급히 들이닥쳤다. 평산에 주둔하고있던 왜놈 수비대놈들이 도평을 향하여 누촌방면으로 다가오고있다는것이였다.

비밀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대책이 취하여졌으나 이 일대의 심상치않은 움직임을 감촉한 왜놈침략자들이 정탐군을 시켜 각방으로 탐지하던 끝에 도평에 의병이 집결되여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놈들은 도평을 불시에 습격할 심산으로 어둠을 타서 은밀히 접어들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의병들의 눈과 귀가 되여 놈들의 일거일동을 살피고있던 인민들의 감시망을 벗어날수는 없었다. 인민들은 어둠을 헤치고 적들을 앞질러 본진에 적정을 알렸던것이다.

지체없이 본진에 속해있는 의병중대들을 누촌에서 도평으로 들어오

는 길목인 매우고개와 고사귀고개에 파견하여 지키게 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처하여 인민들에게도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이튿날 새벽 적들은 의병들이 지키고있는 고개로 기여오르기 시작하였다. 매복하고있던 의병들은 놈들을 바싹 끌어들인 다음 불벼락을 안겼다. 의병대의 첫 타격을 맞은 놈들은 길을 바꿔 도평 뒤산을 넘어 쳐들어왔다. 치렬한 싸움이 붙었다. 각 의병중대는 결사적으로 놈들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병력을 시시각각으로 증강하면서 발악적으로 덤벼들었다. 의병들은 용감성을 발휘하여 싸웠으나 탄알이 떨어져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였다.

정황을 살핀 본진에서는 곧 한개 의병중대로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의병들을 인민들과 함께 평산군 풍동으로 옮기게 하였다.

새 근거지로 옮긴 평산의병대앞에는 해결할 수다한 문제가 나서고 있었다. 놈들이 의병들의 행처를 알아내려고 계속 발광하는 형편에서 이에 대처할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하였다.

의병대장, 총무, 참모, 유격장, 돌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의를 시작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좌중에 흐르고있는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돌격장 김창호가 자기 결의를 가다듬으려는듯 자리를 고쳐앉으며 입을 열었다.

《저는 포수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전술에 대해서 별로 아는것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한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저 왜오랑캐들을 우리 강토에서 한놈도 남기지 않고 몰아낼것을 다짐하고 의병을 무었습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를 갖추는중에 놈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의 지원을 받아 적지 않은 무기를 해결하고있으나 부대가 급속히 늘어나는 형편에서 화승대조차 아직 몇사람에 하나도 못 차례지고있는데다가 그동안 축적한 탄알도 전번 싸움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훈련도 변변히 못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신식무기로 무장한 왜놈군대를 격멸하는것이 어렵다는 것은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싸움을 한시라도 멉출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용감하고 견결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전투대오도 강화할수 있을것이며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면목으로 백성들을 대하겠습니까. 그네들이 놈들의

악랄한 학살만행을 무릅쓰고 그토록 알뜰히 우리를 보살펴주는것도 왜오랑캐들을 남김없이 쳐없앨것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소모장이 구해보낸 총을 날라오다가 놈들의 추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몇번이나 겪으면서도 끝내 부상당한 몸으로 임무를 수행한 그 농민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토벌〉대놈들이 우리의 행방을 잃자 주변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며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이런걸 생각하더라도 결코 싸움에서 한시도 물러설수는 없습니다. 지금형편에서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내기 위해서라도 적과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선 배천에 있는 적을 쳐서 무기를 해결하고 우리의 행방을 찾는 놈들의 이목을 혼란시키도록 하는것이 어떨가 합니다.》

돌격장의 제의에 유격장 류달수가 적극 찬성해나섰다.

《불리한 정황일수록 수세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돌격장의 제의대로 놈들의 수비대본부를 비롯한 보급기지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놈들을 수세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병부대에도 승리의 신심을 주고 백성들의 기대에도 보답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주장은 주동적인 유격전으로 넘어갈 계기를 열어놓았다.

10월초에 들어서자 김창호돌격장이 인솔한 30여명 대원들은 배천뒤산에 진출하여 정찰나간 의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저녁녘이 되여 나무군행색을 하고 정찰나갔던 의병대원이 한 농민과 함께 돌아왔다. 그는 인민들로부터 입수한 적기관들의 위치를 그린 도면과 기타 상세한 정찰자료를 돌격장앞에 내놓았다.

농민의 말을 통해 적들의 더욱 상세한 내막도 알수 있었다.

그날 자정이 넘어 돌격대는 배천군의 관청과 경무분견소 및 우편국등을 일시에 습격하였다. 늦게까지 술을 처마시다가 갓 잠이 든 놈들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녹아났다. 의병들은 놈들의 거의 모든 무기를 로획하여 무장을 튼튼히 갖추고 산발을 타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아닌밤중에 된벼락을 맞은 적들은 의병을 찾아내려고 덤벼쳤으나 적들의 눈을 혼란시키기 위해 개성방면으로 흔적을 남기면서 철수한것이 효과를 내여 이들은 무사히 근거지로 돌아올수 있었다.

적에 대한 증오로 불타는 김창호돌격장은 쉴짬도 없이 적들의 주목

이 남쪽으로 쏠리고있는 틈을 타서 류달수를 비롯한 다른 의병들과 련합하여 연안, 배천 및 평산일대를 관할하고있던 연안의 왜놈수비대본부를 기습하는 싸움에 나섰다.

놈들의 우세한 력량이 둥지를 틀고있는 연안읍을 습격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이곳을 치면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의병의 위력을 시위하여 인민들의 사기도 높여주며 많은 무기도 해결할수 있었다.

의병들은 면밀한 정찰을 하고 어둠을 타서 연안산성으로 은밀히 진출하였다. 산성은 고요하였으나 의병들의 투지는 어둠을 뚫고 치솟고 있었다. 싸움을 앞두고 대원들을 돌아보던 돌격장은 조용하나 힘있는 어조로 대원들을 고무하였다.

《이 성에서 바로 우리 조상들은 임진왜란때 엄청난 수의 왜적을 녹여놨소. 그 조상의 피줄을 이은 우리로서 조상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용감히 싸워이깁시다.》

나라를 지켜싸운 애국의 넋이 깃든 이 성에서 바로 왜오랑캐무리를 족친다는 생각은 의병들의 가슴마다에 적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모든 전투준비를 갖춘 의병부대는 불의에 왜놈수비대본부를 공격하였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놈들은 농가의 소구유에 들어가는가 하면 부엌아궁이속으로 기여들어가거나 가마니를 뒤집어쓰는 등으로 살구멍을 찾아 돌아쳤으나 끝내 완전히 소탕당하고말았다.

배천습격에 뒤이어 연안수비대가 섬멸당하였다는 소식은 왜놈들을 몹시 당황케 하였다. 놈들은 부랴부랴 해주에 있는 수비대를 동원하여 구원병을 보냈다.

싸움이 거의 끝나갈무렵 해주에서 연안에 이르는 길주변에 사는 인민들이 해주수비대가 연안으로 다가오고있다는것을 김창호돌격대에 알려왔다.

한시바삐 적의 움직임을 의병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길없는 산발을 헤치며 달려오느라고 찢기고 피가 진 농민의 얼굴을 지켜보는 김창호돌격장의 눈에는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맺히였다.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쑤를 치자.)

급히 풍동으로 철수하자 돌격장은 의병대원들을 쉬게 하고 인민들

이 계속 보내오는 적정에 대한 통보를 검토하고나서 곧 본진으로 찾아가 다음 전투안을 내놓았다.

《백성들이 보내온 통보에 의하면 해주수비대에서 연안으로 온 놈들은 연안수비대를 복구하는 한편 우리들의 행방을 찾느라 발광하고있다고 합니다. 놈들은 산속을 싸다니다가 민가만 있으면 마구 불태워버리면서 온갖 만행을 일삼고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적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야 합니다.》

《되게 불벼락을 안겨야 하오. 그러나 의병준칙에 있는것처럼 유격전과 습격전을 기본으로 적의 허한 틈을 쳐야 할것이요.》

선봉장 심로술은 이렇게 말하며 김창호돌격장에게 뜻있는 눈길을 돌렸다.

《해주수비대본부를 칩시다. 지금 놈들이 연안지방을 돌아치고있는 허한 틈을 타서 치면 놈들을 문제없이 꺼꾸러뜨릴수 있습니다. 정찰나갔다 방금 돌아온 대원을 불러봅시다.》

잠시후 정찰나갔던 대원이 들어왔다. 그는 해주의 적의 동태에 대하여 상세히 말한 다음 해주시내 인민들이 보내온 적정자료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손금보듯 적정을 꿰뚫은 의병부대는 드디여 우회하여 해주수비대본부를 기습하였다. 기습을 당한 놈들은 구원을 청한다 야단법석을 쳤으나 놈들의 구원병이 왔을 때는 의병의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었다.

배천, 연안, 해주수비대 습격전은 평산의병대의 첫 승리였다. 그들은 이 싸움을 통해 대오를 꾸렸고 대오를 꾸리면서 싸웠다. 이 전투들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의병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인민들을 의병투쟁에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작용을 놀았다.

치마폭에 그린 포도송이

신사임당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그리 많지 않은 녀류화가의 한사람이며 16세기의 큰 학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리률곡의 어머니이다.

신사임당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였다.

그는 이 동해의 경치 아름다운 경포대에서 딸만 5형제를 둔 한 평범한 선비의 둘째딸로 태여났는데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고 특히 예술적재능이 뛰여났었다.

그의 아버지는 슬하에 아들이 없는것이 한스러웠으나 그런대로 어린 딸들을 앉혀놓고 글을 가르치는것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이면서 그것을 락으로 삼았다.

신사임당은 그러한 아버지밑에서 글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붓글씨를 익히는 한편 그림그리기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였다. 그는 글공부를 하는 짬짬이 뜨락에 나와 놀다가도 터밭에 날아드는 흰나비, 노랑나비, 범나비들과 울바자에 내려앉는 빨간 고추잠자리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처마밑에 깃들인 제비들과 마당의 대추나무우에서 깍깍거리는 까치들을 자세히 눈여겨보면서 그 모습을 땅바닥에 그려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때로는 마당 한구석에 가꾸어놓은 꽃밭앞에 쪼그리고앉아서 국화와 나리꽃을 그리기도 하고 길가나 밭머리에 곱게 피여나는 민들레며 제비꽃, 메꽃 같은것을 그리면서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그는 아버지가 글씨련습을 하라고 내여주는 종이를 한장, 두장씩 모아두었다가는 그 종이에다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군 하였다.

신사임당은 차츰 나이들면서 더욱 그림공부에 열중하였고 고향산천의 갖가지 아름다운 자연경개를 녀성다운 섬세한 필법으로 화폭에 옮겨놓군 하였다.

그러던 신사임당은 19살되는 해에 한양의 리씨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였다. 그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받들면서 집안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으며 아들 넷을 낳아 그들을 교양하는데 각별한 정력을 기울였다.(리률곡은 그의 셋째아들이였다.)

이렇게 집안의 주부로서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면서도 신사임당은 그림공부를 계속하여 그 화법이 날을 따라 더욱 원숙해졌다.

어느해 가을이였다. 먼 일가벌되는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기별을 받고 사임당이 그 집에 나들이를 간 일이 있었다.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많았고 신부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느라고 안팎이 흥성거리였다. 사임당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일손을 도와주었다. 여기저기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집안팎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있었다.

그런데 한 녀자손님만은 이야기판에도 섭쓸리지 않고 아까부터 웃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 시름겨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사임당보다는 대여섯살 아래인 30전의 젊은 녀인이였다.

사임당은 진작부터 그 녀인에게 마음이 쏠리였다. 처음 보는 녀자인데 옷차림으로 보아 이웃에서 잔치시중을 들어주려고 온 사람같지는 않고 먼데서 자기처럼 나들이온 손님이 분명했다. 아마 이 집과 사돈벌되는 손님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웬일일가?! 즐거운 잔치날에 와서 저렇게 시름겨워하는 것을 보니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한 사임당은 넌지시 자리를 떠서 그 녀인에게로 다가갔다. 워낙 성격이 찬찬하고 인정이 깊은 사임당이였다.

《왜 이러고있어요? 무슨 시름이라도 있으신지?…》

사임당이 이렇게 조용히 묻자 그 녀인은 몹시 당황해하였다.

《아니예요. 아무 일도 아니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그 녀인은 다심한 언니처럼 자기를 살뜰하게 대해주는 사임당의 너그러운 인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들었다.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나도 알면 못쓰나요?》

사임당이 재차 물었다. 그제야 그 녀인은 사임당의 거듭되는 물음에 한대중으로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도리여 실례라고 여겼는지 《별다른게 아니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하는것이였다.

그 녀인의 집은 동대문밖의 왕십리인데 사돈집잔치에 오느라고 이웃집에서 붉은 비단치마를 빌려입고 떠나왔다. 그런데 방금전까지 뒤마당에 숯불을 피워놓고 전을 지지는 일을 거들어주다가 그만 치마에 불찌가 튀여서 불탄 자리가 미여졌다는것이다. 모처럼 빌려입고온 남의 소중한 비단치마를 못쓰게 만들었으니 녀인으로서는 여간만 걱정이 아니였다. 더군다나 그런 비단치마를 새로 한벌 마련할수만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나들이옷 한벌 변변한것이 없어서 남의 옷을 빌려입지 않으

면 안되는 구차한 살림형편에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러니 형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가요?》
그 녀인은 절반 울가망을 하고 이렇게 말하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였다.
사임당이 그 녀인의 치마자락을 들춰보니 과연 한쪽귀퉁이에 머루알만 한 구멍이 펑 나있었다. 사연을 듣고보니 참으로 맹랑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사임당으로서도 잔치집에 나들이 와있는 몸이라 손에 쥔것이 없으니 어떻게 도와줄길이 없었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
잠시 속으로 생각을 굴려보던 사임당은 그 녀인을 데리고 뒤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잔치집에 가고 늙은 할머니 한분만 남아있어 집안은 조용하였다.
사임당은 주인할머니에게 량해를 구하고 벽에 걸린 검정무명치마를 벗겨서 그 녀인에게 내여주며 비단치마와 갈아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붓과 벼루를 얻어다가 먹을 갈게 하였다.
이윽고 사임당은 그 녀인이 벗어놓은 붉은 비단치마를 펼쳐놓고 그우에 붓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잠간사이에 붉은 치마폭우에는 몇줄기의 포도넝쿨이 쭉쭉 뻗어나가고 크고작은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수놓아졌으며 보기에도 소담하고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한송이, 두송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불찌에 미여졌던 비단치마가 아니라 눈이 부시게 붉은 비단천을 바탕으로 하여 함씬 물기를 머금고 무르익은 포도송이들이 주렁진 청신하고 아름다운 화폭이였다.
《아이, 어쩌면!…》
그때까지 영문을 모르고 그저 불안한 기색과 호기심 절반으로 곁에 앉아서 시키는대로 먹을 갈고있던 그 녀인은 두눈이 둥그래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올렸다.
그림이 다 되자 사임당은 그것을 녀인에게 넘겨주면서 여기서 한양이 멀지 않으니 장안저자거리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자세히 일러서 보내였다.
그 녀인이 저자거리에 찾아가보니 거기에는 사임당이 말하던대로 여러가지 그림과 붓글씨족자들이 주런이 걸려있는 가게방이 하나 있었다.
가게방안에는 주인인듯싶은 늙수그레한 령감이 탕건바람으로 앉

아있고 그와 마주하여 말쑥하게 옷갓차림을 한 젊은 선비가 앉아서 무슨 이야긴가를 나누고있었다.

그 녀인은 잠시 밖에서 망설이다가 가게방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는 가게방주인앞에 포도송이를 그린 치마폭을 펼쳐보이면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저의 집 마님께서 이 그림을 팔아가지고 오라기에…》

처음에는 의아한 눈길로 그 녀인과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던 가게방주인의 얼굴에 차츰 놀라와하는 기색이 드러났다.

《흐흠…》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던 늙은 주인은 속으로 은근히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비록 거기에 락관(필자의 서명)은 없으나 그것은 여느 환쟁이들이 돈벌이삼아 그려가지고 오는 속된 그림들에 비하면 동뜨게 뛰여난 그림이였던것이다. 필법이 이를데없이 정교하였고 그림에서 풍기는 운치가 더없이 고상하고 은은하였다.

그러나 오랜 장사속으로 이골이 난 늙은 가게방주인은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짐짓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면서 녀인에게 물었다.

《그래 얼마에 파시려오?》

《그저 좋도록 처분해주시와요.》

녀인은 입안의 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다. 사실은 사임당이 이 그림을 저자에 가지고나가면 아무리 못 받아도 비단치마 한감값은 넉근히 나올것이라고 하였지만 왜 그런지 그만한 값을 입에 올릴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던것이다.

가게방주인은 처음부터 이게 무슨 곡절이 있는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앞에 서있는것이 어수룩한 촌녀인같기도 하여 아예 눅거리흥정으로 횡재를 해볼가 하는 마음이 동하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그림 그린 바탕천의 밑천값은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아하니 사정이 급해서 가지고나온 물건인것 같은데 그림은 그닥 마음에 없지만 그래도 내 집을 믿고 찾아온건데 어찌겠소. 내 생각해주겠으니 쉰냥에 두어두고 가겠소?》 하고 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그러자 녀인이 미처 대꾸할 사이도 없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선비가 불쑥 한마디 끼여들었다.

《허, 주인장이 잘못 보는것 같은데 내 보기엔 이 그림이 례사 그

림과는 다르구만. 대단히 훌륭한걸.》

그 선비로 말하면 이 가게방주인과 거래가 많은 단골손님으로 서예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마음같아서는 자기가 후하게 값을 치르고 그 그림을 사고싶었지만 가게방주인이 붙여놓은 흥정을 곁에서 가로채는것이 도리에 어긋날것 같아서 이렇게 점잖게 에둘러 말한것이였다.

《예, 그림은 좋사온데 래력을 알수 없는 그림이 돼서…》

주인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속으로 부지런히 속셈을 하여보았다.

자기의 린색한 장사속셈을 단골손님이 환히 들여다보고 하는 말같아서 낯이 간지럽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그림에 바싹 구미가 동한듯싶은 단골손님에게 그것을 빼앗길가봐 두려웠다.

그는 얼굴에 비굴한 웃음을 띄우고 두손을 마주 비비며 단골손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림이라는게 여느 물건과는 달리 임자를 잘 만나면 제 값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임자를 만나지 못하면 십년이 가도 팔리지 않는 까다로운것이여서 그림흥정이란 늘 투전판노름이니까요. …》

그리고나서 이번에는 녀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음과 같이 아퀴지어 말하였다.

《나도 아주 경우없는 장사치는 아니고 또 여기에 점잖으신 윤참의댁 서방님도 앉아계시는터에 이 그림값을 후히 놓을테니 백냥에 두고 가시우.》

그리하여 그 녀인은 생각지 않던 돈 백냥을 받아쥐고 가게방문을 나섰다. 그 녀인은 그길로 비단천을 파는 딴 가게에 들려서 붉은 치마한감을 끊어가지고 돌아왔다.

그 녀인은 사임당앞에 나머지돈을 내놓으면서 이 고마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았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글썽하여 진심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신사임당은 녀인이 내놓은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그것으로 나들이옷이라도 한벌 장만해입으라고 이르고는 그 녀인을 데리고 마음가볍게 다시 잔치집으로 향하였다.

박 홍 준

연안성의 쇠돌이

때는 임진년(1592년) 9월이였다.

왜장 고니시 유끼나가는 평양을 강점하고 가또 기요마사는 함경도까지 들어가고 구로다 나가마사부대는 이곳 황해도일판을 휩쓸며 도처에서 로략질과 분탕질을 마음대로 하고있을 때였다.

마침 전에 연안부사였던 전 리조참의(리조의 정3품벼슬) 리정암이 연안에 내려와서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뽑아 조련시키고있었다. 이때 연안성 남문밖에 사는 힘이 황소같고 돌팔매 잘하기로 이름난 장쇠돌이도 장인과 안해를 데리고 성안으로 들어가서 병정이 되였다. 그는 땀을 흘리며 한달동안 조련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칼쓰는 법을 익혔을뿐 활은 쉽사리 손에 익혀지지 않았다.

《제길, 꿩 잡는게 매라고 돌팔매로라도 잡기만 하면 장사지 꼭 활로 쏴잡아야 맛인가?》

성미가 급한 그는 이내 활 익히기를 단념해버리고 남들이 활과 화살통을 메고다니는 대신에 큼직한 돌주머니 하나만 허리에 차고다녔다.

…

어느덧 삼복더위도 지나고 선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금풍이 소슬한데 날조차 잔뜩 흐려 연백벌 넓은 들에 음산한 기운이 가득하던 날 아침이였다.

오래 가문 촌길로 요란스러운 말발굽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한 사나이가 말을 급히 몰아 연안성 동문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옷갓하고 괴나리보짐에 짚신감발을 한 품이 말만 타지 않았다면 그저 심상한 과객으로 속을만 하였다. 문을 지키던 군사 하나가 얼른 그를 알아보고 앞으로 와락 내달으며 연거퍼 물었다.

《대체 어디서 오나? 그래 무슨 일이 났나?》

말을 달려온 사람은 리정암의 령을 받고 멀리 왜적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던 군사였다.

그는 고삐를 당기며 말을 잠간 세우고 《왜적이… 왜적이 지금 십리밖에 몰려들어오고있네.》 이렇게 한마디 하고나자 가쁜숨을 미처 돌릴 사이도 없이 다시 말을 채쳐 읍내 한복판으로 통하는 큰길을

그대로 살같이 달려갔다.
그로부터 한식경이 지났을가말가하여 관문앞에 모이라는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비번군사들이 곤두박질하며 삼문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때 벌써 성안에는 왜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쫙 돌아 여기를 가도 웅성웅성, 저기를 가도 술렁술렁하였다.
이날 쇠돌이는 간밤에 번을 들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와 조반을 치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코를 골다 잠결에 나팔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다.
잠시 어리둥절해서 누운채로 귀를 강구었다.
(저게 모이라는 나팔소리가 아닌가?…)
쇠돌이는 벌떡 일어나서 벙거지를 찾아쓰자 허둥지둥 봉당에 내려가서 신들메를 든든히 조였다.
《또 나가우?》
앞뜰에서 빨래를 하던 안해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나팔소리 나지 않소?》
《간밤에 번 들었으니 오늘은 쉴 차례 아니유?》
《저게 여느 나팔소리가 아니라 바로 모이라는 나팔소리야. 해주에 와있는 왜놈들이 쳐들어오는지 모르지.》
《애구, 그럼!…》
아직 애티가 채 가시지 않은 안해는 새된 소리를 지르며 빨래방망이를 손에 든채 그의 앞으로 쪼르르 달려왔다.
《이눔의 새끼들, 오기만 해봐라. 돌팔매로 깡그리…》
쇠돌이는 신들메를 다하고 일어서며 혼자말로 외우면서 문기둥에 걸려있는 돌주머니를 벗겨들고 삽짝밖으로 나갔다.
《여보, 나 좀 봐요.》
그는 안해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은체 하며 그대로 뒤도 안 돌아다보고 관문을 향하여 장달음을 쳤다.
관아에는 쇠돌이보다도 먼저 와있는 군사들이 40～50명이나 되여 삼문밖이 북적북적하는데 뒤로도 자주 모여들고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벙거지를 쓰고 전복에 신들메를 하였는데 오금밑을 잘룩하게 동여매여 몸차림이 거뜬해보였다. 그들은 손에 창을 잡기도 하고 혹은 등에 활과 화살통을 메였거나 허리춤에 칼을 질러 그 기세가 백만대군이 눈앞에 몰려온대도 어렵지 않게 막아낼것 같았다. 헌데 유독 쇠돌이만은 병장기를 몸에 지닌것이 없어서 행색이 허수룩해보였다.

《배천에 있는 왜적이 온다니 그럼 동문으로 몰려들테지?》

《그렇겠지.》

《한쪽문만 칠리가 있을라고? 4대문을 다 싸고 칠테지.》

《4대문을 다 싸고 치더라도 주장 동문을 칠게야.》

《그렇기도 쉽지.》

이렇게 여럿이 한마디씩 주고받을 때였다.

《그렇다면 동문은 내가 맡았다.》 하고 쇠돌이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러서 모든 사람이 그를 돌아보며 일시에 웃었다.

대장 리정암은 이윽고 군사들을 선발하여 각 성문으로 보내고 성안 백성들가운데서 아녀자와 늙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어서 군사들과 함께 성첩을 지키게 하였다.

그는 성안에다 또 령을 돌려서 직접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로인과 아녀자들은 각기 홰자루를 많이 마련하는 한편 가마에 기름과 물을 펄펄 끓이게 하였다.

왜병들이 동문밖으로 쳐들어온것은 그로부터 보리밥 한솥 짓기가 채 못되여서였다. 예측한대로 왜적은 동문밖에다만 진을 친것이 아니라 군사를 나누어 서문, 남문, 북문밖에도 진을 쳐서 4대문을 일시에 들이칠 형세를 취하였다. 적은 실로 만명에 가까운 대군이였다.

이때 연안성안에 있는 우리 군사는 관군까지 합해야 모두가 천수백명뿐이요, 백성들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다 친대야 수천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평시에 대장 리정암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침노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들을 죽이고있는 왜적은 곧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우리 고장을 지키자.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 왜적이 제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기만 하면 조금도 두려울것이 없느니라.》 이러한 말로 교훈을 받아온 연안성의 군사와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그렇듯 적의 대병이 쳐들어온것을 보고도 결코 놀라거나 겁을 먹지 않고 저마다 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적개심에 불타오르고있었다.

5리 밖에 본영을 둔 적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왔다.

적들은 성우를 향하여 일시에 조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성안에서도 연방 화살이 밖으로 날았다.

동쪽장대우에서 충의를 다하여 왜적을 치자는 뜻을 담은 《분충토적》이라는 네글자가 씌여진 큰 자주빛기폭이 펄펄 바람에 휘날렸다.

대장 리정암은 그밑에서 련달아 활을 쏘았다. 그의 활재주가 신통해서 화살 한개에 왜병 하나씩이 꽉꽉 거꾸러졌다. 일반 사수들이 쏘는 화살도 빗나가는것보다는 바로 들어가맞는 화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원래 사수들을 4대문에다 각각 벌려놓았기때문에 기세가 크게 오르지를 못했다.

이것을 본 왜적은 의병들을 더욱 우습게 알았던지 맹렬한 엄호사격아래 머리에 흰수건을 질끈 동이고 허리춤에 칼을 지르고는 와— 소리를 지르며 성밑으로 몰려들어왔다.

이를 보자 쇠돌이는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웨쳤다.

《옳지, 가까이만 오너라!》

쇠돌이는 적과의 거리가 삼백보나 되고보니 돌팔매를 할수도 없어 그사이 돌만 골라다가 자기앞에 수북이 쌓아놓고 벼르던 참이였다.

그는 번개같이 돌을 집어들고 달려드는 왜군의 앞장선 놈의 미간을 겨누어 팔매를 쳤다.

허우대 큰놈이 바로 미간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쇠돌이는 신이 나서 연방 돌팔매를 쳤다. 이때 성밑으로 달려든 왜놈들이 개미떼처럼 성벽에 새까맣게 붙어서 성우로 기여오르고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을줄을 미리 예측하고 끓여둔 기름과 물을 손 나는 사람은 군사이건 백성이건 저마다 뻔질나게 성우로 퍼날랐다. 힘이 황소처럼 센 쇠돌이는 서너사람이 마주 달려들어 날라야 할 큰 기름독과 물통을 혼자 번쩍번쩍 들고 성우로 올라와서 기여올라오는 왜병들의 머리우에 한바가지씩 열탕을 들어붓군 하였다.

《악!》

《으악!》

여기저기서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왜병들은 성벽에서 내리굴러 죽고 상하는자가 삽시간에 수백명이나 되였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왜적은 군사를 거두어 5리밖에 있는 저의 본영으로 물러갔다.

리정암은 령을 내려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 쉬게 하고 군사들은 기찰만 남겨두고 제자리에서 눈을 붙이게 하였다.

리정암자신도 그대로 장대우에서 갑옷을 입은채 북을 베개삼아 자는듯마는듯 하루밤을 지냈다.

날이 훤히 밝자 왜놈들은 또 몰려와 눈먼 총질을 하였다.

이윽하여 나무와 풀묶음을 이고진 왜놈의 한무리가 나타났다. 놈들은 그 나무와 풀묶음을 동문곁 성밑에다 쌓아올리고있었다.

이놈들을 겨누어 연해 활을 쏘느라 사수들도 눈코뜰사이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쇠돌이만은 못하였다. 그는 이날 하루종일 돌팔매로 왜병들의 머리를 까고 면상을 터뜨려놓았다. 그러나 성앞 30보 안쪽에 들어온 왜병을 겨누어 돌팔매를 칠 때면 상반신이 성우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때마다 왜적의 총알이 무데기로 그를 향하여 날아왔다. 곁에 있는 군사들이 위험하니 제발 좀 그만두라고 극력 말렸건만 쇠돌이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며 돌팔매를 련속 쳤다.

연해 돌팔매에 머리통이 터지고 화살에 거꾸러지고 하면서도 왜병들은 악착스럽게 나무를 날라다가 성밑에 쌓아 이날 한낮이 기울무렵에는 마침내 그 높이가 거의 성과 가지런하게 되였다.

한층 더 맹렬한 엄호사격아래 왜병들은 시퍼런 칼들을 뽑아들고 그 나무더미우로 기여올랐다.

이때였다.

둥, 둥, 둥, 둥…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자 성우에서는 기름독, 기름자배기들이 나무더미우로 련속 날아들어갔다. 련이어 불이 활활 이는 홰꾸레미들이 또한 무수히 날았다. 놈들이 진종일 그렇듯 목숨걸고 쌓아올린 나무더미는 일시에 불이 붙어서 무서운 화염을 뿜었다. 왜놈들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채 불에 타 거의 형체도 없이 죽었고 살아난 놈이라야 불에 끄슬려 숯깜둥이가 되여 내빼지도 못했다.

왜적들은 분이 꼭두까지 올라서 이튿날에는 북문밖 산등성이로 올라가더니 며칠을 두고 공력을 들여 마침내 높다란 다락 수십개를 만들어놓았다. 놈들이 이제 그우로 올라가서 성안을 빤히 내려다보며 총질을 할 생각인것이 분명하였다.

리정암은 또 즉시 성안에 령을 내려 늙은이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성안의 백성들모두가 벗어붙이고 나서서 부지런히 흙과 돌을 성우로 나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하루밤사이에 북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켠 수십간 넓이에 왜놈이 쌓은 다락보다 훨씬 높은 토담이 삥 둘리게 되였다. 이제는 다락우에 올라가서도 성안을 넘겨다볼수 없게 됐다. 왜적은 또 한번 헛물을 켜고말았다.

그뒤로 사흘동안을 왜적은 아무 동정이 없었다. 5리밖의 본영에 들

어박힌 왜적은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이때 렴탐 나갔던 군사가 적정을 알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이 보고하는 말을 종합하여보면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가 해주와 평산 등지에 주둔하고있는 저의 수하부대들을 모조리 연안으로 불러다가 우리와 한번 대판으로 싸워볼 생각인것이 분명하였다.

과연 나흘째 되는 날 낮부터 그 이튿날 저녁때까지에 북쪽평산과 서편 해주쪽으로부터 왜병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마침내는 연안성밖의 그 넓은 들판이 새까맣게 덮여버렸다. 실로 대병력이였다.

적정을 살피러 나갔다 들어온 군사는 바로 래일 아침에 왜적이 이 거대한 병력을 가지고 단번에 연안성을 칠 계획인것이 틀림없다고 대장에게 아뢰였다.

저 대병력이 한꺼번에 덮쳐든다면 조그만 성이 도저히 부지해낼 도리가 없는것이였다. 이때까지처럼 끓는 물통이나 불꾸레미따위를 가지고 막아낼수도 없는 일이였다.

비장과 군관 몇명이 동헌으로 불려들어가서 대장과 한동안 공론이 있는 모양이더니 다음에 군사 십여명이 대장의 부름을 받고 동헌안으로 들어갔다.

그가운데는 쇠돌이도 끼여있었다. 쇠돌이는 밖으로 나와 혼자 싱글벙글하였다. 오늘 밤에 연안성의 장사 열두명이 적진을 기습하기로 되여있는데 연안성안 천수백명 군사들중에서 자기가 그 장사속에 끼여있다는것이 한없이 기뻤던것이다.

이날 밤 삼경이였다.

쇠돌이는 장견룡, 조신옥 등 열한명 장사들과 함께 소리도 없이 성을 빠져나가자 곧 길을 에돌아 적진뒤로 다가갔다.

하현달이 덩그렇게 중천에 떠있어서 10리에 련한 적의 군막들을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왜병들은 래일의 큰 싸움을 앞두고 모두 곤히 잠들었는지 군막마다 괴괴하니 소리가 없다. 소위 파수병들은 망들을 본답시고 여기저기 풀밭에 주저앉아 꼬박꼬박 졸고있었다.

다른 장사들이 벌판에 불을 지를 차비를 하고있을 때 쇠돌이는 혼자서 첫째 군막 파수뒤로 발자취를 죽이고 다가들자 번개같이 팔을 놀려 졸고앉은 왜병의 목을 졸라 쓰러뜨렸다.

둘째 군막, 셋째 군막 차례로 기찰의 목을 조르며 들어가는 판인데 문득 저편에서 《누구냐?》 하고 큰소리를 버럭 지르는 놈이 있었다.

쇠돌이는 옆구리에 찬 돌주머니를 재빨리 벌리며 바른팔을 번개같이 놀렸다.

놈의 상통을 겨누고 던진 돌에 코가 으스러지고 앞이가 부러진 그놈은 《에쿠!》 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나가자빠졌다. 그때 불길은 벌써 첫째 군막, 둘째 군막을 휩싸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불이야!》

《불이야!》

고함을 지르며 또 왜병 네댓명이 자기편을 바라고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쇠돌이는 신이 나서 련달아 돌팔매를 쳤다.

놈들은 저마다 면상에 돌을 맞고 나가자빠졌다.

뒤미처 아우성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군사들이 앞을 서고 그뒤를 따라 백성들이 쏟아져나왔다. 남녀로소 구별없이 저마다 손에 병장기를 잡았는데 그 형세가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았다.

이날따라 밤바람이 크게 일었다.

불은 군막에서 군막으로 연방 옮아붙어 넓으나넓은 벌판이 삽시에 불바다로 화하였다.

자다가 놀라 깬 왜병들이 대혼란속에 빠져서 갈팡질팡 살길을 찾아 악마구리 끓듯 하는것을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전후좌우로 싸고 그대로 들이쳤다.

쇠돌이는 돌주머니의 돌을 다 쓰고나자 이번에는 환도를 빼여들고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왜병들을 닥치는대로 찍어넘겼다.

형세가 급하고 험해지자 왜적은 감히 싸워볼 엄두도 못내고 서로 앞을 다투어 뺑소니를 쳤다.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는 하루밤사이에 휘하장졸 태반을 잃고 패전장군신세가 되여 패잔병들을 거느리고 퇴각하였다.

그후 왜적들은 연안성에서 불과 하루길에 지나지 않는 배천에 주둔해있으면서도 제 나라로 쫓겨갈 때까지 감히 두번다시 연안지경을 넘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리정암의 통솔아래 연안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워 왜놈의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고장을 지켜낸 빛나는 승리에는 쇠돌이의 돌팔매가 한몫 단단히 깃들어있는것이다.

박 대 원

범을 때려잡은 총각

충청도 면천 어느 산골에 스물여덟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김삼길이라는 늙은 총각이 살고있었다.

삼길은 깊은 산속에 조를 심어 약간의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외에 숯을 구워 팔아가며 늙은 부모를 봉양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운이 천하장사였다.

당대의 이름높은 학자였던 우암 송시렬의 문집가운데 이런 구절이 적혀있다.

《삼길은 어렸을 때부터 용맹스럽고 기운이 장사였다. 겨드랑에 송아지를 끼고 높은 담을 몇씩이나 뛰여넘었으며 높은 곳에 줄을 늘여맨 다음 그우에서 달음질하는것이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것 같았다.》

송시렬의 문집에 있는 이 기록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기운이 장사이며 제비처럼 날랜 몸가짐을 가졌는지 능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사람이 기운이 세면 우둔해보이기도 하겠지만 삼길은 슬기롭고 기운이 세면서도 몸가짐이 매우 민첩하였다.

서늘한 바람이 울창한 숲속에서 가랑잎을 날리는 가을이였다.

산골짜기의 단풍잎은 타는듯 붉게 물들어 온 천지를 더욱 밝게 해주는듯싶었다. 상강이 지나 립동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나무잎은 얼추 다 떨어져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우묵한 곳에 발목이 묻힐만큼 쌓이군 하였다.

삼길이는 나무지게를 지고 폭신한 가랑잎을 밟으며 기분좋게 산골짜기로 들어가고있었다.

그는 다래와 머루를 따먹는 재미에 팔려 어느새 깊은 골짜기에 들어왔는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등 여러가지의 잡목들이 우거져서 매우 으슥한 깊은 산속이였다.

해는 이미 점심때도 훨씬 지났다.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할 차비를 하던 삼길은 문득 귀결에 녀자의 웃

는 소리를 어렴풋이 듣게 되였다.

《아하하하… 호호호…》

무슨 흥이 나는지 자지러지게 웃는 녀자의 웃음소리였다.

《별스러운 일도 있다. 인적없는 이 깊은 산에서 저렇게 웃다니…》

삼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귀를 도사리였다.

《해해해… 호호호…》

분명 젊은 녀자가 웃는 소리인데 갑자기 뚝 끊쳤다가는 이어지군 하는것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것 같았다.

삼길은 그 웃음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살금살금 걸어갔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걷던 그는 무섭게 생긴 짐승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건너편 산골짜기 으슥한 반석우에서 커다란 범 한마리가 웬 처녀 하나를 물어다놓고 발로 앙가슴을 간지르며 놀리고있었다.

그것을 본 삼길은 온몸을 긴장시켜 몰래 다가가다가 일정한 거리에 이른 다음 나는듯 달려들어 억센 두팔로 범의 모가지를 휘감았다. 범은 《어흥-》 하고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잠간사이에 네다리가 축 늘어지였다.

아무리 산중의 왕인 무서운 범이라도 천하장사 김삼길의 힘을 당해낼수 없었던것이다.

삼길은 만일을 념려하여 범의 대가리를 반석에 둬서너번 부딪쳐 아주 부셔놓고말았다.

조금전만 하여도 정신없이 웃던 처녀는 범이 죽어넘어지자 얼굴이 몹시 창백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삼길은 급히 바위짬으로 흘러가는 물을 손으로 떠다가 처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지난 뒤에 처녀를 업고 산골짜기로 내려갔다. 집에 돌아온 삼길은 실신상태에 있는 처녀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더운물과 미음을 끓여서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한참만에 처녀는 정신을 차리였다. 그는 눈을 뜨고 이상한듯이 방안을 살펴보다가 문득 자기앞에 웬 사나이가 앉아있는것을 깨달았다.

처녀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를 본 삼길은 부드러운 눈길로 처녀를 안심시켰다.

《제가 어떻게 되여 여기에 누워있는가요?》

처녀는 다소 마음이 놓이는지 나직이 물었다.
《그것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 어서 정신부터 차려야 합니다.》
삼길이 다정하게 하는 말이였다.
삼길의 부모들은 아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범을 때려잡고 처녀를 구해온 전후사연을 듣고나서 크게 기뻐하였다. 부모들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인제는 너도 장가를 들겠구나.》 하는 말을 몇번이나 되풀이하였다.
그때마다 삼길은 《그것은 안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처녀를 구원했다고 안해로 삼을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색하여 말하였다.
그는 범에게 물려서 금시 죽게 된 사람을 구한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것을 구실로 본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안해를 삼을수는 없는것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마음이 착한 삼길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린것만 다행하게 생각하였을뿐 아무런 엉뚱한 생각도 가지지 않았다.
이튿날 처녀는 정신을 완전히 회복했다.
처녀는 충청도 영동에 사는 홍판서의 귀한 외동딸이였다. 그는 전날 밤 변소에 나갔다가 범을 만나서 물린것까지는 생각되나 그후의 일은 의식이 몽롱하여 기억하지 못하고있었다.
처녀가 다 죽게 된 목숨을 구해준 삼길에게 무슨 말로 인사를 해야할지 알수 없어하는데 총각이 오히려 미안쩍은 얼굴로 《이제 몸을 추어세우시면 곧 댁으로 가셔야지요! 댁에서 몹시 걱정을 하고계실터인데…》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처녀는 그 마음이 고마왔다.
삼십이 가까운 총각으로 우연한 기회에 젊은 녀자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살자고 하여도 어쩔수 없는 일인데 끝까지 례절이 극진하여 자기를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하니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고 그는 감탄도 하였다.
이것저것 생각하던 끝에 처녀는 숯구이총각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을 결심을 하였다.
어느날 그는 삼길을 보고 자기의 뜻을 솔직하게 말하였다.
《저는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물리여 죽을것이였는데 당신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미 저의 몸에 당신의 손이 여러번 닿았으니 이제는 다른 곳으로 출가할수도 없게 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의 안해가 되여 그 은공을 갚으려 합니다.》

처녀의 진정을 알게 된 삼길은 무척 기뻤으나 그럴수록 례의를 지키지 않을수 없었다.

《혼인은 인륜의 대사인즉 부모 모르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도 당신을 안해로 삼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처녀가 몸을 회복한 후에 삼길은 그를 데리고 영동 홍판서집으로 갔다.

홍판서는 딸에게서 그동안 있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딸의 생명을 구해준 숯구이총각의 소행이 참으로 고마왔다.

그리하여 홍판서는 삼길을 선뜻 사위로 삼았다. 삼길이와 홍판서의 딸은 면천 산골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한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안해는 진정어린 얼굴로 《여기서 숯굽는것으로만 생업을 삼을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세요.》 하고 삼길에게 권고했다.

《글을 여기서 어떻게 읽는단 말이요?》

삼길이가 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물으니 《제가 집에서 글을 조금 읽어 대강은 아오니 당분간은 저한테서 배우세요.》 하고 안해는 정색하여 대답하였다.

그 이튿날부터 삼길은 밤마다 안해에게서 글을 배웠다.

처음에는 천자부터 시작하여 배웠지만 총명한 그는 5년동안에 글의 문리를 훌륭하게 통하게 되였다.

삼길은 학문을 더 닦기 위하여 면천바닥에서 숯굽는 일을 집어치우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는 우선 당대의 이름높은 학자인 우암 송시렬을 찾아갔다.

그때부터 그는 송시렬밑에서 배우며 이름난 선비들과 교제도 많이 하였다.

삼길은 나이 마흔이 거의 되였을 때 과거장에 나아가 장원급제를 하였다.

벼슬길에 들어선 그는 한림학사로부터 시작하여 조정의 요직인 높은 벼슬자리에까지 올라갔으며 다정한 안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한다.

평양상인과 중국상인

옛날 평양에 전장복이라는 상인이 살고있었다.

그는 큰 배를 가지고 중국과 무역을 하는 부유한 상인이였다.

전장복은 여느 장사군들처럼 남을 속이거나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여나 나무장사로 돈을 한잎두잎 모아 배를 무어 중국과 무역을 시작하자부터 부유한 상인으로 되였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가난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옛 처지를 생각하여 돈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군 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사람들은 전장복이 부유한 상인으로 된것은 장사를 하는 수완이나 팔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정과 덕망이 높기때문이라고 일러왔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전장복은 무역할 상품을 배에 가득 싣고 중국상인들이 모여드는 서해의 가도라고 부르는 섬에 갔다.

그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한 상인에게 상품을 넘겨주고 그 값으로 받은 은을 자기 배에 실어놓은 뒤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구입하여갈 상품을 고르고있었다.

그런데 옷차림이 초라한 중국사람 하나가 부두가의 한끝에 홀로 앉아 먼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수심에 잠겨있었다.

날이 저물어가도 움직일줄 모르고 앉아있는 그를 지켜보던 전장복은 기필코 그의 신상에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그저 스쳐지날수 없어 그에게 다가갔다.

전장복은 중국사람에게 왜 그렇게 혼자서 쓸쓸히 앉아있는가고 물었다.

중국사람은 곁에 다가와 묻는 사람이 조선상인이라는것을 알아서인지 쉬이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전장복이 재삼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서야 중국사람은 한숨을 길게 쉬며 사연을 실토하였다.

그는 중국 난징에 사는 상리병이라는 장사군이였는데 얼마전에 자

기 상선에 10만냥어치의 상품을 싣고 양자강을 따라 가도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 배는 침몰되고 목숨만 간신히 건지여 이 섬에 왔다는것이였다.

섬에는 이미전부터 알고있던 사람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으러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한해전에 세상을 떠났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자니 로자가 없고 여기서 살자니 의지할 곳이 없어 망망한 앞일을 두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노라고 하였다.

상리병의 이야기를 듣고난 전장복은 두말없이 그를 데리고 자기 배에 올라 푸짐한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상품을 넘겨주고 받은 은냥을 궤짝채로 그의 앞에 내놓으면서 가지고가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라고 하였다.

중국상인은 궤짝을 열어보고 놀랐다.

알지도 못하고 거래도 없던 자기에게 선뜻 은냥을 꾸어주는것이 미덥지 못한 일이거니와 또한 은냥이 너무 많았기때문이였다.

중국상인은 그저 난징으로 갈 로자만 꾸어주어도 감사하겠다고 말하였다.

전장복은 중국상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길손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몇냥의 로자로도 되겠지만 상인을 돕는 일에서 어찌 로자를 주는데 그치겠습니까. 그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 일이니 걱정마시고 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중국상인은 전장복의 말에 진심이 어려있는것을 알고 고맙고 황송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는 종이와 먹을 청하면서 은냥을 빌린 증서와 리자금을 부르는대로 물겠다는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전장복이 만류하며 말하였다.

《두 나라사이에 상품을 거래하는 큰 상인들의 의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는것이 우리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은냥을 갚아준다거나 리자를 치른다는 말은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오직 그대가 다시 많은 상품을 싣고 이곳으로 다니며 두 나라의 무역에 이바지하는것뿐입니다.》

중국상인은 거듭 사례하면서 전장복이 원하는대로 두 나라 무역에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는 다음해 이날 이 시각에 다시 만나

자고 하였다.

전장복도 그렇게 하자고 언약하고는 헤여졌다.

그로부터 일년이 지났다.

전장복은 그사이에 무역할 상품도 마련되였고 또 상리병과 약속도 있어서 무역할 상품을 한배 가득 싣고 가도로 갔다.

과연 중국상인 상리병은 일년전에 헤여졌던 그날 그 시각에 바로 그 부두가에 나타나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전장복을 보자 달려와 부둥켜안고 반가와했다. 그리고나서 자기 배에 데리고가 배를 구경시키면서 그간 전장복이 준 은냥을 가지고 배를 장만하고 상품도 마련하여 다시 큰 무역상인으로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장복은 그가 불행을 가시고 큰 상인으로 나타난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들은 서로 무슨 상품을 가져왔는가고 묻고는 바로 자기들이 바라던 물건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상인에게 넘길것없이 서로 무역하자고 말했다.

그들은 은혜를 주고받은 관계라고 해서 상품을 헐값으로 흥정하지 않았다. 매 상품마다 시세에 따라 한냥도 에누리함이 없이 교역하였다.

중국상인은 전장복과 헤여질 때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가 그저 헤여질수 있겠습니까. 만났던 기념으로 이 물건이라도 받아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작은 함을 하나 내놓았다.

이미 전장복은 은혜를 입힌 값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가 내놓는 작은 함은 한손바닥우에 놓이여 부피로 보나 중량으로 보나 특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여 거절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만났던 기념으로 받았다.

집에 돌아와서 그 함을 열어본즉 함에는 은으로 만든 각양각색의 크고작은 열쇠뭉치가 한가득 들어있었다.

그래서 의아히 여기며 그는 중국상인이 생각날 때마다 보리라고 소중히 보관해두었다.

그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상품을 실은 중국상선 여러척이 대동강으로 들어왔다.

배가 대동강선창에 닿자 중국인부들이 상자들을 부리워서 곧바로 전

장복의 집뜨락에 날라다 쌓았다.

영문을 알수 없는 전장복은 이것이 무슨 상품이기에 자기 집에 날라오는가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 하나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상품을 날라다 쌓기만 하였다.

이렇게 마지막상자까지 다 가져다놓은 다음에야 한 중국사람이 그의 앞에 나서면서 말하기를 《이 짐은 바로 자기 주인을 찾아온것이니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주인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상품을 주문한 일도 없거니와 당장 이 많은 상품과 교역할 상품이 없습니다.》

전장복이 이렇게 말하자 그 중국사람은 웃으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이 상자의 열쇠들을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뭐요?!》

그제야 전장복은 중국상인 상리병이 보낸 상품이라는것을 알았다.

전장복은 중국인부들에게 도로 싣고가야 한다고 권하기도 하고 강요도 해보았으나 그들은 들은척도 아니하고 배를 타고 떠나갔다.

중국상인 상리병이 보낸 상자들에는 갖가지 비단필과 희귀한 상품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었다.

이때로부터 평양사람들은 곤경에 처했던 중국상인을 구원해준 전장복의 의협심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 중국상인 상리병의 의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대로 자랑하며 전해오고있다.

김 정 설

엄세영의 결단

엄세영은 고종왕 초기에 승지라는 벼슬을 하고있었다. 나이 이미 마흔이 넘어 쉰줄을 바라보는 그의 곧은 마음과 칼날같은 성질은 그 누구도 당하기 어려울만큼 매섭고 단단하였다.

그는 김옥균, 박영효 등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속심으로 정치적국면이 바뀌여지기를 은근히 바랐건만 김옥균 등의 개혁당이 《삼일천하》를 하고만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있었다.

일전에도 시골에서 사는 한 친척이 한양에 올라오다가 경상도 산길에서 도적을 만나 가지고오던 돈 백냥과 명주 두필을 송두리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적은 둘이였는데 둘이 다 시퍼런 칼날을 그에게 겨누면서 보따리를 털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한테 돈과 명주를 빼앗겼다고 우리를 원망마오. 우리는 사모(관복을 입을 때 쓰던 비단으로 만든 벼슬아치의 모자)쓴 도적놈한테 가진것을 다 빼앗기고서 죽지 못해 이런짓을 하오!》

그는 이 이야기가 귀에 박힌것처럼 머리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사실 지방에 벼슬 나간 부사요, 목사요, 현감이요, 관찰사요 하는 따위들은 백성들을 곤장으로 때려가면서 토색질을 하여 애써 모아놓은 벼덤불까지 긁어갔다. 지방에서 왕노릇하는 관리들이야말로 그 도적의 말과 같이 사모쓴 도적놈들이였다.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부사나 현감으로 그 지방에 나가있는것이 아니라 그 지방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쥐여짜내여 빼앗아가지려고 벼슬을 구해 나간것들이였다.

그리고 이자들이 벼슬을 얻어가지고 나가게 되기까지는 제각기 상당한 밑천을 들여야 했다.

민중전(고종의 처 민비)과 죽동궁 민영익에게는 벼슬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져다 바치는 돈이 시장에서 흥정되는 물건값처럼 시세가 정하여져있었다. 벼슬을 얻은 지방관리들이 제가 허비한 밑천을 뽑느라고 만만한 백성들의 껍데기를 벗기는것도 우연치 않았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것인가.》

엄세영은 시골서 올라온 일가량반으로부터 도적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가뜩이나 걱정되던 나라일이 더욱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탄식하는 때가 빈번하였다.

이미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두번씩이나 뜨끔한 소동을 겪었으니 그만하면 조정에서도 매관매직을 하는것이 나라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것인가 하는것쯤은 깨달아야 할것이였으나 중전마마나 죽동궁 민대감이나 다 그런것은 생각지도 않는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인사교체는 더욱 빈번하여지는데 가장 소문이 높은 곳이 전라도였다.

《전라감사를 한번 했으면 원이 없겠다!》

량반네들의 사랑방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올만큼 전라감사의 자리는 토색질을 일삼는자들이 탐내는 자리였으며 또 오래 부지 못하는 벼슬자리이기도 하였다.

엄세영은 이런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있었으므로 그뒤를 조사해보았다. 조사를 해보니 그것은 전라감영에 아전으로 있는 백락서라는자가 조화를 부리기때문이였다.

백락서는 대대로 아전노릇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재부는 전라도뿐아니라 팔도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툴만 한 큰 부자였다. 그는 전라도 전주에 있어도 서울 조정에서 결정하는 일을 반드시 사흘안으로 알군 하였다.

백락서는 조정의 일을 오백리밖에 앉아서 손바닥에 놓고 보는것처럼 훵하니 알고있었을뿐아니라 제 비위에 맞지 않으면 감사고 군수고 누구고 할것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든지 혹은 목을 잘라버리든지 제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

그래서 전라감사로부터 부사, 군수에 이르기까지 새로 부임되여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백락서에게 잘 보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해본 엄세영은 마음이 아팠다. 조선팔도가 모두 그러하고 조정의 상하가 모두 그러하니 긴 탄식이 나오지 않을수 없는 일이였다.

그는 왕실이나 조정은 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 행악질을 하는 그따위 인물들만은 자기의 힘이 미치는데까지 없애버릴 작정을 하였다.

그래야 나라의 운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면 팔도가운데서도 제일 썩어있는 전라감영부터 깨끗하게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엄세영은 울화증이 나는 자기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때가 오기만 기다리고있었다.

갑신정변이 있은지 오륙년이 지난 해 가을 어느날 엄세영은 고종왕으로부터 삼남선유사(삼남—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말함. 선유사는 나라에서 전쟁이나 다른 큰일이 생겼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의 정치와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던 림시벼슬)로 나아가서 지방민정을 살펴 탐관오리를 적발하며 민심을 어루만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주고 돌아오라는 명을 받았다.

이야말로 엄세영에게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였다. 그는 이런 중임을 자기에게 맡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엄세영은 이튿날 선유사로서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당시의 수구당(민비와 민씨일가가 중심이 되여 옛 제도를 답습하며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리) 대신들의 최고우두머리요 만조백관과 지방벼슬아치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수 있는 죽동궁(민영익이 사는 궁)으로 인사하러 갔다.

《제가 이번 왕명을 받자와 삼남선유사로 래일 떠나겠기에 대감께 아뢰는바이옵니다.》

그는 민대감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

민영익은 인사를 받고나서 나직하면서도 굵은 목소리로 《어련하겠소. 엄승지는 상감의 명을 욕되게 하지는 아니할것을 내가 아오. 그러나 전라감영에 가거든 백락서 한사람만은 잘 보아주기 바라오.》 하고 한마디 부탁의 말을 하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엄세영은 민영익에게 이렇게 말한 후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다.

그는 그 길로 운현궁의 대원군(고종왕의 아버지)을 찾아가서 선유사로 출발하게 되였다는 인사를 하고 죽동궁에서 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대원군은 엄세영의 인사를 받은 다음 그를 바라보더니 《잘됐네. 자네가 민정을 자세히 보고 오게. 그리고 전라감영에 가거든 백락서를 잘 보아주게. 그런데 어디로 먼저 가겠나? 충청도를 먼저 들려서 가

겠지?》 하고 물었다.
《아직 미정이옵니다마는 아마 그럴가보옵니다.》
엄세영은 어물어물 대답했다.
《그럼 잘 다녀오게.》
대원군은 비교적 경쾌한 태도로 기분좋게 말하는것이였다.
《물러가옵니다.》
엄세영은 대원군에게 하직을 고하고 운현궁에서 물러나왔다.
《흥! 죽동궁에서도 백락서를 부탁하고… 운현궁에서도 백락서를 부탁하고… 도대체 백락서가 무엇이기에…》
그는 쓴 입맛을 다시고 솔고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안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민중전으로부터 온 편지가 한장 놓여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일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펴보았다.
《전라감영에 있는 백락서를 부탁한다.》
편지에는 이 한구절만이 적혀있었다.
편지를 들고있는 엄세영의 손은 떨리기 시작하였다.
《백가가 이렇게도 사방에 모두 통하는 놈이로구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나서 길게 한숨을 지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아전이 또 있을가? 이놈이 얼마나 뒤가 든든하게 판을 차리였길래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놈 일만 부탁할가. 아니, 민중전과 대원군은 원쑤같은 사이인데… 그렇건만 두군데서 이와 같은 한놈을 나에게 부탁까지 하니… 대관절 이놈의 뒤는 빨래줄보다도 더 긴 동아줄같은것이 단단히 매여져서 세상없는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도록 되여있는것이 아닌가? 이놈을… 그저 이놈을…)
엄세영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 그 어떤 압박감을 느끼였다.
조금 있다가 그는 편지를 문갑속에 집어넣고 아래목에 드러누웠다.
그런 다음 장차 자기는 이 세군데서 부탁받은 백락서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며칠후에 엄세영은 전라감영에 도착하였다.
엄승지를 맞은 감사와 아전과 모든 리속들은 환영연을 베풀었다.
이튿날 엄세영은 즉시 각 고을의 리방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전라도의 금년농사는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

은 배부르고 집집마다 안락하고 아무 고을에는 효자가 몇명이나 생겼고 렬녀는 몇명이 있으며 어느 지방에서는 하늘로부터 봉황새가 내려왔다는 등… 도무지 허무맹랑하기 그지없었다.
금년농사가 풍년이 아니라는것은 엄연한 현실이였다.
엄승지는 경기도서부터 전주까지 말타고 내려오면서 농군들이 추수하여 논밭에 쌓아놓은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였다.
한양서부터 전주까지 오백여리 길가에는 아직 걷어들이지 못하여 논가운데 그대로 서있는 쭈그렁벼이삭들이 엉성하였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라도뿐아니라 삼남지방전체가 흉년이였다.
그래서 상감은 직접 선유사를 삼남지방으로 보내는것이 아닌가.
엄세영은 잠자코 리방들의 보고를 듣고나서 《잘 알겠네. 내가 래일은 이곳을 떠나 각 고을들을 돌아보고 한 보름후에 돌아와서 이곳일을 모두 처리하지!》 하고 딱 잘라말했다.
《래일 떠나시렵니까?》
백락서가 엄승지앞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응, 래일 떠나겠네.》
《황송하오나 오늘 저녁은 소인의 집으로 행차하여주셨으면 하옵니다. 변변치 못한것이나마 마련한것이 있사옵니다.》
엄세영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나이는 자기나 비슷해서 오십이 될가말가해보이는데 얼굴은 영특하게 잘생겼다.
몸집도 좋고 키도 큰편이며 더우기 음성이 굵은것이 어디로 보든지 문벌좋은 량반의 집에 태여났더라면 재상감이였다.
그러나 그의 다홍빛나는 입술가에는 얼른 보아서는 아무나 발견할수 없는 간교스러운 기운이 있었다.
엄승지의 눈에는 이것이 얼른 띄였다.
그는 백락서를 순식간에 살펴보고나서 시치미를 떼고 선선하게 응낙하였다.
《그렇게 하세. 자네가 한잔 준다면 가겠네.》
백락서는 엄승지의 승낙을 얻고나서도 《황송합니다.》 하고 연신 허리를 굽혔다.
저녁때가 되여 엄세영은 백락서를 따라 전주부중에 있는 백락서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날 밤 백락서의 사랑에는 한성장안에서도 구경할수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이튿날 엄세영선유사는 전주감영을 떠나서 먼저 정읍으로 향하였다.
정읍고을의 원이 행악질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때문이였다.
그는 정읍에서 일을 끝낸 후 태인과 익산으로, 그다음은 옥구로 이렇듯 차례차례 돌면서 만경벌 근처에 있는 여러 고을의 추수실정과 민생고를 살펴보았으며 행악질하던 토호량반들과 원들은 용서없이 처단하였다.
일을 마친 그는 십여일후에 다시 전주로 돌아왔다.
전라감영에서는 아전들이 정문밖에 나와서 선유사를 맞아들이였다.
선유사는 이미 자기가 한성을 떠나올 때 마음속에 결심한바가 있었으나 그런 내색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을 따라서 선화당으로 올라갔다.
감사도 왕명을 받고나온 선유사앞에서는 한등급 아래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었다.
선유사와 감사사이에서 그동안 십여일간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백락서가 또 찾아왔다.
《래일은 어느 고을로 행차하시려 하옵는지 알고저 하옵니다.》
《아직 미정일세.》
엄세영은 간단히 대답하였다.
《그러하시오면 피곤하실터인데 며칠간 편히 머무르시다가 다시 떠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기가 춥지는 않사오나 그래도 불편하실 일이 생길가보아 조심되오니 루추하오나 소인의 집에 잠시 거처하심이 어떠하올는지요?》
《글쎄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러있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터인데…》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백락서는 허리를 한번 굽실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시다면 우선 오늘 밤 소인의 집으로 가시는것이 어떠하올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볼가, 이따가 내가 자네 집으로 갑세.》
엄세영은 이번에도 백락서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간단히 승낙하

였다.

《황공하옵니다. … 그러면 소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이나 거두고있겠사옵니다.》

《그리하게.》

백락서는 선유사의 승낙을 받자 허리를 공손히 굽혀 인사를 하고 선화당에서 물러갔다.

이윽고 선유사는 감사에게 자기가 백락서의 집에 가서 있을테니 인차 감영에 있는 군졸 오십명과 걸음이 빠른 좋은 말 한필을 백락서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념려마십시오.》

전라감사는 선유사가 무슨 뜻으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물어볼수도 없어 그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엄세영은 백락서의 집으로 교자를 타고가며 또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한바를 단단히 다졌다.

자기가 한양을 떠나기 전에 듣던것보다 실지 전주에 와서 보니 백락서의 배후세력은 상상하던것보다도 더 굉장하였다.

전주부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도일대에서 소위 행세한다는 량반들도 돈보따리를 들고 백락서의 집을 찾아가야만 벼슬을 얻어하며 조정과 지방에서 관직을 가지고 행세하는자들의 감투와 사모가 부지된다는것이 사실이였다. 그러고보니 전라감사에서부터 미관말직에 이르기까지의 전라도 벼슬아치들은 말할것도 없고 중앙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고관대작들까지도 백락서가 좌지우지하는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때문에 이처럼 되는것이냐? 모두가 백락서의 돈때문이다! 그리고 민중전이나 상감마마나 죽동궁 민대감이나 운현궁 대원군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돈을 좋아하는 까닭이다. 먼저 돈을 가지고서 조화를 부리는 놈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엄세영은 또한번 마음속으로 맹세하였다.

어느덧 교자가 백락서의 집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엄세영이 교자에서 내리니 백락서는 미리 대기하고있다가 그를 부축하여 사랑방으로 모셔들였다.

엄세영은 아래목에 앉아서 장죽(긴 담배대)을 빨면서 몇가지 지방사정을 그에게 물어보았다.

백락서는 장지밖에 꿇어앉아서 청산류수같은 말솜씨로 일일이 상세하게 대답하였다.

조금있다가 상노아이(밥상나르는 일과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들이 큰상을 떠받들고 안에서 나왔다.

역시 십여일전에 처음으로 백락서집에 왔을 때 받았던 교자상과 마찬가지로 산해진미의 진수성찬이였다.

《자네도 이쪽으로 내려와서 한상에서 같이 먹세.》

상을 받은 엄세영은 짐짓 웃으며 백락서를 바라보았다.

《황송하옵니다.》

백락서는 장지를 건너오더니 술잔에 술을 찰찰 넘게 부어 엄세영앞에 올렸다.

엄세영은 그 잔을 받아 마신 다음에 《과연 술맛이 좋으네. 그런데 한양에 올라가면 이 술맛이 가끔 생각나겠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 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있사오니 념려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댁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는게지. 오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다니 될법한 말인가. 공연한 소리지!》

엄세영은 안주를 집으면서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보실 일은 다 끝내시였습니까?》

《다 보았는데 꼭 한가지 여기서 볼일이 남았네!》

《한가지 남은 일이란 무슨 일이온지…》

백락서가 마음을 놓고 허물없이 묻는데 엄세영은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응! 꼭 한가지 남은 일이란것은 바루 자네 목을 베여버릴 일이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순간 백락서는 얼굴빛이 갑자기 변하면서 두눈이 올롱해지더니 엄세영을 쏘아보았다.

이 모양을 본 엄세영은 소리를 크게 질러 대문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는 조금전에 대문밖에 군졸들이 와서 대기하고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백락서는 나라의 해충인고로 목을 베인다! 속히 잡아내려서 목을 잘라라!》

바위처럼 끄떡없이 앉아있는 엄세영의 추상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제아무리 날고 긴다는 백락서였으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 급한 형세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었다.

군졸들은 선유사의 호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마루우로 우르르 올라오더니 백락서를 나꾸어가지고 뜰아래로 내려갔다.

문득 그들중의 한사람이 무어라고 소리를 꽥 지르자 백락서의 머리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구을렀다.

선유사는 이와 같이 백락서를 처치해버리고 그날 밤으로 충청도 공주감영까지 삼백륙십리를 그대로 말타고 달음질하였다.

녕변사람들

1897년 10월 어느날 점심때가 지나 얼마 되지 않았을무렵 녕변에 김가촌이라고 불리우는 마을에서 갑자기 개들이 요란스럽게 짖어댔다.

다박솔 우거진 나직한 산을 등지고 오붓이 들어앉은 김가촌은 흙을 봉곳이 올려밀며 돋아오르는 송이버섯같은 초가집이 스물대여섯채에 불과한 자그마한 마을이였다.

고양이의 손발도 빌려야 할 한창 바쁜 가을철이라 이날 마을에는 가을걷이에 나가지 못한 늙은이와 아이들만이 남아있었다.

예순살이 넘은 린수로인은 가을걷이를 도와 집뜨락에서 낫을 갈고 있다가 개짖는 소리가 하도 요란하기에 사립문밖에 나가보았다.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서 뛰여나온 개들이 큰길쪽으로 짖어대며 달려갔다.

온 동네의 개들이 이렇게 짖어대는 일은 흔치 않았다. 수리개가 닭을 덮쳐갈 때나 관가의 아전들이 와서 부역이나 공물따위를 독촉할 때에 온 동네의 개들이 일시에 짖어대기도 하였으나 이처럼 요란스럽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닌가?》

옆집의 춘구로인이 울바자우로 목을 길게 빼들고 내다보면서 물었다.

《글쎄 심상치 않은것 같군.》

린수로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듯이 흰수염을 매만지며 큰길쪽을 내다보다가 가지고나왔던 낫을 울바자에 꽂고 걸음을 옮기였다.

빗어올린 상투에 흰서리가 덮였으나 흰 바지저고리를 입은 중키에 자세바른 체모에는 아직 젊은 사람의 체취가 풍기였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글을 밑천으로 서당의 훈장을 하여온 그는 이 마을의 유일한 지식인이였기때문에 마을사람들은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물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의례히 그를 찾아와서 의논하여 처리하군 하였다.

마을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와 믿음속에서 살아오는 그는 마을의 궂은일에나 마른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였다.

점심때만 하여도 맑게 개여있던 하늘은 어느사이에 검은구름으로 뒤덮이고 쌀쌀한 바람이 길가의 먼지와 검불을 말아올려 울바자와 지붕에 들씌우며 지나가군 했다.
날씨는 한소나기를 내려뿌릴 차비를 하는것 같았다.
린수로인이 마지막채의 초가집을 지나 큰길에 나서서 보니 아이들은 바로 선산으로 달려가고있었고 그중 한 아이는 짐승에게 쫓기듯이 죽기내기로 되돌아 달려오고있었다.
그는 린수로인의 손자인 치복이였다.
《할아버지… 큰일났어요.》
큰길에 올라선 치복은 할아버지를 보고 소리쳤다.
길가에서 먹이를 쪼아먹던 닭들이 놀라 후다닥 날아나며 꼬꼬댁거리였고 어미를 따라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짖어대던 강아지들도 놀라서 꼬리를 사리고 낑낑거리며 모재비로 피해 달아났다.
《무슨 일이냐?》
린수로인은 손자를 맞받아나가며 물었다.
치복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양놈이 소나무를 찍으러 왔어요.》
《뭣이?》
린수로인이 펄쩍 놀래였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린수로인을 뒤쫓아나온 춘구로인이 치복의 두어깨를 거머쥐고 흔들면서 다우쳐물었다.
《양놈이 숱한 인부들을 데리구 달구지까지 끌구왔어요.》
《끝내 달려들었구나.》
춘구로인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자리에 펄썩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치복을 앞세우고 허둥지둥 자기네 선산으로 달려가는 린수로인을 보자 자기도 벌떡 일어나 두주먹을 부르쥐고 그들을 따라 껑충껑충 뛰여갔다.
길건너편에 펼쳐져있는 몇뙈기 논밭은 낮은 산봉우리들로 에워싸여있었는데 그 북쪽의 그중 높은 산이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였다.
그 산기슭에는 대대로 가꾸어 내려오는 울창한 솔밭이 있었다.

아름드리소나무들이 삼대같이 즐비하게 솟아있는 솔밭은 이 마을 사람들이 그야말로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가꾸어가는 솔밭이였다.

그것은 경치로 봐도 그렇고 크기에서도 녕변땅에서 손꼽히는 솔밭이므로 우야 품을 내여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마을 사람들의 자랑으로 되는 솔밭이였다.

미국놈들이 이 솔밭의 소나무를 사서 찍어가겠다고 한것은 달포전이였다.

1882년 4월 6일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조미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한 뒤 미국놈들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을 위협공갈하여 우리나라의 광산채굴권을 빼앗아쥐게 되였다.

그러자 1896년에 모르스란 놈을 두목으로 한 미국놈들이 운산땅에 기여들어 금광을 개발하였다.

놈들은 금광을 개발하였으나 일년도 못되여 동발목을 마음대로 구할수 없게 되였다.

그것은 운산사람들이 처음부터 미국놈들이 기여드는데 대하여 마깝지 않게 여기는데다가 놈들이 인부들을 강제로 모집하여 아무런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갱도로 들이몰아 자주 무리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이곳 주민들의 항거에 부딪치게 되였기때문이였다.

운산사람들은 미국놈들에게 동발목으로 쓸 나무조차 팔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놈들은 나무값을 올려주며 회유도 하고 강제로 찍어가기도 하였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의 불만과 항의는 더 커져갔다.

사람들의 항의가 날마다 높아가는데 겁을 먹은 미국놈들은 운산땅에서는 어쩔수 없어 동발목을 구하기 위한 마수를 주변군으로 뻗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김가촌의 작은 마을에도 미국놈들이 기여들게 되였다.

김씨네 선산의 솔밭을 돌아본 미국놈들은 대번에 침을 흘리면서 나무를 팔라고 하였다.

미국놈들은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마을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금광개발에 필요한 나무를 찍어쓰라는 승인을 하였으니 만약 순순히 팔지 않으면 응당한 처벌을 내리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놈들이 이렇게 엄포를 놓고 돌아간 날 저녁 마을사람들은 불안

한 마음에 휩싸여 린수로인의 집에 모였다.
그들은 미국놈들이란 원래 례의라고는 티끌만치도 모르는 오랑캐들이기에 막무가내로 찍어갈수 있으니 미리 막아낼 계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막아내는데는 한개의 리를 맡아보는 리정을 내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날 린수로인이 리정을 찾아가 사연을 말하니 리정은 두말없이 힘써보자고 하였다.
며칠이 지나서 리정이 린수로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소나무 몇그루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다는것이였다.
이 말을 들은 린수로인은 실망에 잠긴 마을사람들에게 이 일은 리정의 힘으로는 풀수 없는 일이니 군의 산림을 맡아보는 아전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서게 하는것이 상책일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후에 그는 아전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죽을 때 입고가려고 준비해두었던 귀중한 명주필을 내놓았다.
그러자 춘구로인은 아끼고아껴오던 50년 묵은 산삼을 내놓았고 뒤이어 닭을 잡아오고 또 쌀가마니를 메고오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었다.
린수로인은 이런 물건들을 한짐 꾸려가지고 아전을 찾아갔다.
물건들을 받은 아전은 린수로인의 청원을 풀어보도록 힘쓰겠다고 하였다.
린수로인은 하루가 멀다하게 아전의 집에 드나들었다.
갈 때마다 례물을 짊어진 장정 한사람이 언제나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례물이 부족한탓이였던지 아니면 아전에게 막아낼만 한 힘이 없었던지 그도 마을사람들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였다.
어느날 아전은 찾아온 린수로인에게 말하기를 죽은 조상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하여 나라의 역적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린수로인은 힘을 빌리려면 더 큰 힘을 빌리고 의지할바에는 더 높은데 의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한개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사또에게 청원서를 올릴것을 결심했다.
청원서를 올렸다가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거나 형틀우에서 한목숨이 아침이슬처럼 사라질수도 있겠지만 사또가 한마디 옳은 말을 하여준다면 틀림없이 소원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청원서를 썼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부모에겐 효성스러워야 하고 나라엔 충성스러워야 하는것은 사람들의 도리이며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지금 운산금광을 개발하고있는 양인이 나라에서 주었다는 채굴권을 휘두르며 우리 김씨선산의 소나무를 찍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승인하는가 승인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선조들의 유골이 묻혀있는 선산의 소나무를 찍도록 내버려둔다면 래일이면 또 다른 마을이 그러할것이니 나중엔 온 나라에서 양인에게 주지 않는것이 없을것입니다.
조상을 욕되게 하고 나라를 유린하게 할 이러한 싹에 대하여 어찌 신중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선조들이 례의지국으로 우리 나라를 빛내이며 물려준 피줄이 가슴에 뛰고 반만년 기나긴 세월을 두고 나라를 지켜온 애국의 넋을 지닌 우리들은 만백번 죽고 다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만은 승인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또께서 옛일과 오늘의 일을 널리 헤아려보시고 한번 내리신 정사가 현 시국에 귀감이 되고 뒤날 후손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양인의 횡포한짓을 막아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서를 낸 그들이 이제나저제나 대답이 있기를 나흘째나 기다리고있는중에 이렇게 미국놈들이 달려든것이였다.
두 로인이 솔밭에 이른것은 바로 인부들이 담배를 피우고나서 나무를 찍으러 일어서고있을 때였다.
부채살같은 솔가지를 인 소나무들이 일매지게 서있는 울창한 솔밭어구에서 개들이 앙칼지게 짖어대는 소리가 온 산판을 울리면서 메아리쳐갔고 우거진 풀밭에는 누런 소들이 매여져있는 여라문채의 달구지들이 여기저기 놓여있었으며 그곁에는 아이들과 몇명의 마을사람들이 미국놈과 인부들을 지켜보고있었다.
솔밭안에는 바가지와 같은 흰 모자를 쓴 키다리미국놈이 긴 막대기를 들고 이 나무, 저 나무를 두드려보며 오르고있었고 그뒤로 인부들이 도끼를 쥐고 어슬렁어슬렁 따랐다.
린수로인은 자기들이 때마침 올라온것이 얼마나 다행한지 몰랐다.
《여보시오, 서시오!》
린수로인은 소리치면서 그놈들을 쫓아갔다.

미국놈과 인부들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린수로인은 그들을 앞질러나가 두팔을 벌리고 막아서며 소리쳤다.

《이 나무는 찍지 못합니다.》

인부들은 불현듯 나타난 로인과 미국놈을 번갈아보면서 더 움직이지 못했다.

《무슨 일입니까?》

미국놈이 린수로인의 앞에 와서 바가지같은 모자를 지팽이끝으로 밀어올리면서 말했다.

이 미국놈은 우리 나라 침략의 길안내자로 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선교사를 따라 선천지방에 들어와있었기때문에 우리 말을 좀 번지는자였다.

《우리는 이 소나무를 찍지 못하도록 관가에 청원서를 냈소. 군에서 대답이 있기 전에는 안되오.》

린수로인은 불이 이는 눈으로 놈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 그러면 당신은 관가에서 승인하기를 기다리는것입니까?》

미국놈은 징그러운 낯짝을 린수로인앞에 들이밀며 물었다.

《그렇소.》라고 린수로인이 대답을 하자 뒤이어 곁에 서있던 춘구로인이 미국놈의 앞에 나서며 《그렇수다. 군에서 승인하기 전엔 절대로 안되우다.》 하고 긴팔을 내흔들었다.

《그렇습니까?》 하고 미국놈은 우묵 들어간 눈을 가늘게 좁히며 웃음을 짓더니 《그렇다면 관가의 승인서를 보입시다.》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여 린수로인에게 펴보이였다.

린수로인은 미국놈이 선뜻 관가의 승인서라고 하면서 종이장을 내놓자 미국놈과 종이장을 번갈아보면서 받았다.

종이장을 받아쥐고 들여다보던 린수로인의 눈은 휘둥그래졌고 손은 떨리였다.

종이장에는 돈을 받고 채벌을 승인한다는 내용과 관가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기입된 날자는 바로 어제였다.

사또가 청원서를 받고서도 이런 승인서를 썼다는것이 명백해지자 린수로인은 눈앞이 캄캄해졌고 금시에 온몸의 맥이 풀리여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아니, 뭐라고 썼나?》

춘구로인은 긴 허리를 굽히여 주저앉은 린수로인의 손에서 종이장을 당겨보았다.

종이장을 훑어보던 춘구로인도 역시 얼굴이 꺼매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손으로 땅을 쳤다.

《아이쿠, 하늘도 무심하구나!》

그는 억울하고 안타까와 땅을 치기도 하고 두손으로 풀잎을 쥐여뜯기도 하였다.

《보았습니까? 이젠 찍어도 되겠습니까?》

미국놈은 징그럽게 웃으며 땅에 떨어진 종이를 주머니에 주어넣었다.

미국놈이 나무를 찍지 못하게 나서는 사람들의 항거를 막기 위하여 이런 문서장을 미리 마련해가지고 다닌다는것을 린수로인이나 춘구로인이 어찌 상상인들 하였겠는가.

자지러지게 짖어대던 개들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진듯 하더니 하늘에 뒤덮였던 검은구름이 비방울을 뿌리였다.

미국놈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인부들에게 나무를 빨리 찍으라고 호령하였다.

인부들은 터벅터벅 소나무로 다가갔다.

그것을 본 춘구로인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여보게 린수, 내려가세나.》

춘구로인이 린수로인의 팔을 잡아일으키려 하였으나 린수로인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인부들의 거동만 쏘아보고있었다.

《린수, 어서 내려가자구. 이 눈으로 저걸 어찌 차마 보겠나. 가슴이 찢어지고 터지는것 같아 못 보겠네. 차라리 내려가 안 보는게 낫지.》 하고 춘구로인은 린수로인을 재촉하면서 비물인지 눈물인지 얼굴에 흘러내리는 물을 거치른 손으로 훔치였다.

한 인부가 날이 시퍼런 도끼를 들어 소나무를 찍으려는 순간 린수로인은 벌떡 일어나서 쏜살같이 달려가 그 소나무를 두팔로 감싸안았다.

《자, 찍으시오. 나를 먼저 찍고 이 소나무를 찍으시오.》

린수로인은 온 산판이 메아리치도록 찌렁찌렁하게 소리쳤다.

인부는 하는수없이 도끼를 내리우고말았다.

다른 인부들도 완강하게 항거해나서는 린수로인을 보자 차마 찍을 념을 못하였다.

형세가 이렇게 되자 미국놈은 야수의 비명소리와 같은 소리로 《빨

리 찍으시오.》 하고 웨치면서 막대기를 높이 쳐들고 흔들었다.
그러나 움직이는 인부는 한명도 없었고 모두 그대로 서있기만 하였다.
악에 받친 미국놈은 린수로인에게 덤벼들었다.
《비키지 못하겠습니까?》
미국놈은 눈섭밑에 움푹 들어가박힌 노랑눈이 올롱해가지고 이를 갈며 말했다.
《누가 뭐라오? 어서 찍으라지 않소.》
린수로인은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이 소나무를 더욱 굳게 그러안았다.
미국놈은 안절부절못하여 왔다갔다하면서 린수로인의 앞에 서있는 인부에게 린수로인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그래도 그 인부가 어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있자 미국놈은 쥐고있던 막대기를 내던지더니 제가 직접 소나무를 그러안은 린수로인의 몸을 밀기도 하면서 안달복달하였다.
이때였다. 미국놈의 등뒤에서 《왜 로인에게 손을 대는거요!》, 《로인에게 손을 대지 마시오.》 하는 소리가 벽력같이 울리였다.
뒤늦게 달려온 마을청장년들이 어느 사이에 미국놈을 몇겹으로 삥 둘러쌌다.
린수로인의 아들인 만결이를 비롯한 마을청장년들은 방금 밭에서 가을을 하다가 뛰쳐올라왔으므로 머리엔 흰 수건들을 질끈 동여매였고 팔소매를 걷어올린 울퉁불퉁한 구리빛팔뚝들에서는 붉은 피줄이 뛰노는데 저마다 서슬푸른 낫들을 쥐고있었다.
조금만 건드리면 거머쥔 낫을 휘두르며 요정낼 태세였다.
그들을 돌아본 미국놈은 금시 기가 꺾여 겁에 질린 노랑눈을 빙글빙글 돌리고있었다.
방울방울 떨어지던 비는 점차 세차게 휘뿌려 잠간사이에 모든 사람들의 옷을 푹 적시여놓았다.
청장년들의 기세에 눌리운 미국놈은 애써 평온한 말로 린수로인을 달래였다.
《그럼 당신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 채벌승인서를 믿지 못하겠다는것입니까?》
《나는 우리가 올린 청원서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있을뿐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래일 나와 같이 가서 담판을 합시다. 래일

꼭 읍에 와야 합니다.》

린수로인앞에서 물러선 미국놈은 인부들에게 오늘은 비도 내리고있으니 다음날에 와서 찍자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갔다.

미국놈이 물러갔으나 린수로인은 소나무를 그러안은채 오래도록 일어서지 않았다.

린수로인은 이튿날 이른새벽에 읍으로 갔다.

혹시 미국놈들이 먼저 가서 무슨 작간이라도 부리지 않을가 하는 조바심에 걸음을 다그쳐 20여리나 되는 길을 아침해발이 퍼지기 전에 도착하였다.

문지기사령에게 물으니 미국놈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린수로인은 미국놈이 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으로 관가의 대문이 잘 보이는 큰길가의 정자나무밑에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그런데 해가 서산에 기울어질 때까지 미국놈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린수로인은 먼저 사또를 만나 사연을 털어놓고 청원서의 대답을 듣는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앞으로 다가갔다.

이때 대문이 열리더니 두 사령이 웬 사람의 량팔을 각각 잡고 질질 끌어다 문밖에 내던지였다.

그 사람은 돌층계로 미끄러져내려 땅바닥에 쓰러졌다.

린수로인이 그를 안아일으켜 앉히고보니 형장을 맞고 나온 농부였다.

머리카락이 흩어져 피에 얼룩진 얼굴을 덮고있었다.

찢어진 옷자락사이로는 피멍이 들어 부풀어오른 살점이 보였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형장을 맞았소?》

린수로인은 그의 얼굴에 얼룩진 피를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물었다.

농부는 제정신을 차린듯 자리를 고쳐 바로앉으며 말했다.

《벌목이 금지되여있는 산판에서 낫자루를 몇대 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까짓 낫자루 몇대때문에 이리도 험하게 매를 맞는단 말이요?》

《내가 잘못했지요. 먼산에 가서 찍어다 해야 했을것인데 그저 일손이 바쁘다는것만 생각하고 나라의 법을 무시했으니 무슨 처벌인들 탓할수 있겠습니까. 이만해도 다행이지요.》

농부는 마디진 투박한 두손으로 내리드리운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고 상투를 단정히 틀었다.

《이거 초면에 폐를 끼쳐서 안됐습니다.》

농부는 린수로인에게 허리굽혀 인사하고 관가의 높고 긴 담장을 한손으로 의지해가면서 절뚝절뚝 걸어갔다.

면에서는 벌목이 금지되여있는 산판에서 낫자루 몇대 찍었다고 이처럼 엄하게 처벌하니 하나의 큰 솔밭을 결딴내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무관심할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린수로인은 더욱 힘을 얻어 대문앞으로 다가갔다.

얼마 안 있어 아전이 나왔다.

주먹코만이 한가득 차있는듯 한 여윈 삐죽한 얼굴에 검은 눈알을 내려깔고 노려보는 아전을 보자 린수로인은 공손히 절을 하였다.

《소인은 김가촌에 사는 김린수라고 합니다. 일전에 양인이 우리 선산의 소나무를 찍겠다고 한것을 가지고 사또께 올린 청원서에 대한 대답을 듣고싶어 왔습니다.》

아전은 로인의 말을 듣고 눈을 부라리였다.

《다 알고있다. 이미 양인에게 채벌을 승인하였으니 그리 알고 돌아가라.》

《아니, 어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하고 린수로인이 반문하였으나 아전은 돌아보지도 않고 도포자락을 너풀거리며 들어가버렸다.

《여보, 나리.》

린수로인은 아전을 부르며 사생결단으로 따라들어갔다.

문지기사령도 막아내지 못하였다.

관가의 뜨락에 들어선 린수로인은 아전의 팔을 붙잡고 하소연했다.

《이런 처사를 내릴법이 어데 있습니까?》

《이 두상이 미쳤나. 어데라구 와서 행패질이야.》 하고 아전은 붙잡힌 팔을 당겨채며 린수로인을 밀쳐버렸다.

뒤로 벌렁 넘어졌던 린수로인이 다시 일어나 아전에게 달려들려 할때에 대청의 장지문이 드르르 열리였다.

맨상투바람에 하이얀 버선발로 사또가 대청마루에 나왔다.

비대한 몸에 두볼이 처진 그는 쳐다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숨가쁨을 느낄만큼 씩씩거렸다.

린수로인은 허리를 굽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린수로인은 한발 앞으로 나서며 《김가촌에서 사또의 옳은 처분을 받으려고 외람되게 왔습니다.》라고 하고는 또 허리를 굽혔다.

사또는 송곳끝으로 찔러놓은듯 한 실눈으로 내려다보며 숨이 차 씩씩거리다가 쉰 목소리로 말하였다.

《듣거라, 백성의 본분은 나라의 정사를 받드는데 있으니 관가의 처사를 따르는데 전심할지어다.》

《외람된 말인지 모르겠으나 외인들에게 나라가 유린되지 않도록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지켜내야 하는것이 백성의 본분인가 합니다.》

《무엇이 어쨌다구?》

사또는 발끈 성을 내며 버선발로 마루를 굴렀다.

《사또께서 넓으신 덕으로 우리의 청원서를 다시 고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발칙하게 무슨 잔말인가?》

목에 피대를 세워 호통친 사또는 아전을 돌아보며 당장 끌어내라고 령을 내렸다.

린수로인은 아전들에게 두팔을 붙잡히운채 끌려나갔다.

아전들은 린수로인을 대문밖으로 끌어다 내던졌다.

돌층계로 굴러내린 린수로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말았다.

린수로인이 관가의 하인노릇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의식을 회복한것은 밤이 퍼그나 깊었을무렵이였다.

린수로인의 의식이 회복된 뒤 하인은 음식상을 차려놓고 권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로인장은 무엇때문에 헛수고를 하십니까. 지금쯤은 아마 로인장네 선산의 솔밭이 결딴났겠수다.》

《결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린수로인은 뜻밖의 소식에 놀라 벌떡 일어나앉으며 되물었다.

《양인놈들이 말썽없이 찍겠다구 쪽발이놈들을 쉬나문명 데리고 날이 어두운 다음에 솔밭으로 간다고 합디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이자 그쪽에 나갔다온 한 아전이 와서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속았구나!》

린수로인은 그제야 미국놈에게 속히운것을 알게 되였다.

미국놈은 원체 파렴치하고 음흉한 날강도들이라는것을 들어왔고 또 자기도 마을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여왔지만 이렇게 일을 당할줄은

생각하지 못했던것이였다.
  린수로인은 자리를 박차고 마을을 향하여 떠났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여서 지척을 분간할수 없었고 게다가 놈들의 도끼날에 소나무가 처참하게 찍히우는 광경이 안겨와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듯 하여 걸음을 제대로 옮길수 없었다.
  그는 몇걸음 못 내디디고 엎어지고 딩굴다가는 다시 일어나 허둥지둥 달리고 또 달리였다.
  마을이 가까와지자 그는 솔밭으로 향한 지름길에 들어서서 곧장 산발로 올랐다.
  경사진 산길로 오르려니 숨이 탁탁 막히였고 다리가 더 뻣뻣해졌다.
  돌부리와 풀대를 두손으로 쥐여당기고 안깐힘을 쓰면서 산정에 올라 솔밭을 내려다보니 아니나다를가 솔밭은 온통 홰불바다를 이루었다.
  순간 린수로인은 기가 막히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하지만 저 횡포무도한 놈들에게 순순히 소나무를 찍어가도록 놓아둘수는 없었다.
  린수로인은 두주먹을 부르쥐고 이를 갈면서 솔밭으로 뛰여내려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솔밭에 이르니 도끼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사방이 조용했다.
  놈들이 벌써 다 찍어놓았는가?! 주위를 둘러보니 찍어넘어진 나무는 한그루도 없었다.
  그럼 놈들이 홰불을 들고 나무곁에 서서 무엇을 하고있는가?
  린수로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가까이 가서 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홰불을 들고있는것은 놈들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이였다.
  춘구로인은 두팔로 나무를 그러안았고 그옆에는 그의 마누라와 린수로인의 손자인 치복이, 순천집며느리 남녀로소 할것없이 마을사람들이 다 떨쳐나와있는것이였다.
  린수로인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여보게, 춘구!》
  린수로인은 춘구로인에게 달려가 그를 포옹했다.
  《린수! 미국놈과 쪽발이놈들이 쫓겨갔네!》
  춘구로인의 두볼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린수로인이 물었다.
《아버님이 늘 양인놈은 음흉한 도적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아버님이 떠난 뒤에 우리 젊은이들이 번을 나누어 지켰지요 뭐.》
어느 사이에 모여들었는지 한손에 홰불을 들고 다른 손에 낫, 괭이, 도끼, 몽둥이를 든 마을사람들속에서 만걸이가 대답했다.
《저 애들이 놈들이 왔다는 신호로 꽹과리를 치자 모두 달려와 어제 자네가 하던대로 하니 놈들이 기겁해서 줄행랑을 놓더군.》
춘구로인이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여보게들!》
린수로인은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힘있게 말했다.
《우리 마을의 솔밭을 우리들처럼 아끼고 사랑해나설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누구도 바랄게 없고 어떤 힘도 믿을게 없네.》
동녘에 해가 솟아올랐다.
찬란한 해빛이 푸르른 솔밭을 누비며 퍼져갔다.
린수로인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이 아침 류달리 푸르러보이는 소나무숲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김 정 설

우연한 기적

김진사는 그동안 몇해째 아들의 혼담이 이상한 소문으로 해서 될듯 말듯 하며 되지 않으니 《이제는 아마도 내 대에 절손(자식의 대가 끊어지는것)이 되나부다.》 하고 한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이번엔 뜻밖에 혼담이 수월히 되여 잔치날까지 받아놓았다. 이제는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출것이고 또 잔치준비를 한다고 안팎으로 들락날락 돌아칠텐데 웬일인지 그는 요즈음 방안에 꾹 들어박혀 밖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인지 자기 안해와 더불어 의논하기를 이틀이나 계속하였다. 그러던 김진사는 미간을 잔뜩 찌프리고 병이 더 심해진 아들의 방에만 뻔질나게 드나드는것이였다.

그의 아들 경환은 더없이 소중한 외아들이라 그야말로 쥐면 꺼질가, 불면 날가 애지중지 키워왔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까닭없이 눈섭이 빠진다고 하더니 석쉼한 목소리로 귀에서 소리가 난다, 몸에 벌레가 기는듯 하다고 연해 이상한 소리만 하였다. 요즈음은 얼굴빛이 검붉어지고 밤알 혹은 대추씨만큼한 헌데가 무수히 나와 흉측하기가 이를데 없이 되였다.

김진사는 천석군이란 말을 들어오나 천석은 채 못되고 수백석은 실히 되는지라 대를 이을 아들의 병치료에 돈을 아끼지는 않았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아도 점점 더해서 그는 아주 자리에 누워버렸다.

아무리 보아도 아들의 병은 심상치 않았다.

그동안 숱한 의원들을 데려다 보였는데 보고나면 의례히 《나는 아직 의술이 미숙해서 무슨 병인지 모르겠군. …》 하고 돌아갔다.

김진사는 아들의 병이 심상치 않은 병인줄 모르지는 않았다. 되여가는것이 꼭 천형병(문둥병)같았다. 그러나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마 내 아이가 그런 못된 병에야…》 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군 하였다.

하루는 먼곳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청해왔다.

의원이 아들 경환의 병을 보고 나앉기 바쁘게 《의원어른!》 하고

존대스럽게 불렀다.
여느때같으면 진사쯤 되는 그가 의원에게 깍듯이 존대할리 없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무슨 병인가요. 고칠수 있겠지요?》
의원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는 경환의 얼굴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자기가 가지고온 꾸레미속에서 보풀이 인 책 한권을 꺼내들었다. 그는 펄럭펄럭 책장을 번지더니 한곳에 눈길을 멈추고 읽어내려갔다.
김진사는 의원의 등뒤로 가서 그가 읽어내려가는 대목에 눈을 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대풍창 혹은 천형병이라고도 한다.
대풍창은 사백네가지나 되나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첫째 황풍, 둘째 청풍, 셋째 적풍, 넷째 백풍, 다섯째 흙풍이니라.
이 병은 충(균)에 의해 생기며 충이 간을 침범하면 눈섭이 빠지고 페에 침범하면 코가 내려앉고 비장을 침범하면 음성이 갈리며 신장에 침범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살이 꽛꽛해지고 무감각하며 얼굴에 밤알 혹은 대추씨만큼한 헌데가 무수히 나니 보기 매우 흉하니라.

여기까지 읽어내려가는 동안 김진사는 몇번이나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역시 경환이의 병은 문둥병이였단 말인가. …)
김진사는 풀이 죽어 의원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의원어른, 저자식이 죽으면 우리 집은 대가 끊어지고마오. 어떻게든 꼭 좀 살려주시오. 저 얼굴의 헌데라도 좀 없애주시오.》
의원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열었다.
《흙풍을 내놓고는 더러 낫기도 한다라고 씌여있으니 어디 약을 써보십시다.》
그는 곧 약방문을 써내려갔다.
의원은 붓을 놓고 다 쓴 약방문을 김진사에게 주며 《여하튼 몇번 써보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난처한듯이 잠간 서성거리다가 돌아갔다.
김진사는 의원의 말이 애매하고 약방문도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자

기가 직접 약을 구하여 손수 환을 지었으며 그렇게 만든 약을 정성껏 먹이군 하였다.
그러나 아들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고 점점 더해만 갔다.
아들의 병을 고치고 장가들여 절손을 면하자던 김진사의 생각도 이제는 거의 절망적이였다.
그것은 병이 더해가는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김진사가 듣는데서까지 《천석군, 만석군이면 뭘해요. 누가 문둥이에게 딸을 주겠소.》 하고 꺼리낌없이 말하기때문이였다.
그래서 김진사내외는 꼼짝없이 자식없는 귀신이 되였다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였다.
그러던것이 이번에 하늘이 도와서인지 이웃고을에 사는 송아무개네 집에서 청혼을 해왔다.
그동안 김진사는 사람을 이웃고을에 보내여 자기 집과 혼인을 하면 잔치에 드는 비용은 이편에서 다 담당할것이고 또 처녀집이 가난하면 땅마지기도 마련하여주어 살게 해주겠다는것을 알리게 하였었다. (물론 아들의 병은 말하지 않기로 하고.)
처녀의 집에서는 신랑집이 집안도 괜찮고 또 천석군이라는 말에 혹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딸을 주기로 하였다.
김진사는 이 통혼을 받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며 곧 사주단자를 보내면서 처녀집식구들의 환심을 사느라고 적지 않은 돈과 천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서로 선을 보는 일도 없이 잔치날을 정해버렸다.
김진사는 다시 얻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를 놓칠가봐 벌벌 떨었다. 그는 어물어물하다가 신부집에 아들의 소문이 들어가서 혼사가 또 틀어지기나 하면 어쩌랴싶어 부랴부랴 서둘러 혼인날까지 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잔치날을 받아놓은 날부터 아들 경환은 병이 더하여 아주 자리펴고 누워버렸다.
여느 병같으면 앓으면서도 성례를 할수도 있고 정 심하면 날자를 미룰수도 있으련만 경환의 경우는 그럴수도 없었다.
김진사는 너무도 애가 타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하늘도 무심하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잔치날은 박두했는데…》

그리하여 김진사는 혼인날을 닷새 앞두고 방에 들어앉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남에게 초췌한 얼굴을 보이고싶지도 않거니와 조용히 들어앉아 무슨 좋은 방도를 생각해내려는것이였다.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잔치를 치를수는 없을가?》

그러나 그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주기 전에야 그런 요술에 가까운 방도가 있을리 없었다.

날자는 빨리도 흘러 또 이틀이 지나니 잔치날이 이제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대사를 사흘 앞둔 날 아침에 김진사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으니 그는 바로 하면장의 아들이였다.

면장 하상기와는 친분이 있어 자주 래왕이 있으나 그의 아들이 찾아오는 일은 별로 없던 일이였다.

《진사어른,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하상기 아들의 인사를 받은 김진사는 좀 괴이쩍게 생각하며 뜰아래 서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네가 어떻게 왔느냐?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하면장 아들은 주저주저하며 방안으로 들어왔다.

《너희 아버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라도 가지고왔느냐?》

김진사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올시다. 제가 아버님도 모르시게 찾아뵈올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나서 말을 이었다.

《여쭙기는 렴치 없습니다만 돈 삼천냥만 돌려주시면 저희 집이 멸문지화를 면하겠습니다.》

멸문지화란 말에 깜짝 놀란 김진사는 《무어, 멸문지화?!》 하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면장 아들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하면장은 면장을 하면 생기는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뢰물을 먹이고 그 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커녕 있던 땅마지기마저 다 팔고 식구들도 먹여살릴 길이 없게 되였다. 이래저래 곤궁하게 된 그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공금을 투기에 밀어넣었고 그것이 잘 맞지 않아 마침내 삼천냥의 구멍을 내게 되였다.

공금을 횡령한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필연코 옥에 갇히게 될것이고 온 식구들은 다 흩어져야 될것이니 미상불 큰일이였다.
하면장이 면내에서 그 많은 돈을 변통할만 한 집은 김진사네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전에도 종종 렴치없는 말을 했으니 이제 또 그런 말을 어찌하랴싶었다.
침식을 전폐하다싶이 하고 고민하던 하면장은 어떻게 하든 이 일을 수습하리라 결심하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순욱을 불러앉혀놓고 거액의 공금을 쓴 사실을 이야기한 후에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애비로서 네게 이런 말을 하기는 차마 못할짓이다마는 사정이 하두 절박하니 어찌겠느냐. 너도 알다싶이 김진사와 나는 가까운 사이고 또 그 많은 돈을 돌릴만 한데는 그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애비는 수차 미안한 말을 하였으니 이제 또 무슨 렴치에 청을 하겠느냐. 그러니 네가 김진사를 찾아가서 이 애비의 딱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네 말로 돈을 돌려달라고 해보아라. 그러면 자식이 애비를 생각하는 그 정성에 감동되여 김진사가 응할수 있을게다. 네가 집안을 생각해서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순욱은 이 말을 듣고 앞이 캄캄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나이 열아홉이 되도록 이런 일을 한 일도 없고 또 그토록 많은 돈을 취해달라고 김진사에게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공금을 횡령한것이 드러나면 아버지는 죄인이 되고 집안이 하루아침에 폭 망해버릴것은 뻔하였다.
이렇게 되여 순욱은 단단히 결심하고 김진사의 집을 찾아오게 되였다.
김진사는 순욱의 긴 이야기를 듣고 물었다.
《그래, 돈이 얼마라구?》
《삼천냥이올시다.》
《음, 삼천냥이라. 적지 않군. …》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던 그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다. 그래야지…》
김진사는 순욱의 얼굴을 얼핏 살펴보고나서 분명하게 말끝을 맺었다.
《그래, 주지.》
《네, 주시겠습니까?》
《여느 일 같으면 못 주겠다만 네 정성이 하도 기특하여 돌려주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런데 돈은 주겠다만 내 네게 청이 하나 있다. 좀… 좀… 들어주겠느냐?》
《네, 무슨 부탁이신지 들어드리다뿐이겠습니까. 진사어른께서 저희 집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선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다른게 아니라…》
김진사는 말을 꺼내기 몹시 난처해하며 《이건 정말 말하기 부끄럽다마는…》 하고는 이런 청을 하였다.
먼저 아들의 병이 남이 꺼려하는 문둥병인것 같다는것과 그때문에 혼사문제가 매양 틀어지고틀어지고 하다가 이번에 하늘이 도와서인지 겨우 혼사가 성립되여 잔치날까지 받아놓았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나서 아들의 병이 수일전부터 더해지더니 얼굴의 종기가 버썩 성하여 그 얼굴로는 도저히 혼례를 치르러 갈수 없게 되였다는것 그리고 이번 이 혼사자리를 놓치면 다시는 그만이고 그렇게 되면 대가 끊어지고마니 이 아니 슬픈 일이냐고 하였다.
그러더니 김진사는 갑자기 말을 몹시 더듬었다.
《네… 네가 내… 내 아이 대신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지내고 신부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 일까지만 해주면 어… 어떻겠느냐? 다행히 신부집에서 우리 경환이의 선을 보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김진사의 긴말을 다 들은 순욱이가 난색을 지었다.
《그런데 신방을 꾸밀테니 그 아니 딱하오니까?》
《응, 그건 도리가 있지, 별안간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억지로 한방에 들라지는 않을게다.》 하고 김진사는 순욱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순욱은 얼른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로서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김진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삼천냥 돈이 틀어질것 같고 신부를 신랑집까지 데려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승낙하고말았다.
《그럼 돈은 내 곧 보낼테니 그리 알고있거라. 그런데 참, 이번 일은 너와 나만이 알고있자. 물론 후행가는 사람과 우리 가족들은 알고있어야 하겠지만…》
김진사는 뜻밖에도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지라 오래간만에 싱글벙글

웃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예정대로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는데 잔치에 온 손들이 모두 신랑이 잘생겼다고 칭찬하니 송씨집에서는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사위가 별안간 몸이 불편하여 신방을 꾸미지 못한것은 문제도 아니였다.

3일을 곱게 치른 후 신부를 데리고 김진사집으로 온 순욱은 바삐 뒤문으로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시집으로 와서 례물을 드리고난 날 밤, 신부는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놀랐다.

신부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며 신방에 들어갔을 때 백년가약을 맺고 초례를 지낸 신랑은 간데 없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흉측한 얼굴의 사나이가 병상에 누워 자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까무라칠 지경으로 놀라 서있는 신부에게 김진사는 팔자로 여겨달라고 사정사정하였다.

김진사의 생각은 며느리를 데려다놓고 사정을 하면 초례까지 지냈으니 제가 어찌랴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신부의 생각은 달랐다.

남편이 흉한 병자라는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 례를 갖추어 하늘에 맹세한 랑군이 따로 있게 되였으니 이것은 도의에 어긋나는것이고 또 김진사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시집간지 사흘만에 또 다른 랑군을 맞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

이렇게 생각하며 신부는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 불이 꺼진듯 조용해진 김진사네 집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다.

새 며느리가 밤중에 도망갔다.

김진사는 다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는 돈 삼천냥만 잃은셈이 되였다.

신부의 집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다. 속은것이 분하고 괘씸하기도 하거니와 딸에게 흠이 생긴것이 절통하였다.

딸은 아버지에게 초례 지낸 신랑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렇게 하는것이 두 집안 창피도 면하고 또 자기가 응당 취해야 할 길이라고 똑똑히 말했다.

딸의 말이 사리가 정연하므로 부모도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랑을 찾기로 하였다.
어설픈짓을 하고 맹랑한 처지에 이른것은 김진사네였다.
며느리는 얻지도 못하고 돈 잃고 창피당하였으나 누구에게 하소할 일도 못되였던것이다.
김진사집 사람들은 모두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였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하면장네 부자도 걱정이 많았다.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은 껐으나 김진사네 청을 들어주는것으로 신세 갚음하자던것이 일이 뜻대로 안되고보니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더우기 송씨집에서는 김진사아들대신 왔던 신랑이 하면장 아들이라는것을 알아내여 강경한 항의를 들이댔다.
경우가 경우니만치 어쩔수가 없었다. 잔치는 이미 치렀으니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셈이였다.
만일 김진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기결혼공모자로 될것이라 순욱은 어쩌는 수없이 신부집 요구대로 그 신부에게 장가들게 되였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순욱이의 누이동생 순희가 아버지앞에 와서 무릎을 단정히 꿇고 말했다.
《아버지! 소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듣자오니 이번 일에 우리나 송씨댁에서는 그저 잠간 창피를 보신것뿐이오나 김진사어른이 제일 딱하고 가엾습니다. 그 어른의 돈이 아니더면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그 어른이 우리 집을 살려주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오리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집 형편은 폈고 또 그 댁 부탁도 들어준셈이라고 물러앉는다면 도리가 아닐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남의 비난을 받게 되며 하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듣고보니 네 말이 옳다마는 아무리 생각해야 도와줄 방도가 없지 않느냐?》
《아버지, 김진사어른은 며느리를 맞으시면 되겠지요?》
《그야 그렇지.》
《그럼 소녀가 그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에 하면장은 화닥닥 놀라며 《뭐야! 네가 문둥이 계집이 되겠다는거냐?》 하고 딸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순희는 굽히지 않고 정색하여 말하였다.

《아버지, 사람이 의리를 모른다면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신의가 밝은 나라라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댁에서 우리를 사지에서 구원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이 딸자식 하나 없는셈 치시고 저를 그 댁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아버지는 의리를 아는 사람으로 되십니다. 또 그러시지 않고서야 마음이 괴로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딸의 그 말을 듣고 하면장은 고개를 푹 수그리며 한숨을 내쉬였다.

…

김진사는 하면장이 자기 딸을 며느리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고맙고 또 의리있는 그의 행동에 감동되여 눈물까지 흘리였다.

어제까지도 죽은듯 고요하던 김진사네 집은 갑자기 활기를 띠였다. 김진사일가는 웃음꽃이 활짝 핀 가운데 하면장의 딸 순희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김진사의 그늘졌던 얼굴이 환해지고 주름살들도 펴이는듯싶었다. 그는 자진하여 들어온 며느리가 너무도 귀하여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였다.

남편 경환이 또한 만족해하며 잠시도 순희가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병은 순희가 들어온지 석달째 잡히자부터 더 중해져서 모든것을 단념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까지 이르렀다.

약도, 순희의 지극한 정성도 다 소용이 없었다. 종처가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흉하게 된 경환이의 방에는 누구나 들어가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오직 순희만은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를 간호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순희는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였다.

이날 경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안해인 순희도 잘 몰라보고 헛소리를 하군 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어리여있었다.

순희는 남편에 대해 별로 애정을 느낀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 집에 들어와 그를 간호하는 동안 못된 병에 걸려 병상에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는 그를 무척 동정하게 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자! 순희는 이렇게 결심하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다. 그토록 애를 썼건만 남편의 죽음은 어느새 문턱에까지 다

가왔다.

순희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졌다. 팔자가 기박하여 못된 병에 걸린 남편을 살리지도 못하니 살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남편을 따라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순희는 몸에 지니고있던 비상을 꺼내였다.

녀자로서 용납 못할 굴욕을 당하였을 때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몸에 지니고있던 약이였다.

순희가 그것을 물에 타서 막 마시려는 순간 문득 집에서 자기를 생각하며 걱정하고있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약대접을 도로 방바닥에 내려놓고나서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뒤동산에 올라가 멀리 친정쪽을 향해 마지막하직인사라도 하고싶었던것이다.

동산에 올라보니 밤은 깊어 고요한데 휘영청 밝은 달은 온 누리를 비치고있었다.

순희는 멀리 친정집이 있는쪽을 향하여 깊이 허리굽혀 절을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일찍 곁을 떠나는 이 딸을 용서하세요. 소녀는 전생에 죄많아 병든 남편을 만나고 또 정성도 부족하여 남편을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죄많은 소녀는 이 세상을 하직하려 하오니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입속으로 조용히 이런 말을 하고 땅에 폭 어푸러져 슬프게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울고난 그는 옷매무시를 단정히 바로잡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올린 다음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병자가 있는 방으로 돌아온 순희는 남편의 머리말에 빈 대접이 있는것을 보고 소스라쳐놀랐다. 남편이 독약을 넣은 물인줄 모르고 들이마신것이 틀림없었다. 순희는 어쩔줄 몰라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때 놀랍게도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제법 생기있는 목소리로 《물 좀 주우.》 하고 말했다.

순희는 신기하게 생각하며 급히 밖으로 나가 물을 떠다 입에 대여주니 그는 한모금 마시고나서 《아니, 아까 그 물 좀더 주오.》 하고 순희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까 먹은 물이란것은 비상을 탄 물이였다. 비상이 더 없기도 하려니와 그것을 알고야 어찌 먹이랴.

《아까 무슨 물을 먹였기에 저 애가 그것만 찾느냐? 무엇인지 먹고 싶다는대로 주려무나.》 하고 마침 방안에 들어와있던 시아버지가 말했다.

순희는 하는수없이 비상을 물에 타놓고 밖에 나갔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가 순희를 밖으로 데리고나간 김진사는 휘파람소리를 내며 속삭였다.

《이 애, 어서 그 약을 더 타주어라. 비상은 사랑방에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여느 사람이 먹으면 죽되 그런 병을 가진자가 먹으면 약이 되나부다. 설사 그 약을 먹고 죽은들 기왕 구하지 못할 자식이니 안될것 없다.》

며느리가 어찌할바를 몰라하는것을 보고 그는 곧 방으로 들어가 비상을 꺼내왔다.

시아버지에게서 비상을 받아든 순희는 무엇인가 깨달은바가 있어 그것을 물에 조심스럽게 풀었다.

이윽고 비상을 푼 물그릇은 경환에게로 넘어갔다. 경환은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자 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경환의 얼굴과 몸에 있던 종창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그의 건강이 눈에 뜨이게 회복되여갔다.

김진사가 곤경에 처한 하면장을 구해주니 하면장집에서도 그 역시 은혜를 몇곱으로 갚았다. 그러나 의리를 가장 중히 여기는 순희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것이였다. 사람들은 순희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지극한 정성이 두 집의 불행을 가셔주고 다 죽게 된 목숨도 살린것이라고 서로 전하며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권 영 희

위장산 바위장군

임진조국전쟁때 있은 일이였다.

남쪽 동해가마을사람들은 왜적들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가 오를 때마다 닥쳐오는 불행앞에서 불안에 싸이군 하였다.

왜적들은 남해가마을에 기여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불지르며 재물을 빼앗아내였다. 그러나 나라와 백성의 운명보다 자기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당시 봉건통치배들은 저희들만 살겠다고 뿔뿔이 도망치고있었다.

서산의 저녁노을이 붉게 비낀 어느날 저녁 한 장대한 사나이가 북쪽으로 뻗은 길섶의 둔덕에 올라 기우뚱거리는 가마와 하늘소를 탄 량반들의 행차를 쏘아보고있었다.

《에잇, 쳐죽일 놈들… 고약한 놈들…》

그 사나이는 두주먹을 으스러지도록 불끈 틀어쥐고 치솟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 고장에서 《바위장군》이라고 불리우는 신규년이였다.

그날밤 신규년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 오래 의논하였다.

날이 밝자 그의 집앞에는 난데없는 군사 이백여명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어제까지 농쟁기를 들었던 손에 무기를 벼려들고 사방에서 달려온 의병들이였다.

이날 달려온 군사들의 의견에 따라 바위장군은 의병장이 되였다.

신규년은 군사들을 정렬시키고 말에 올라 첫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농사를 지어오는 농민들이다. 지금 오랑캐가 침노하여 나라의 운명은 위기에 들었고 동포들도 도탄에 빠졌다. 우리들은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누구도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라. 죽기를 각오해야 살수 있고 적을 이길수 있다. 우리는 지금 곧 왜적을 치러 출동한다.》

그의 출동명령이 내리자 의병들은 일제히 무기를 든 손을 공중으로 추켜들고 웨쳤다.

《나라를 위해 이 한몸을 바치기를 맹세하오!》

군사들의 의기는 충천하였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섰던 마을의 늙은이와 아낙네들도 온몸에 힘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늙은이들은 서로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위장군이 참으로 대장재목이야!》
《훌륭한 대장이구말구… 아마 그 사람이 스무살때 일인가보오. 왜놈해적들이 농민들의 재물을 로략질하러 달려들었을 때 밭가운데 박힌 바위를 번쩍 들어던져 칠팔명을 깔아죽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바위장군이라고 불러오지 않나!》
《참, 그랬지!》
신규년부대가 녕해의 서읍령마루에 도착하였을 때는 동틀무렵이였다. 령마루아래마을을 내려다보던 한 대원이 별안간 《대장님, 산아래마을에 왜병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적정을 더 세밀히 알아본 신규년은 불의에 기습하여 왜놈들을 요정낼 작정을 하였다.
《저놈들을 치자! 한놈도 남기지 말고 깡그리 잡아치우라!》
신규년대장은 우렁찬 목소리로 령을 내렸다.
세 부대로 나누어 쳐들어간 의병들은 왜놈들을 몰살시키고 수십명의 왜놈들을 붙들었다.
신규년은 왜적들이 로략질해다둔 량곡을 마을 한곳에 쌓아두고 마을사람들이 돌아오면 량식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나서 적포로들을 한데 모아놓고 호령하였다.
《너희 대장놈이 어디로 도망쳤느냐?》
《저 위장산기슭에 저희 군사 륙칠백명이 있는데 필경 대장도 그곳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포로들은 벌벌 떨며 이렇게 말하였다.
신규년은 지체없이 부대를 이끌고 위장산으로 향하였다.
위장산령마루에 도착한 신규년은 날래고 용감한 의병 몇명을 선발하여 적의 동태를 알아오게 하였다.
선발군사들은 산을 내려간지 얼마 안되여 놈들이 군량부족으로 곤난을 겪고있다는것을 내탐하여가지고 돌아왔다.
적의 허실을 알게 된 바위장군은 새로운 묘책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소가죽을 태워 그 냄새로써 굶주린 적들을 유인하여 소탕하려는것이였다.
(이리는 고기를 보면 죽을 곳도 모르고 달려드니까!)
신규년은 빙그레 웃었다.
이튿날 동틀무렵 위장산 한 골짜기에서는 소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때마침 솔솔 부는 새벽바람에 풍겨 골짜기아래로 내려갔다.

이윽고 예측한대로 굶주린 적들이 골짜기로 기여오르기 시작하였다.

골짜기우에서 군사들과 같이 적들이 몰켜오르고있는 광경을 내려다보고있던 신규년은 무릎을 탁 쳤다.

(옳다! 되였구나. 놈들이 내 올가미에 들었다.)

적들의 선봉이 골짜기우에 거진 다달았을 때 신규년은 돌벼락을 퍼부으라는 령을 내렸다.

의병들은 큰 바위를 내리굴렸다. 구는 돌은 박힌 돌을 빼굴리며 내려갔다. 돌은 돌과 서로 맞부딪쳐 산산이 부서지면서 왜놈들에게로 날아들었다.

《좀더 힘껏 집어던져라!》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은 의병들은 작은 돌, 큰 돌, 바위돌 할것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던지고 굴렸다. 하늘에서 돌비가 내리는듯 골짜기안은 뽀얗게 흙먼지로 가득찼다. 천군만마가 내달리는듯이 쏟아져내리는 돌사태에 놈들은 조총도 한번 쏘아볼 사이가 없었다.

허리가 부러진 놈, 어깨가 떨어져나간 놈, 팔다리가 부러진 놈, 놈들은 미친듯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신규년이 손을 높이 들고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라는 령을 내리려고 할 때였다. 문득 《탕!》 하고 한방의 조총소리가 나자 신규년은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적패잔병 십여명이 덩굴속에 숨어서 쏜 총에 그만 허벅다리를 맞았던것이다.

신규년은 벌떡 일어나서 황소만 한 바위를 번쩍 들어 놈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때에 다시 《탕!》 하고 조총소리가 재차 들려왔다.

신규년은 그만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나는 가망없다. 왜적을 무찌르려고 생각했더니… 아, 통분하다!》

위장산공격전투의 용사 바위장군 신규년은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분기충천한 의병들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노도처럼 내달렸다.

왜적들은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조선의 바위장군, 바위부대가 제일 무서워!》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후 불사신인 바위장군에 대한 소문은 왜적들속에서도 널리 퍼졌다.

그때로부터 왜놈들은 바위가 많은 산기슭을 지날 때마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고 한다.

달녀와 사슴

땅거미가 찾아드는 버들강물결우에 처량한 달빛이 차거웁게 비쳐드는 저녁이였다.

우수수 찬바람에 락엽이 흩날리는 강가 느티나무밑에 한 나어린 소녀가 쪼그리고앉아 애처롭게 울고있었다. 어데선가 들려오는 접동새의 울음소리가 어린 소녀의 슬픔을 한층 더 보태주는듯싶었다.

소녀는 지친듯 이젠 더 울지도 못했다. 다만 이따금 두어깨만이 조용히 오르내릴뿐이였다.

그런데 이때 그의 곁으로 누군가 사뿐사뿐 다가오고있었다.

그것은 점박이사슴이였다.

《얘야, 넌 누군데 왜 그리 슬피 우니?》

소녀는 그 소리에 와뜰 놀라 와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얘야, 놀라지 말아. 난 사슴이란다.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하려마. 내가 널 도와줄지 아니.》

사슴의 목소리는 저으기 부드러웠다. 소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듯 다시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으며 《그런데 넌 어떻게 되여 여길 왔니?》 하고 물었다.

《응, 버들강에 물먹으러 내려왔다가 네가 너무 슬피 울기에 찾아왔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니?》

사슴은 소녀를 측은히 바라보며 물었다.

《사슴아, 난… 난 앞을 못 봐. 앞 못 보는 소경이 됐어, 흑흑…》

소녀는 또 슬프게 우는것이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앞을 못 보다니?》

사슴은 소녀의 피멍이 진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와뜰 놀랐다.

《아니, 어찌다가 이렇게 눈을 상했느냐. 끔찍두 하구나, 얘!》

사슴은 두눈이 둥그래가지고 못내 가슴아파하였다.

소녀는 자기가 어떻게 되여 눈을 상하게 되였는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름은 달녀라고 했다. 그는 욕심사납기로 소문난 왕도투놈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다.

그놈이 어찌나 욕심쟁이이고 심보가 고약했던지 사람들은 그놈을 지주라고도 부르지 않고 왕도투라고 불렀다.

왕은 그놈의 성이였고 도투는 그 마을에서 돼지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였다.

탐욕스럽기 이를데 없는 왕도투놈은 농민들의 땀을 짜내여 극악스레 재물을 모았다.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를 꿈꾸는 놈이였던것이다.

그런데 왕도투놈한테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좋다는 약은 별의별걸 다 써봤지만 모두 헛일이였다.

이 세상에 그놈의 눈을 밝혀줄 약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어이쿠, 내 신세야. 이 일을 어찌하누! 빚문서와 토지문서를 보지 못하구서야 어떻게 재물을 모은단 말인고. …》

왕도투놈은 매일 가슴을 쥐뜯으며 지랄쳤다.

그런데 어느날 왕도투놈은 향솔산에 가면 신기한 옹달샘이 있는데 그 샘만 찾으면 소경도 눈을 뜬다는 소리를 듣게 되였다.

왕도투놈은 당장 달녀를 불렀다.

그리고 향솔산에 가서 옹달샘을 찾아 물을 길어오라는것이였다.

달녀는 길도 모르는 그 험한 산으로 어떻게 가겠는가고 말했다가 죽도록 매만 맞았다.

달녀는 향솔산을 찾아 방향없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지만 그 신기한 샘을 어린 달녀가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깊고깊은 산속을 헤매이다가 달녀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온 달녀를 보더니 지주놈은 노발대발하며 또 산으로 내쫓았다. 달녀는 지친 다리를 끌며 산에 다시 올랐다. 암만 찾고찾아야 그런 신기한 샘은 볼수가 없었다.

가시덤불에 찔리고 찢기우고 벼랑우에서 굴러 몸은 말이 아니였다.

달녀는 며칠후에 할수없이 또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지주놈은 성이 독같이 올라 달녀한테 뭇매질을 했다.

어데 가서 놀다가 왔다는것이였다.

연약한 달녀는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채찍에 얻어맞은 두눈은 피멍이 퍼렇게 졌고 동자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아침까지만 해도 달녀는 이렇게 자기가 앞 못 보는 소경이 되리라

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앞 못 보게 된 달녀가 더는 쓸모가 없이 되자 지주놈은 집에서 쫓아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놈도 다 있구나!》

사슴은 달녀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몸을 부르르 떠는것이였다.

사슴은 달녀를 안아일으키며 말했다.

《얘야, 불쌍한 얘야, 나하고 함께 가자꾸나. 내가 네 눈을 다시 띄워줄게.》

사슴은 눈먼 달녀를 등에 태우고 마을을 떠났다.

사슴이 사는 곳은 열고개너머 향나무숲이 우거진 깊은 산속이였다.

사슴은 옥류봉기슭의 키낮은 향나무밑으로 달녀를 데리고 갔다.

향나무밑에는 자그마한 옹달샘이 하나 있었다. 은빛안개가 서서히 서려도는 샘터에서는 알지 못할 향내가 코를 찔렀다.

《자, 여기 내려. 이게 바로 그 신기한 샘이야. 이 샘터는 나밖에 몰라.》

사슴은 달녀를 샘터 옥돌바위에 앉게 했다. 그런 후에 쪽빛의 정갈한 샘물을 한옹배기 떠서 마시게 하였으며 그것으로 상처입은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피멍이 진 온몸도 깨끗이 씻어주었다.

《아니?!》

달녀는 놀랐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온몸이 금방 나은것같이 거뿐해진것이였다.

사슴은 이번엔 그의 눈을 샘물로 씻어주었다.

《어때, 보여?》

그러나 달녀는 대답이 없었다.

모든게 예나 다름이 없이 캄캄하기만 하였다.

《야, 어떻게 때렸으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담.》

사슴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슴의 가슴에도 지주놈에 대한 증오가 더욱 끓어올랐던것이다.

사슴은 달녀를 자리에 눕힌 다음 눈을 벌리고 가랑잎에 샘물을 담아 몇번 떠넣어주었다.

이렇게 몇번을 거듭하는데 달녀가 갑자기 눈을 끔뻑끔뻑하더니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웨쳤다.

《보여! 얘 사슴아, 보이누나! 아!》

달녀는 너무 좋아 어린애처럼 사슴을 붙들고 통통 뛰였다.
정말 신기한 샘물이였다. 달녀는 사슴이 정말 고마왔다. 그의 까만 두눈은 눈물을 머금고 반짝이였다.
달녀는 빨리 집으로 가고싶었다.
집에는 앓아누운 아버지가 있었던것이다. 사슴은 달녀를 산어구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다시 만날 일이 생기면 또 버들강가 느티나무밑에서 만나자고 했다.
사슴과 헤여진 달녀는 마을로 돌아왔다.
이 소식이 삽시에 온 마을에 퍼져 왕도투의 귀에도 알려지게 되였다.
《뭐… 그년이 눈을 떴다구?》
왕도투는 당장 헐떡거리며 달녀를 찾아갔다.
달녀를 보는 순간 왕도투는 굳어진듯 그 자리에 서버렸다. 희뿌옇게 흐린 제놈의 눈에도 비취보석같이 반짝이는 달녀의 두눈이 보였던것이다.
《이년이 그 신기한 샘물을 찾은게 틀림이 없구나.》
왕도투는 달녀더러 향솔산의 옹달샘이 있는 곳을 대라고 다짜고짜 들이댔다.
그러나 달녀는 왕도투를 쏘아볼뿐 대답이 없었다. 그놈한테 당한 모든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던것이다.
쌀 몇되박때문에 아버지가 매맞아 병신몸이 되였고 어머니는 영영 목숨까지 잃지 않았던가. 그리고 얼마전에는 자기의 눈까지 앗아간 이놈한테 그 신기하고 귀중한 샘물터를 알려주다니. 어린 달녀의 가슴에도 분노가 끓어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달녀는 왕도투를 노려보다가 문을 탕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저, 저년이…》
왕도투는 대바람에 성이 상투끝까지 올라 유들유들한 두볼따귀가 푸들푸들 뛰였다.
《이 괘씸한 년, 어디 두고보자!》
왕도투는 씩씩거리며 제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분했다.
고 쪼끄만 년이 감히 내앞에서 맞서다니…
온밤 잠들지 못하고 이 궁리, 저 궁리 굴리던 왕도투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무릎을 치며 일어났다.

《으흐흐… 그렇지!》
왕도투의 보기 흉한 얼굴이 무섭게 이지러졌다.
달녀는 다음날 앓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도투놈의 머슴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달녀네가 진 빚은 리자에 리자가 붙어 얼마나 되는지 몰랐던것이다. 빚진 종이라고 어쩌는수가 없었다.
억울하게 다시 머슴으로 끌려간 달녀는 그날부터 또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달녀는 지금 왕도투가 무엇을 꾀하고있는지 그 흉악한 심보는 알리 없었다. 무서운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어느날 새벽이였다.
그날따라 왕도투놈은 달녀를 일찍 깨웠다. 장밤 들볶이우다 새별이 질무렵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던 달녀는 지주놈이 흔들어깨우는 바람에 와뜰 놀라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얘 달녀야, 이젠 그만 자고 일어나렴. 오늘은 장엘 좀 갔다와야겠구나.》
왕도투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부드러웠다.
《아침이랑 어서 든든히 먹고 빨랑 갔다오렴.》
유들유들한 얼굴에 제법 상냥한 빛까지 지어보이는 왕도투를 보자 달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는것 같았다.
어린 마음에도 달녀는 그놈의 징글맞은 웃음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것이 느껴져 더럭 겁이 났다.
《너 얼굴이 몹시 어지러워졌구나. 거리에 나가겠는데 어서 세수랑 곱게 하구 나한테 오너라. 거 누구 없소? 오 여보 마누라, 어서 이 애한테 세수물이나 떠다주구려.》
지주놈은 제 녀편네더러 빨리 세수물을 떠오라고 소리를 쳤다.
정말 귀신이 곡할노릇이였다.
지주녀편네가 머슴한테 물을 떠오다니… 달녀는 무슨 영문인지 그저 뻥해있는데 지주녀편네년이 놋대야에 물을 퍼가지고 왔다.
《어서 세수하고 내 방으로 오너라.》
왕도투놈과 녀편네년이 돌아갔다.
달녀는 아무 생각없이 물에 손을 잠그었다. 놋대야의 물은 따스했다.
달녀는 손에 물을 떠서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달녀는 《앗!》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싸쥐고 돌아갔다. 눈알이 갑자기

칼로 도려내는듯이 아프고 저려났던것이다.
달녀는 너무 급해 선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쳤다.
《으흐흐… 이젠 됐구나. 필경 눈이 멀었을테지.》
문밖에 숨어있던 왕도투놈은 살기띤 웃음을 띠며 급히 사라졌다.
짐승같은 지주놈이 그 세수물에 눈을 멀게 하는 독약을 탄줄이야 어린 달녀가 어떻게 알았으랴.
《엄마! 내 눈 엉엉… 아, 나 눈 안 보여, 엉엉…》
땅을 허비며 태질하는 달녀의 울음소리가 마당가에 애처로이 울렸건만 누구 하나 머리를 내미는 놈이 없었다.
달녀는 손더듬, 발더듬하여 겨우 지주놈의 대문턱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여 불쌍한 달녀는 또 앞 못 보는 소경이 되고말았다.
달녀는 버들강가로 한치한치 손더듬해서 기여갔다.
버들강가 느티나무밑에 겨우 가닿은 달녀는 터지는 울음을 감씹으며 사슴을 찾았다. 사슴을 부르는 달녀의 애달픈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향솔산으로 날아갔다.
향솔산의 사슴은 자기를 찾는 달녀의 귀익은 소리를 알아듣고 무슨 일이 생긴것을 알아차렸다. 사슴은 급히 나는듯이 달려왔다.
사슴을 만나자 달녀는 그만 설음이 북받쳐 사슴의 목을 그러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사슴의 눈에서도 눈물이 쭈르르 방울져 흘러내렸다.
사슴은 달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분해 뽀직뽀직 이를 갈며 몸을 떨었다.
잠시후 앞 못 보는 달녀를 등에 태운 사슴은 향솔산으로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뒤를 왕도투놈이 몰래 쫓아온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달녀네는 어느덧 향솔산 옹달샘에 다닫았다. 사슴은 달녀한테 향기그윽한 샘물을 떠주었다.
왕도투놈은 향솔뒤에 숨어서 두눈을 부릅뜨고 그들이 하는 모양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봤다.
다시 눈을 뜨게 된 달녀는 사슴과 함께 오던 길을 따라 돌아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왕도투놈은 도적고양이처럼 주위를 살피며 엉기적엉기적 기여왔다.
《으흐흐… 이제야 찾았구나, 찾았어.》

왕도투놈은 당장 게걸스레 그 샘물을 마구 떠먹었다. 그리고 그 물로 눈을 문질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닌게아니라 뿌옇던 앞이 환히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약샘이였다.

《으흐흐… 됐구나, 됐어!》

왕도투는 너무 좋아 엉뎅이를 들썩거리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만하면 빚문서는 볼수 있어, 있구말구!》

눈이 밝아지자 왕도투의 가슴속에서는 욕심이 돼지여물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장리쌀에 섞인 뉘 한알이라도 모조리 찾아내자면 눈이 더 밝아야해!》

왕도투는 샘물을 게걸스레 몇쪽박 더 들이켰다. 그러자 생각대로 눈이 훨씬 더 밝아져갔다. 그러나 그놈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청에 앉아서 십리밖의 놈들을 살피자면 눈이 더 밝아야 돼! 더 밝아야 되구말구.》

왕도투는 샘물가에 넙적 엎디더니 쭉쭉 들여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것 같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왕도투는 물먹기에 정신이 없었다.

샘물을 마실수록 눈은 더 밝아져갔다. 이젠 십리밖을 뜰안 살피듯 환히 내다볼수가 있었다.

《안돼, 이 눈 가지구두 안돼. 머슴놈들을 밤에 부려먹자면 올빼미 같은 밤눈을 가져야 해, 밤눈을 말야.》

왕도투의 욕심은 정말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이젠 목구멍까지 물이 꼴깍 찼고 배가죽은 탱탱히 불어나 금시 터질것만 같았다. 조금만 움직이여도 코구멍에서 샘물이 도로 줄줄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욕심에 미친 왕도투는 또 샘물을 떠가지고 입에 갖다대였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에서 번쩍! 하고 번개불이 일더니 《툭!》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더니 눈앞이 새까매졌다.

밝아질대로 밝아진 눈알이 이젠 더 밝아질수가 없으니 그만 툭 터지고만것이였다.

《어이쿠! 이젠 망했구나, 망했어!》

왕도투는 눈을 쥐뜯으며 죽는 소리를 질러댔다.

그런데 캄캄한 눈앞에서는 시뻘건 불찌가 튕기고 귀에선 무서운 소리가 윙윙 울려왔다. 눈앞에 도깨비같은 괴물들이 나타나더니 입에 퍼런 칼을 물고 느물느물 춤을 추며 다가오고있었다.

《앗! 지옥이다! 지옥! 사람살리우!》

왕도투는 입에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더니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냅다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바위돌에 걸채여 나딩굴었다.

《아니, 저놈이?!》

집으로 돌아가던 달녀와 사슴이 왕도투를 발견하고 뛰여왔다.

그놈을 보는 순간 참고참았던 울분이 터져올랐다.

달녀는 땅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죽는 소리를 지르는 왕도투한테 돌벼락을 안겼다.

《쌀 몇되박에 어머니를 앗아가고 내 눈까지 빼으려던 이 승냥이같은 원쑤놈아! 오늘은 살아가지 못한다!》

달녀의 두눈에서 무서운 불길이 황황 타오르고있었다.

사슴도 달려들어 그 드센 뿔로 왕도투를 냅다 받아넘겼다.

《이 악하고 탐욕스럽기 이를데 없는 놈아! 재물에 미쳐날뛰는 놈들은 다 제 욕심에 망하고마는법이다!》

사슴도 성이 나니 무서웠다.

뿔에 떠받긴 왕도투는 산아래로 데굴데굴 굴러내리더니 아찔한 벼랑밑으로 떨어지고말았다.

그후 달녀는 왕도투가 없어진 마을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슴신세를 면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잘살았다고 한다.

김 정 설

돌 고 개

임진조국전쟁도 거의 끝나갈무렵이였다.

함경도에 쳐들어왔던 왜병들은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의병들과 인민들의 반격에 의하여 남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는 가등청정의 부하장수인 나베시마의 부대도 섞여있었는데 놈들이 덕봉땅에 이르렀을 때에는 거의 맥이 진했었다.

왜놈들의 이런 기미를 눈치챈 의병대장 정문부는 그때 덕봉땅에 있던 리배에게 놈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리배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큰 잔치가 벌어졌다. 놈들은 며칠씩 먹지도 못하던판이라 차려놓은 음식을 보자 환장을 할 지경으로 게걸스레 처먹었다. 게다가 특별히 독하게 만든 술에 놈들은 그만 곤죽이 되여버렸다.

놈들은 하루종일 주정질을 하였고 풀어헤친 상투를 휘날리며 로략질에 시간가는줄도 몰랐다.

이 사이에 의병들은 왜놈들이 돌아갈 길목인 고개길 숲속에 숨어들었고 지방인민들은 의병들을 도와서 바위와 돌멩이들을 령마루까지 날라다놓았다.

해가 질무렵이 되여서야 나베시마를 비롯한 왜놈들은 미친 들소무리처럼 비틀거리며 길주를 향하여 떠났다.

왜병들이 고개길에 접어들자 사방은 쥐죽은듯 고요하였고 다만 가을벌레들의 가냘픈 울음소리만이 처량하였다.

왜병놈들이 고개길에 다 들어섰을 때였다. 난데없이 고개마루턱에서 바위와 돌멩이들이 바람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피할 사이도 없이 바위돌에 얻어맞아 련이어 뒤번져졌다. 놈들은 숲속으로 황겁히 피해 들어갔다. 그러자 어둠속에서 창날과 칼끝이 숲처럼 나타나더니 놈들의 옆구리와 목덜미를 날쌔게 찌르고 잘랐다.

놈들은 그제야 계교에 걸려든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조총을 마구 쏘아대고 칼을 휘둘러댔으나 헛총질, 헛칼질을 했을뿐 잠복한 의병들의

손에 삼대처럼 쓰러졌다.

그러나 악착스러운 놈들은 의병의 력량이 좀 약한것을 눈치채고 고개마루턱을 향하여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 지방출신인 김영덕이가 주변인민들과 같이 지키고있었다. 그는 고개길에 숨어서 한놈한놈 올라오는 왜병들을 긴 창으로 찔러 고개벼랑밑으로 동댕이쳤다.

싸움은 새벽녘까지 계속되였다. 수많은 왜병들이 고개에서 녹아났으나 원래 수효가 많은 놈들은 계속 밀고올라왔다. 싸움은 점차 불리해갔다.

영덕은 줄곧 앞장에 서서 창날을 번개처럼 번쩍이며 적을 무찔렀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앗!》 하고 쓰러졌다. 교활한 왜놈 조총수가 눈에 띄게 용감한 그를 쏘았던것이다. 놈들은 이 틈을 타서 무리로 기여올라왔다.

고지는 위급하게 되였다.

바로 그때였다. 별안간 하늘에서 우뢰소리가 《꽈르릉! 꽈르릉!》 울리고 번개불이 번쩍했다. 그러더니 오색령롱한 무지개가 영덕을 비쳤다.

다음순간 영덕은 깊은 잠에서 깨여난 사람처럼 크게 하품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무지개빛발에 싸인 영덕이 휘두르는 창끝으로부터 번개같은 섬광이 번쩍이였다.

왜놈들은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무리로 쓰러졌다.

이렇게 영덕은 소생하여 의병들의 선두에 서서 세차례나 싸웠으며 접어드는 왜병들을 모조리 잡고야말았다.

놈들이 전멸되고 승리의 함성이 고개마루에 퍼질 때 또다시 우뢰소리와 함께 무지개가 비끼였다. 그때에야 영덕은 사람들의 품에 안겨 영영 숨을 거두고말았다.

그후 인민들은 이 고개마루턱에 장군총(장군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두고 조국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내려오고있다.

우릉과 소미

옛날사람들이 일러오기를 평양에는 글을 잘 짓는 문장가보다 싸움에서 이름떨친 장수들이 많다고 하였다.

흘러온 력사를 놓고볼 때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방의 오랑캐들의 침략이 멎은적이 없었으니 평양사람들에게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양을 위해서는 금수산의 절경과 명승을 노래하는것보다도 언제든지 외적을 막아 칠수 있는 무술을 익히는것이 더 필요했다.

하기에 평양사람들은 반침략의 력사와 더불어 무술을 즐겨닦았고 누가 더 능한가 서로 겨루면서 장수가 되기 위해 힘쓰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였다.

이러한 풍습이 성행하던 옛날 평양의 어느 한 농가에 열일곱살난 우릉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자기 아들의 장래를 두고 이리 생각, 저리 생각을 해오던 그의 부모들은 어느날 아들을 대성산무술터에 보내여 무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우릉에게는 부모들이 애지중지 길러온 한필의 말이 있었고 대대로 물려오는 투구와 단검이 있었다.

그러나 무술을 닦는것이 한두자루의 검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여서 대성산무술터로 떠나기 앞서 장검 한자루를 더 갖추어보내려고 그의 부모들은 우릉을 저자거리로 보냈다.

우릉이 장검을 한자루 사가지고 말을 타고 돌아오고있을 때였다.

한 처녀가 길을 건느려다가 말을 타고오는 우릉을 보고 옆으로 비켜서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 순간 우릉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처럼 아릿다운 처녀를 오늘 처음 보았기때문이였다.

우릉은 한순간 처녀에게 눈길이 쏠려있었다.

처녀앞을 스쳐지난 우릉이 얼마쯤 가다가 말에서 내리여 사뿐사뿐 걸어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한동안 여겨보니 그의 손에는 새붓 몇자루가 들려있었다. 아마 이곳에 와서 사가지고 가는 모양이였다.

우릉은 당장 처녀에게로 뒤좇아가 어디에 살며 이름은 무엇이냐고

말을 한번 건네고싶었으나 선뜻 용단이 나지 않아 가슴만 두근거릴뿐이였다.

낯모르는 처녀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것은 무례한짓이려니와 장차 무술을 닦자고 떠나는 첫길에서 극히 용납될수 없는 부질없는 놀음이라고 생각되여 하는수없이 설레이는 마음을 누잦히였다.

우릉은 집을 떠나 대성산무술터로 들어간지 수십여일이 지나갔어도 그 처녀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우릉이 말을 타고 산발을 오르내리다가 어느 한 산기슭의 절벽가를 지날 때였다.

절벽을 감돌아흐르는 작은 내가결에 웬 처녀가 병풍같은 그림판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고있는것이였다.

때는 화창한 봄이라 푸르러진 산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있는데 그속에 잠기여 백학의 흰 날개와도 같은 팔소매를 가벼이 흐느적이며 그림을 그리는 처녀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 같지 않았다.

하늘에서 내린 선녀가 아닐가, 아니면 대성산의 신령이 처녀로 변하여 화창한 봄을 즐기는것이 아닌가.

샘같이 솟아오르는 의혹과 호기심이 동하여 우릉은 그앞으로 말을 몰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을 멈추느라고 고삐를 당기자 말이 그만 앞발을 들고 일어서며 골안이 울리도록 《호홍—》하고 울었다.

그러자 그림을 그리던 처녀는 놀라 머리를 돌려 불현듯 나타난 우릉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처녀의 눈길과 마주친 우릉의 가슴엔 놀람과 기쁨이 솟구쳐올랐다.

아,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 처녀는 우릉이 그처럼 보고싶어하던 저자거리에서 보았던 그 처녀였다.

우릉은 한동안 못박힌듯 말우에 앉아 내려다보기만 하였다.

그 처녀가 녀자의 몸으로 이런 깊은 산중에 나타난것이 못내 믿음이 가지 않았던것이였다.

한참만에야 우릉은 말에서 내리여 처녀의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전에 저자거리에서 붓을 사가지고 가

던 처녀가 아닌가고 물었다.
처녀는 우릉을 이윽히 눈여겨보더니 낯이 익다는듯이 상긋이 웃음을 지으면서 말없이 머리를 살짝 끄덕이는것이였다.
우릉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먼저 처녀에게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되여 이곳까지 왔는가고 물었다.
처녀는 우릉의 물음에 다정하게 대답해주었다.
처녀는 평양의 어느 한 농가에서 살고있는데 이름은 소미였다.
소미는 늙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 외적의 무리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희생되였다.
소미가 철이 들자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대성산에 들어가 무술을 닦고 앞으로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성산에 들어오니 그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우선 그림을 그리는 법부터 배우라고 하므로 짐승들이 물먹으러 내려오는 내물가에 와서 그림을 그린다는것이였다.
한동안 처녀의 말을 들은 우릉도 자기가 대성산의 무술터로 올라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우릉과 소미는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내가를 거닐기도 하고 고운 꽃을 서로 꺾어주면서 즐겁게 놀았다.
절벽가에 저녁노을이 비껴들 때 우릉은 소미와 헤여지기에 앞서 그에게 백년가약을 청원하였다.
소미는 머리를 숙인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우릉이 다시 재촉해서야 소미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다른 마음이 없으나 인륜대사인 혼인문제를 어찌 부모의 허락없이 기약하겠는가고 하면서 서로 무술을 다 닦고 돌아가는 날 두 집 부모에게 허락을 받자고 하였다.
우릉은 소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앞으로 무술을 닦고 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소미도 우릉의 마음과 같이 굳은 언약을 다지였다.
우릉은 소미의 부드러운 두손을 굳게 잡고나서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겨 헤여졌다.
다음날 우릉은 또다시 소미를 만나려 절벽밑 시내가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았다. 우릉은 그가 무슨 일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나저제나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말타기 련습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한낮이 기울 때에도, 황혼이 짙어갈 때가 되여도 소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릉은 그가 자기를 골려주느라고 우정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단정하고 다음날 다시 그곳으로 갔다.

그날도 늦도록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련사흘동안 기다렸으나 소미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우릉의 가슴속에는 울화와 함께 좋지 못한 생각이 들었다.

(소미가 나를 희롱하고 속인것이나 아닌가. 녀자의 마음이란 하루에도 열두번 변한다더니 혹시 소미도 그런 녀자가 아닌가.

그렇다, 소미는 진정 나를 사랑하려는 처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이렇게 온다간다는 말없이 종적을 감추어버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우릉은 다시는 소미를 찾지 않고 그를 잊어버리리라는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마음은 몹시 괴로왔다.

아무리 생각지 말자고 하여도 그 아름다운 처녀를 정녕 잊을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릉은 그 무슨 묘한 방법을 쓰면 소미를 만나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였다. 며칠동안 모대기던 그는 문득 깨달은바가 있었다. 그것은 소미가 자기 스승의 말대로 짐승을 그린다는 실머리였다. 우릉은 소미가 자기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짐승을 찾아 어디에서나 헤매일것이라고 생각되자 짐승의 목에다 편지를 걸어 보내리라 마음먹었다.

우릉은 이어 짐승이 많이 다니는 곳에 덫을 놓아 작은 노루새끼 한마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편지를 한장 써서 노루의 목에다 유표나게 매여서 놓아주었다.

편지를 띄운 이후로 우릉은 아예 소미의 생각을 잊고 무술련습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우릉은 어느덧 말타고 달리는 수법을 다 배우고 다음은 활쏘기를 시작하였다.

활쏘기는 움직이지 않는 과녁으로부터 움직이는 과녁을 명중시키는 련습을 익혀나갔다.

움직이는 과녁을 쏘기 위한 련습은 날아가는 까마귀를 쏘는것이였다.
우릉은 나는 과녁인 까마귀를 쏘려고 대성산기슭에 내려왔다.
그가 여러대의 화살을 날려 날아가는 까마귀를 보기 좋게 쏴떨군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까마귀의 다리에 무엇이 두툼하게 감겨 있었다.
손칼을 꺼내여 헤쳐보니 그것은 소미의 편지였다.
우릉은 너무도 기쁜김에 편지장을 보고 읽기도 전에 두손에 쥔채 풀밭에 마구 딩굴었다.
편지의 사연은 이러했다.
먼저 한장의 소식도 전하지 않으려 하다가 노루목에 달린 기이한 편지를 보고 답장을 보내지 않을수 없기에 붓을 들었다고 했다. 다음에는 자기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사라지게 된 사연을 썼다.
한번, 두번 만날수록 더욱더 만나고싶고 하루, 이틀 갈수록 깊어만지는 사랑에 빠지면 도를 닦으려 나선 두사람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어려울것 같기에 처녀의 얕은 생각에 경박한 속단으로 례의없이 사라졌음을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절벽밑 시내가에서 다진 뜻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자기를 잊어달라고 하였다.
소미의 편지를 다 읽고난 우릉은 자책감으로 가슴이 저려났다.
아! 소미는 얼마나 기특한 처녀인가.
(도를 닦으려 산중에 들어온 내가 사랑에 빠져 부모님의 소원도, 평양사람들의 기대도 저버리고 또 원쑤들에 대한 복수심도 잊었으니 이 얼마나 비루한 인간인가.)
그렇다, 도를 다 닦기 전에는 소미를 찾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한 우릉은 그날부터 무술을 닦는데 모든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어느덧 3년 석달이 되는 날이였다.
우릉은 그해 3월 3일에 나라에서 열리는 무술경기에 나가게 되였다.
우릉이 무술경기에 참가하는것은 더없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 경기에서 우승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하는데 따라 이미 닦은 무술의 성과여부를 판정받는것으로 되였기때문이였다.
드디여 무술경기가 시작되였다.

우릉은 경기에 출전하여 매 종목에 걸쳐 여러 적수들을 이기고 단연 우승자로 뽑히여 올라갔다.
우승자들끼리 승부를 다투는 마지막경기는 말타고 사냥을 하여 누가 많은 짐승을 잡아오는가 하는것이였다.
이 마지막경기에도 수십명의 무사들이 참가하였다.
우릉은 마지막결승경기인 사냥터로 말을 몰았다. 수림속으로 펴그나 달려들어갔으나 그렇게 많던 짐승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혹시 한마리도 못 잡고 돌아가게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앞을 살피고있는데 큰 송아지만 한 누런 사슴 한마리가 옆으로 스쳐지나가고있었다.
우릉은 말에 박차를 가해 따르면서 활을 쏘았다.
그러나 이 나무, 저 나무틈으로 살살 빠져달아나는 사슴을 도저히 맞힐수가 없었다. 날리는 화살은 나무에만 박히였다.
더욱 난처하게 된것은 이곳저곳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달려와 자기가 발견했던 사슴에게로 화살을 날리는것이였다.
그들도 우릉이와 마찬가지로 짐승을 찾아 헤매이다 모두 한곳에서 사슴을 보자 달려들었던것이다.
저마다 먼저 잡으려 화살을 마구 날리였다.
그러다나니 얼마 안돼서 벌써 화살이 떨어져 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 하나 둘 물러서게 되였다.
우릉은 화살을 아껴가며 쏘았으나 사슴은 수림속을 벗어나 높은 산발을 타고 달리였다. 얼마 안 가서 그의 화살도 밑창이 났다.
그는 하는수없어 장검을 뽑아들고 쫓았다. 사슴은 사냥군들의 추격에서 벗어나려고 가파롭고 험한 산발을 타고 올려뛰였다.
바위와 덩굴로 엉킨 산발로 말을 몰기가 여간이 아니였다. 급한 경사에 오르다 미끄러져내리거나 돌을 헛디디여 경사로 굴러내리는 사람이 한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더 따를 생각을 잃고 물러나거나 다른 짐승을 찾아 달리였다.
이제는 우릉이 혼자 남았다.
우릉은 이제는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였다.
화살도 없이 어디로 가서 짐승을 잡는단 말인가.

우릉은 복잡한 생각에 잠겨 망설이다가 단호한 결심을 가지였다.
(어떻게 하나 저 사슴을 잡아야 한다. 저것을 못 잡으면 경기에서 패배자로 되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니 그렇게 되면 부모를 볼 낯도 없거니와 사랑하는 소미를 어떻게 만날수 있겠는가. 소미는 성공하는 날에야 나타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릉은 말고삐를 바싹 당겨쥐고 말을 올려몰았다. 드디여 사슴을 따라 산정점에 올랐다. 산마루에 오른 사슴은 더 갈데가 없어 그 자리에서 맴돌고있었다. 이때를 놓칠세라 번쩍이는 장검을 휘두르며 사슴한테로 덮쳐들었다.
사슴은 어쩔수 없어 절벽아래로 뛰여내렸다.
뛰여내린 절벽을 보니 수십길이였다. 우릉은 위험을 가늠할 경황없이 말에서 내리여 절벽아래로 몸을 던졌다.
절벽아래의 덤불속으로 떨어진 그는 칼로 덤불을 헤치며 사슴을 찾았다.
누런 사슴은 덩굴에 목이 감기여 꼼짝하지 못하고 동그란 눈으로 우릉을 마주보고있었다.
우릉은 칼을 들어 내려치려다가 어쩐지 말똥말똥 쳐다보는 사슴을 차마 죽일수가 없어 산채로 잡으려고 사슴을 끌어안았다.
큰 사슴은 꼼짝 못하고 우릉에게 잡히였다.
우릉은 사슴을 메고 절벽우로 올라가 말우에 싣고 돌아왔다.
우릉이 송아지만 한 사슴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경기장에 나타나자 경기장안의 사람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환호를 울리였다.
경기장입구에서 두손을 높이 들어 환호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였다.
우릉은 승리자의 긍지높이 경기장을 한바퀴 돌면서 행여나 소미가 그속에 있지 않는가 하고 살폈으나 보이지 않았다. 오늘의 이 성공을 소미가 모르고있지나 않는가.
어서 소미를 만나 이 기쁨을 나누고싶었다.
우릉은 표창을 받으려고 임금앞에 나갔다.
그는 임금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의 성명을 아뢰였다. 그리고 자기가 잡은 사슴을 바치려고 일어나 사슴한테로 갔을 때였다.
사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선녀처럼 옷을 갈아입은 녀인이 서있었다.

우릉이 순간 영문을 몰라 서있는데 그 녀인이 우릉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왔다.

우릉이 의아해서 다가오는 녀인을 바라보니 그 녀인은 바로 소미였다.

우릉은 너무 기뻐 임금앞이라는것도 잊고 소미의 이름을 부르며 마주다가가 소미의 손을 꽉 쥐였다.

소미는 그간 둔갑술을 배워 이날에 사슴으로 되여 무술을 겨루는 사람들앞에 나타났던것이다.

이날 무술을 닦아 경기에서 일등을 한 우릉과 둔갑술을 훌륭히 배운 소미를 표창하고 나라의 장수로 임명하였다.

우릉과 소미는 언약대로 부모들을 찾아가 자기들의 소원을 청하였다. 두 집 부모는 이것을 하늘이 무어준 배필로 인정하고 쾌히 승낙하였다.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된 우릉과 소미는 그뒤에 평양사람들과 나라를 위하여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소미가 덤벼드는 외적들을 둔갑술로 유인해오면 우릉은 매복했다가 족쳐 남김없이 소멸해버렸고 외적들이 쳐들어와 도사리고있으면 소미가 둔갑술로 적진에 들어가 혼잡을 일으켜놓고 우릉이가 그 틈을 타서 들이치여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 정 설

천하장사의 운명

운흥군 심포리역에서 강기슭을 따라 7리가량 아래로 내려가느라면 《일건》이라는 작은 산골마을이 나진다.

이 마을 한켠에 치우쳐 사품치며 흘러내리는 강기슭에는 깎아지른듯 한 장수바위가 우뚝 솟아있는데 그 중간쯤에는 아직도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임금 왕(王)자모양의 집채만 한 글이 새겨져있는것을 볼수 있다.

바위에 새긴 그 엄청난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40여호의 농가가 자리잡고있던 이 산골마을에 박문생이라고 하는 량반이 살고있었다. 그에게는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름름하게 생긴 세 아들이 있었다. 그중 셋째인 춘길은 형제들가운데서 인물이 제일 잘나고 문장도 능하였으며 지혜 또한 뛰여났다.

박문생은 춘길이가 장성하여 성년이 되자 각별히 문벌이 좋은 집 색시감을 골라 며느리를 삼은 다음 재산도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었다.

셋째아들 춘길은 박씨문중의 자랑이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단잠에서 깨여난 춘길의 안해는 남편이 잠자리를 비운것을 보고 한참이나 기다리다가 다시 잠에 들었다.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자고있는 남편의 옷이 밤이슬에 함뿍 젖어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벗어놓은 두루마기자락도 역시 젖어있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가?…)

춘길의 안해는 가슴이 섬찍하였다. 이런 일이 그후에도 여러번 있었다.

어느날 그는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 명주실타래를 풀어서 그 한끝을 두루마기자락에 매여놓은 후 자리에 누워 동정을 살폈다.

밤이 이슥하여 3경쯤 되니 남편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 소리없이 옷을 차려입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녀인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실오리를 따라 조심조심 남편의 뒤를 밟아나갔다. 시오리가량 지나 장수바위밑에 이른 춘길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리였다.

녀인은 바위짬에 몸을 숨기고 남편의 그러한 거동을 가슴조이며 바라보았다.

이윽고 춘길은 두루마기를 벗어 돌밑에 감추고 번쩍거리는 갑옷과 투구를 꺼내입는것이였다.

눈깜짝할 사이에 갑옷, 투구를 갖추고 검을 비껴든 그는 잠시 북두칠성을 향하여 무슨 주문같은것을 외우고나서 《룡마야! 나오너라!》 하고 웨쳤다.

이어 《어흐흥―》 하는 울부짖음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더니 흰 룡마가 은빛갈기를 날리며 춘길이앞에 와서 멎었다.

비호같이 몸을 날려 말등우에 뛰여오른 춘길이가 고삐를 잡자 땅을 걷어차고 뛰여오른 룡마는 바람을 가르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사방으로 달리였다.

우뢰같은 함성이 들려오고 검들이 서로 쟁강쟁강 부딪치는 소리도 요란하였다. 정신을 가다듬고 살피니 여러 장사들이 어울려 돌아가는것이 분명 보이였다.

억센 손에 쥐여진 검이 한번 무지개를 그리면 산악같은 바위도 뭉청뭉청 동강나고 무성한 숲속을 뚫고나가면 아름드리나무들도 삼대 쓰러지듯 하였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혼이 다 날아나는것 같던 녀인은 제정신이 들자 천방지축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얼마후에는 춘길이도 방에 들어섰다. 그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옷을 훌훌 벗고 안해옆에 눕자마자 이내 깊은 잠이 들었다.

녀인은 남편에게 자기가 본 모든것을 묻고싶었으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 감히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달나마 혼자 속을 태우던 그는 그 사연을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다.

박문생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펄쩍 뛰였다.

지혜와 용맹이 남다르게 뛰여난 사람은 반드시 의심을 받았고 또 만일 남몰래 하는 일이 있으면 덮어놓고 역적으로 몰리기마련이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박문생은 그날 저녁에 춘길을 조용히 불러앉히고 요즈음 밤마다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정직한 춘길은 아버지를 속일수 없어 사실대로 공손히 말하였다.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제 죄가 큽니다. 이 불효자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여왔습니다. 저는 여덟살이 되는 해 생일날에 하늘을 살피다가 상서롭지 못한 조짐을 보았습니다. 그때 동쪽하늘에서 살별이 어지러이 날아오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장차 외적이 우리 나라를 침노하리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있을 국난에 대처하려고 무예를 힘써 닦았고 드디여 천기를 받아 오묘한 도를 통했습니다.》

박문생은 아들이 하는 말을 신기하게 들었으나 그럴수록 마음이 불안하였다.

《아서라, 네가 남몰래 무술을 닦는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멸문지화를 면할수 없느니라. 그뿐이 아니다. 이 부근 몇개 마을의 애매한 백성들도 무서운 화를 당하게 될것이다. 아, 어찌하면 좋을지 나도 알수 없구나.》

춘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안되여 누가 먼저 알고 퍼뜨렸는지는 알수 없으나 춘길이가 밤마다 남몰래 무예를 닦고있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갔다. 그 소문은 한입건너 두입건너 전파되다가 마침내 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였다.

사또는 형방에게서 그 말을 듣자마자 펄펄 뛰며 춘길을 잡아 대령하라고 호령하였다.

그리하여 춘길은 붙잡혀와서 사또앞에 꿇어앉게 되였다.

《네 이놈,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뼈마디가 물러날줄 알아라.》

사또는 퉁방울같은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였다.

《네 감히 임금을 업수이 여기고 불효막심한짓도 서슴없이 한다니 그게 사실이냐? 이놈, 네가 반역을 꾀하여 밤마다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내 다 알고있다. 곧이곧대로 실토하지 않으면 주리를 틀리라.》

춘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껄껄 웃었다.
《대장부 세상에 나서 무예를 닦음은 국난이 있을 때 팔을 뽐내여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저 함이니 그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된단 말이오니까? 만일 다른 뜻을 품었을진대 마땅히 도당을 모아 은밀히 일을 꾸미고 행할것이옵니다. 하지만 소생은 오로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무예를 닦기에 힘썼을뿐이옵니다.》
《어어, 괴이한지고. 이 태평성대에 국난이란 무슨 말이냐.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매고 되우 치라!》
사또의 령이 떨어지자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춘길을 형틀에 매고 참나무몽둥이로 사정없이 쳤다. 그러나 춘길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웬일인지 매를 치다가 몽둥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망연히 서서 가쁜숨을 쉬였다. 바위돌을 치는것이나 다름없이 손바닥만 얼얼하였던것이다.
그제야 사또는 춘길이가 보통사람이 아님을 알고 다른 수를 썼다.
음흉한 이자는 춘길의 아버지를 잡아들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독한 매를 치게 하였다.
춘길의 가슴은 말할수없이 쓰리고 아팠다.
《밝고밝은 하늘이여, 굽어살피시옵소서. 이 불효한 자식의 불찰로 생을 준 부친이 곤욕을 당하오니 오장이 찢기는것 같나이다. 차라리 이 몸에 천벌을 내려주소서.》
피눈물을 뿌리는 사나이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며 울려퍼지였다. 그 애끊는 울음소리에 산천초목도 슬픔을 안고 몸부림치는것 같았다.
춘길이 한번 요동하니 바위같은 몸을 칭칭 감고있던 쇠바줄이 썩은 새끼처럼 맥없이 끊어져나가고말았다.
그의 목을 친 칼도 무쇠에 부딪치는 소리를 내더니 두동강이가 나서 땅에 떨어졌다. 형리는 칼의 손잡이만 쥐고 어리둥절하여 서 있었다.
춘길은 우뚝 일어서서 사또를 노려보았다.
이때 박문생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춘길아, 이 자식아, 네 어쩌자고 그러느냐. 정말로 반역의 중죄를 쓰고싶으냐?》

문생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부르짖었다.
《아버님, 제가 어찌 반역의 루명을 쓰고 멸족의 화를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불효자 춘길은 부모님의 하해같은 은덕을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하고 오늘 부득이 하직을 고하옵니다.》
춘길은 길숙이 허리굽혀 절을 하고 피눈물을 뿌리며 말을 이었다.
《나라를 위하여 이 한몸 바칠 마음으로 지금껏 힘을 키워왔건만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부디 옥체를 보중하십시오.》
다시한번 허리굽혀 절을 한 그는 돌아서서 사또를 바라보았다.
사또는 앉은자리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거리였다.
그 모양을 보고 춘길이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소생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은즉 인력으로 죽이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여 씻을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지라 소생은 한많은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옵니다. 저릅대(삼껍질을 벗기고 남은 삼대)로 여기를 치도록 하면 소생은 죽으리이다.》
그는 오른손으로 왼쪽겨드랑이밑의 날개를 쳐들고 비늘이 덮이지 않은 살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에 소생의 명을 끊을수 있는 줄이 있나이다. 하오나 한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 들어주시기 바라옵니다. 소생이 죽은 후에 붉은 팥 한말을 같이 묻어주옵소서. 때가 되면 그 팥알들이 천병만마로 변신하여 외적을 물리칠것이옵니다. 그러면 소생도 지하에서 마음놓고 눈을 감겠나이다.》
말을 마친 춘길은 왼팔을 쳐들고 형리더러 저릅대로 겨드랑이를 찌르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악스러운 형리도 감히 다가들지 못하고 주저주저하였다.
형리는 어서 찌르라고 춘길이 재촉하니 소심하게 몇발자국 걸어와서 저릅대로 그의 겨드랑이밑을 슬쩍 찔렀다.
형리가 겁에 질려 저릅대를 버리고 뒤로 물러나는데 억대우같은 춘길은 그 자리에 맥없이 쓰러졌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풍채가 름름한 장사 여섯이 급히 달려와서 춘길의 몸을 흔들어대였다.
춘길은 가까스로 눈을 뜨고 그들을 한번 둘러본 다음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것을 보고 한 장사가 9척이나 되는 저릅대를 골라 춘길의 앞에 세워놓고 세번을 오르내리라고 말하였다.
춘길은 자기앞에 세워놓은 가느다란 저릅대를 두번이나 순식간에 오르내렸지만 세번째에는 끝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떨어졌다.
《아, 천하장사의 운명이 이렇게 끝난단 말이냐. 애석하고나, 애석하고나.》
쓰러진 춘길이를 앞에 놓고 길게 탄식하는 장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리였다.
여섯장사는 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더니 잠시 지나 어데론가 사라졌다.
이때 땅바닥에 엎드려있던 춘길은 마지막힘을 모아 몸을 솟구쳤다. 그는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장수바위중턱을 향하여 날아올랐다. 그가 손을 한번 번쩍하자 집채같은 바위가 뭉청 달아났다.
그는 기적같은 힘으로 커다란 글 한자를 새기고 손을 깨물어 피를 내더니 그 붉은 피로 글자를 물들이여 그것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였다.
춘길은 마지막으로 나서자란 정든 마을을 굽어보고나서 고요히 눈을 감았다.
돌연 세찬 바람이 불고 하늘에 검은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하였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지를 뒤흔들며 우뢰가 울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하늘중천에서 주인 잃은 룡마의 구슬픈 울부짖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사람들은 비길데없이 장한 포부와 의기높은 뜻을 펴보지 못한채 너무도 억울하게 세상을 하직한 춘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그의 유언대로 붉은 팥 한말을 묘지에 묻어주었다.
외적이 쳐들어오리라는 춘길의 예언은 틀림이 없었다. 그가 죽은지 얼마 안되여 수많은 도적무리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던것이다.
그동안 고였던 붉은 피가 말라 거멓게 된 글자는 외적이 쳐들어오니 다시 살아나 붉게붉게 타올랐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뢰 울고 번개가 치며 룡마를 탄 무수한 신장들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문득 외적의 진중에 벼락이 내려 수십명이 급살을 맞았다.

이에 몹시 겁을 집어먹은 놈들은 싸움도 벌려보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치고말았다.

몇년후에 외적들이 다시 쳐들어왔다.

그때 놈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박춘길의 묘가 있는 곳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 흉악한 도적들은 천하장사 박춘길의 묘지에 다섯자 아홉치나 되는 굵은 참대말뚝을 박았다.

말뚝이 한뽐쯤 남게 되자 묘지에서는 갑자기 붉은 피가 왈칵 솟구쳐올랐다. 그리고 금시 살아나서 불타오르던 글자는 다시 거멓게 되여 빛을 잃었다.

이 묘지에서는 아흐레동안이나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고 한다.

지금도 박춘길의 묘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한쪽모서리가 패인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진한 피가 시내물처럼 흘러내리면서 흙을 파간 자리라고 전해온다.

리 창 남

장선강과 숭화산

평남 은산벌을 흐르는 장선강의 유유한 흐름과 그 맑은 물결우에 그림자를 비끼고있는 숭화산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이 강과 산에 대한 전설 또한 들어볼만 하다.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이다. 은산지방 원암이란 부락에는 겹겹이 열두담을 둘러치고 왕궁같은 고대광실에서 한 지주가 살고있었다. 그 집은 마나님과 시라소니같은 도련님 그리고 수십명을 헤아리는 첩들로 하여 매양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주인은 워낙 린색한이라 그처럼 번잡한 집에 장선이라는 머슴총각 하나밖에 두지 않았다.

지주는 총각머슴을 밤낮으로 마소같이 부려먹으면서도 오히려 《상놈들이란 량반의 세곱은 먹느니.》 하고 욕만 했다. 여하간 이놈이 얼마나 린색한가 하는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그 집 도련님은 세상만사가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미물인데 그래도 모든 학문은 자기라야 아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도련님을 위해 지주는 앞산에 도학당을 지어주었었다. 허나 실은 도학당이라기보다 도련님의 낮잠과 술놀이터였다.

왕가물이 들었다. 가물은 해마다 거듭되였다. 거북잔등처럼 말라터진 논밭에는 나오다만 곡식순들이 말라타져 열풍에 하느적이였다.

백성들은 요행을 바라며 하늘에 빌었다. 무수한 백성들이 굶어죽어갔다.

열두겹 담을 두른 지주집을 내놓고는 이 곡경을 겪지 않는 곳이란 없었다.

《원, 굶어죽다니, 밥이 없으면 누룽지라도 처먹을노릇이지.》

도련님은 워낙 상놈들이란 무식해서 굶어죽기마련이라고 생각하였다.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장선은 자기 처지와 마찬가지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스러워 견딜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장선은 도련님을 하늘소에 태우고 도학당으로 갔다. 날은 몹시 무더웠다. 나무에 매두었던 하늘소가 코구

멍을 벌름거리며 혀를 빼물고 세번째나 으흥소리를 질렀다. 장선은 낮잠을 자는 도련님의 얼굴에 부채질을 하고있었다. 한낮이 되자 해볕은 더욱 뜨겁게 내려쬐였다.

《에끼, 이놈이 어데서 더운 바람만 가져다 끼얹는구나!》

도련님은 벌떡 일어나며 장선이가 쥔 부채를 쳐 팽개쳤다.

《얘, 안장 얹어라. 가자! 어어 더워!》

장선이가 하늘소 있는데로 다가갔을 때 하늘소는 맥없이 주저앉았다. 하늘소는 땅에 코를 틀어박고 씩씩거렸다.

《그놈이 왜 그러는거냐?》

도련님에게는 이상스럽게 생각되는 모양이였다.

《목이 타는가봅니다, 도련님.》

《타면 꺼야지.》

《물이 있어야지요.》

《어허허, 하늘소도 량반처럼 물을 먹느냐?! 허, 안될 말이로고…》

장선이 하늘소를 일으켜세우려 했으나 허사였다.

하늘소는 재빛으로 변한 혀를 빼물고 애원하듯 장선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샘터에라도 가보겠나이다.》

대답도 않는 도련님과 죽어가는 하늘소를 두고 장선은 샘터로 달려갔다.

그러나 샘터는 뽀득뽀득 말라있었다. 정수제(정한물을 떠놓고 제사를 지내는것)를 지내던 백성들의 물그릇마저 말라있었다. 장선은 두손을 모아쥐고 눈을 감았다.

(비를 주옵소서! 불쌍한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장선은 애원하듯 빌었다.

《저런 죽일 놈, 더워죽겠는데…》

이 광경을 바라보던 도련님이 화가 부쩍 올라 물푸레몽둥이를 거머쥐였다.

이때였다.

난데없는 매지구름 한점이 장선의 머리우에 낮게 떠 가느다란 보슬비를 뿌리더니 이윽고 오색령롱한 무지개가 뻗어내렸다. 도련님은 장선이가 두손을 다시한번 벌렸다 모으며 머리를 숙이는것을 보았다. 그런데 오롱차를 탄 아름다운 선녀가 바로 장선이의 앞에 내렸다.

《이것이 웬 떡인고…》
도련님은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장선이와 마주선 선녀를 향하여 달려갔다. 허나 그때에는 이미 장선이가 선녀와 같이 오룡차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도련님은 오룡차에 오를 때의 장선이와 선녀가 하는 마지막말만 들었을뿐이였다.
《숭화아씨, 도련님께 말해야 합니다.》
《옥황께 잠간 다녀오면 될텐데요.》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듯 하고 섰는 도련님을 뒤에 남기고 장선은 하늘에 올라갔다.
옥황앞으로 불리워간 장선은 머리를 못 들고 무릎을 꿇고앉았다.
《머리를 들고 금상에 앉아라.》
《소인은 상민으로 아뢰옵니다.》
옥황상제는 호탕하게 웃었다.
《여기는 존비귀천의 차이가 심한 지상국이 아니로다. 머리를 들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너의 마을에서는 무엇때문에 매일같이 한집도 빠짐없이 하늘에 제를 지내는고? 그래 오늘 너까지 제 지낸 회수가 천을 헤아려서 너를 부른것이로다.》
장선은 몸을 가다듬고 가물에 시달리고있는 자기 마을 농민들의 처지를 아뢰였다.
《알만하다. 참작하여 비를 줄것이로다.》
옥황은 친히 숭화를 불러 비를 내리우라 분부하고 장선에게 며칠 쉬여가기를 권하였다.
《한시가 새로운데다가 도학당에 작은주인님을 두고왔나이다.》
《응, 그래 가겠단 말이지.》
옥황은 장선의 말을 이렇게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정히 그렇다면 가야지. 한데 너의 정직함을 기특히 여겨 상을 주겠노라. 그리고 나의 막내딸 숭화와 짝을 무어주고싶은데 너의 의향은 어떠하냐.》 하고 말했다.
장선은 옷깃을 여미며 옥황이 주는 상으로는 인간에게 줄 비로써도 너무나 충분하다고 아뢰였다. 옥황은 무릎을 치며 장선의 사람됨에 크게 감탄하였다.
《기특한 인간이로고!》
드디여 떠나는 장선에게 옥황은 지팽이 하나를 선물로 주었다.

《이 지팽이로 하늘을 향해 한번 휘두르면 비가 올것이고 두번 휘두르면 비가 멎을것이로다. 간수를 잘하라. 만약 잃어버리게 되면 비는 한량없이 내릴것이로다.》

장선은 옥황의 말을 심중에 새겨넣었다.

오룡차를 탈 때 선녀 숭화가 방긋이 눈인사를 보냈다.

《나는 당신의 사람됨에 크게 탄복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속에는 인간에 대한 나의 지성도 적게나마 포함되였음을 생각해주세요.》

사랑에 찬 정기있는 숭화의 눈에서는 장선에 대한 련모의 정이 흘러넘쳤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행복에 찬 백성들의 얼굴을 보고싶습니다. 자, 그럼…》 하고 장선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장선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다. 죽어가던 하늘소는 보슬비를 맞으며 생기있게 가듬가듬 풀을 뜯고있었고 도련님은 도학당에서 비를 긋고있었다.

《저런 놈 보라니. 누가 주인허락도 없이…》

도련님의 볼은 두꺼비잔등처럼 부어있었다. 장선은 그러지 않을수 없었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하였다.

《암, 상민으론 안되지. 선녀에게… 말이 되나.》

숭화에게 장가들 의향을 묻던 대목에 장선의 이야기가 미치자 도련님은 자못 흥분하여 부르짖었다.

《그래, 지상에 박식하고 도량이 넓으신 도련님이 계신다는걸 얘기했냐?》

숭화 이야기를 스치고 다음 말을 시작하려는 장선에게 도련님은 돼지멱따는 소리를 질렀다.

《황송하오나…》

《저런 미친 놈, 그래 선녀대신 막대꼬챙이 하나를 가져온단 말이냐?》

도련님은 벌떡 뛰쳐일어났다. 화가 머리끝까지 동한 도련님은 장선이 가슴속에 품은 지팽이를 손쓸 사이도 없이 나꿔채서 두동강으로 꺾어버렸다.

…천둥이 울고 폭풍이 휘몰아치며 창살같은 물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졌다. 도학당이 무너앉았다.

《장선아, 하늘소를 메워라! 량반 죽는다.》

《하늘소는 벌써 떠내려갑니다!》

장선의 말은 격노에 떨렸다. 드디여 장선이와 도련님을 밀고 산같은 물결이 열두대문 량반집을 휩쓸었다.

노호한 물결은 게딱지같이 누벼있는 백성들의 초가부락으로 향했다.

《내 한몸 죽는건 한이 없사오나 저 부락 사람들만은 구원해주옵소서.》

장선은 자기의 죽음보다 수많은 부락농민들의 목숨을 념려했다. 사정없는 물결우에 장선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울렸다.

이때였다. 내리꽂히는 창살같은 비줄기사이로 희미한 무지개가 뻗치더니 떨어지듯 숭화가 달려내려왔다. 허나 무심한 물결은 장선을 내여주지 않았다. 장선은 량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원통하게 죽어갔다.

울분을 억제하며 숭화는 민가부락을 향하려는 물결을 막아 치마를 펼치고 서서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념원인 백성들의 안전을 하늘에 대고 빌었다.

그리하여 백성을 위하는 산처럼 높고 고결한 장선의 마음을 담아 숭화의 몸은 산으로 되여 물을 막아서게 되였다.

《하느님, 량반 살려주.》

반물귀신이 된 량반과 마나님의 애걸에 《량반때문에 장선이 죽었다!》 하는 구원된 백성들의 원통한 목소리가 거연히 물을 막아선 숭화산으로 메아리쳐갔다.

세월은 흐르는 물줄기와 함께 흘렀고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장선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맑은 물결우에 비낀 숭화산의 그림자를 씻어 흐르는 장선강은 장선이가 원통하게 죽어간 《원통》이란 부락을 에돌아 지금도 쉬임없이 흐르고있다.

모 래 봉

옛날에 평양성안 설암리라는 곳에 《초신집로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늙은이가 살고있었다. 그는 이름그대로 벼짚을 구해다가 초신(짚신)을 삼아 팔아서는 그날그날을 살아가고있었다.

그러나 워낙 초신값이 헐값이라 그것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그래 로인은 늘 초신을 삼으면서 벼짚에 한두알씩 붙어있는 벼알을 골라내여 깨진 바가지에 모아서는 그것으로 끼니를 보탬하군 했다.

《이런 놈의 세상, 언제나 배곯지 않고 살아보누?》

초신집로인은 입버릇처럼 이 말을 외웠으나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기만 하였다. 새로 내려오는 감사마다 새로운 토색질을 궁리해가지고는 백성들의 등을 치는 바람에 감사가 바뀐다는 말조차 몸서리가 쳐지군 했다.

그런데 하루는 평양성안에 이런 풍문이 돌았다. 성안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오는 큰 련못이 있었는데 평안감사가 정자를 짓는답시고 이 련못을 메운다는것이였다. 로인은 이 말을 듣고 여간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살림이 구차하여 비록 남들처럼 좋은 옷차림으로 련못가를 한가히 거닌적은 없었으나 조상대대로 물려온것으로서 로인에게도 이 련못은 무척 소중하였던것이다.

어느날 로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웬 백발이 성성한 로인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다름아닌 련못을 지키는 황룡이라면서 한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다는것이였다. 황룡은 련못에 물이 마르고 자기의 등골이 물에 뜨거들랑 평안감사가 장사들을 시켜 자기를 쏘게 할터인데 그때를 빌어 슬그머니 돌아서서 《퉤.》 하고 침을 뱉어달라고 하였다.

다음날 로인이 련못가로 나갔을 때는 벌써 황룡의 등골이 드러났다고 야단들이였고 평안감사는 장사들을 불러 활을 겨누도록 호령하고 있었다. 이 아슬아슬한 순간 초신집로인은 슬그머니 돌아서며 《퉤.》 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자 난데없는 구름장들이 몰려들더니 우르렁뚱땅 뢰성벽력을 하며 소나기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련못에 물이 차고 물이 차고나니 날은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맑게 개였

다.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평안감사는 련못 메우는 날을 정하며 수선을 피우던 풍수쟁이들을 붙들어다가 목을 자르고 각 고을의 풍수쟁이들을 모아 다시 택일하였다. 평안감사의 이 일은 두번세번 거듭되였으나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말았다.

이럴 때 초신집로인은 낮잠을 자다가 또 그 백발로인을 꿈에 만났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서 아무 날 아무 시에 대동강을 거슬러 흥부에 이르면 초신집로인을 찾는 사람이 있을터이니 만나라고 말하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지정한 날 초신집로인은 흥부까지 갔으나 자기를 찾는 사람은 고사하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수 없었다. 할일없이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자니 강기슭에 내버린 귀떨어진 단지 하나가 눈에 띄였다. 로인은 그저 스쳐지나가려다가 문득 벼알이라도 뜯어넣을셈 잡고 그것을 품에 넣어가지고 돌아왔다.

그 다음날 로인은 초신을 삼다가 그만 뜻밖의 일을 당하였다. 초신은 여태 한컬레밖에 삼지 못했는데 단지에는 벼알이 가득 차고넘쳤던것이다. 로인은 너무도 신기하여 급히 로친을 불렀다. 늙은이내외는 굶주려오던 참이라 우선 벼를 절구에 찧은 후 옥백미밥을 지어 배불리 먹고 또 신을 삼았다.

로인은 벼짚에 달린 벼알을 한알두알 뜯어내여 귀떨어진 단지에 담아가며 초신 한컬레를 삼고나서 단지안을 들여다보았다. 단지에는 이번에도 벼알이 수북이 담겨있었다. 그는 그제야 이것이 이 귀떨어진 단지의 조화임을 알고 벼를 자루에 옮겨담은 다음 빈 단지에 벼알을 몇알 떨어뜨려보았다. 그랬더니 그 벼알들이 귀떨어진 단지속에서 새끼를 치듯이 수북수북 불어나는것이였다.

초신집로인의 신기한 단지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성안에 퍼져갔다. 이 소식은 마침내 평안감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였다. 물욕이 강한 평안감사는 라졸들을 시켜 당장 그 귀떨어진 단지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라졸들이 초신집로인집으로 달려들었을 때는 이미 집주인도 그 귀떨어진 단지도 없었다. 라졸들이 들이닥친다는 기미를 알아차린 초신집로인이 단지를 안고 뒤문으로 빠져나갔던것이다. 집안을 벌둥지 쑤시듯 들추어놓은 라졸들은 주인이 뒤문으로 빠졌다는것을 눈치채고 뒤따르기 시작했다. 더는 피할수 없게 된 로인은 엎어지는척 하면서 단지를 모래무지속에 묻어버렸다.

라졸들은 로인을 평안감사앞으로 끌어갔다. 감사는 단지를 내놓으

라고 호령했다. 로인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감사는 그를 형틀에다 올려놓고 모진 고문을 다하였다. 그러나 로인은 이를 악물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고문은 점점 더 모질어졌고 마침내 초신집로인은 숨을 거두고말았다. 귀떨어진 신기한 단지는 영영 모래무지속에 묻히우게 되였다.

그 일이 있은 얼마후에 평양에는 난데없는 모래봉 하나가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래봉은 날마다 눈에 띄게 자라나더니 관아를 덮어버릴듯이 높이 솟아올랐다. 아직까지 못을 메우고 정자를 짓지 못한 평안감사는 모래봉을 헐어 련못을 메우라고 호령했다. 그러나 모래봉은 바위산보다도 더 굳어 도무지 헐어낼수가 없었다. 노발대발하여 공사를 맡은자들을 한바탕 꾸짖은 평안감사는 모래봉밑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찔하게 높이 솟은 봉우리를 한번 쳐다본 후에 《모래산을 못 헐어?》 하고 모래봉을 걷어찼다.

그러자 그 높은 모래봉이 일시에 눈사태처럼 와르르 무너지며 평안감사를 묻어버리고말았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았는데 그곳을 가리켜 평양사람들은 모래터(지금의 북새동일대)라 부르고있다.

손돌바람

《어이 추워,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어.》

《손돌이 죽은 날인게지.》

우리들은 흔히 추운 날이면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주로 경기, 충청, 호남일대에서 많이 듣는 말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도 들을수 있는 말이다.

그럼 도대체 손돌이란 어떤 사람인가? 손돌이는 고려때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바다가에서 배사공노릇을 하는 미천한 백성이였다. 성품이 강직하고 의지가 굳은 그는 자기가 한번 이렇다고 믿으면 그 신념이 결코 꺾이지 않는 대나무와 같이 곧은 사람이였다. 손돌은 또한 남달리 예리한 감각으로 바다의 조수상태와 기상상태를 귀신처럼 알아맞히군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한편 자존심도 남못지 않게 강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화창한 봄날이였다.

바다기슭에는 조개잡이하는 사람들이 하얗게 널려있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솔솔 불어와 조개잡이하는데는 안성맞춤한 날씨였다. 사람들이 한창 조개잡이에 흥이 나서 여념이 없을 때 어디선가 손돌이가 나타났다.

《자, 조개잡이를 그만두고 모두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는 바다가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게 웨쳤다.

조개잡이에 한창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저건 누군데 저런 미친 수작을 하는거야.》 하고 코웃음을 치며 아무도 손돌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 비바람이 삽시에 몰려올테니 빨리 돌아가시오. 큰일납니다!》

손돌은 더 한층 소리를 높여 웨쳤다.

《이 맑은 날에 비바람이란 웬 소리냐. 멀쩡한 미친 놈이로군.》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손돌은 안타까왔다. 시간이 박두하여오기때문이였다. 그는 하는

수없이 이제는 강제수단을 취하는 수밖에 딴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잠시후에 손돌은 어디선지 긴 회초리를 하나 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우선 욕을 먹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여놓고 봐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회초리를 맞습니다!》 하고 그는 손닿는대로 후려갈기면서 사람들을 기슭으로 몰아내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에게 항거하려 하였으나 회초리는 조금도 용서가 없었다.

손돌이의 회초리에 얻어맞은 사람들은 《아이구머니…》 하고 할수없이 달아났다.

사람들은 손돌이의 회초리에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다가 바다가 언덕우로 올라갔다.

이때였다.

난데없는 일진광풍이 일어나 하늘에 검은구름이 뒤덮이더니 주먹같은 비방울이 다듬이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천지가 뒤집힐듯 한 소리와 함께 산더미같은 해일이 밀고 들어왔다. 언덕우에 모였던 사람들은 황급히 더 높은 언덕우로 도망질하였다. 해일은 순식간에 해변을 집어삼키고말았다.

《손돌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다 죽을번 했네그려.》

사람들은 이제 와서는 입을 모두어 손돌이를 칭찬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이름난 배사공인 손돌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였고 먼바다에로 고기잡이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돌이에게 하늘의 조화를 묻군 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손돌의 죽음과 찬바람은 무슨 인연이 있는가?

고려의 어느 왕때에 있은 일이다.

한때 북방의 외적이 국내깊이에로 침입해들어오자 왕은 당황하여 수원을 데리고 수로로 한강을 내려가 우선 강화도로 피난가기로 하였다.

왕은 《배를 주선하고 배사공을 대령케 하라.》 하고 분부를 내렸다.

당시 유명한 배사공인 손돌이 사공으로 뽑혀나갔다.

떠날 준비가 되자 왕은 서둘러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강화도를 향하여 내려갔다.

외로운 한척의 배에 자기 운명을 의탁한 그는 이 길이 영원한 길로

될는지도 모를 비운을 한탄하면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있었다.
배가 하구를 지나 바다에 들어가자 거센 여울이 나타났다. 배사공은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여울쪽으로 배를 저었다.
굽이치며 맴도는 여울의 물결은 흔들거리는 배를 순식간에 삼켜버릴것 같았다.
왕은 그러지 않아도 심복인 신하에게 반역을 당한 몸이라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있는터였다.
그러나 사공은 계속 그 여울속으로 배를 저어갔다.
(저놈이 적과 밀통한자가 아닐가?)
왕은 이렇게 의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좌우를 둘러보며 근심스레 말하였다.
《저 여울속으로 배가 들어가면 위태롭지 않을가?》
신하는 곧 왕의 의사를 손돌에게 전하였다.
손돌은 서슴지 않고 《소인이 짐작이 있사오니 념려마시라고 여쭈옵소서.》 하고 대답한 후 계속 그 거센 여울을 향하여 배를 저어갔다.
왕은 배사공의 말이 더욱 의심스러워 불안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곳은 위태롭다!》
그러나 배사공은 조금도 왕의 분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배는 그 여울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저놈이 필연코 무슨 흉계를 품은게 분명하다.》
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윽고 추상같은 왕명이 내리였다.
《저 사공놈의 목을 베여라!》
그리하여 배사공은 왕의 앞에 꿇어엎디였다.
손돌은 뜻하지 않은 어명에 제 귀를 의심하였다. 그는 손끝만치도 죽을만 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기때문에 조금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다.
왕은 손돌을 굽어보며 호령하였다.
《이놈, 네 죄를 알겠느냐?》
《황공무지하오나 소인에게 무슨 죄가 있사오리까.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배는 사공이 다루는것으로 아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리치가 있고 땅에는 땅의 리치가 있으며 물에는 물의 리치가 있사오니 어찌

사물의 리치를 어길수 있사오리까. 물길을 따라야만 옥체를 무사히 모실것으로 아뢰옵니다.》
손돌은 태연자약하였고 왕은 노발대발하였다.
《이 당돌한 놈! 감히 여기가 어딘줄 알고… 이놈을 빨리 처리 못할가.》
문득 왕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손돌은 왕앞에 엎드린채 잠자코있었다.
좌우의 신하들도 반드시 왕의 말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표정은 아니였다. 아무도 선뜻 손돌의 목에 칼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손돌은 그래도 왕의 노염이 풀어질것을 기대하여 눈을 감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을 지리하게 기다렸다.
《저놈을 빨리 처단하지 못할가.》
손돌은 죽음을 각오하였다.
《굳이 대왕께서 소인을 의심하시여 죽음을 주신다면 소인에게 잠시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배밑바닥에서 바가지 한개를 가지고 나와 왕에게 사뢰였다.
《황공하오나 소인이 대왕을 모시고 예까지 와서 목적지를 지척에 두고도 끝까지 모시지 못하오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으오리까. 뜻하지 않은 협의를 입고 죽는것이 소인에게는 천추의 한으로 되오리니 죽은 후에라도 이 루명을 풀기를 원하는바이옵니다. 이 바가지가 소인을 대신하여 대왕을 모시게 될것이오니 물우에 띄우시고 배길을 찾아가시기 바라옵니다.》
그는 품안에 안고있던 바가지를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귀중한 보물처럼 여기면서 공손히 왕에게 바치였다.
그리하여 손돌의 생명은 마침내 아침이슬과도 같이 사라지고말았다.
물론 손돌이 대신에 다른 사공이 나서게 된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손돌이 죽자마자 갑자기 날은 혹독히 추워지고 난데없는 사나운 바람이 바다를 휩쓸었으며 파도가 거세여서 배는 마치 가랑잎같이 흔들리였다. 배에 탄 사람들은 추워서 벌벌 떨고 배사공은 갈피를 잡지 못해하였다.
왕은 당황하였다. 사태는 절박하였다. 배는 이제라도 뒤집힐듯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별도리가 없었다.
《배를 어떻게 젓는거냐?》 하고 왕은 사공을 몇차례나 꾸짖었다.

그러나 꾸중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였다.

배는 여전히 위태하게 그 자리에서 맴돌고있었다. 왕은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닌것을 느꼈다.

《바가지를 띄워보라.》

이윽고 바가지는 물우에 떴다. 바가지는 마치 산 물건처럼 물결을 타고 동실동실 떠내려갔다. 손돌이를 대신하여 노를 잡은 사공은 배머리에서 동실거리면서 떠내려가는 바가지를 따라 배를 저어갔다. 바가지는 아까 손돌이가 가던 그 거센 여울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이렇게 하여 왕을 태운 배는 무사히 대안에 도착할수 있었다.

그후 란은 곧 평정되였다. 왕은 손돌의 애매한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경솔함을 뉘우쳤다.

그리하여 왕은 손돌의 무덤앞에 사당을 짓고 손돌이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돌의 제사날에는 그가 죽은 날처럼 몹시 추웠으며 모진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여울목을 지나가는 배들은 난파를 당하군 하였다. 그래서 배사공들은 해마다 손돌이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주고 그의 넋을 위로하였다고 전하고있다.

이리하여 지금에 와서도 세상사람들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모질게 부는 날이면 《어이 추워, 손돌이 죽은 날갈구나.》라고 말하는것이라고 한다.

조선사화전설집 6

제 2 판

편　　집 김진옥
표　　지 리정호, 서상호
편　　성 윤승화
교　　정 박춘애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양종합인쇄공장－2
제1판발행 주체76(1987)년 5월 30일
제2판인쇄 주체101(2012)년 1월 5일
제2판발행 주체101(2012)년 1월 10일

ㄱ－16460　　　　값 125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466－4